

建築士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November 1991



대표 황 임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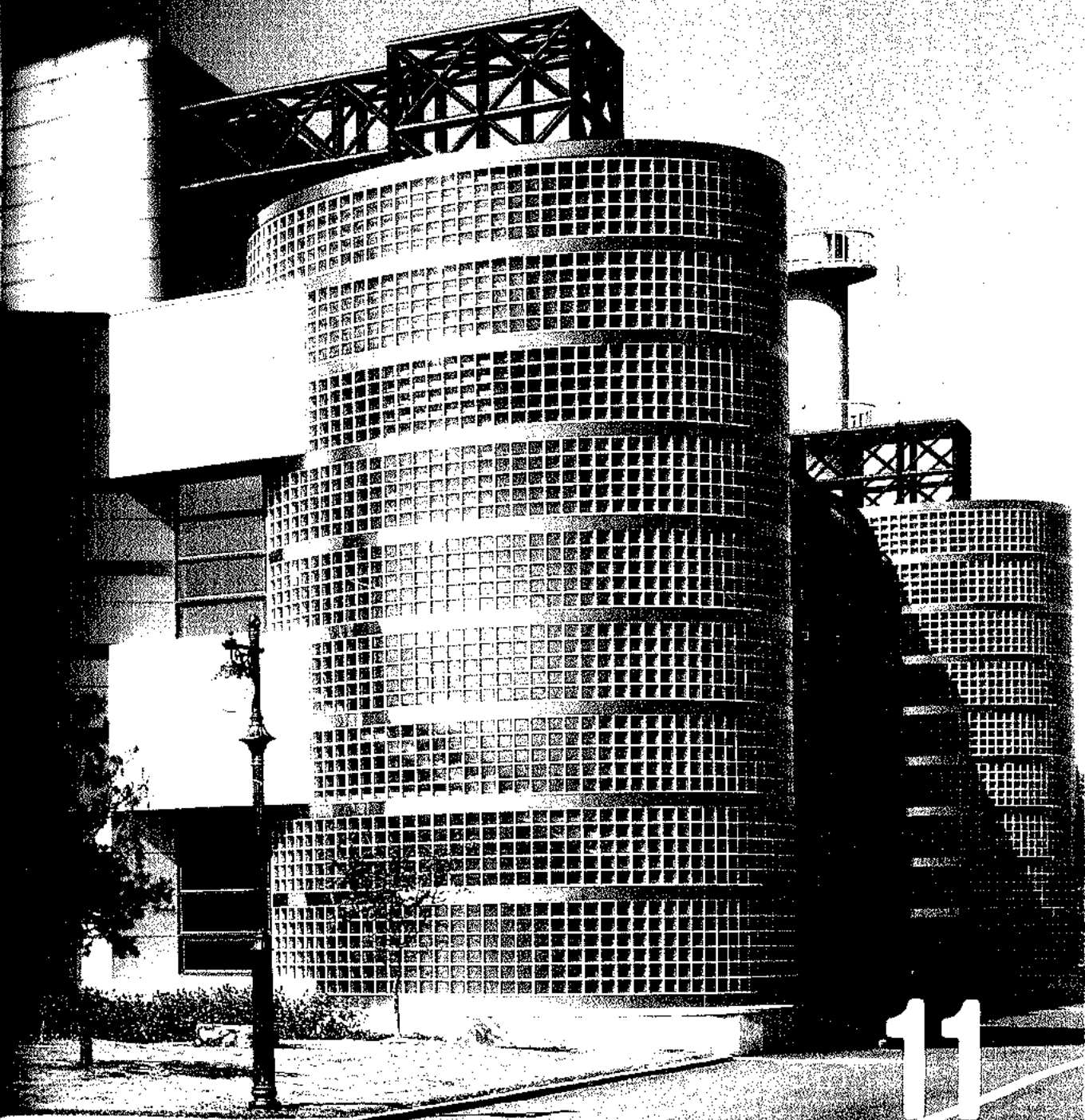
다양하지만
로지 단열재로만 쓰
로 개발한 발포성 폴리
후에도 단열효과가 오
형 단열재입니다.
하실 때에는 꼭 청색을
름에는 시원한 쾌적한

은 물에 강합니다!
흡수하게 되면 단열효과
! 제시공해야 합니다.
! 남화학 청색스치로폼은
지를 원료로 하는 반영

로폼은 압축강도가
! 높고 압축강도 또한 생
정도가 높은 한남화학
! 하중이 요구되는 단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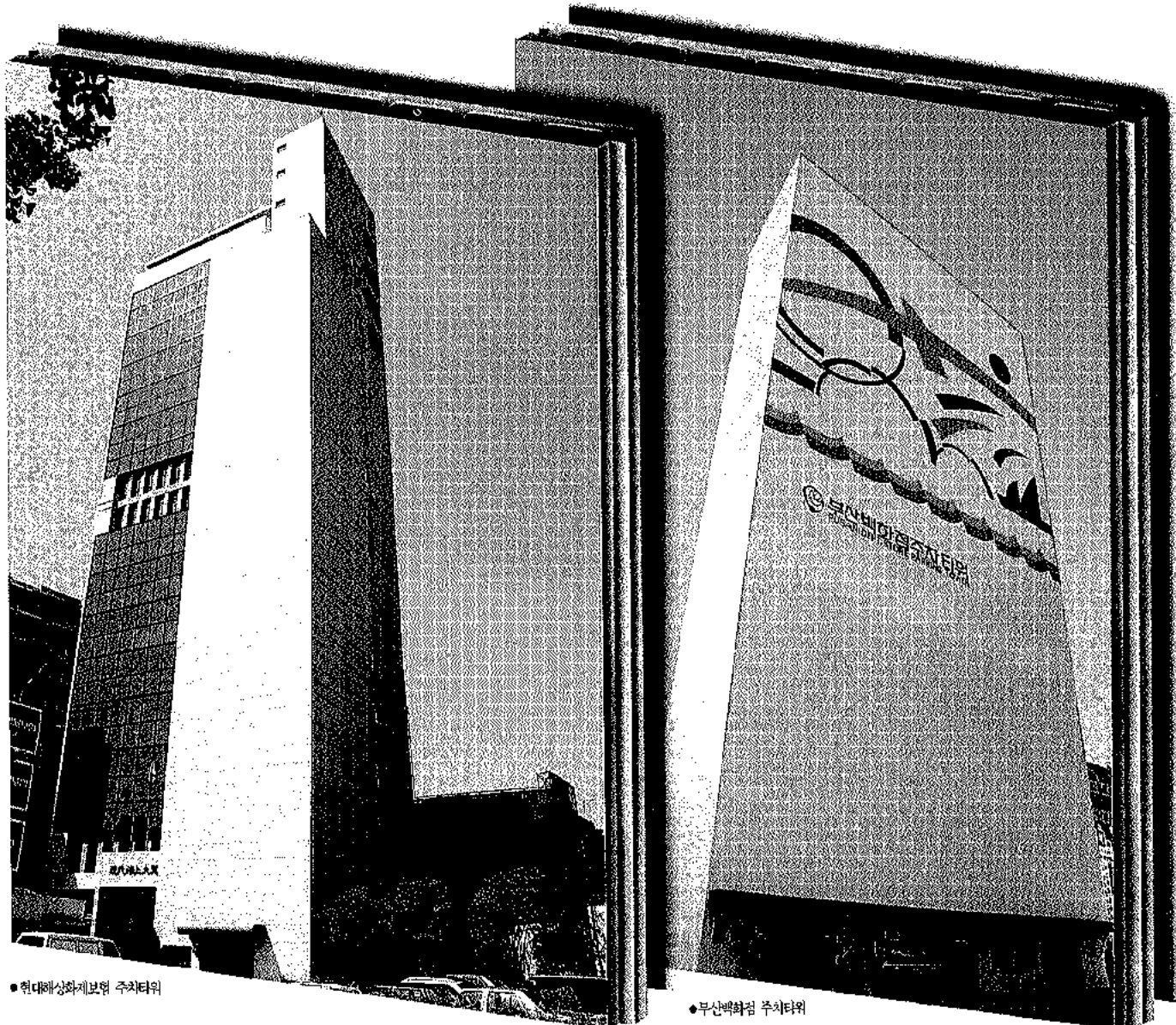
! 물이 스스로 끼집
! 연 시험에 합격한 한남
! 이 붙었다가도 화원만
! 지는 자기소화성 단열

'89
품질관리대상 수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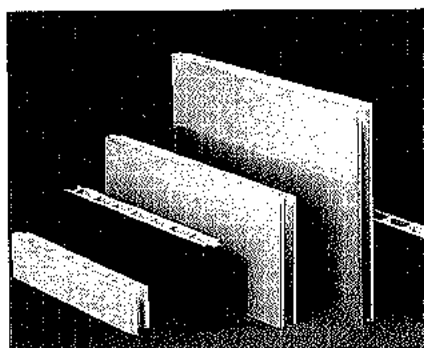
NOVEMBER



●현대백화점보령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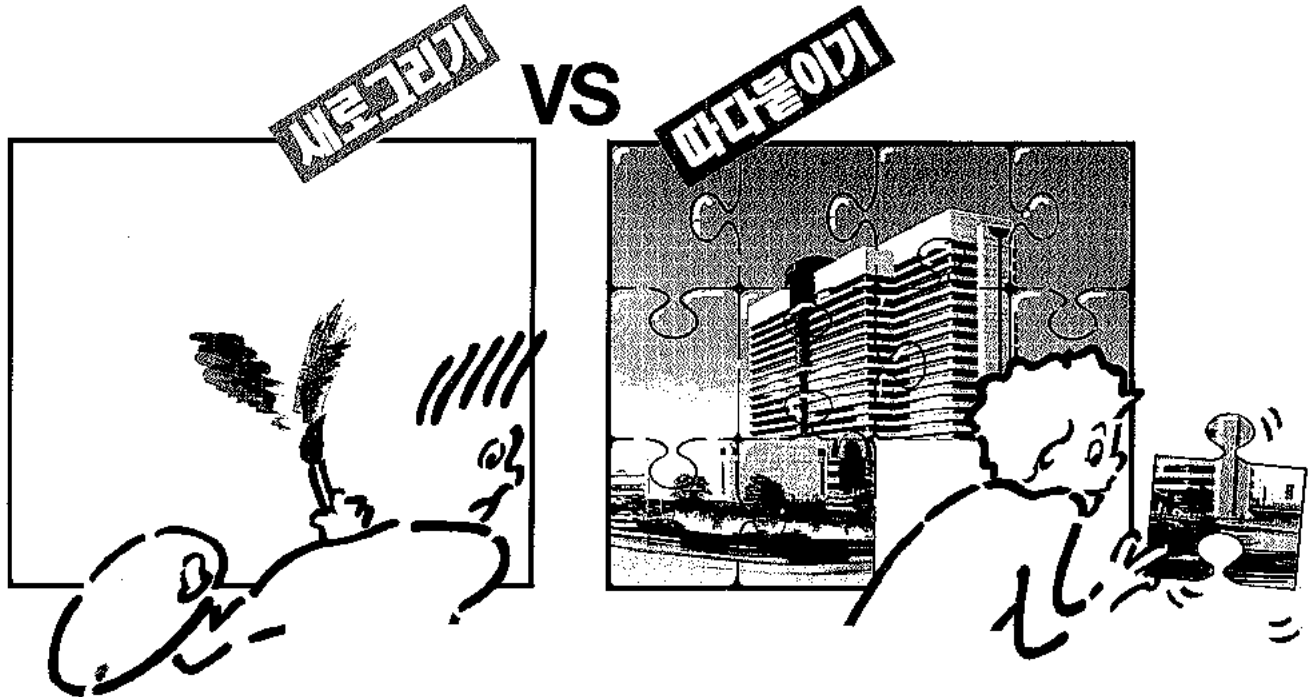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벽면, 자옴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어느 쪽이 쉽습니까?”



Detail Library

국내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인 (주) 우일건축에서 활용중인 건축표준상세의 CAD Library 중 일반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상세의 도해와 CAD Data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CAD Library Data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CAD 실시도면에 활용한다면

- 1) 사용자측의 도면 Quality 향상
- 2) 표준화로 인한 회사 Q.C 업무의 기준 마련
- 3) 체계적인 등록 Code 제공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상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료의 회사자산화” 이룩 등 효율적인 건축설계 업무진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CAD Library

- 일반사항 : 건축 및 구조도면의 Format Sheet와 독립기초, 기둥, 옹벽, 철골조의 기둥 및 보의 기본적인 접합상세 - 15개
- 실내마감 : 천장과 벽 그리고 바닥에 이르는 각 부위별 마감에 의한 상세 - 53개
- 바닥, 천정 : 바닥 및 천정에 있어서 바탕의 조건이나 마감재료에 따른 상세 - 42개
- 벽 :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및 각종 System에 따른 상세 - 83개
- 지붕 : 지붕구성재료 및 각종 Accessories들의 접합과 방수의 종류에 따른 상세 - 41개
- 계단, 문송설비 :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부분별 상세 및 기타문송설비 상세 60개
- 창호 : Door 및 Window 등 각종 Opening의 재료에 따른 상세 - 48개
- 단열설, 기구 : 화장실, 주방, 욕실, 냉방설 및 카운터에 관한 상세 - 27개
- 외부시설, 기타 : 건물의 외부시설들에 관한 상세 - 69개 등 총 438개의 상세 제공



Authorized Distributor

CADSPEED®

AutoLISP로 작성된 건축전용 S/W, CADSPED는 범용 CAD S/W인 AutoCAD를 건축설계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Block (미리 그려진 그림을 필요할 때 불러쓰는 AutoCAD명령어의 하나) 의 경우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폭, 높이 등의 기변치수만 입력하면 지정된 그림을 그려 치수까지 기입하므로 수많은 Block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벽체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들의 간격, 색 및 Layer만을 정해두면 한꺼번에 여러 선들의 모서리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AutoCAD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S/W입니다.

CADSPEED®의 주요기능

복선제도, 복선중간부분 자르기, 복선 끝부분 늘리기 및 정리, 복선 동시 자르기 및 옮기기, 상호평면상세의 자동설계입력, 출입문 간편그리기, 창호입면, 설계, 평면도 중심축선의 자동작도 및 치수기입, 구조단면 List, 층고로 최적계단설계, 지적도 확대, Line그림과 동시에 치수기입, 치수만의 기입, 면적계산 기입, 글씨제어기능, 지정 Color 및 Layer로의 변환, Skip Line, Point용어, 기둥평면제도, 2점간의 Array 기능, 기설정 평면계획 등 수십 종의 기능보유

*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을 받았습니다

* AutoCAD는 Auto Desk사의 등록상표임

* CADSPED는 동안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상표임

가 격 혁 명 품 질 혁 명 A/S 혁 명

Turn-Key 무상A/S 15개월

서통AI사업부는 AutoCAD, ARRIS등 CAD S/W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COBRA386, 486PC 및 모니터, 디지털타이저, 플로터 등 CAD주변기기를 Turn-KeyBase로 일괄 공급합니다.

H/W, S/W, 주변기기는 물론 A/S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선진구매방식과 더불어 강력한 AutoCAD 3rd Party를 활용해 보십시오.

Turn-Key Base 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STEM ■ MONITOR ■ GRAPHIC CARD ■ PLOTTER ■ DIGITIZER ■ S/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BRA 386S ● COBRA 486 ● NEC-2A(14"), 3D(14"), 4D(16"), XL(20"), 5D(20") ● HITACHI CM20B5 ● AutoPACK ● X-series16, 256 ● Cobra Plus3Bl-HS16, 256 ● MUTOH iP-630E, iP-530EL, F-920E, F-920ER ● GTCO SketchMaster 12 x 12, 12 x 18 ● Super L 24 x 36, 36 x 48, 42 x 60 ● AutoCAD ● ARRIS ● AutoCAD 3rd-Party |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1층 TEL: 521-7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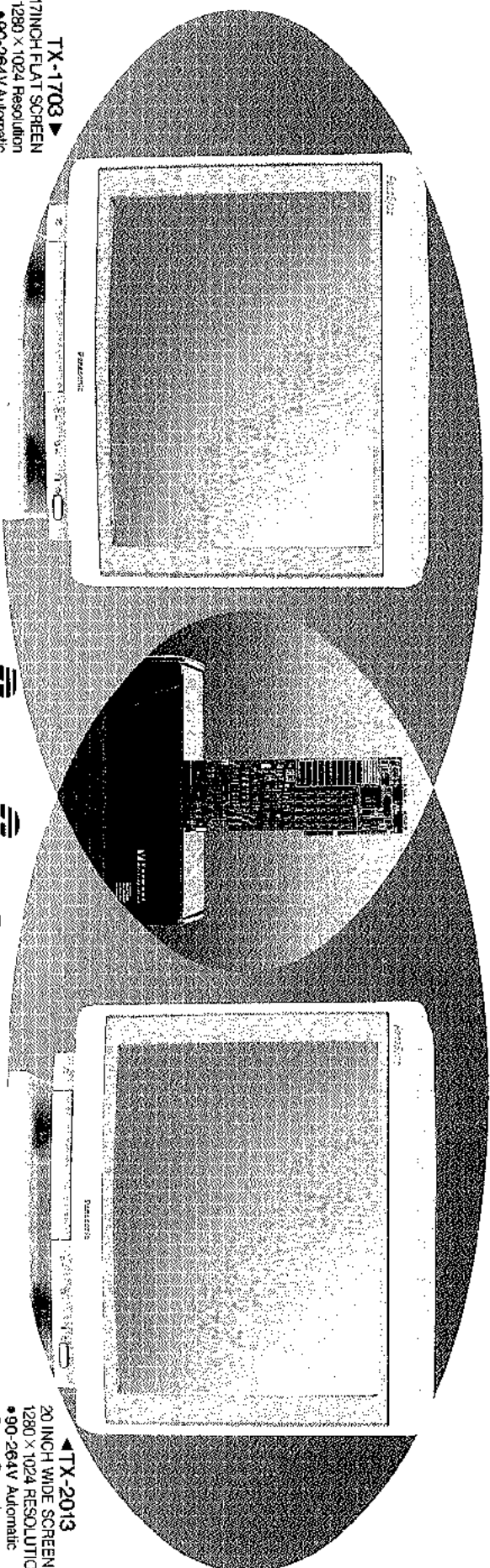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6-21 동도빌딩1층 태창캐드팩스 TEL: 464-6450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71-17 TEL: 421-2856



서통 AI사업부 5140-386

천연의 COLOR를 파나소닉모니터에 실현한다!



Pansync

▶TX-1703
17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50-90Hz Vertical
Frequency

▶TX-1713
17INCH FLAT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50-90Hz Vertical
Frequency

저 념은 우주에 만물이 형성된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 이들은 미처 아니었다가 **Pansync** 라는 기술력으로 천연의 칼리를 모니터에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 우리는 **파나소닉 브랜드**의 칼라모니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한국내 **서울 시사업부**를 통하여 하니까, 하나씩 펼쳐 가고져 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를 **고해상도 칼라모니터**에 담기위해

안제라도 우리는 모든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140-386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TX-2013

20 INCH WIDE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50-90Hz Vertical
Frequency

▶TX-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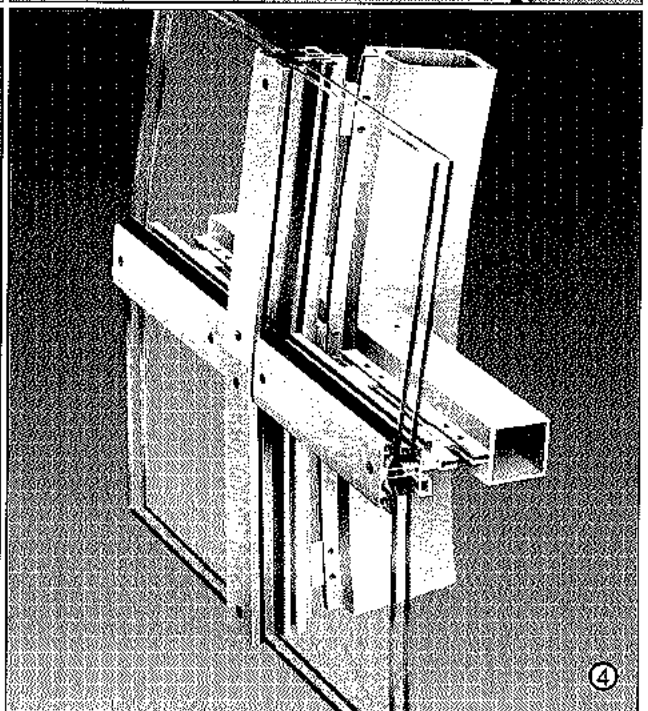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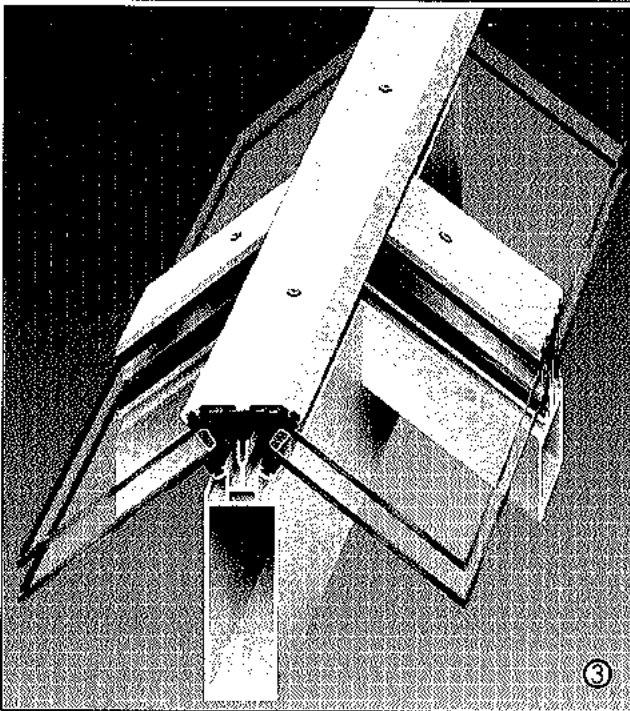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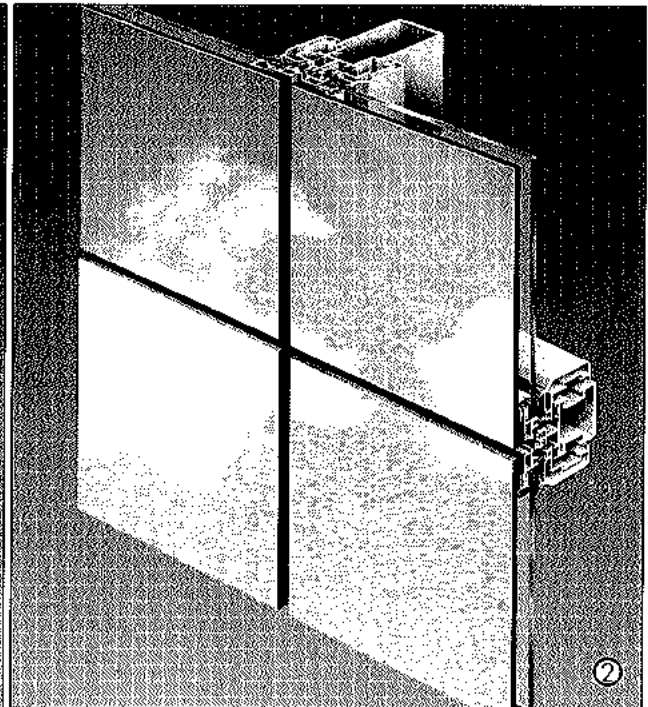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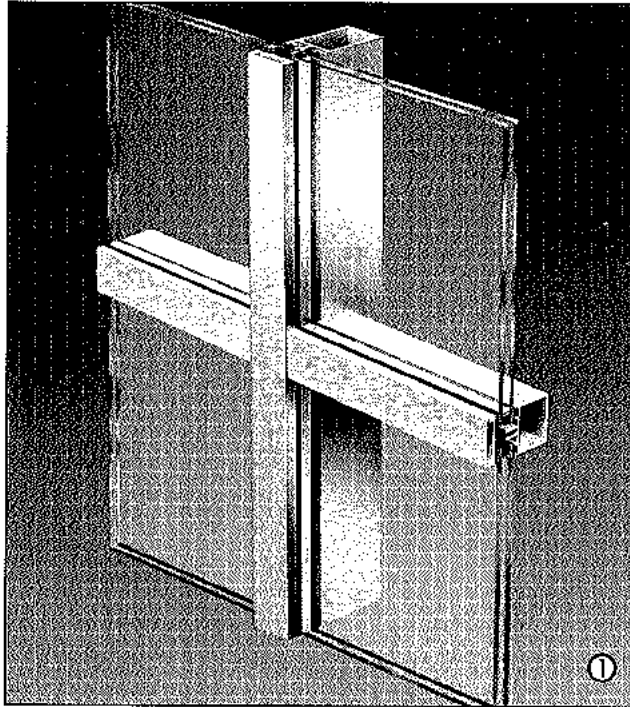
21 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50-90Hz Vertical
Frequency

인테리어 CAD TOWN (인테리어)
선택적 컴퓨터 전시장

(서울) ●양평 : 본점동 5-21 서울시사업부 514-0386 (음산) ●1호점 : 19동 3F 4-3203 세종로 711-8581 ~2 ●선화점 : 21동 5F 100호 피자점 703-2905 ●영호점 : 6동 3F 35호 한양대 715-2775
●간지점 : 3F-B-318호 중서문동 716-1103 ●태화점 : 2F-35호 중앙문 703-7763 (부신) 중구 중앙동 4가 76-21 동도빌딩 1층 태화테크노스 464-6450 (대우) 중구 돌인동 3가 127-11 대우전자빌 421-2856
●A/S Center ●서울 본사 : (02)514-0386 ●부산지사 : (051)464-2093 ●대구지사 : (053)421-2856
●Education Center ●서울 : 건국대빌딩 521-7286 ●본점동 : 514-0386 ●부산 : 동인동 464-3476 ●대구 : 동인동 421-2857

고해상도 칼라모니터
Panasonic
서울 시사업부 5140-386

새로운 개념의 커튼 월, 이건창호파사드시스템



독일식 명품창문 이건창호가 새롭게 선보이는 파사드 시스템은 최고의 건축물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커튼월(CURTAIN WALL) 제품입니다.

파사드시스템은 색상과 유리의 선택은 물론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주문제작이 가능한 고급 커튼월로, 설계자의 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사드시스템은 독일의 슈코(SCHÜCO)사와 기술재휴로 창호전문회사 이건창호에서만 생산, 공급되며 시공은 물론 완벽한アフター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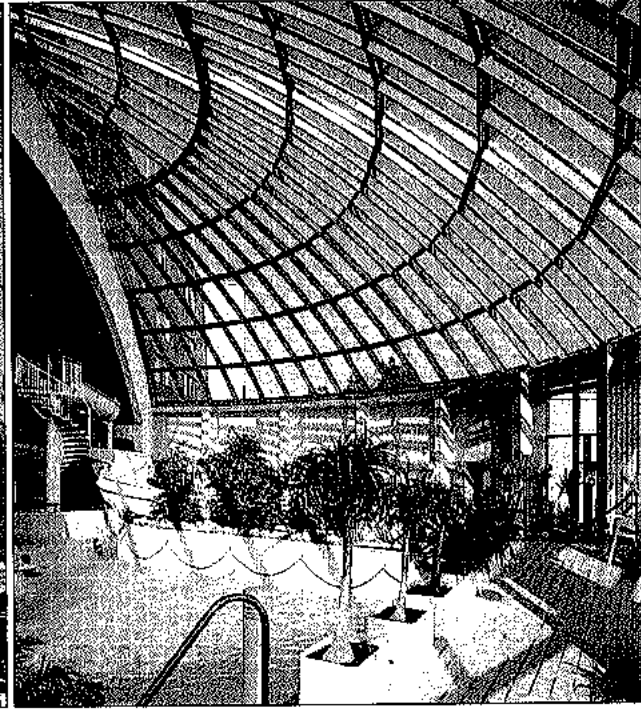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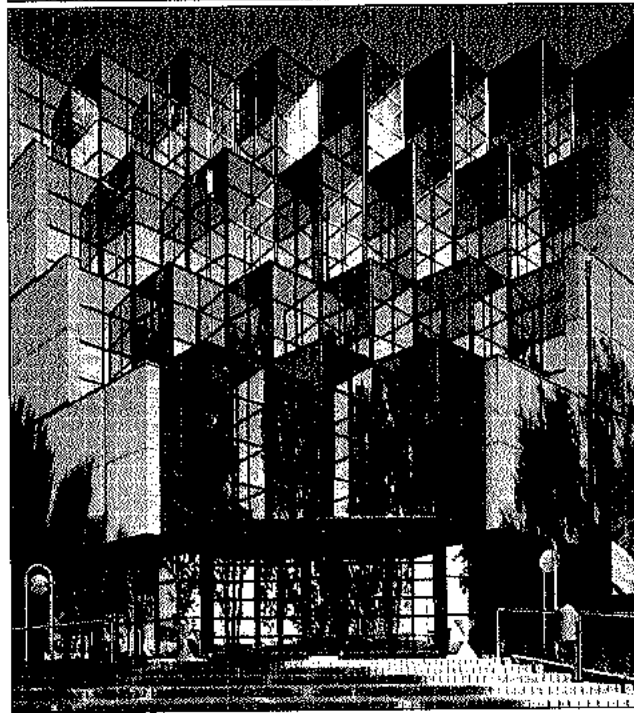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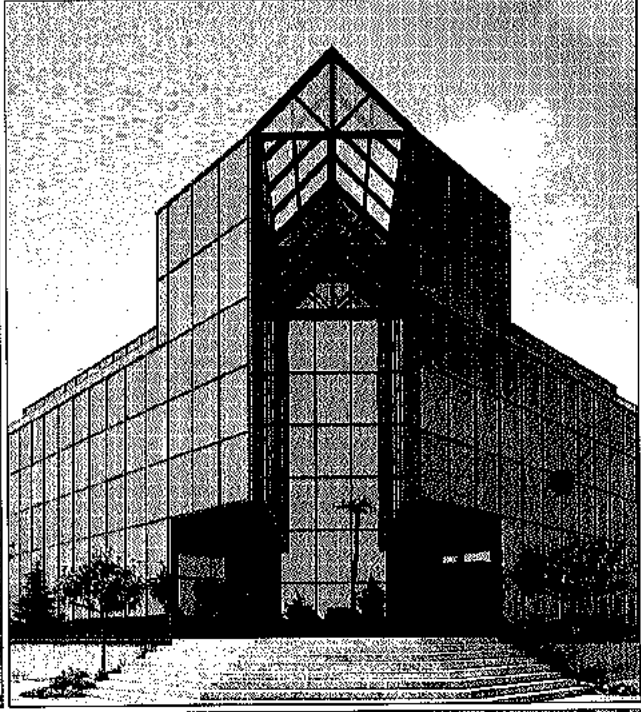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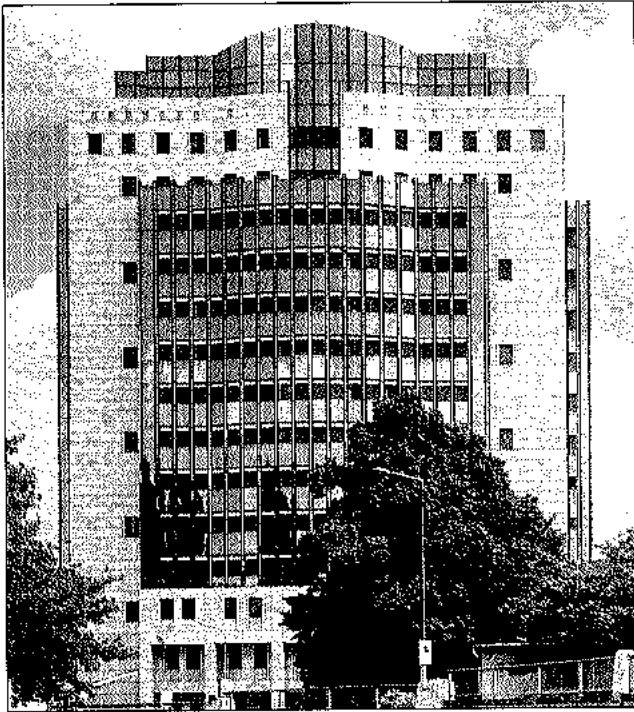
① 파사드시스템 FW50 : 외부로 노출되는 프레임의 폭을 50mm로 극소화시켜 날렵한 외관을 연출하는 수직형 커튼월 제품입니다.

② 파사드시스템 SG50 :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외관을 유리나 천연대리석 등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사드시스템 SK60 : ROOF와 천장에 적합한 경사구조의 커튼월 제품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수시스템이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④ 파사드시스템 BV60 : ARCH와 DOME구조 등 곡선형구조를 위한 커튼월 제품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창조적 설계가 살아납니다.



파사드시스템은 POLYAMID계의 단열바(BAR) 등 신소재와 독특한 구조를 사용, 기존의 커튼월이 갖고 있던 자연 환기 부족과 단열, 누수, 결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공전에 하중과 풍압을 고려한 완벽한 구조설계와 MOCK-UP TEST를 거치기때문에 안전성과 내구성에서도 확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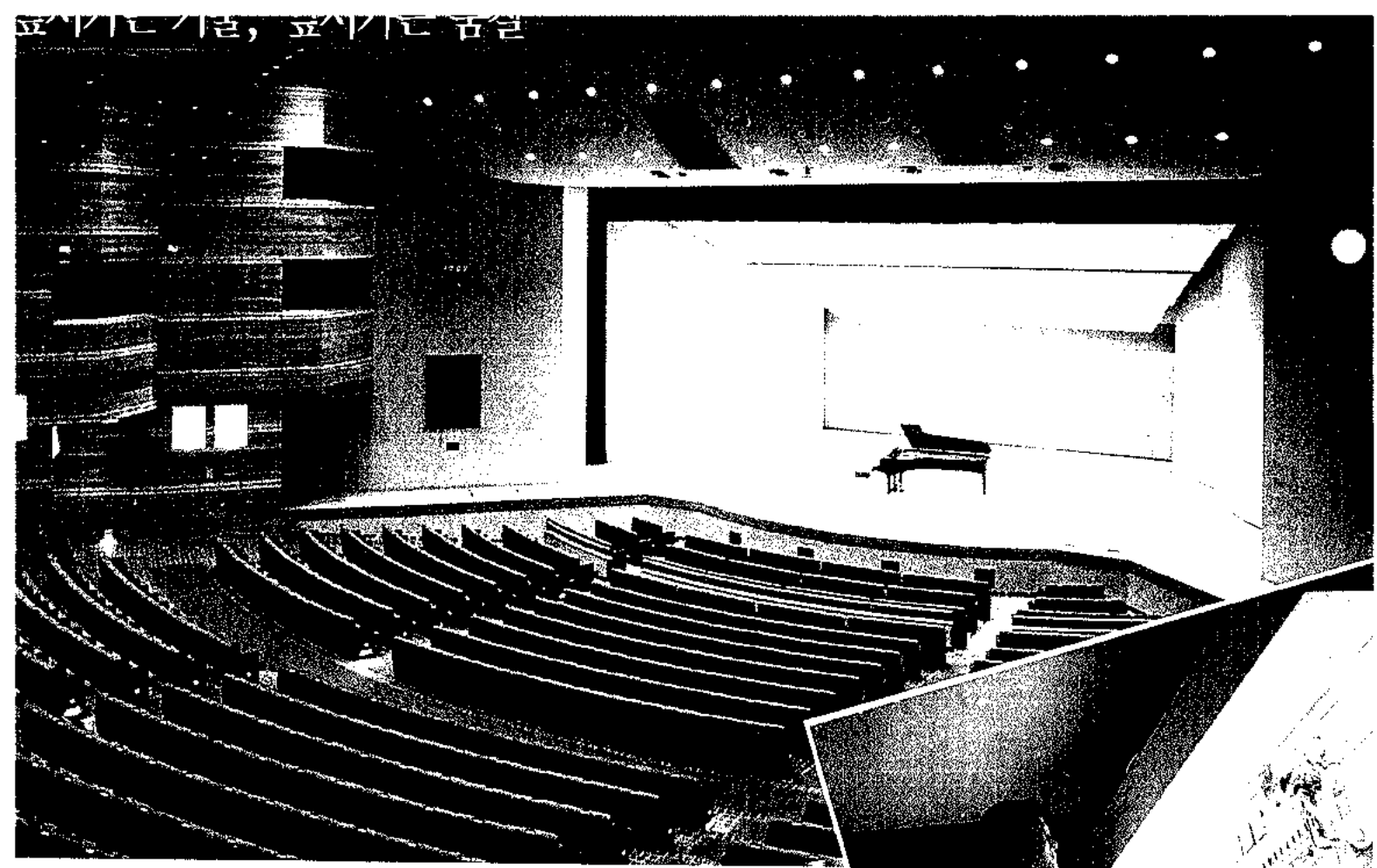
이제, 창문에 관한 문제라면 이견창호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시스템 선정과 견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이견창호의 전시장으로 오시면 새로운 창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설전시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02)563-2071 FAX: (02)563-5528
- 논현동전시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02)540-2071 FAX: (02)540-2080
- 부산 전시장 주소: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 2동 1434-10 서문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FAX: (051)557-2077
- 제주 전시장 주소: 제주도 노형동 928-8 골드건축자재박람회 지하 1층
전화: (064)41-4301 FAX: (064)42-3466
- 대구 전시장이 곧 오픈합니다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 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EAGON INDUSTRIAL Co., GmbH

표시기는 기술, 표시기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진
주식회사는 신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 | | |
|----------|---------------|-----------|
| 세종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 국립극장 | 충현교회 본당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쉐라톤워커힐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계동신타 예술극장 |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육군박물관 |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대전시민회관 |
| 이화여대강당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부곡하와이 등 |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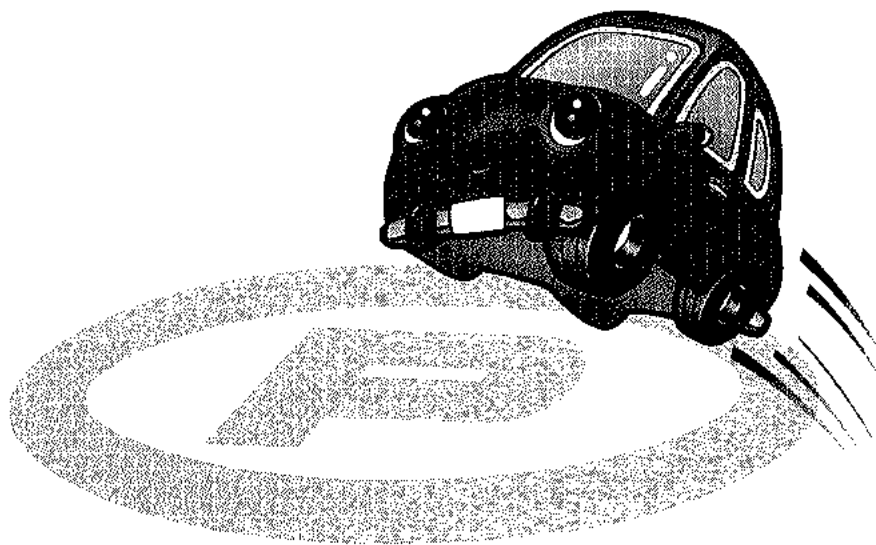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車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 1-98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편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제인의 장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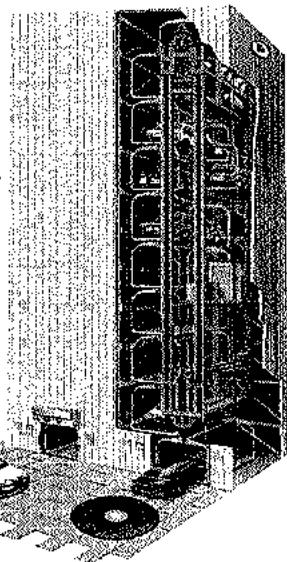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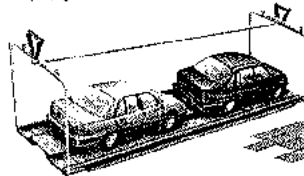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제안에 차량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메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 엘리베이터에 차량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량 입출고하는 시스템 (형식, 중식)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풍성한 이 가을...
겨울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겨울을 느끼게 합니다-인슈파넬 시스템!

INSU
PANEL
SYSTEM



조립식 단열파넬의 대명사

INSU PANEL SYSTEM

- 단열파넬의 대명사 — **INSU PANEL SYSTEM**
- 국내 최초 K·S 획득 — **INSU E.P.S PANEL**
- 국내 최고의 단열파넬 — **INSU URETHANE PANEL**
- 1급불연 단열파넬 — **INSU GLASS WOOL PANEL**
- 21세기형 첨단 지붕재 — **INSU DECK SYSTEM**
- 최고급 불연파티션 — **INSU PARTITION**
- 조립식 단열보드 — **INSU BOARD**

가을에는 따뜻한 삶을 이야기 하세요.
정겨운 삶으로 겨울을 준비하세요.
가을의 풍성함과 따뜻한 겨울을 약속하는
인슈파넬 시스템!
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인슈파넬 종합메이커 연합인슈!
21세기 신건축자재 개발을 위한 투혼의 집념과
꾸준한 연구,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로
항상 앞서가는 연합인슈는 업계에서
제일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인슈파넬이 있기에 따뜻한 겨울을 느낍니다.
이제 조립식 단열파넬하면 연합인슈의
인슈파넬을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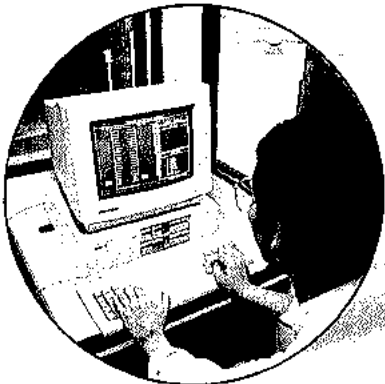


주식회사 연합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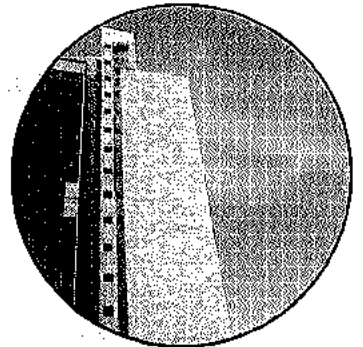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전 화: (02)555-6891, FAX: 553-1651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립리 39-2
전 화: (代)0336134-8880, FAX: (0336)32-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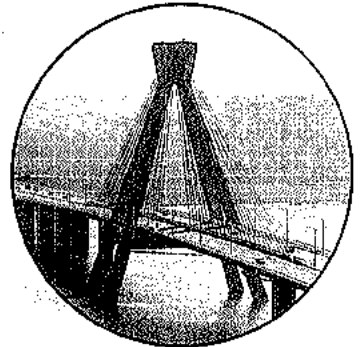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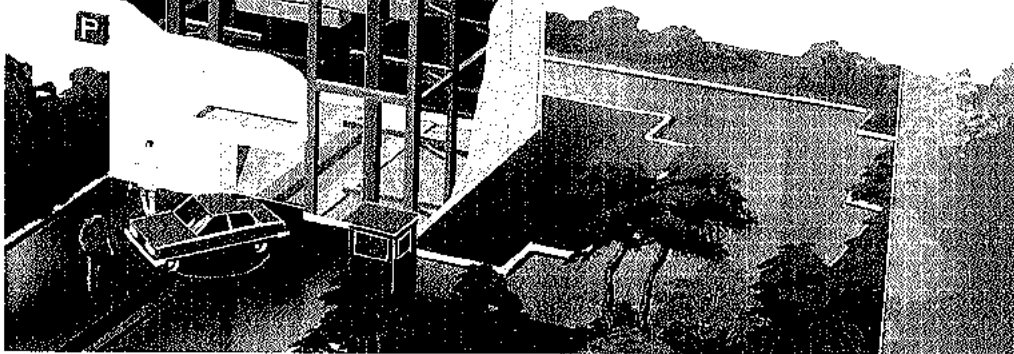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를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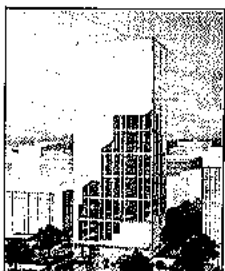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판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바름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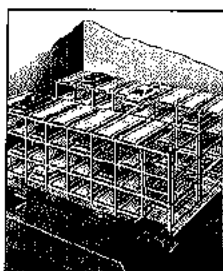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펄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연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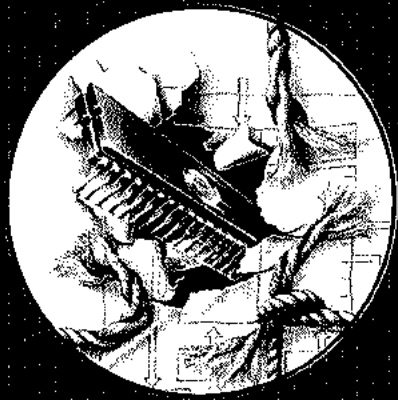


YOP-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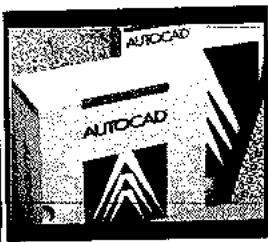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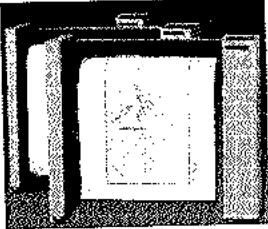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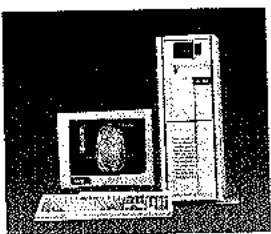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CAD



UCL®
UNION COMPUTER CO., LTD.

우리가 선택되는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절약!
기능과 인력의 절약!
경비와 자재의 절약!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
「유니온 컴퓨터의 CAD Plaza」에서
과감히 해결하십시오.



신용을 판매하는 기업
유니온컴퓨터(株)
UNION COMPUTER CO., LTD.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8-14
TEL : 587-3500(대) FAX : 583-1269

종로새운직매장 : (02) 265-0613, 266-0613 대리점 :
울산나진직매장 : (02) 717-5364~5
전자랜드직매장 : (02) 706-4321~3
선인상가퀵스컴퓨터 : (02) 704-2272~4

대전 : 유니온컴퓨터랜드 : 257-3310
광주 : 대 흥 데 이 터 : 225-4238~9
광주 : 일 간 컴 퓨 터 : 227-8086
부산 : 쇼 이 스 컴 퓨 터 : 807-6100
마산 : 한 양 컴 퓨 터 : 87-3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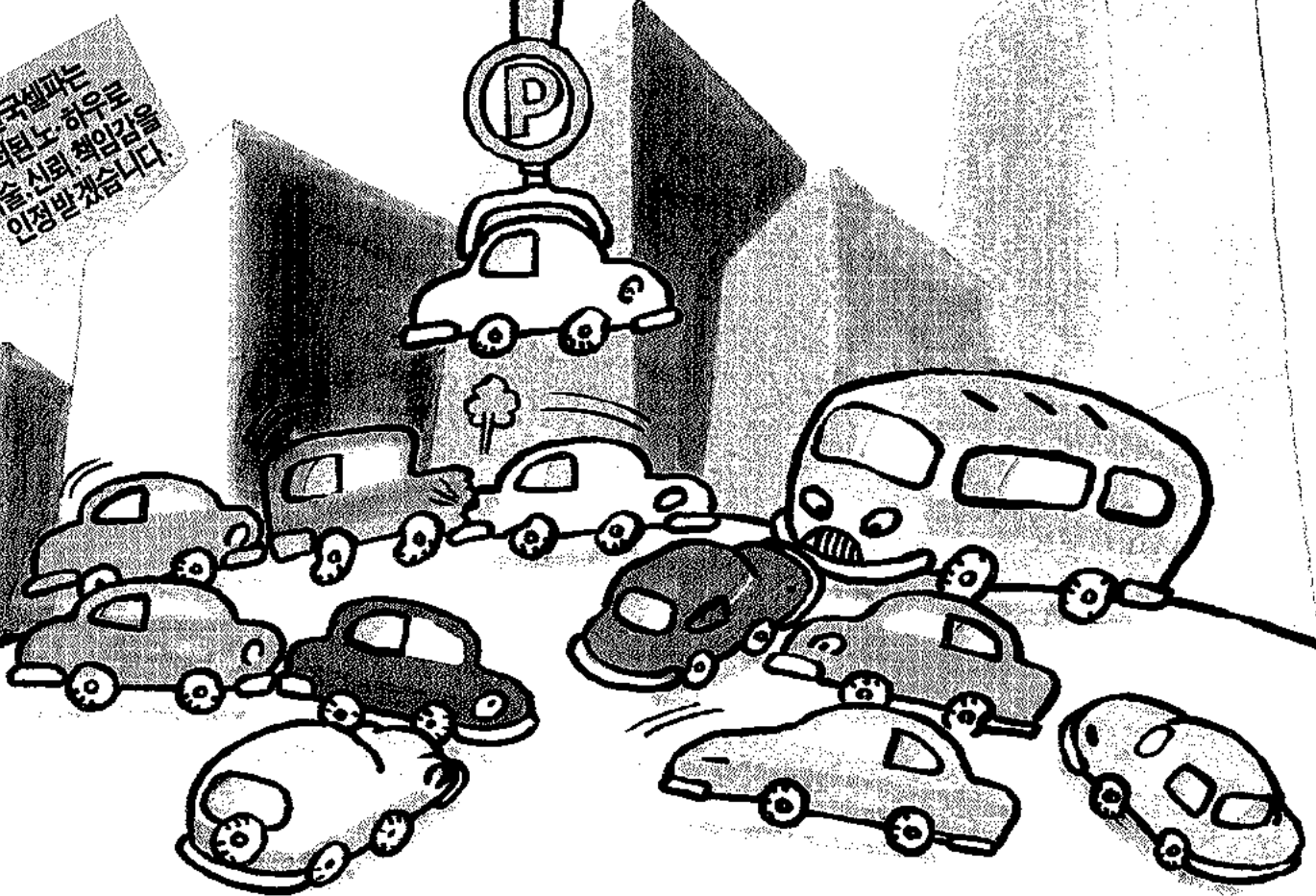
대구 : 삼 모 컴 퓨 터 : 252-7904
전주 : 호남마이크로 : 75-1118
여리 : 동 원 컴 퓨 터 : 51-3351~3
춘천 : 대 우 데 이 터 : 54-4388
제주 : 월드 컴 퓨 터 : 22-3536

주차제

한국셀파의 주차설비가 해결합니다.

한국셀파주차시스템

한국셀파는
축적된 노하우로
기술, 신뢰, 책임감을
인정받겠습니다.



주차시스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주차난은 이제 강건너불구경일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빌딩,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빌딩과 소규모 빌딩, 일반 점포에 이르기까지 저전력의 외형과 지역상권의 가치를 따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주변 교통환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 사용이 편리한 주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두뇌가 설계·시공하는 주차 설비

한국셀파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여 첨단 기술로 전진하고 있는 현대의 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편리한 주차 시스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A/S로 철저한 사후관리

전국을 5개 권으로 A/S망을 구축 24시간 여려분 곁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과 기업의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격하고 품질관리

엄격한 자체의 선정, 가공, 조립에 대한 공정일지라도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자 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민중의 눈치

컴퓨터의 정확한 공정관리에 의하여 한치의 착오

없이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여 약속된 날 현장에 정확하게 납품, 시공하여 셀파의 축적된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셀파 주차설비시스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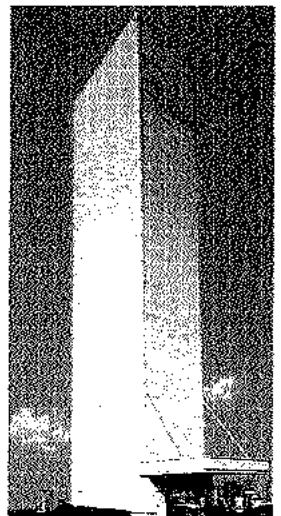
■ **피죤파킹**
빌딩규모나 주차대수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보수가 용이합니다.

■ **수평순환식**
밀폐된 공간에 최대의 주차대수 확보를 자랑하며 컴퓨터식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E/L 터워파킹**
원터치 방식으로 초고속 입출고를 자랑하며 Computer자기관리운영방식을 도입, 원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광장형 자주식 주차설비**
백화점, 호텔, 관공서 등 입출고가 빈번하고 혼잡이 우려되는 곳에 적합한 말모스형 주차설비로서 최소의 관리비와 고재유치를 약속드립니다.

■ **기타 주차설비 및 관제설비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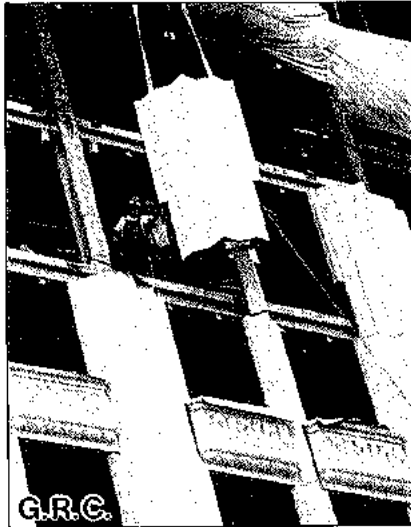


 **한국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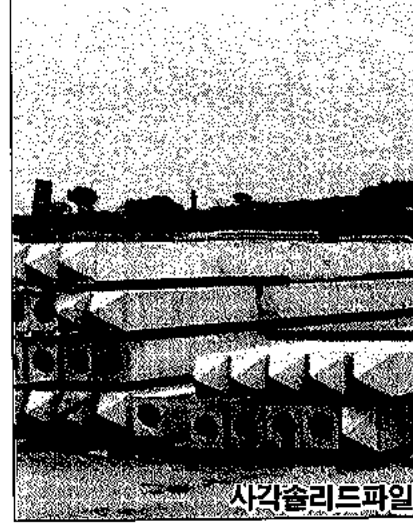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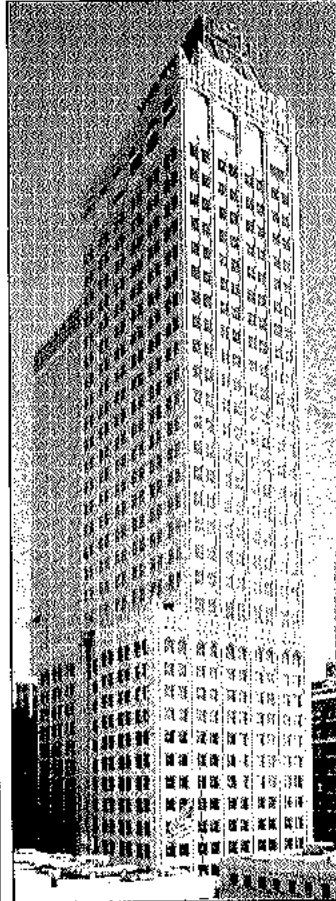
G.R.C / P.C / 사각솔리드PILE

한국하이콘(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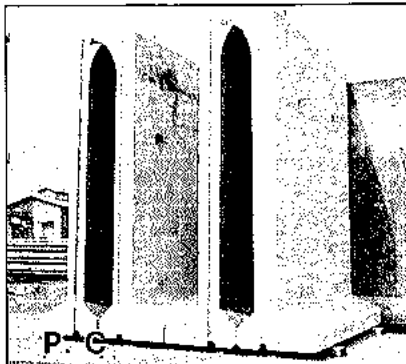
조립식 건축자재(GRC, PC)를 생산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
공기단축, 도시건축의 공간해결, 정부의 조립식 주택보급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G.R.C.



사각솔리드파일



P.C.



조립식아파트

중요생산제품

- GRC판넬
- TPC, GPC
- 조립주택 및 빌딩용판넬
- 4각 솔리드파일

한국하이콘(주)는 유럽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력과 강도가 높은 4각 솔리드 PILE을
국내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하이콘(주)는 PCI회원으로써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RC 제품의 특징

- ▲ **유용성**: 파괴강도, 충격강도가 타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표면재가 불연성
G.R.C로 내화성, 흡음성 및 방수, 방습이 완벽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는 영구벽체입니다.
- ▲ **의장성**: 초경량이지만 콘크리트의 중후한 질감과 세련되고 그래픽한 미관 및
쾌적한 색채,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의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 **시공성**: 조인트공법+조립식 Dry-Wall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의 단축, 공사
비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EMBER

pci

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HI 韓國하이콘(株)

HI-CON KOREA, LTD

☎ 0458-9400

本社・工場: 忠南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山25-1

TEL. (0458)37-0508 (代)

FAX. (0458)37-0507

☎ 02-554-6881

서울事務所: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 韓州빌딩 303号

TEL. (02)554-6881 (代)

FAX. (02)554-9881

AUTOCAD + CADPOWER

건축CAD설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utoCAD와
건축설계지원용 Software CADPOWER와의 만남은
건축설계업무를 보다 손쉽고, 빠르게 해줍니다.

AUTOCAD RELEASE 11

AutoCAD는 AUTODESK, INC.에서 개발한 우수한 범용CAD 소프트웨어로 값싼 PC나 EWS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및 배관 등 제도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국내의 건축설계분야에서도 80-90% 이상이 AutoC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utoCAD R11은 3차원에 대한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 건축3차원 모델링작업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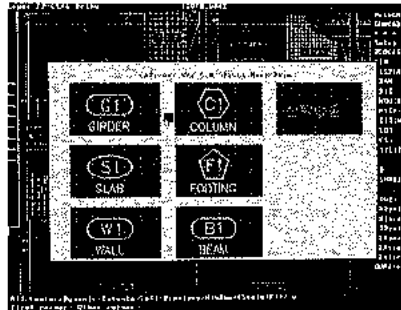
CADPOWER VERSION 5.0

AutoCAD를 이용하여 건축도면 작성시 작업효율을 증대시켜주는 건축CAD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입니다. 건축실무자가 건축도면작성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실무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건축CAD전문회사인 건캐드시스템의 자체 기술로 만들어져 뛰어난 성능, 사용교육, 소프트웨어A/S가 확실합니다.

주요특징

-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 완벽한 기능을 갖춘 고성능 시스템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 대형 CAD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 이식성 및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 다양한 3rd Party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 AutoCAD관련서적과 전문교육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 AutoCAD는 AutoDESK사 등록상표임.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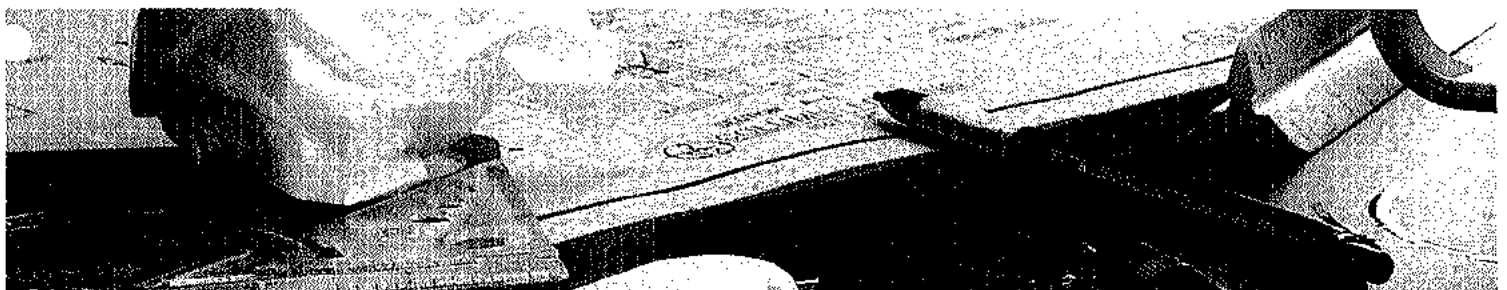
-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 실무에 기초를 둔 간략한 레이아웃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강력하고 뛰어난 도면 작성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풍부한 500여개의 건축심볼을 제공합니다.
- 편리하고 다양한 도면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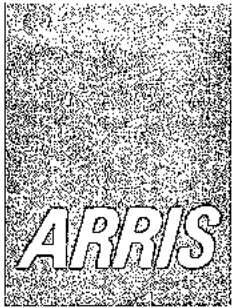
* CADPOWER는 건캐드시스템의 등록상표임.

건축CAD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주)건캐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4층
대표전화 584-6480 FAX 587-1803





ARRIS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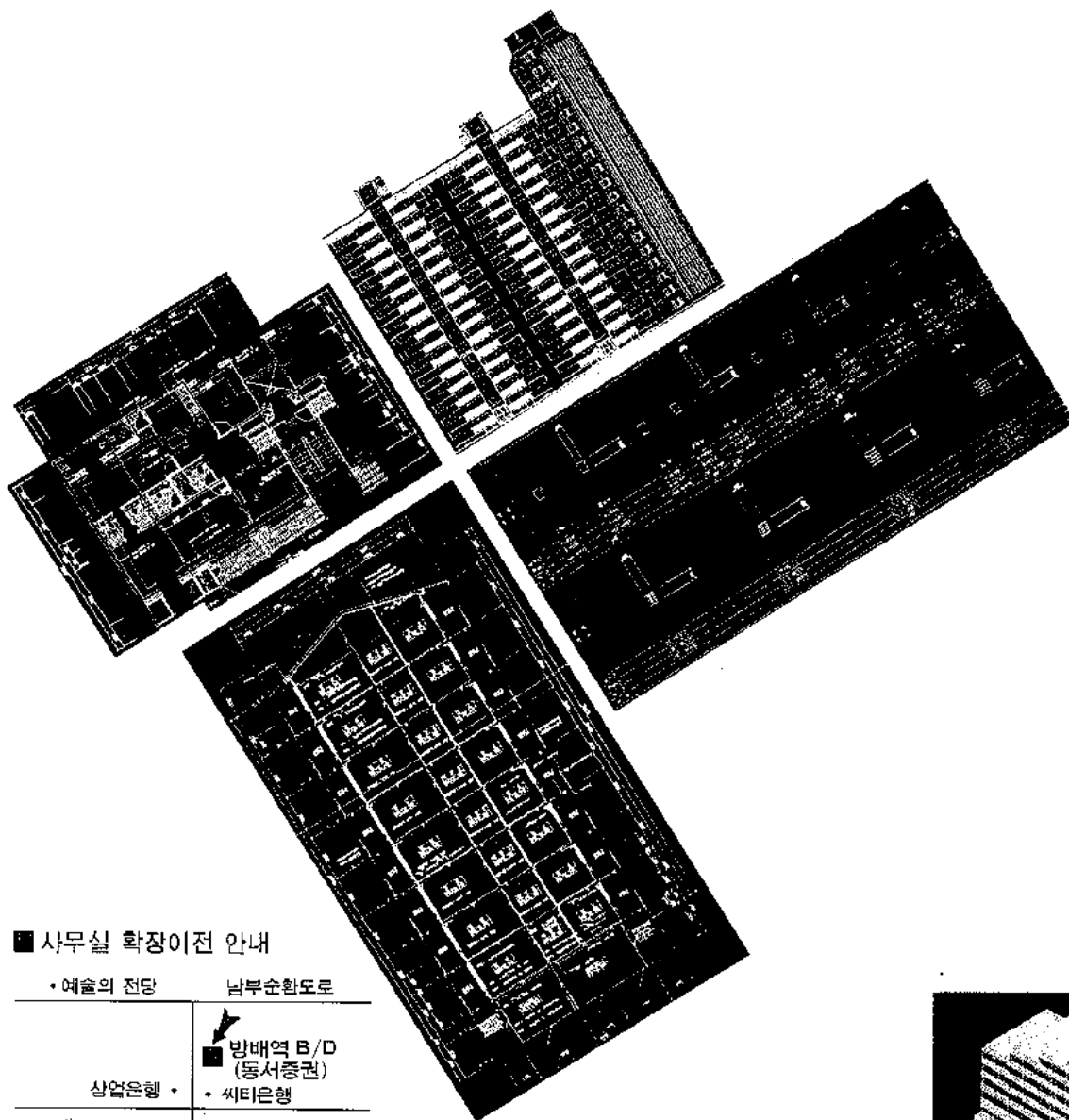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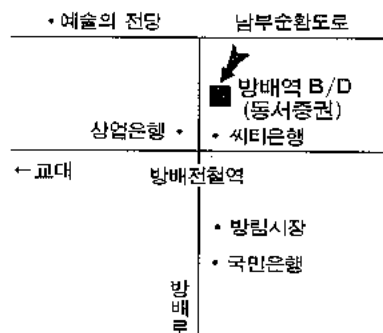
ARRIS is a leading provider of integrated solution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network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consulting and training. Our solutions are designed to help our clients improve their network performance,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service to our clients and to staying at the forefront of the industry.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
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제한 COLOR와 빛의 Simula-
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
장 막강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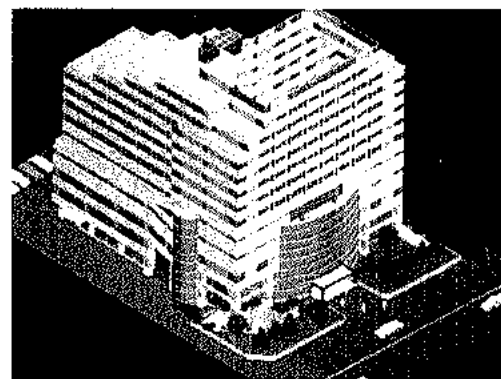


■ 사무실 확장이전 안내



※ 전화 및 FAX 번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ARRIS에 관한 무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개발한 한글단 전체, 한글북 전체, 디테일을 드립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호

방배역 B/D (동서중권) 5층

TEL: (02) 536-4057~9

FAX: (02) 599-4030



차례/1991년 11월호 통권 제271호

會員作品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 李永熙	20
	한국의국어대 용인캠퍼스 도서관 / 李揆昌	24
	일신방직 기숙사 및 사원주택 / 禹時庸	28
	삼성체육관 / 金昌壽+朴 昇+韓相默	32
	인천서림박물관 / 林長烈	36
	해인빌딩 / 俞元在	40
	두진빌딩 / 權棹雄	44
	제주 신산동 주택 / 金守賢	46
스케치	충무시민회관 / 宋二浩	48
기 고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 李永熙	50
	규제 만능시대 / 李甲俊	51
읽히며 생각하며	음악 속의 단상 / 安秉義	52
企劃시리즈	집합주거단지의 근린주구계획 / 金昌碩	54
	집합주거단지의 옥외공간과 녹지시설 / 李周炯	58
	집합주거의 노후화 영향인자와 건축계획 / 任相敦	62
설계경기	전문건설회관 현상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67
研 究	한국의 전통건축(完) 전통건축의 맥락과 그 계승 / 張慶浩	76
	해양건축을 향하여 / 이용재譯	82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 / 裴元泰	88
資 料	1991년 9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 / 市道建築士會 總會消息		94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년 3월 23일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ik/Kang, Chul-Koo/
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 「삼성체육관」

표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작

사진: 정점웅

CONTENTS Vol. 271, NOVEMBER 1991

WORKS	Kangnam Software Development Center, The Bank of Korea / Lee, Young-Hee	20
	Library Build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Yougin Campus / Lee, Kyu-Chang	24
	Ilsin Textile Co. in Changwon Factory. Dormitory & Residence / Woo, See-Yong	26
	Samsung Gymnasium / Kim, Chang-Soo & Park, Seung & Han, Sang-Mook	32
	Inchon Civil Museum / Lim, Jang-Yul	36
	Haein Building / Yoo, Won-Jai	40
	Dujin Building / Kwon, Do-Woong	44
	Sinsandong Residence at Cheju / Kim, Soo-Hyun	46
ETCH	Chungmu City Residence Hall / Song, Yi-Ho	46
CONTRIBUTION	/ Lee, Young-Hee & Lee, Kap-Joon	50
SAY	Music in Fragmentary Thoughts / Ahn, Byoung-Eyw	52
ICUS	Neighborhood Planning for Multi-Unit Housing Development / Kim, Chang-Seok	54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Open Space of Housing Complex / Lee, Joo-Hyung	58
	Factor Influencing the Apartment Deterioration and Architectural Design / Im, Sang-Don	62
COMPETITION	The Competition for Korea Speciality Constructor Financial Coperative	67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 Chang, Kyung-Ho	76
	Composition of Oceanic Architecture / Lee, Yong-Jae	82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aghdad / Bae, Won-Tae	88
MATERIALS		92
RA NEWS		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심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사초등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동169-25, 333-6411 · 광양분회/광양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상봉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5-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회/종로구수영동46-18,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상산동275-1, 336-5057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강랑분회/강랑구면목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10, 923-4401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부산대파트네)(051)246-6284~7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8, (053)753-836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0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1)47-6129~30 · 과천분회/과천시수원시매산로3가124-5, (0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51)2-1083 ·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4-6153 · 고양분회/고양시관문동38동16로트, (03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시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8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0391)2-2262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가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873-1, (0441)847-3082 · 제천분회/제천시외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삼양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중앙리703-1, (0463)2-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6-5(대륙 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동동1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54)197-10, (0452)34-3367 ■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광주광역시서회정동783-23(추선회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분회/순천시강정동51-11(0661)3-2457 · 여수분회/여수시편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포항시북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771-4(0551)3-3638 · 구미분회/구미시평동964-264, (0546)52-6351, 52-7547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 영주분회/영주시후천2동642-52, (0572)33-7504 · 청원분회/청원시청원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 경산분회/경산시경산동37-4,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6-6, (0522)74-8836 · 전주분회/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송파분회/송파시서호동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592 · 밀양분회/밀양시내밀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 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농암동91-6, (0593)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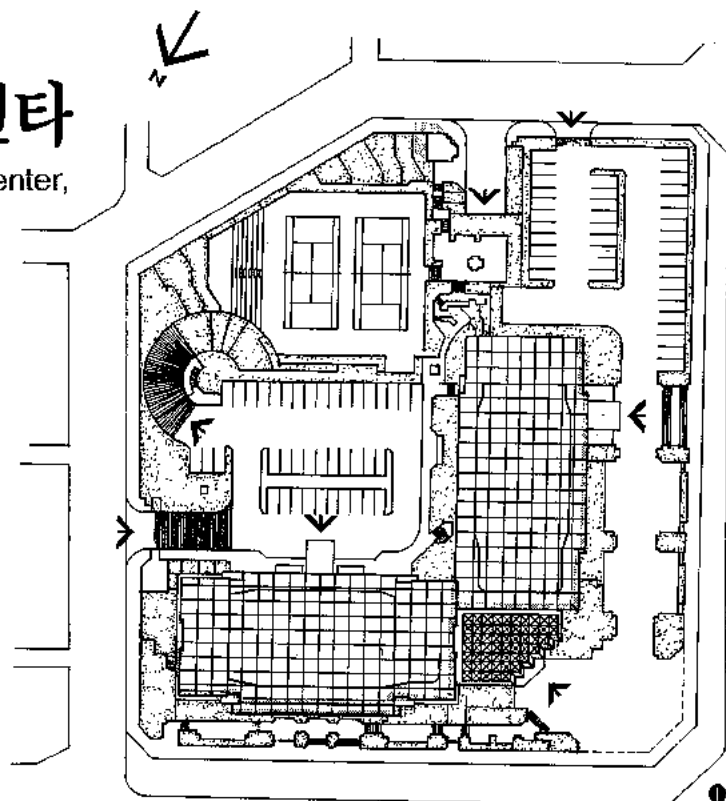
한국은행 강남전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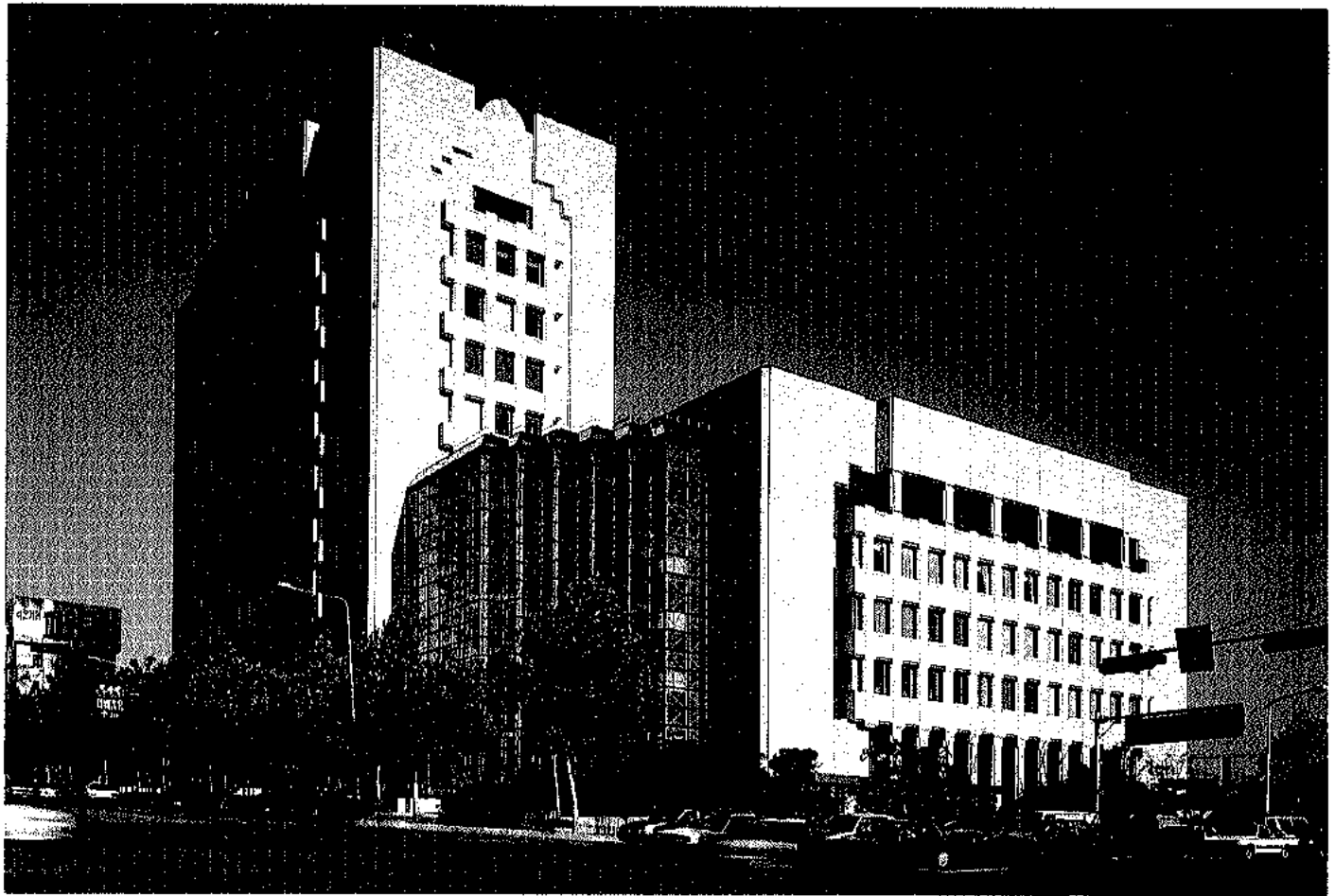
Kangnam Software Development Center,
The Bank of Korea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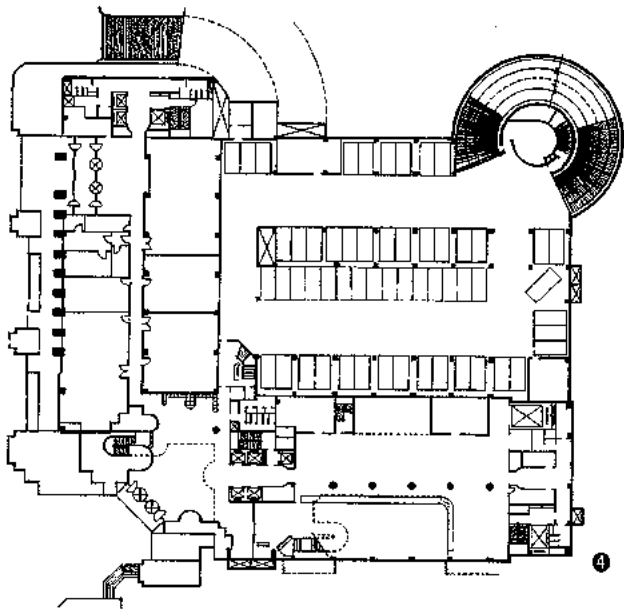
李永熙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7, 717-1, 2, 3
대지면적 / 15,840㎡
건축면적 / 3,677.51㎡
연면적 / 45,863.62㎡
건폐율 / 23.22%
용적률 / 204.18%
규모 / 지하2층, 지상11층
구조 /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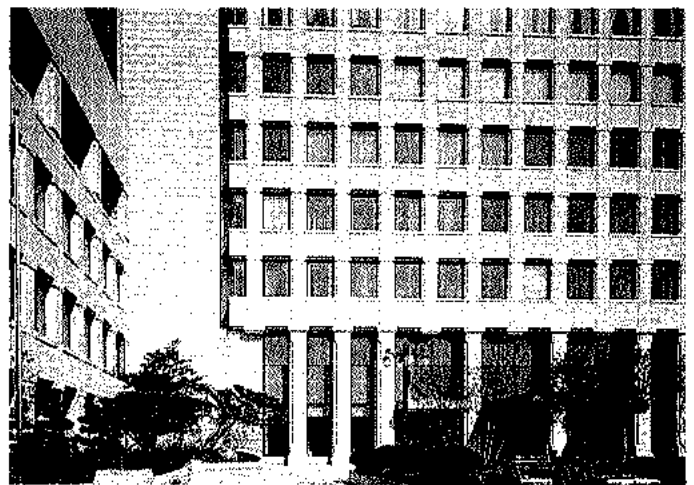




②



④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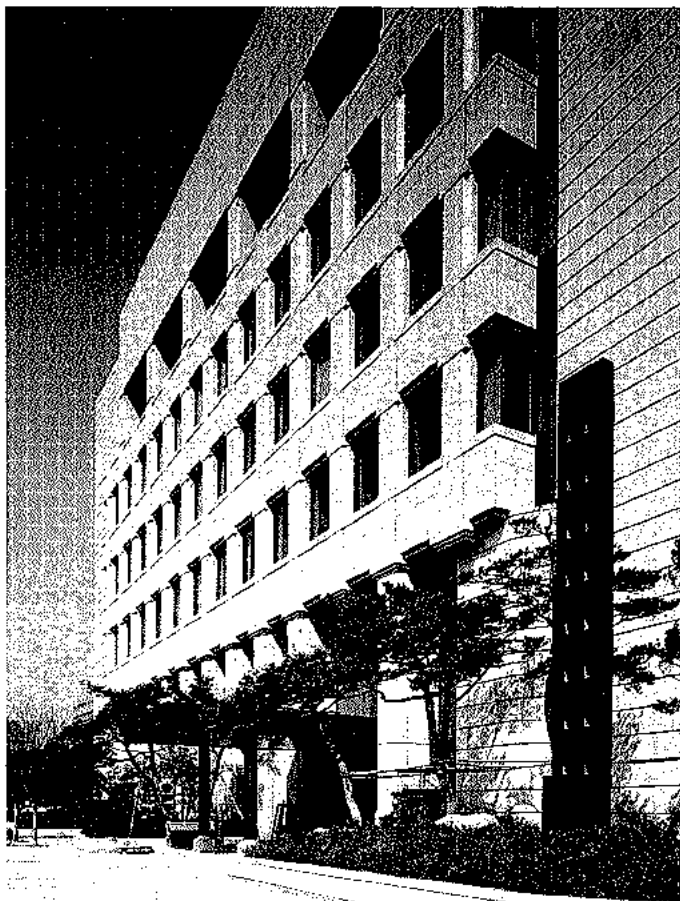


⑥

- ① 배치도
- ② 북측 전경
- ③ 정면 전경
- ④ 3층 평면도
- ⑤ 외벽상세
- ⑥ 신촌 가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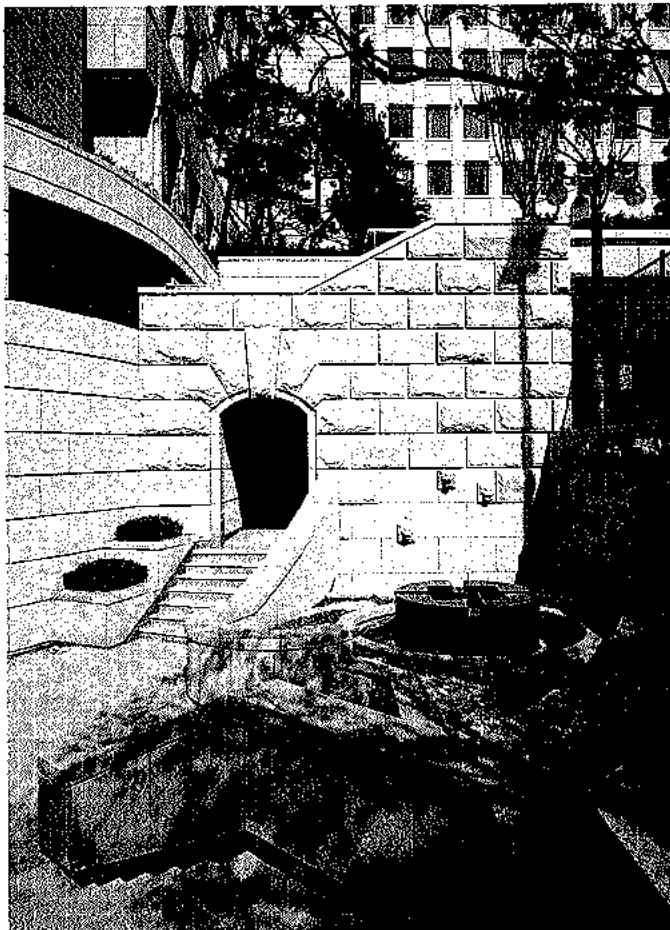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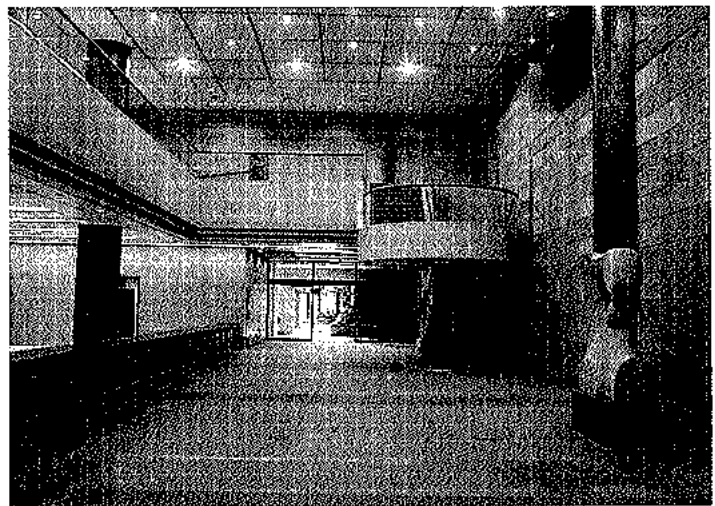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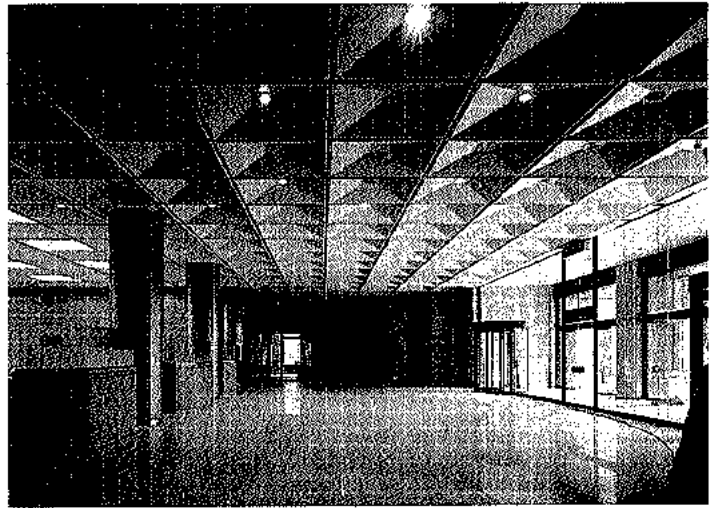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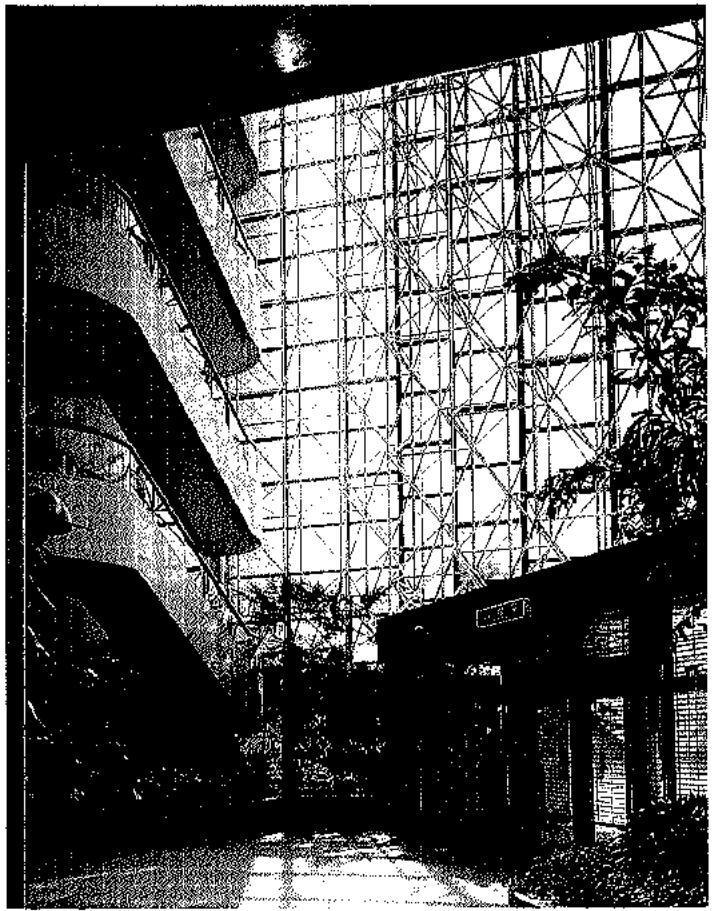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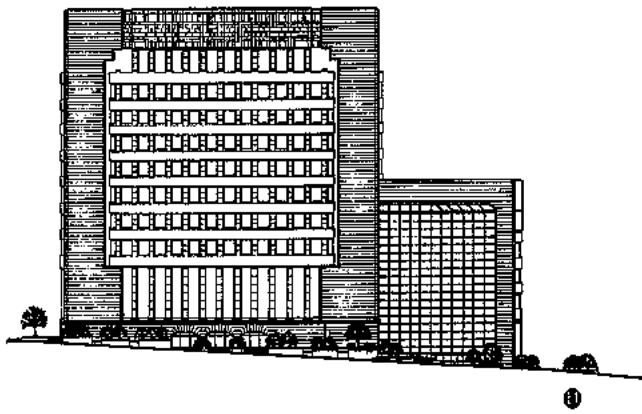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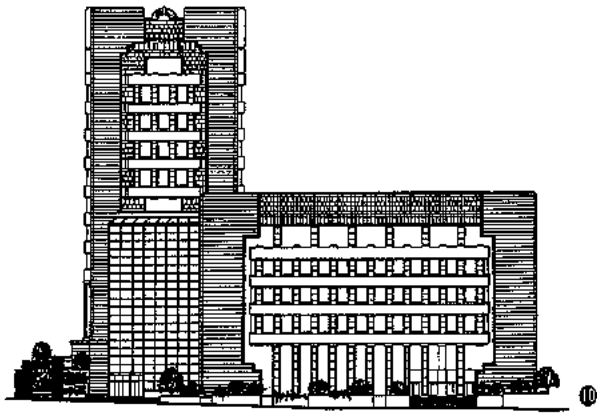


8



9

- ⑦ 배면
- ⑧ 측면 상세
- ⑨ 울려다본 외벽상세
- ⑩ 동측 입면도
- ⑪ 남측 입면도
- ⑫ 지하 선콘 가든
- ⑬ 내부 아트리움
- ⑭ 로비 전경
- ⑮ 로비에서 본 계단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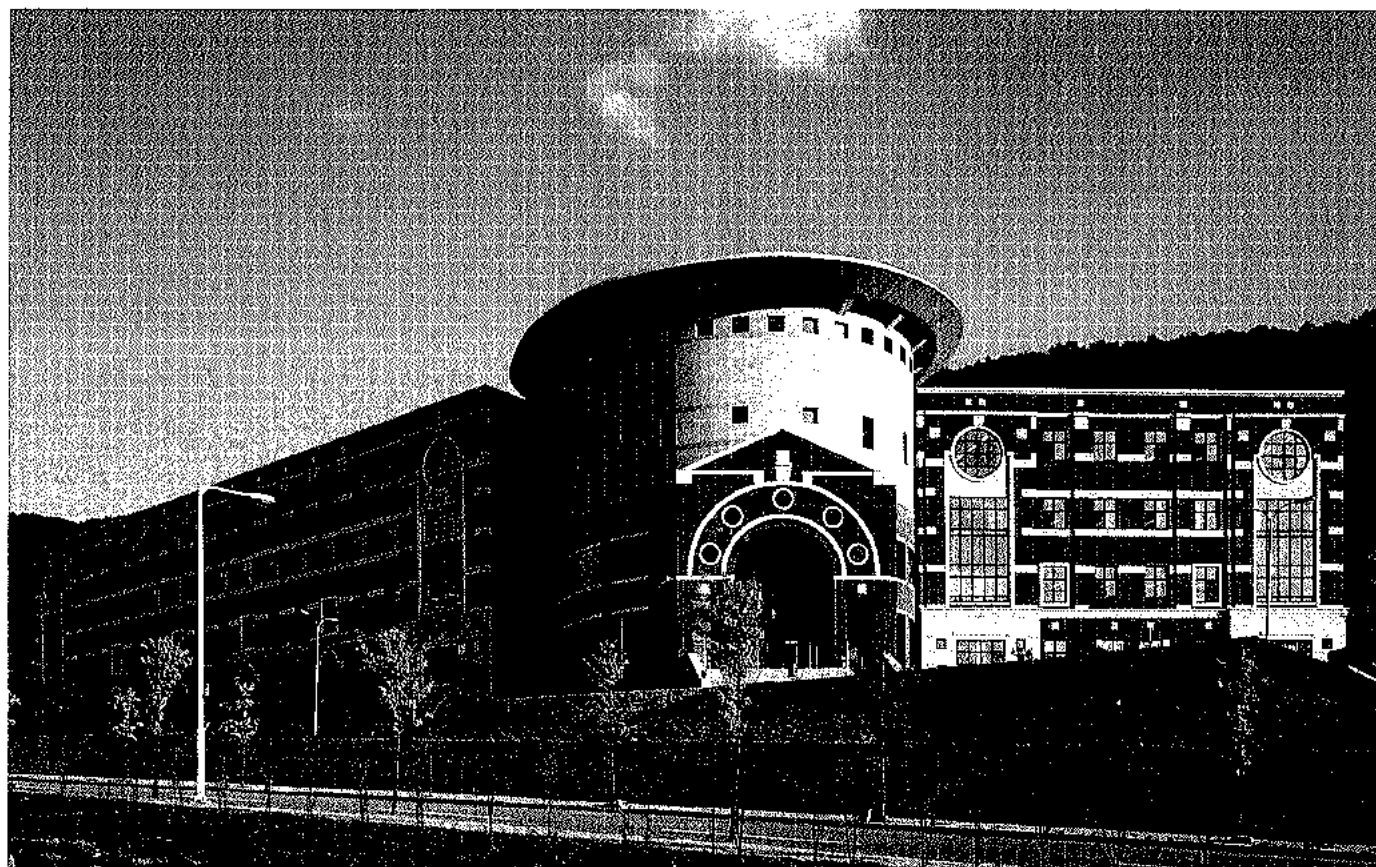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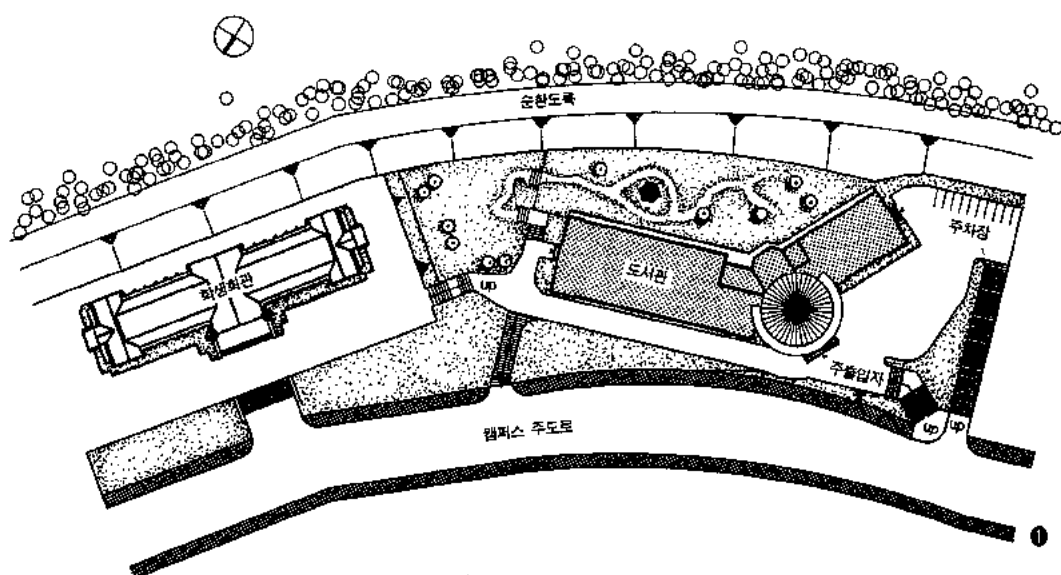


한국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도서관

Library Build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Yongin Campus

李揆昌 /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yu-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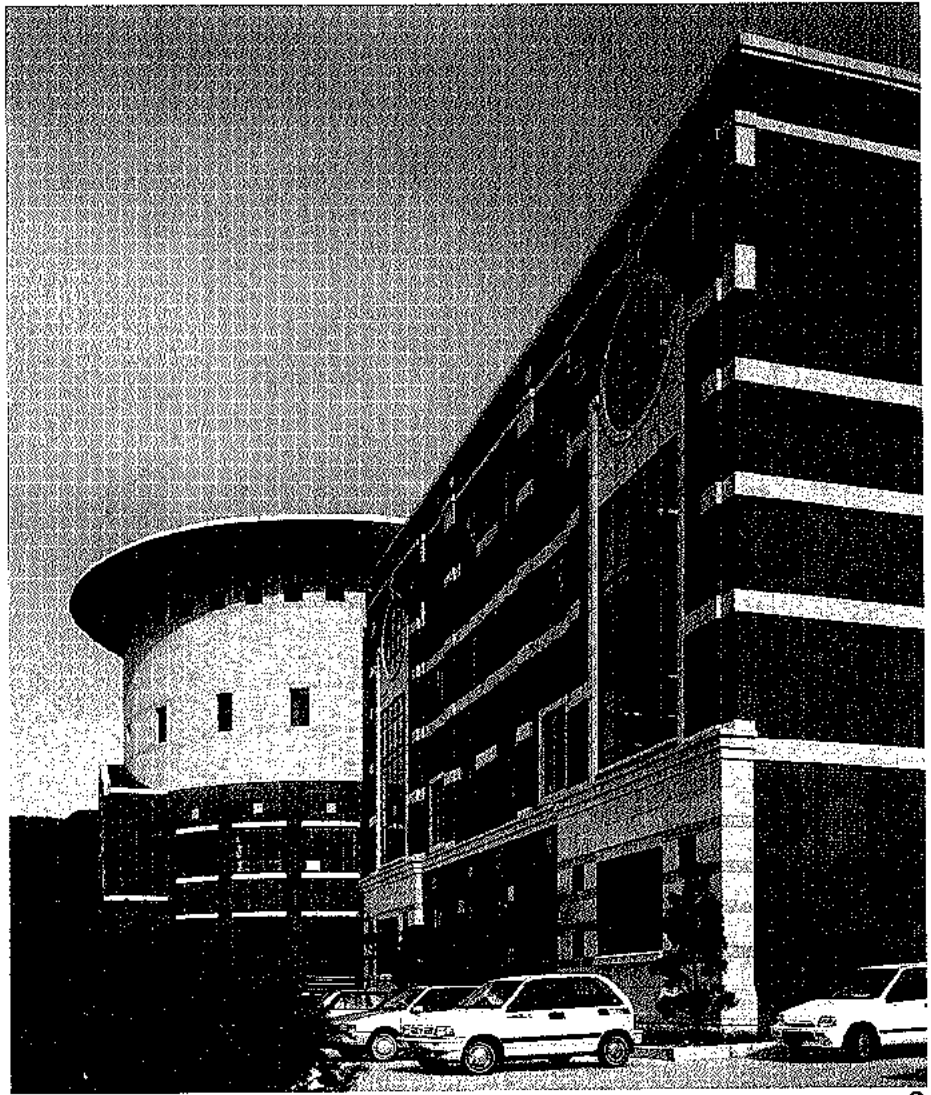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용인캠퍼스내
건축면적 / 1,823.25㎡
연면적 / 7,356㎡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 마감 / 적벽돌 + 화강석
총열람석 1,600석



수년전 설계, 사용중인 학생회관 이후 도서관 설계를 의뢰 받고 둘러본 대지의 조건은 학생회관 및 전면 도로와의 전, 측면에 걸친 고지차, 대지자체의 불균형한 경사도, 좁고 길게 뻗어진 형상등 결코 좋은 여건이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이 창작의 근본임을 다시금 상기하며 도서관이라는 상징성에 걸맞는 작품을 남기고픈 의욕속에 여러날을 몰두하며 캠퍼스의 분위기가 이국적이어야 함을 필요성으로 요하는 대학의 뜻을 기본 개념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배치 및 평면계획은 길고 좁게 생긴 부정형의 대지조건에 순응하며 캠퍼스 진입시의 시각적 인지도 및 상징성 부여의 의도로 규모에 비해 웅장해 보이도록 파노라마식의 배치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물로의 인·차진입동선을 고려, 중앙에 주진입계단을, 좌우측에 램프를 형성, 이용자진입, 및 장서 반출입동선의 원활성을 유도하였다. 배치상 후면에 확보된 잔디밭은 향후 야외독서, 휴게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길게 펼쳐진 메스상 중앙에 주연결부를 계획, 기능 동선상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좌우 Wing의 일람실을 이어주는 기능을 부여, 도서관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부에 세미나실을 배치, 집약적 기능을 강조하여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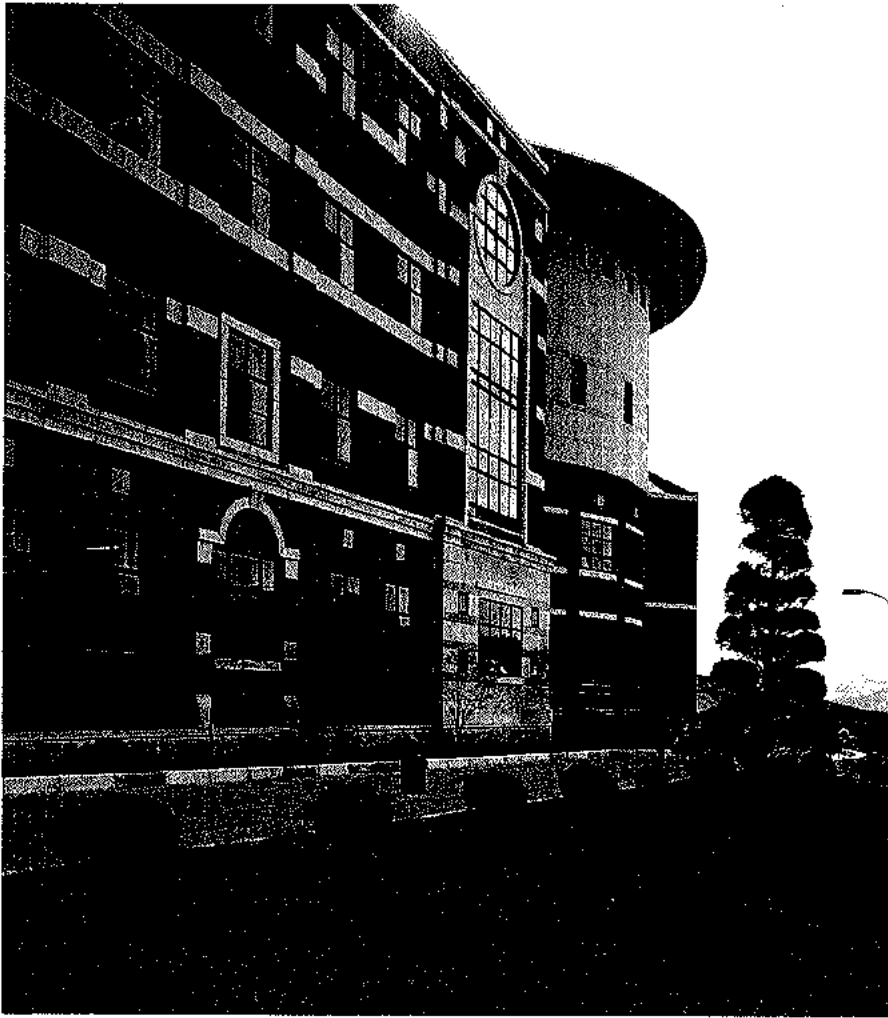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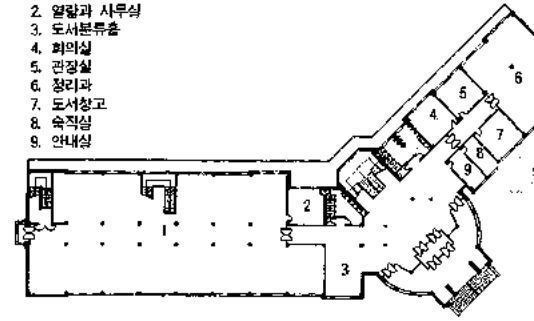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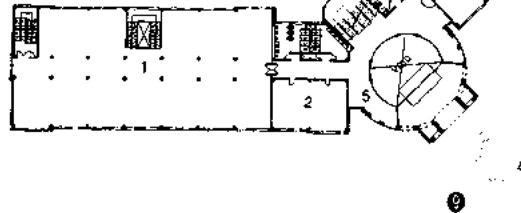
6



1. 서 고
2. 열람과 사무실
3. 도서분류층
4. 회의실
5. 권장실
6. 정리과
7. 도서창고
8. 숙직실
9. 안내실



1. 서 고
2. 교수 열람실
3. 독서실
4. 참고열람실
5.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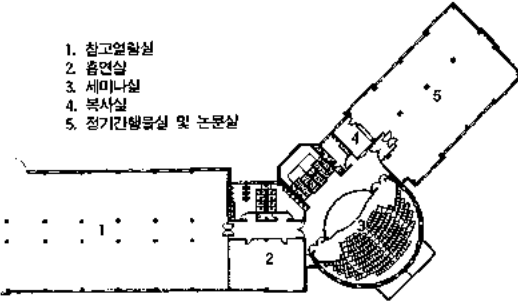
- ⑤ 측면 상세
- ⑦ 1층 로비전경
- ⑧ 1층 평면도
- ⑨ 2층 평면도
- ⑩ 3층 평면도
- ⑪ 4층 평면도
- ⑫ 전경
- ⑬ 올라다본 외벽상세
- ⑭ 본관 및 도서관 동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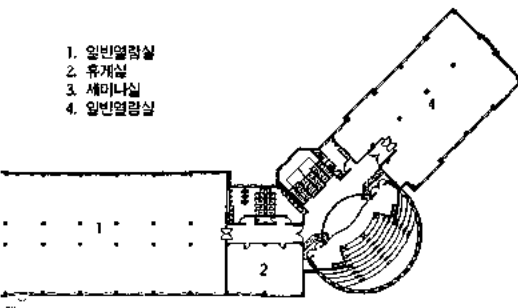
⑦

1. 참고열람실
2. 휴면실
3. 세미나실
4. 복사실
5. 정기간행물실 및 논문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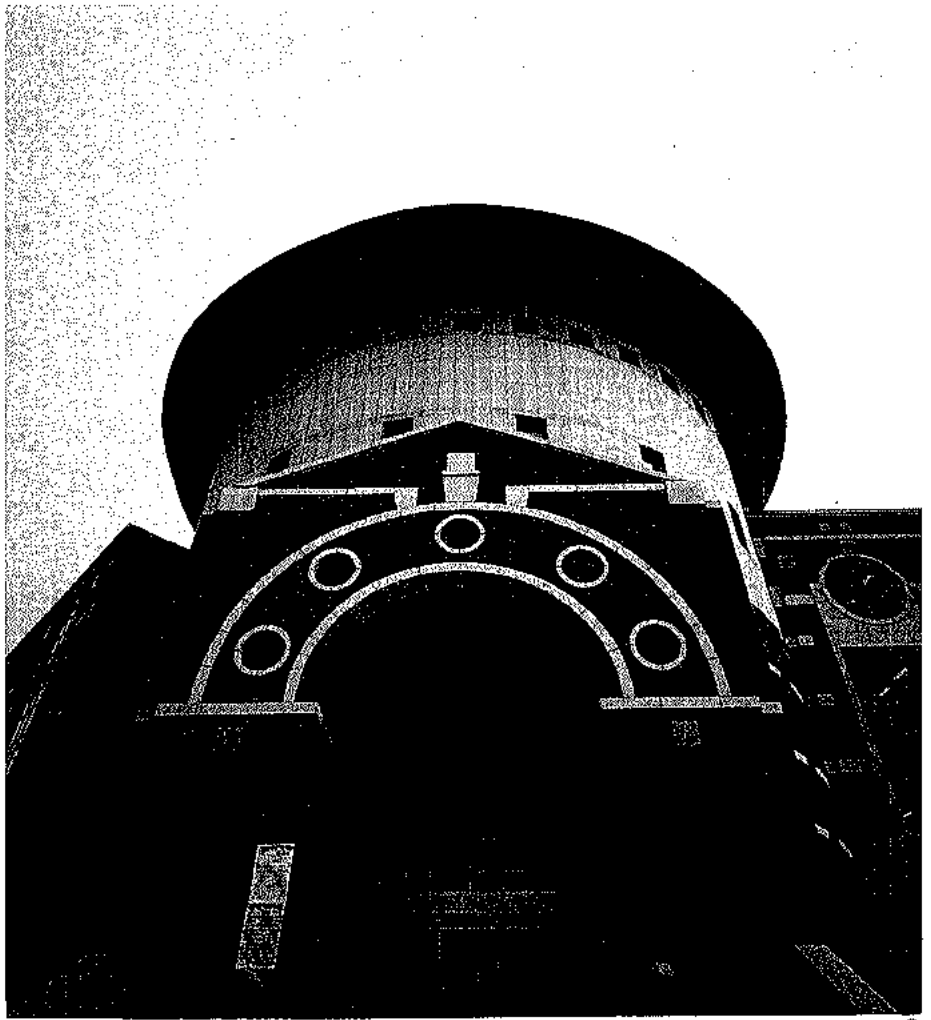
1. 일반열람실
2. 휴게실
3. 세미나실
4. 일반열람실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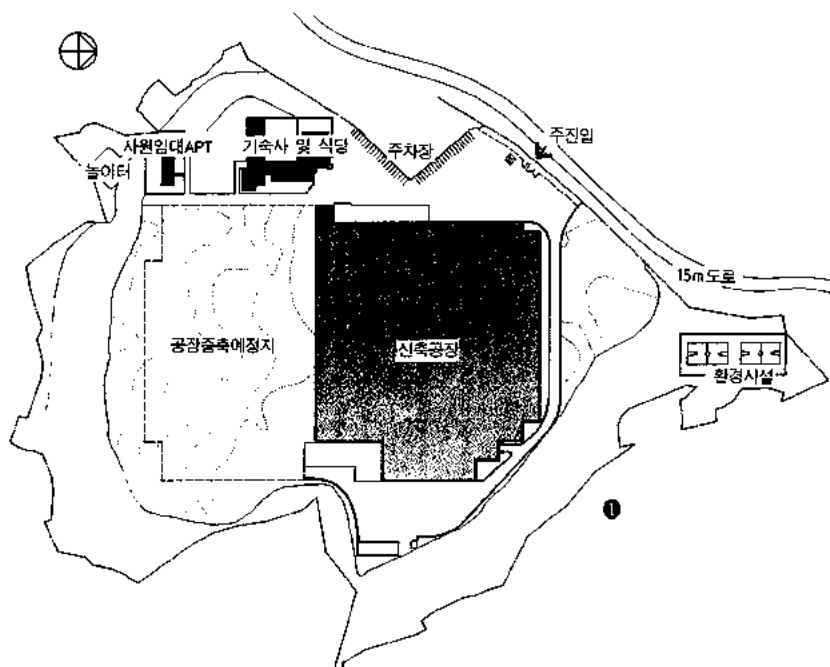
14

일신방직 기숙사 및 사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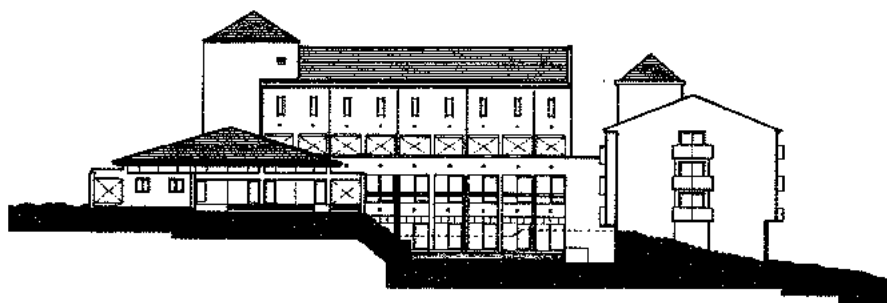
Ilisin Textile Co. in
Changwon Factory,
Dormitory, Residence

WORKS

禹時庸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Woo, Si-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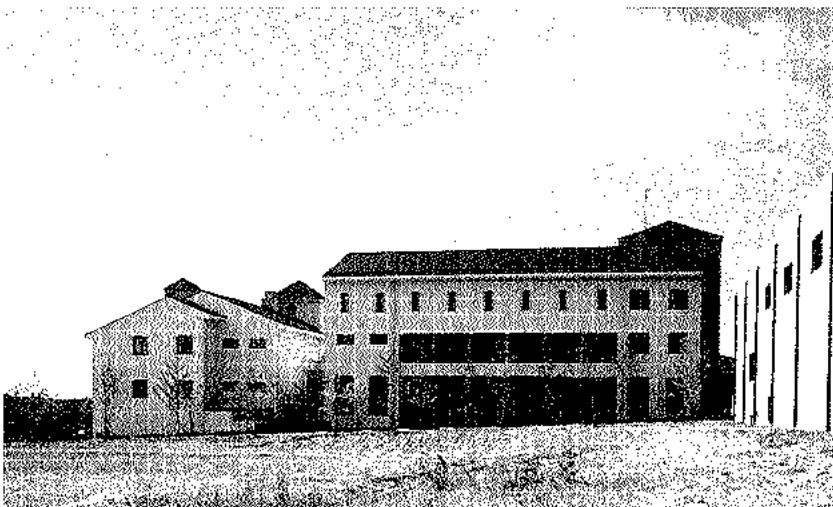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산93의 10필지
대지면적 / 135,604㎡
건축면적 / 1,614.48㎡
연면적 / 4,358.78㎡
건폐율 / 1.19%
용적률 / 270%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계담당 / 김선재, 정규식, 조동은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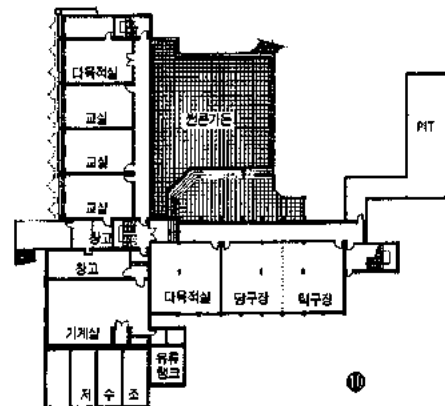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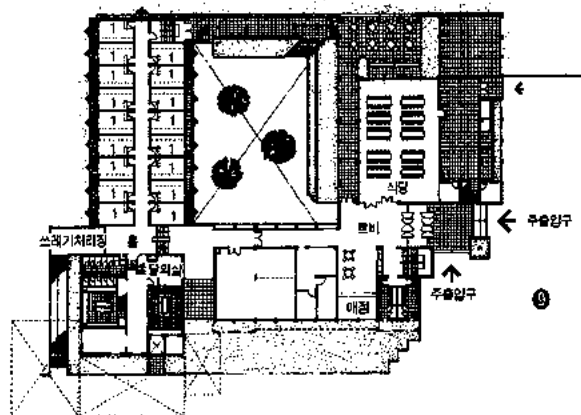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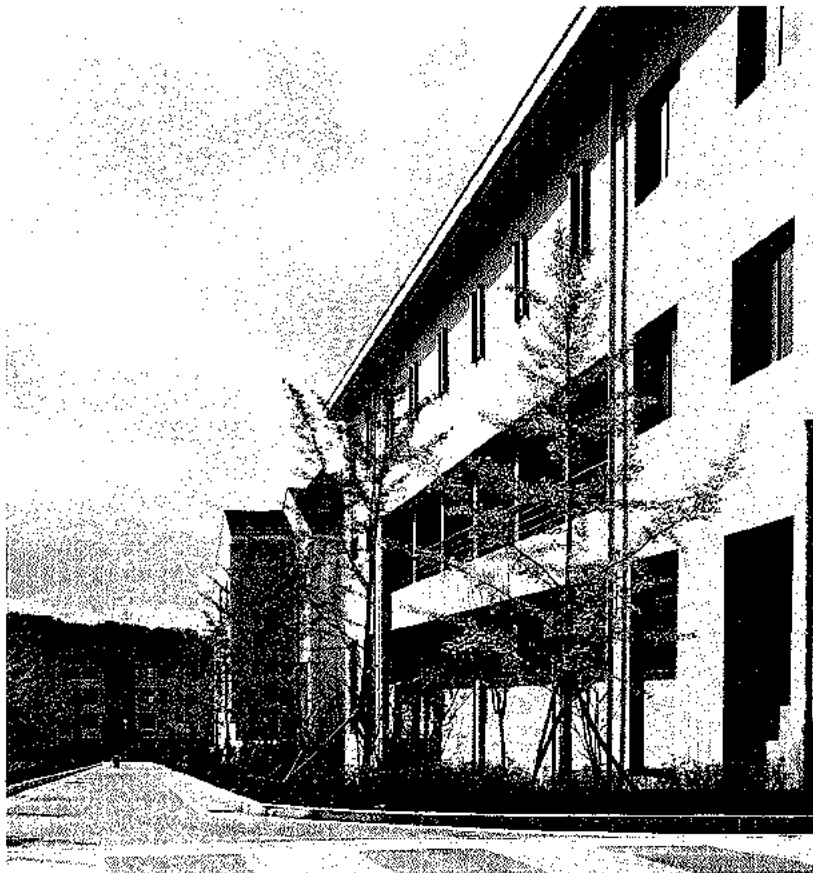
6

(주)일신방직 청원공장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에 얇은 야산의 일부를 절토하여 평평하면서 일부 남쪽으로 경사진 곳에 부지가 조성되어 남북으로 좋은 전망을 제공하는 쾌적한 자연환경 요소를 지니는 대지조건을 갖고 있다.

공장 주변환경이 도시주변의 공장과는 달리 시골의 외딴 곳에 위치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공원들에게 일터로서 또는 생활의 터로서 제공하는데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기숙사는 단지 숙식이 해결되는 기본적인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곳에는 300여 명의 여공원들이 전자동의 현대화된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외에 생활의 구심점으로서 기숙사의 역할과 기숙사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물리적인 환경은 성숙기의 여공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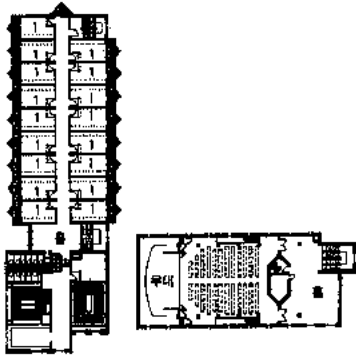
공장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1층의 주현관홀에서 식당, 안내소, 오락실, 대강당으로 동선을 연결시켜 숙소동과는 동선을 차단시킴으로써 취침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숙소동은 지하층에 여공원들을 위한 교실과 취미실 등을 두고 1,2,3층은 층별로 3교대 근무자를 위해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숙소부분은 경사지를 이용하여 입구 로비부분의 복도와 반층 차이의 계단을 두어 기능적, 시각적인 차단을 주고 있다.

부대시설동은 지하층에 당구장, 탁구장, 디스코텍 등이 있어 종합 오락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1층에는 안내소, 매점, T.V실, 2층은 남자공원 숙소, 3층에는 대강당이 있다. 이처럼 여러 상이한 기능의 복합에 의한 공간구성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능이 달라지는 곳에 단차에 의한 레벨의 변화로 기능과 공간의 분리를 시도하였으며, 크고 작은 매개공간을 동선의 절절부와 다른 기능이 합쳐지는 곳에 위치시켜 공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강하게 질서를 갖는 공간을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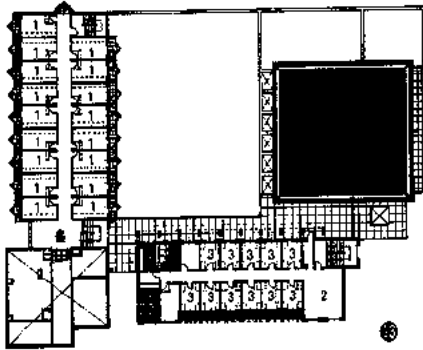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서측 입면도
- ③ 기숙사 및 식당 연결부
- ④ 전체 전경
- ⑤ 동측 전경
- ⑥ 기숙사들 로비
- ⑦ 사원주택 배면측 상세
- ⑧ 사원주택 전면
- ⑨ 2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서측면 파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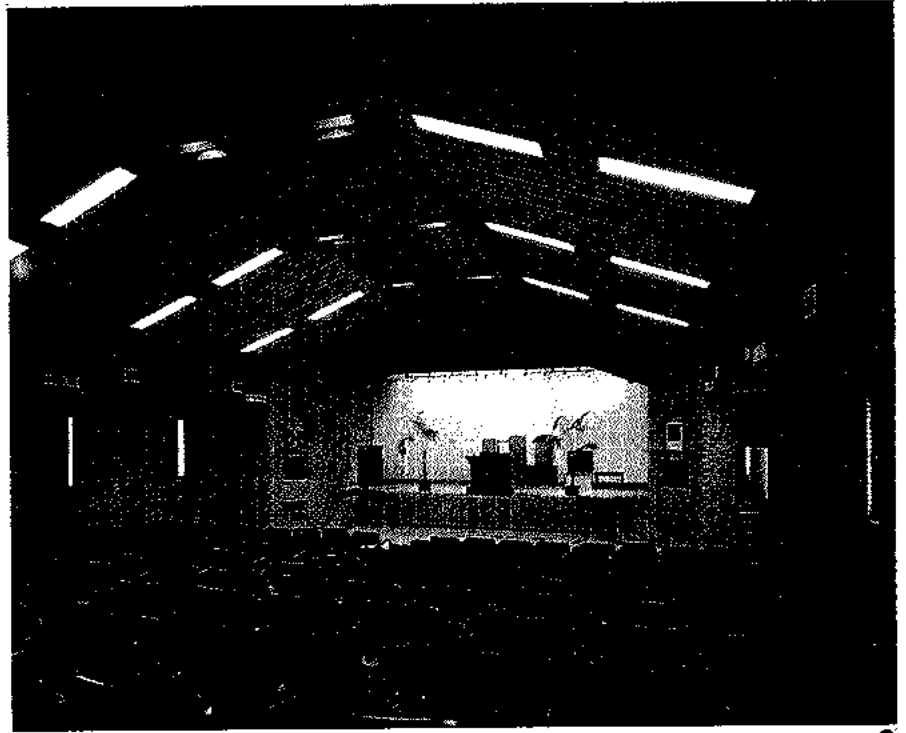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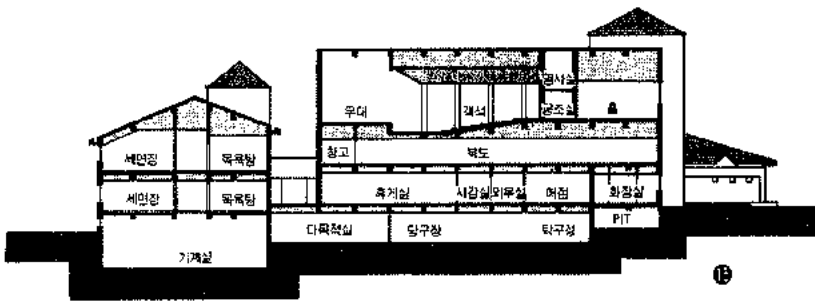
⑫



⑬



⑭



⑮

- ⑫ 4층 평면도
- ⑬ 3층 평면도
- ⑭ 2층 강당 전경
- ⑮ 주 단면도
- ⑯ 사원주택 외벽상세
- ⑰ 식당전경



⑯



⑰

삼성체육관

Samsung Gymnasium

金昌壽+朴昇+韓相默

Designed by Kim, Chang-Soo ·

Park, Seung · Han, Sang-Mook

WORKS

대지위치/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42-1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29,610㎡

건축면적/3,384.5㎡

연면적/7,767.5㎡

건폐율/19.38%

용적률/28.38%

구조/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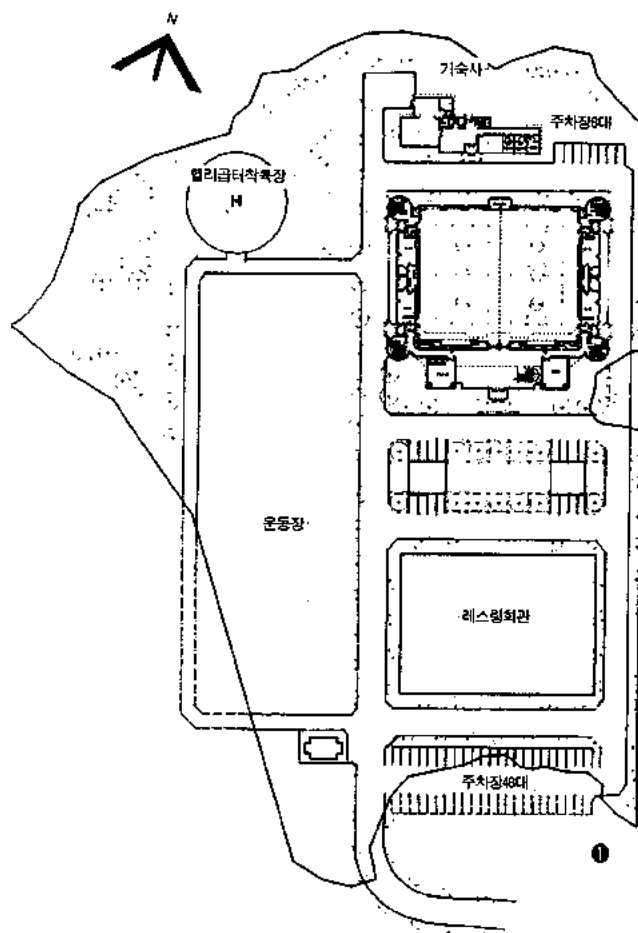
규모/지하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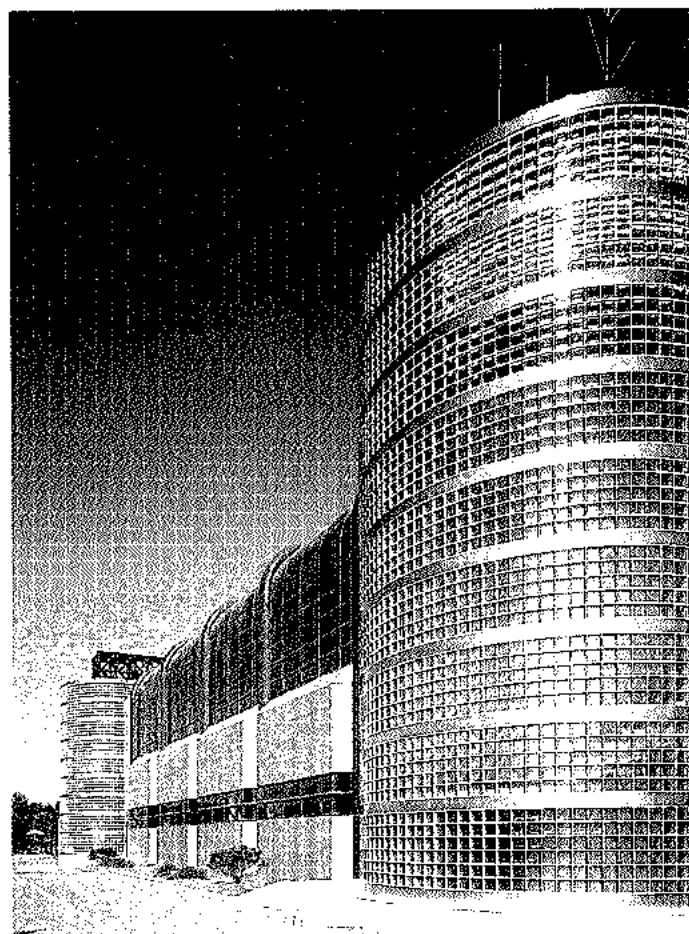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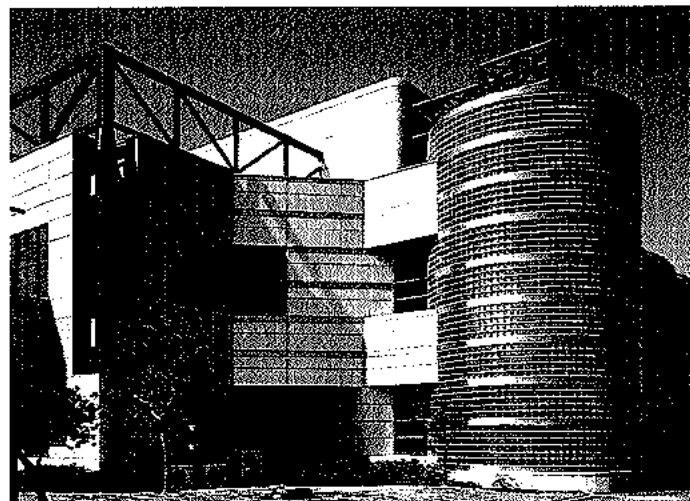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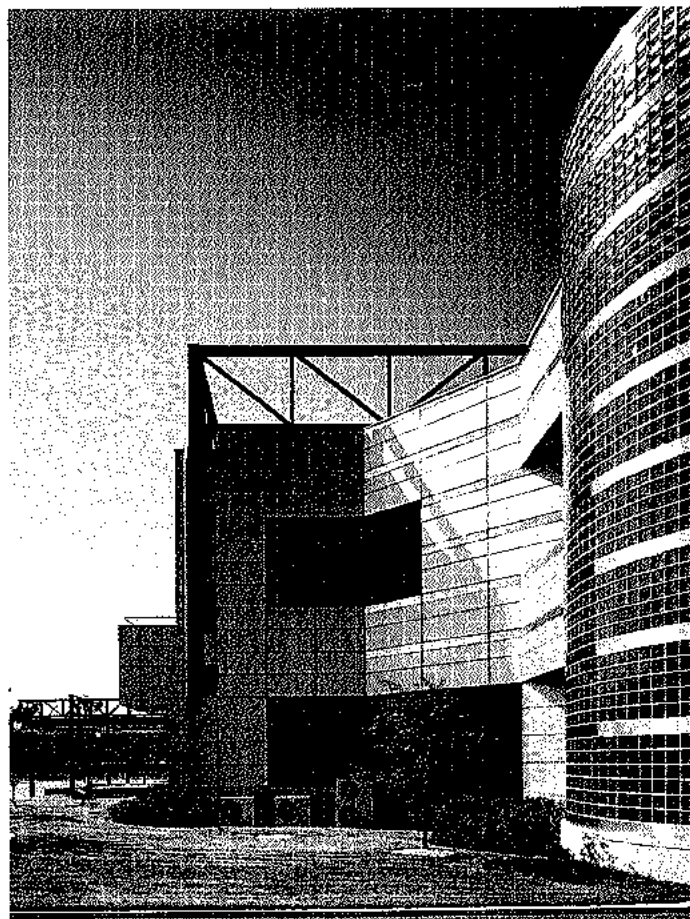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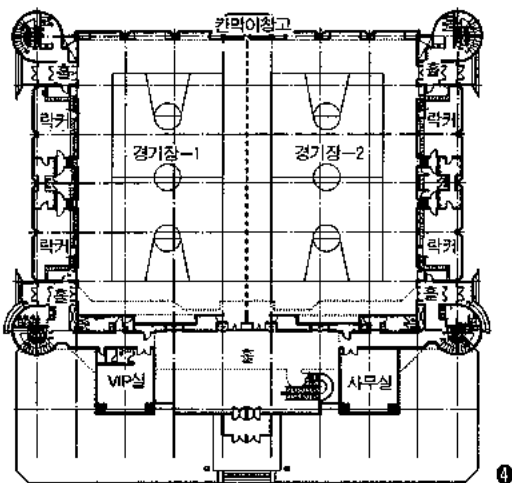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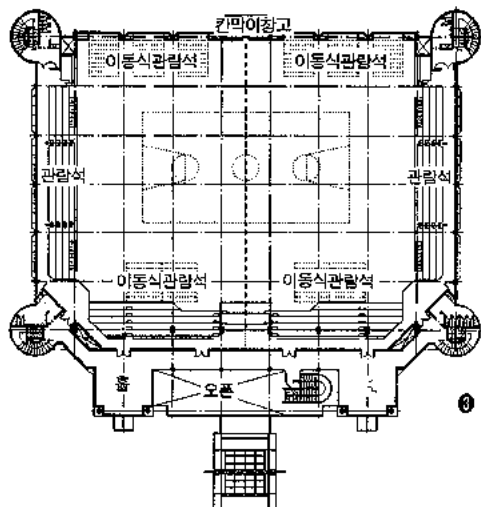
주요외장/알루미늄 복합판넬

실계팀장/현승훈, 건축-손명기, 김선재, 구조-이필호,

전기-강상욱, 설비-한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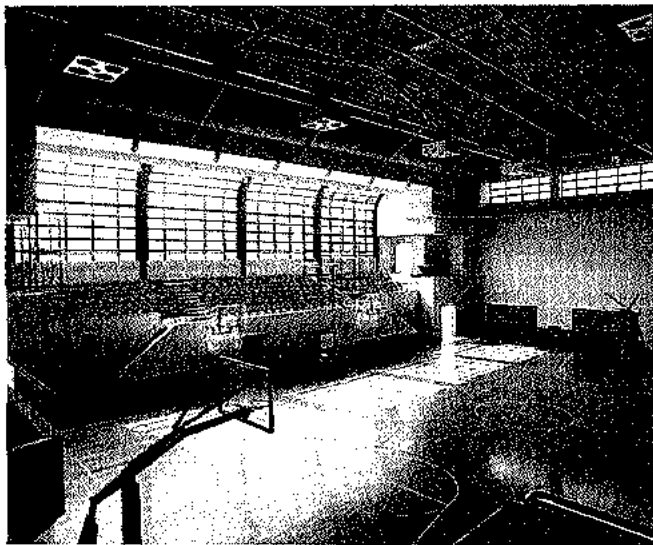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전경
- ③ 2층 평면도
- ④ 1층 평면도
- ⑤ 측면 외벽상세
- ⑥ 외벽 모서리 상세 I
- ⑦ 외벽 모서리 상세 II
- ⑧ 로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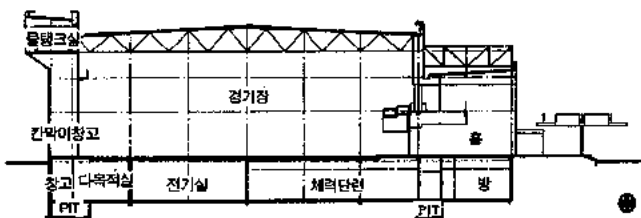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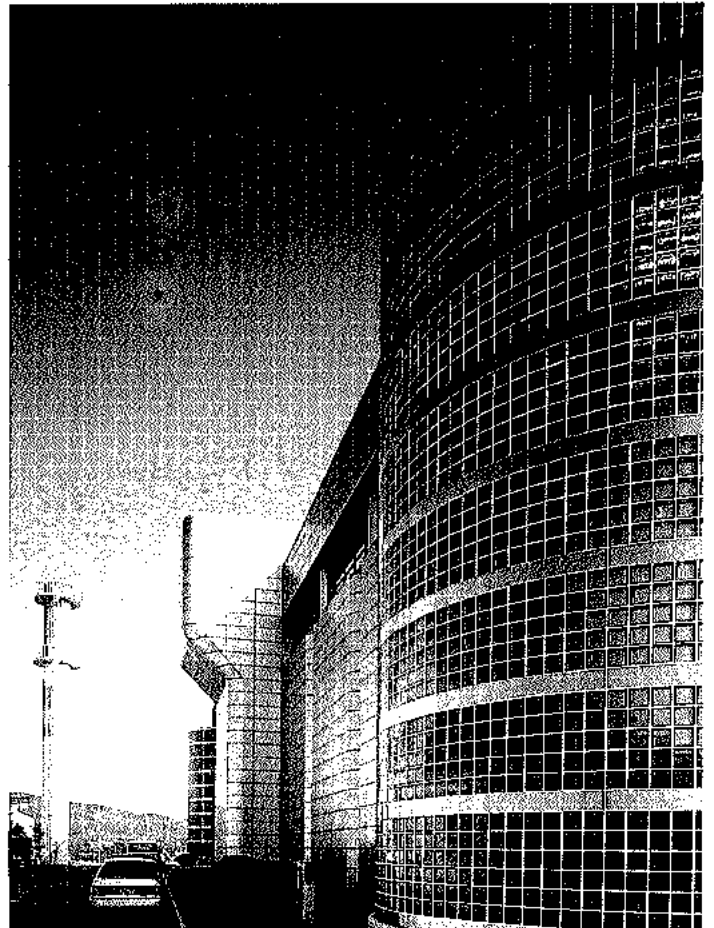


10

- ⑨ 정면 전경
- ⑩ 경기장 전경
- ⑪ 종단면도
- ⑫ 배면측 외벽 상세
- ⑬ 외벽 모서리 상세
- ⑭ 측면 상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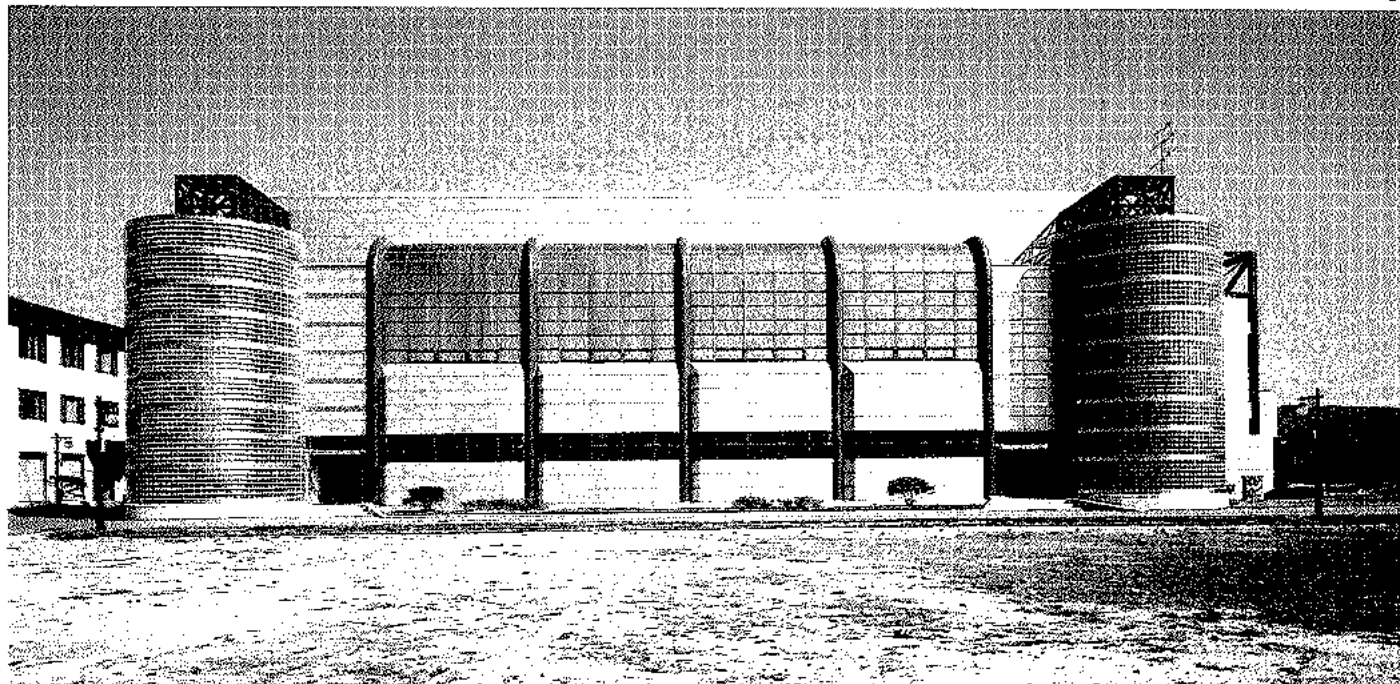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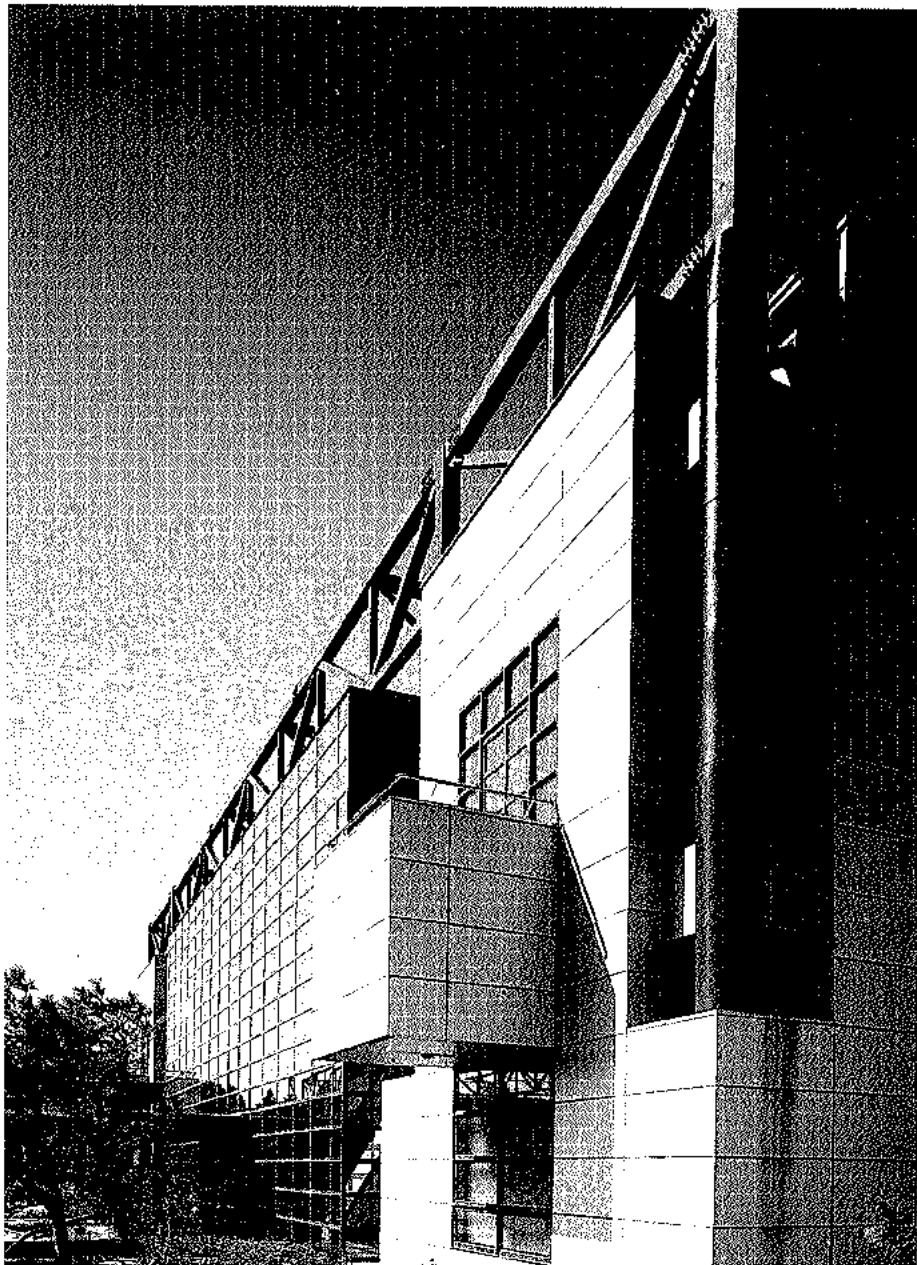
12

■
 답답한 서울을 뒤로 하고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얼마 내려가지 않으면 왼편으로
 죽전휴게소가 나타나고 오른편으로 나즈막한
 야산이 펼쳐진다. 이 곳에 흰 뭉개구름이 진하게
 푸르른 하늘과 마주치는 앞으로 “위풍당당
 체육관”이 알루미늄패널 은회색과 진한 초록의
 골조미를 강하게 드러내며 주변의 푸르름과 함께
 하고 있다. 본 삼성체육관은 소속 남·녀
 농구팀의 연습장 및 사원의 체육활동과 장래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농구코트 2면과 이에 따른
 부속실·체력단련실·목욕탕·휴게 및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외관은 은회색의 알루미늄패널, 은색의
 스테인레스 스틸 띠, 진한 초록의 노출된
 구조체·유리·스테인레스 프레임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네 귀퉁이의 유리블럭으로
 된 원형 코어(계단 및 화장실)는 독립된
 구조체로서 본 건물과 강한 결속미를 나타내며
 안정감을 주고 있다. 전면에는 노출된 구조체가
 로비의 2층 바닥을 덮아내고 있어서 1층 로비는
 기둥이 없는 시원한 홀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는 주용도인 농구코트가 Movable
 Partition에 의해 평소 2개의 코트로 사용하던
 것을 필요시 파티션(H=12m)을 이동시켜서
 하나의 넓은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층 관람석 하부에는 8단 이동식
 관람석을 준비하였다. 지하에는 200평 규모의
 조깅트랙이 설치된 체력단련장, 핀란드식
 사우나가 설치된 목욕탕 및 당구장·휴게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레슬링회관과 주변의 과수원은 시원한
 야외공간을 형성하리라 보며, 새로운 분위기의
 본 체육관이 장래 지역주민 및 사원들의 훌륭한
 여가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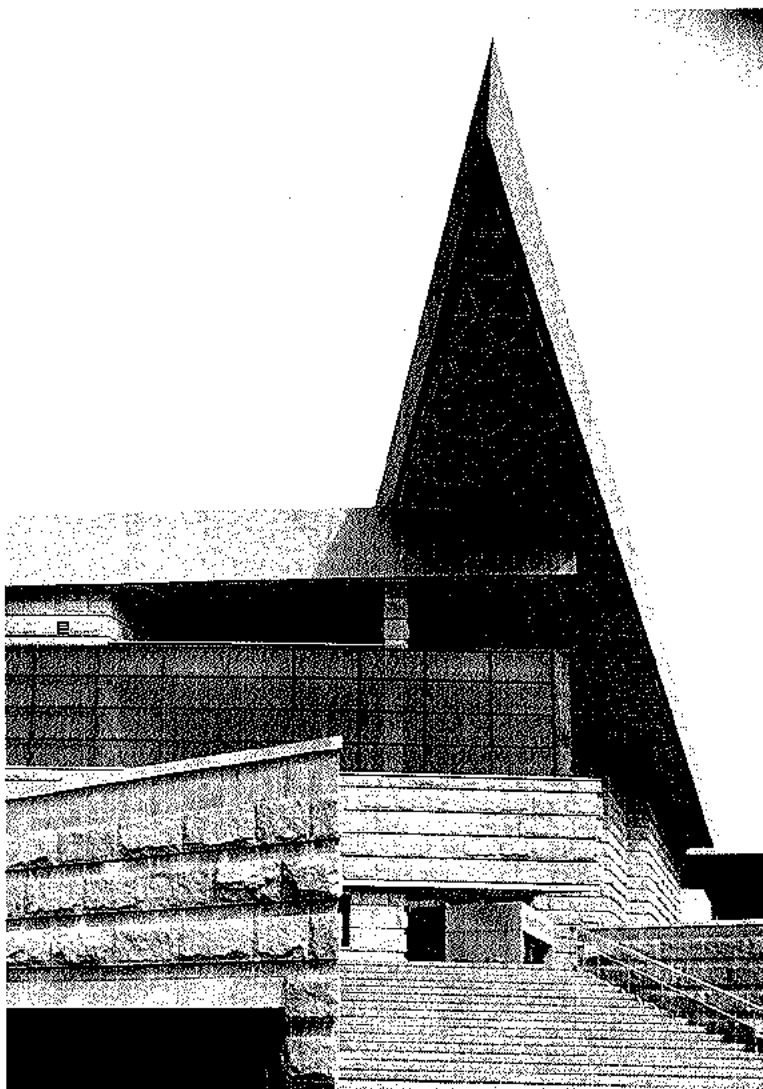
인천시립박물관

Inchön Civi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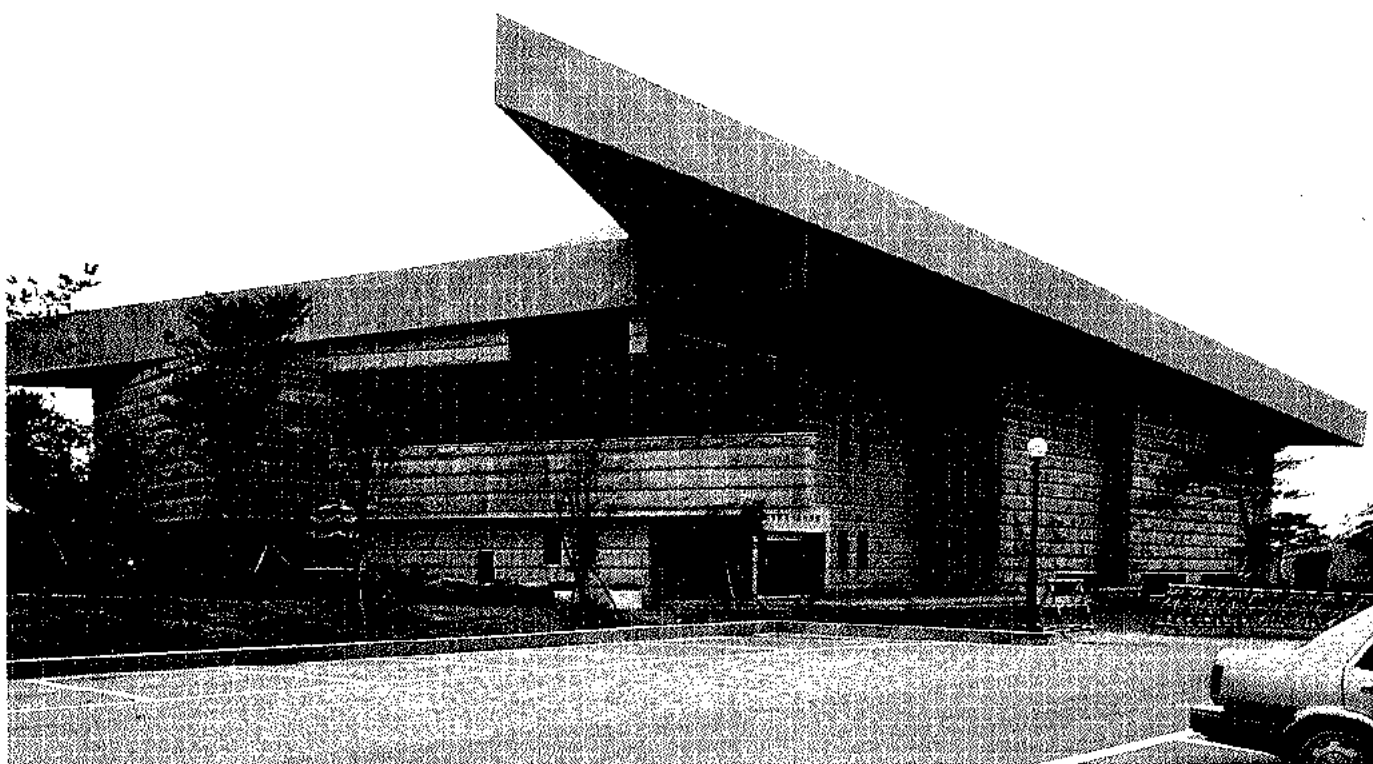
WORKS

林長烈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Yui

■
대지위치 / 인천시 남구 옥련동 인천상륙 작전기념관내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구, 주거지역
대지면적 / 11,280.39㎡
건축면적 / 1,547.28㎡
연면적 / 2,692.7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혹두기 + 버너구이
건폐율 / 13.7%
용적률 / 16.5%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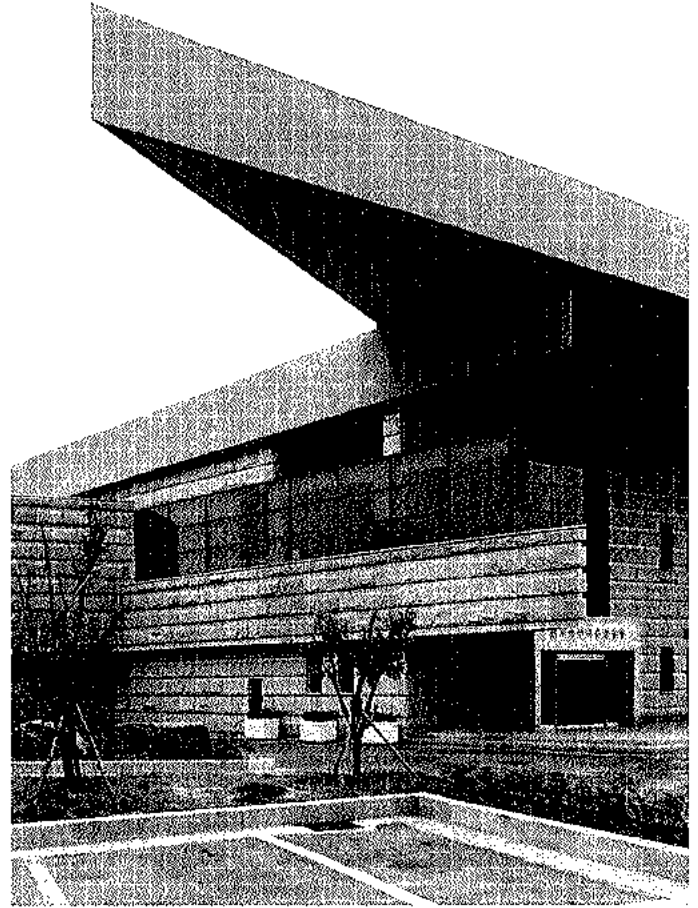
■ 근대 개방 전후로 발전의 폭이 크게 확장된 인천의 역사박물관 신축은 차라리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설계는 건축물 자체의 기능성, 조형성과 함께 Site가 갖고 있는 자연적 여건을 최대한 소화하여 반영할 수 있는 요구가 절실하다. 특히 옥련사 중턱 시민공원에서 송도는 관광을 겸한 유원지로서 지역에 걸맞는 형태와 배치가 요구되었다. 송도 앞바다의 청색 푸른바다의 원경과 옥련산 기존 수림의 녹갈색, 그리고 군데군데 산허리에 노출된 회갈색의 암석면 배경 위에 밝은 백색 계열의 색상조합을 선택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강조시켜 인지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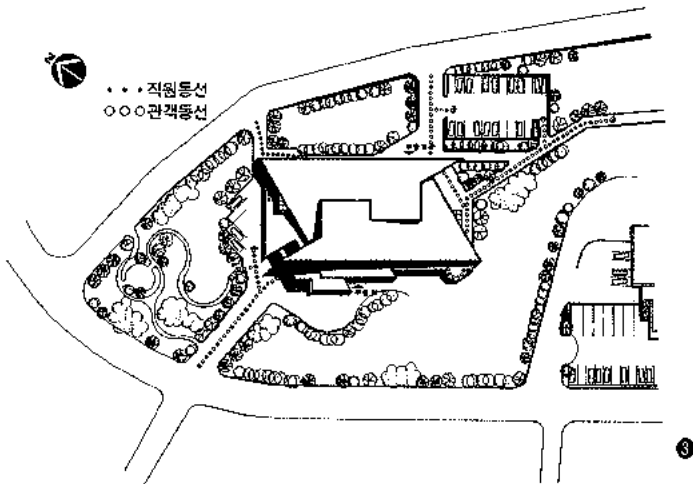
배치계획

진입계획은 인접하여 위치한 故 김수근교수의 인천상륙기념관과 연계하여 기념관 관람동선의 흐름을 순리적으로 유도하여 남서측도로를 주진입으로 하고 후면 인접도로를 활용하여 부진입이 가능도록 하였다. 지역이 공원에 위치하므로 전후방에 시민 휴게공간의 확보를 최대화하고 상륙기념관과 후방으로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야외 휴게동선의 흐름을 갖게 하였다. 절토면을 가급적 줄이고 주위의 송림숲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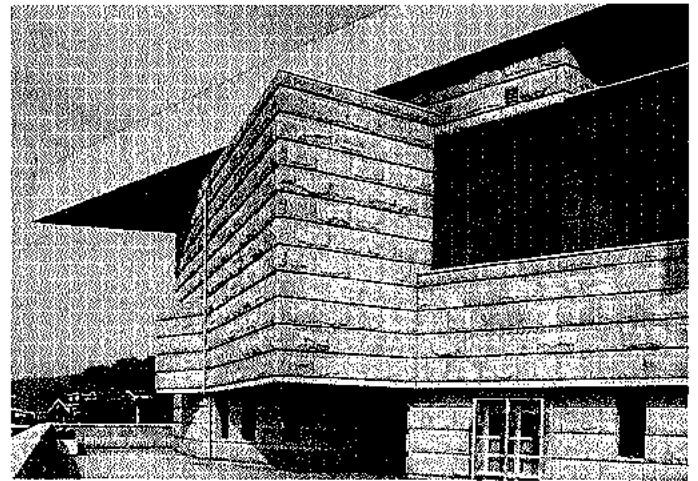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측 상세
- ② 전경
- ③ 배치도
- ④ 투시도
- ⑤ 부출입구측 상세
- ⑥ 외벽상세
- ⑦ 전시장 전경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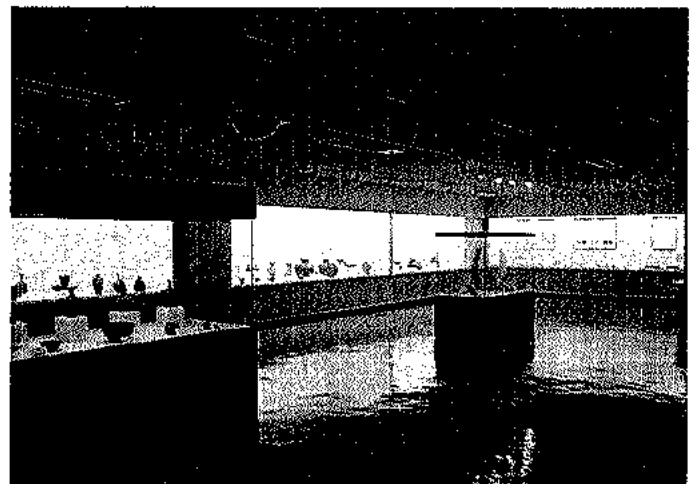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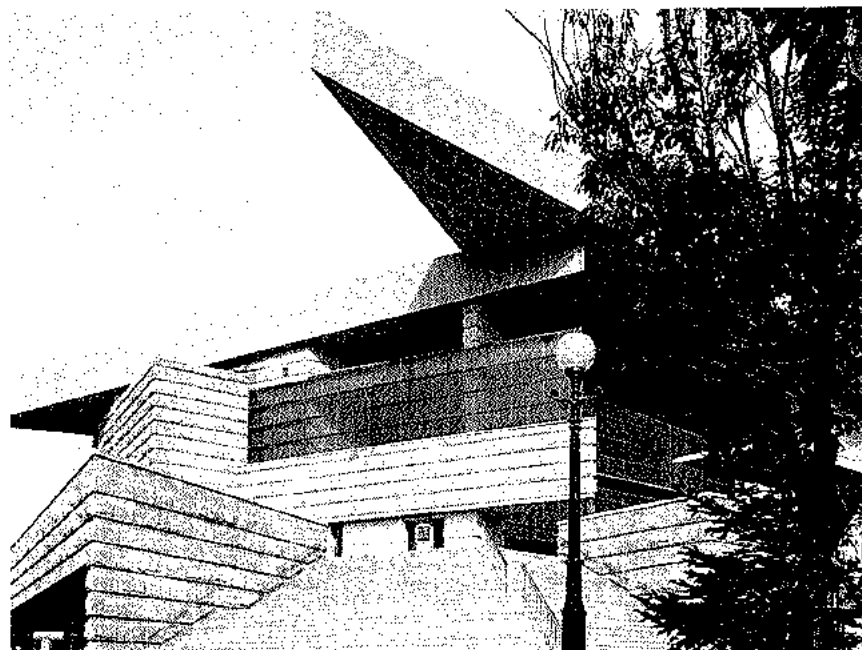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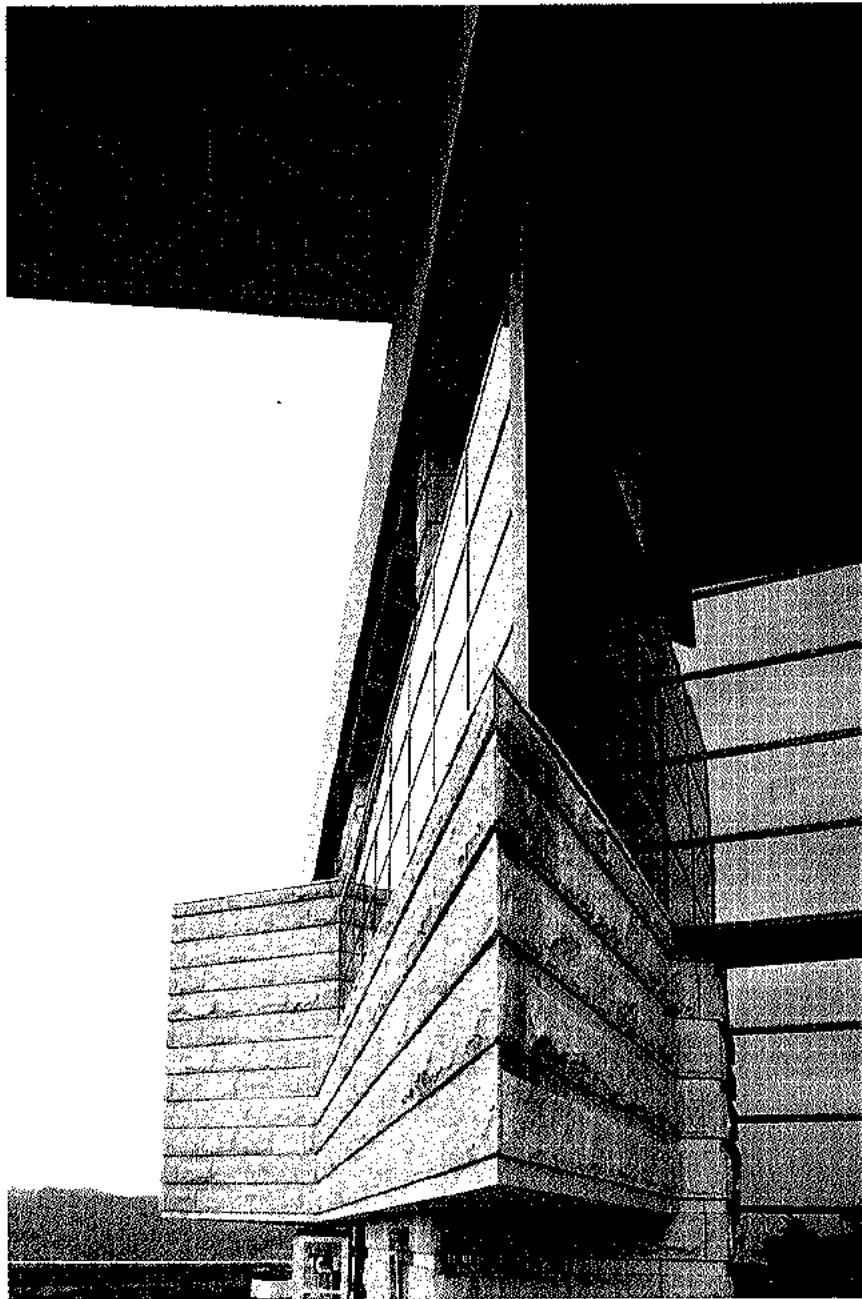
⑥



①



⑦



평면계획

전면 주진입과 후면 부진입의 각기 다른 Level을 가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된 한 개의 평면을 구성한다. 각 전시실은 반 층씩 엇갈려서 서로 상이한 Level을 가짐으로써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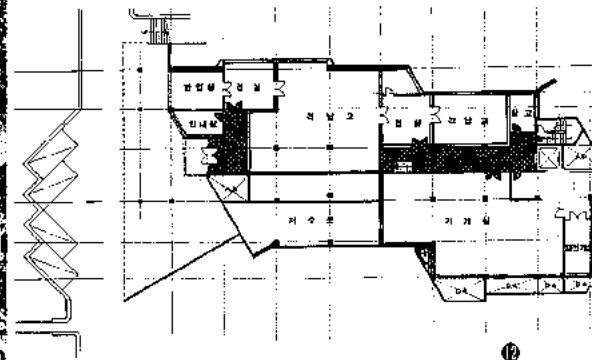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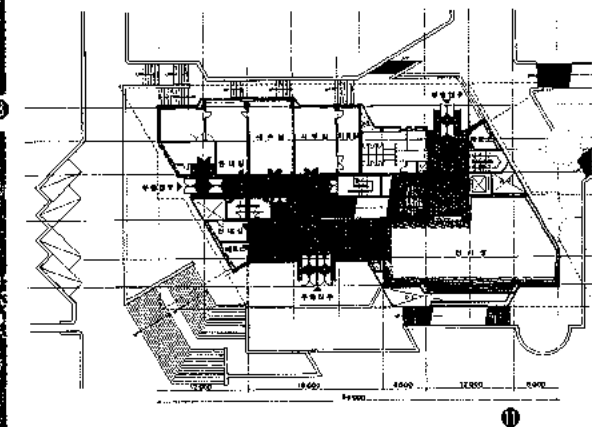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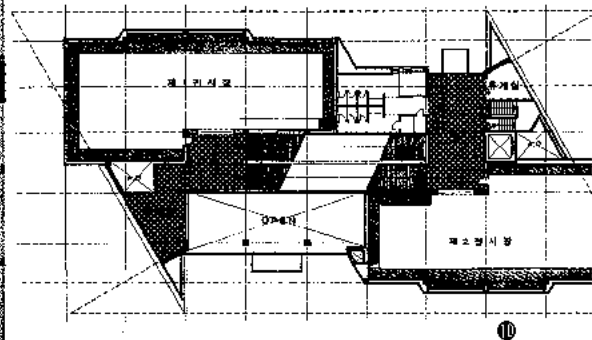
지붕의 Diagonal사선은 평면에 내재된 불완전성의 늪에 억제된 에너지의 외부분출로써 완전히 자유스러운 창공을 향한 예각의 치솟음이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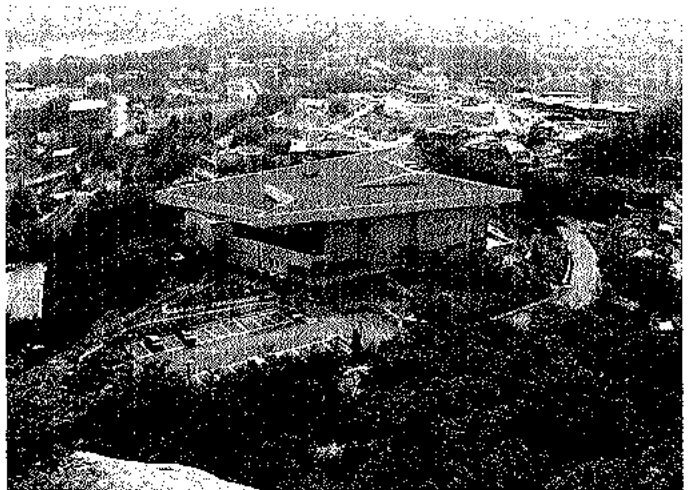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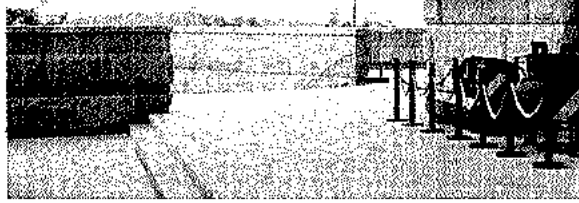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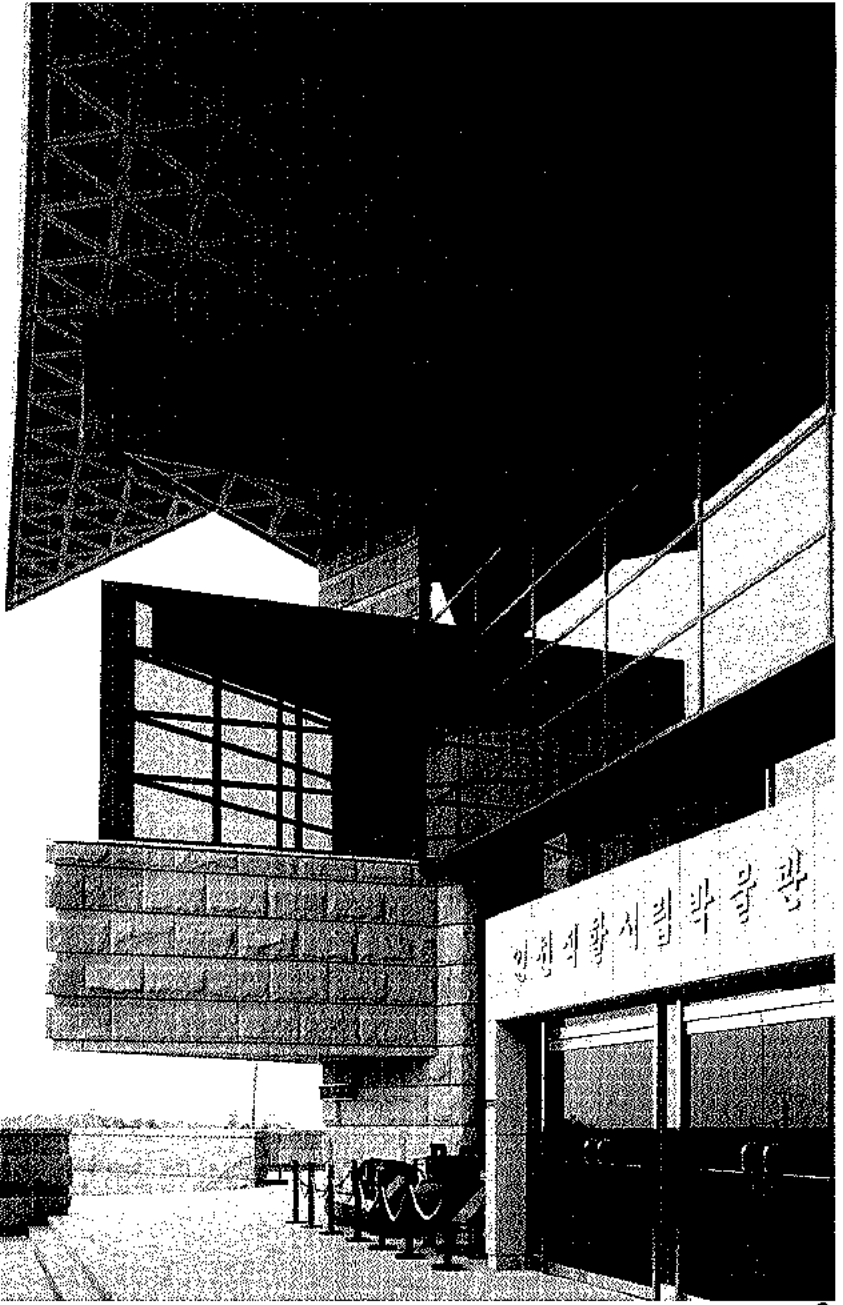
각도를 달리한 교차직선이 구성하는 직각, 예각, 둔각의 맞물림과 연계직선의 건물내 유입 및 그 연장선상에서 건물의부로 돌출되는 사선의 흐름을 중요시하여 삼각형이 갖는 예각의 발진적 진취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태는 우회도로를 따라 진입하는 시선이 닿는 각도에 따라 다이내믹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구성이 검토되어진 것이다.

맺음말

전시박물관의 기능상, 내외부의 공간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공용부분을 좀더 키우지 못하였던 점과 본 설계의 구조적·심미적 특성상 상주감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실제 의도하였던 디테일이 미흡하게 표현된 점은 참으로 아쉽다고 하겠다.



- ③ 외벽상세
- ④ 주출입구측 외부상세
- ⑩ 2층 평면도
- ⑪ 1층 평면도
- ⑫ 지하층 평면도
- ⑬ 주출입구 측 외부상세
- ⑭ 주출입구 측면 상세
- ⑮ 2층 오픈부
- ⑯ 원경



해인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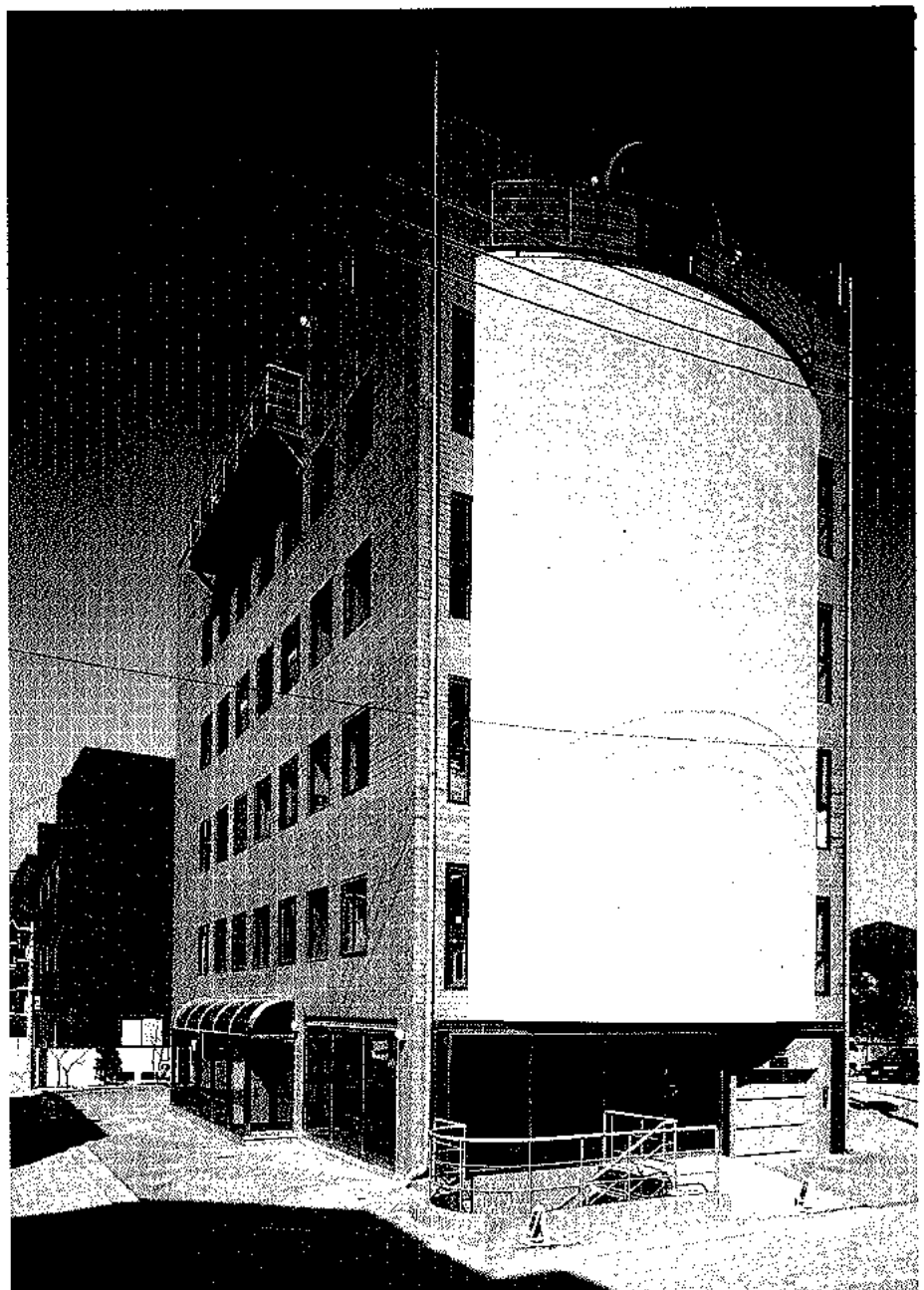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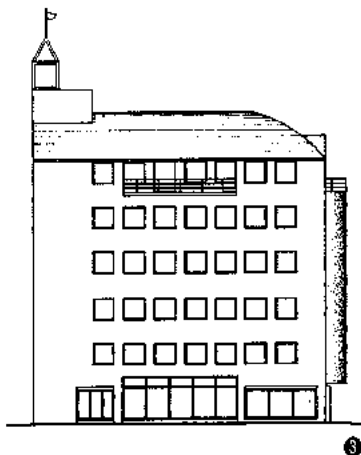
Haein Building

俞元在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건축
Designed by Yoo, Won-Jai

WORKS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대지면적 / 419.1㎡
건축면적 / 208.7㎡
연면적 / 1,709.7㎡
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건폐율 / 49.8%
용적률 / 285.1%
외부마감 / 외벽 - 자기질 외장타일
지붕 - 철골조위 동판지붕잇기



설계할 때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그 환경을 꾸미는 시도는 임산부의 상상과 같이 즐거운 것이다. 상상과, 그것에 의해 땅에 지어졌을 때의 건물은 많은 차이를 갖는다. 설계는 시공되었을 때의 공간적 입체감을 작은 스케일의 평면에서 상상하는 연속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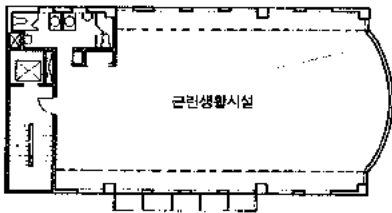
이 건물 평면은 담담하게 연속된 정방형의 창을 두고 서측면에서는 여름의 뜨거운 별을 막고 타일마감 벽면에 변화를 주려고 플라스틱 마감의 곡면벽을 두었다. 이렇게 구성된 장방형 입면체에 사선제한에 의한 곡선 모자를 씌워 매끈한 곡선미를 의도했으나 공사도중 아스팔트 성글로 바뀌었다.

내부공간의 질은 어느 정도 내부 볼륨의 크기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 6층 내부는 지붕형태를 그대로 내부에서 느끼도록 곡선 H형강이 보이게 하고 스프레이 단열처리를 하였다. 일반적인 평평한 천장에서 벗어나 곡면 천장의 커다란 볼륨을 가진 설을 구성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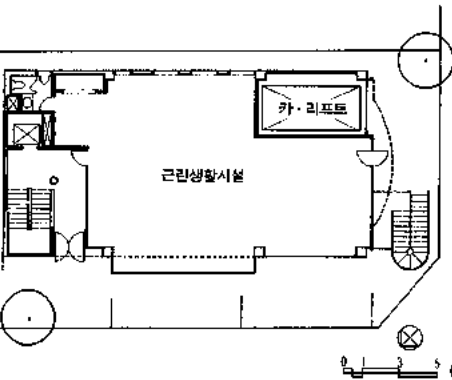
시공중 건설회사의 관리부재와 작업자들의 장인정신 결여로 인한 무관심은 많은 물질과 노력의 낭비를 빚어냈고 건물이 완성되기까지의 많은 행위들중 얼마만큼 설계자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설계시 설계임은 건물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점점함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구석구석 여러 사람들의 손길로 가꾸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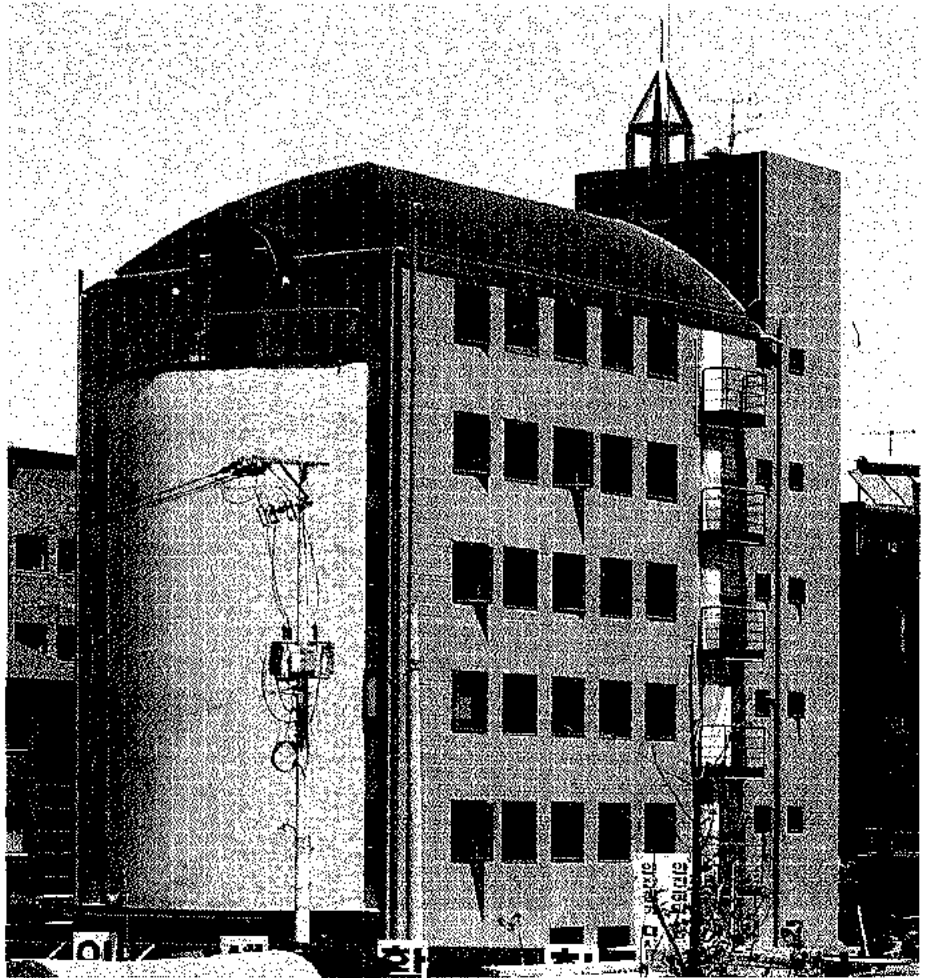
- ① 투시도
- ② 북서측 전경
- ③ 정면도
- ④ 남서측 전경
- ⑤ 지하층 입구
- ⑥ 6층 평면도
- ⑦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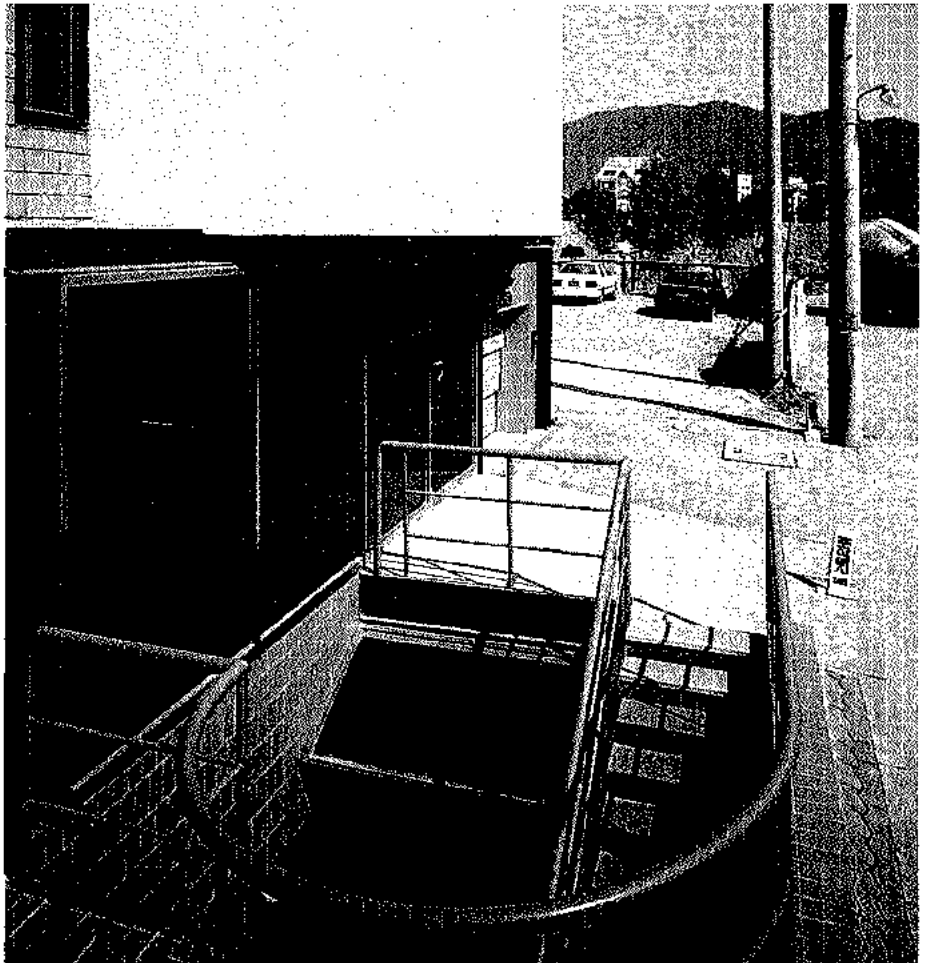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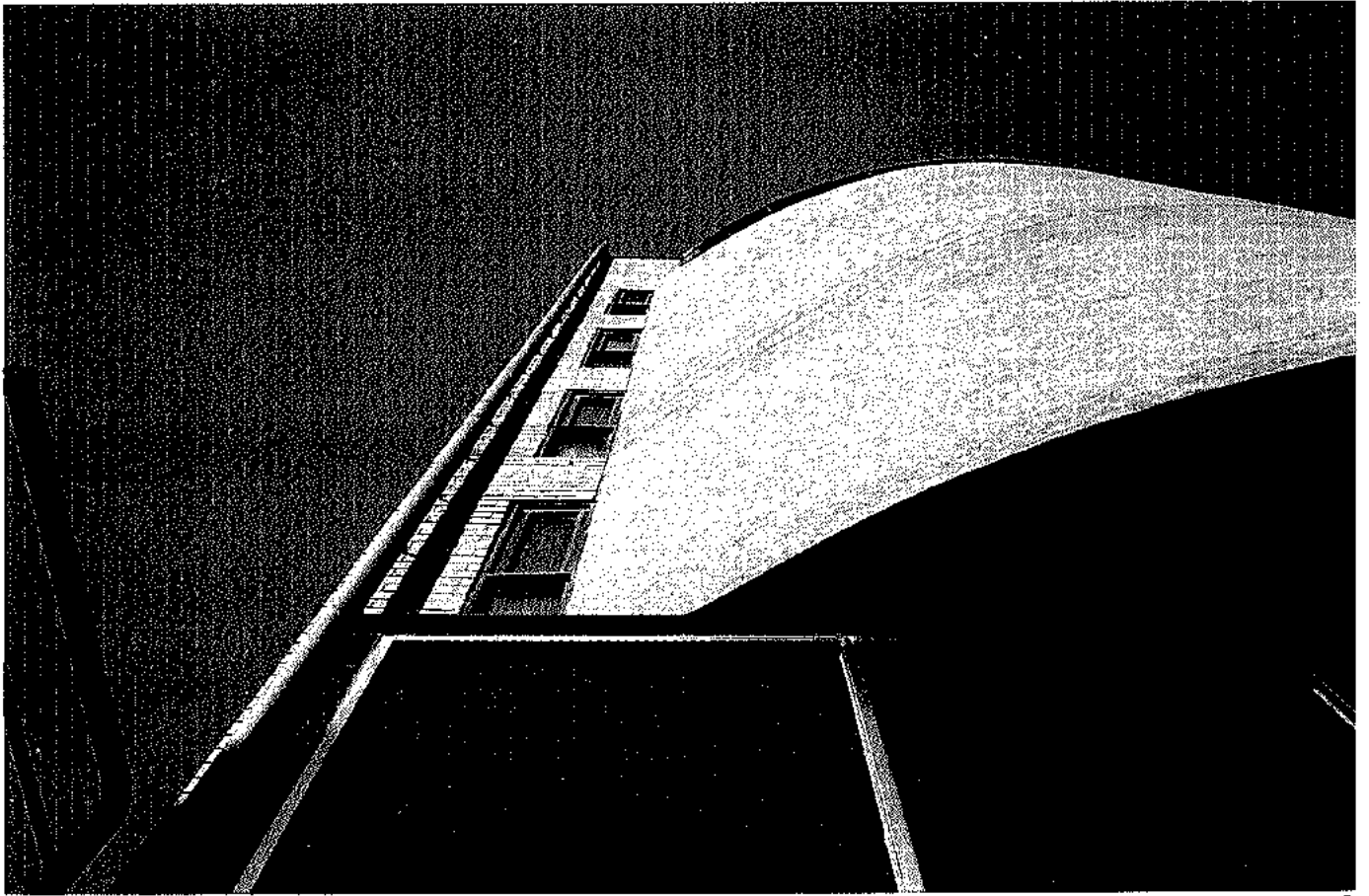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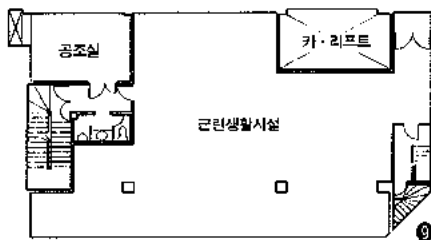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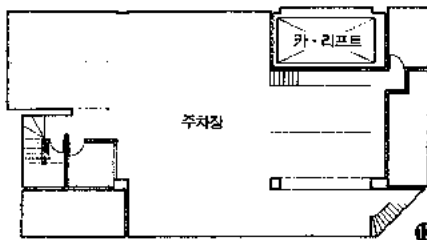
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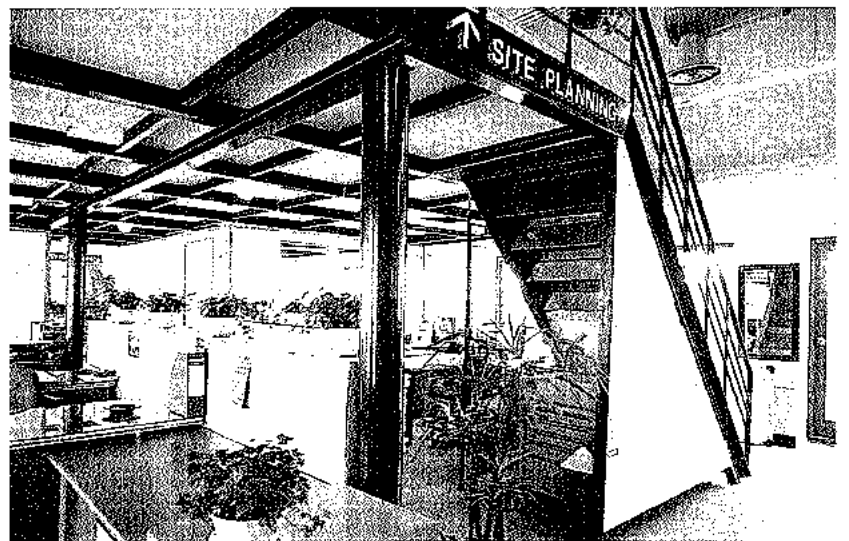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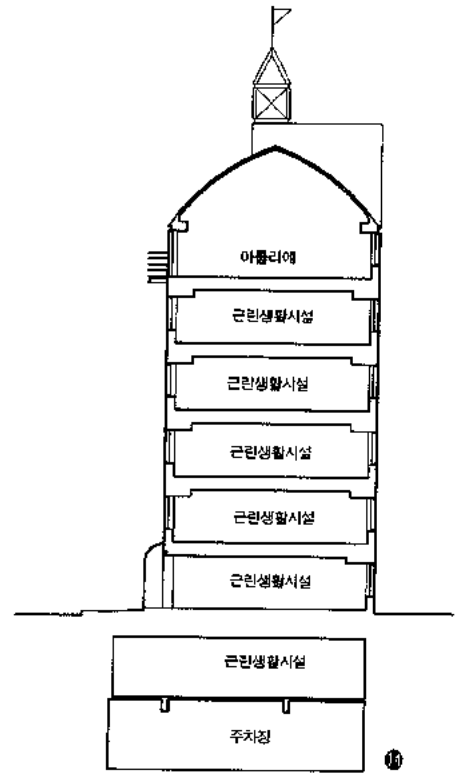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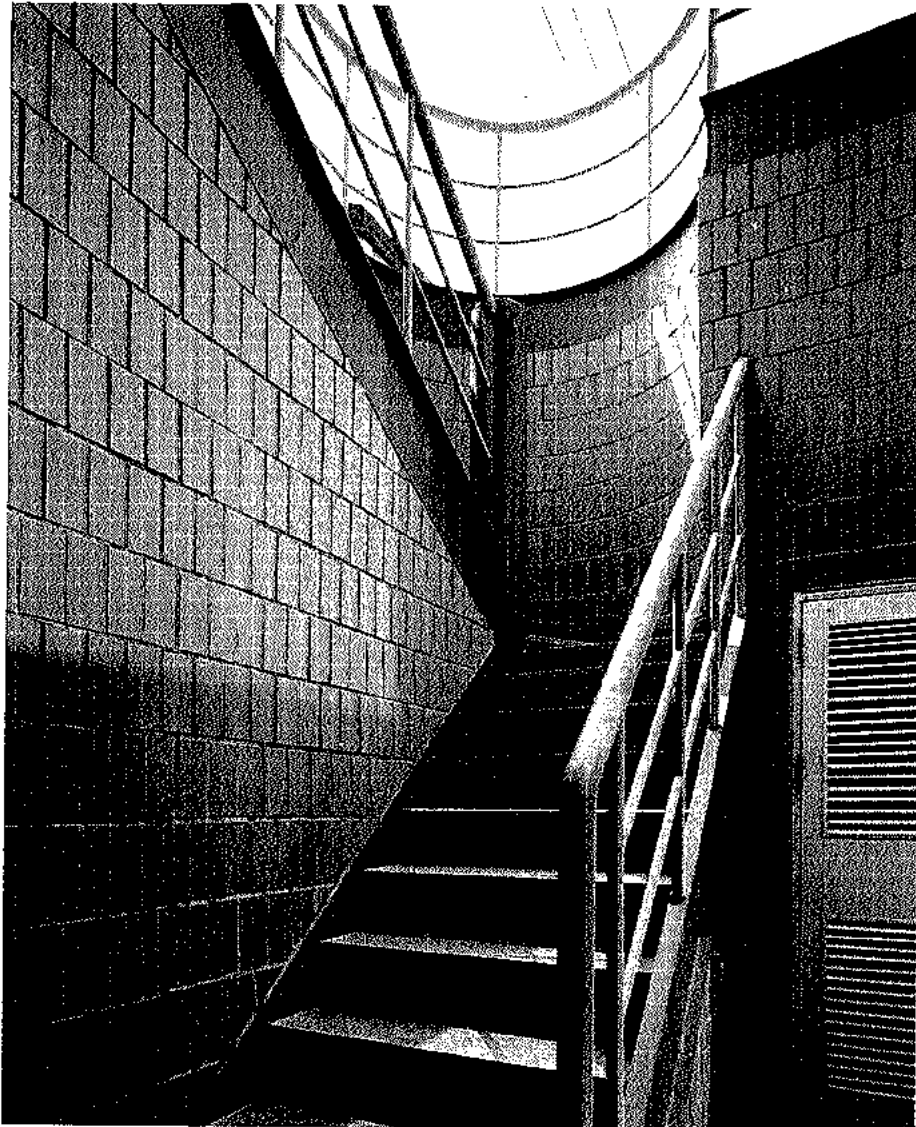


11



12

- ⑧ 올라다본 입면 디테일
- ⑨ 지하1층 평면도
- ⑩ 지하2층 평면도
- ⑪ 4층 사무실
- ⑫ 6층 사무실
- ⑬ 지하층 계단실
- ⑭ 단면도
- ⑮ 4층 사무실



두진빌딩

Dujin Building

權棹雄 / (주)정립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won, Do-Woo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업무지구,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728.80㎡

건축면적/361.11㎡

연면적/5,134.79㎡

건폐율/49.55%

용적률/390.84%

규모/지하4층, 지상9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알미늄 쉬트, 자기절타일

- ① 남서측 전경
- ② 입면 스테디
- ③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④ 배면전경
- ⑤ 5층 사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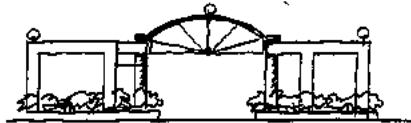
의류를 취급하고 있는 건축주는 당시 지가(地價), 부지위치의 잠재력, 공사비, 예상 임대료 등을 감안한 예산감각을 지나지 못한채 첫 사업으로 훗날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값싼 건물과 용모를 원하였다.

부지는 동측으로 공항터미널을 종점(Terminus)으로 하여 곧장 이르게 하는 폭 12m의 주도로와, 남북통의 폭 8m의 부도로를 각각 북측과 남측에서 접하는 코너에 위치한다. 도시설계구역으로서의 조건은 주도로에서 3m 후퇴, 그리고 부도로에서만 차량전입이 허용되었고 옥외주차비율이 적용되고 있던 시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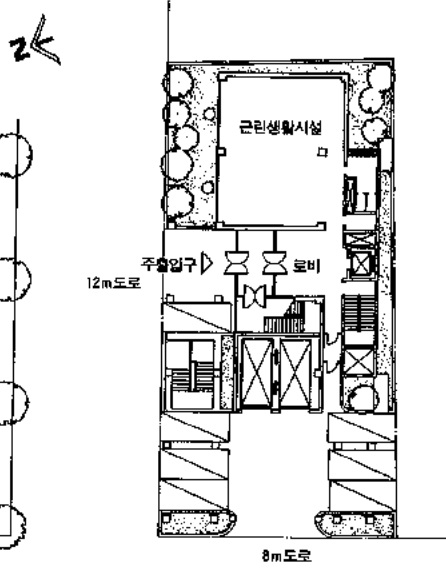
이 일대는 무역센터 콤플렉스와 포철 2기를 양핵으로 하는 업무, 상업지역의 중심부에 해당되며, 이들과 관련되는 소규모 고급 업체를 수용대상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1·2층은 가로 레벨에서 시각적으로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고급의 상업시설을 임대대상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냉·난방 공조방법, 주차 스페이스의 1개층 추가 확보, 외장의 고급화 등이 초기 프로그램 단계에서

합의가 되었다.

프로그램상 용적을 최대한 확보와 가로상 건물 인지도 확보라는 과제는 여기서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였고, 그 해결로서 본 매스를 도로로부터 최대한 후퇴시킨다음, 그 전면부에 퍼골라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후레임은 본체의 연장으로 인지될 수 있는 건축적 요소로서, 범규상으로는 면제될 수 있는 요소이면서, 좁은 도로변에서의 본체 층격 완화 및 스케일감을 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서 었다. 단, 그것은 본체에 첨가된 방식이 아닌 본체의 연장이라든가 본체의 시발점으로 위치하도록 결구되어야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관 전개의 기본전략으로는, 도로로부터 3단(퍼골라 구역, 임대구역, 중심구역)에 이르는 레이어(Layer)를 부지위에 설정하고, 그들은 각각 600×600의 동일한 단면을 가진 입체격자로 열개시킨 다음, 다시 그 표층에서는 이들 세 구역을 표현하기 위해 각 후레임 마다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면서 통합된 전체로서 읽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매스



11/13/78



8m 도로



상단에서 그 측에 따라 놓인 호형의 볼트 도입은 격자일색에서 가장 쉽게 대비효과를 발휘하여 입체격자가 갖는 3세방향성 중 수직적으로는 지붕으로서의 수평적으로는 레이어(Layer)의 설정에 따른 결의 방향성(동서측)과 축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공향터미널을 배경으로하는 서측 접근로에서는 그 측면부로서의 긍정적 마무리로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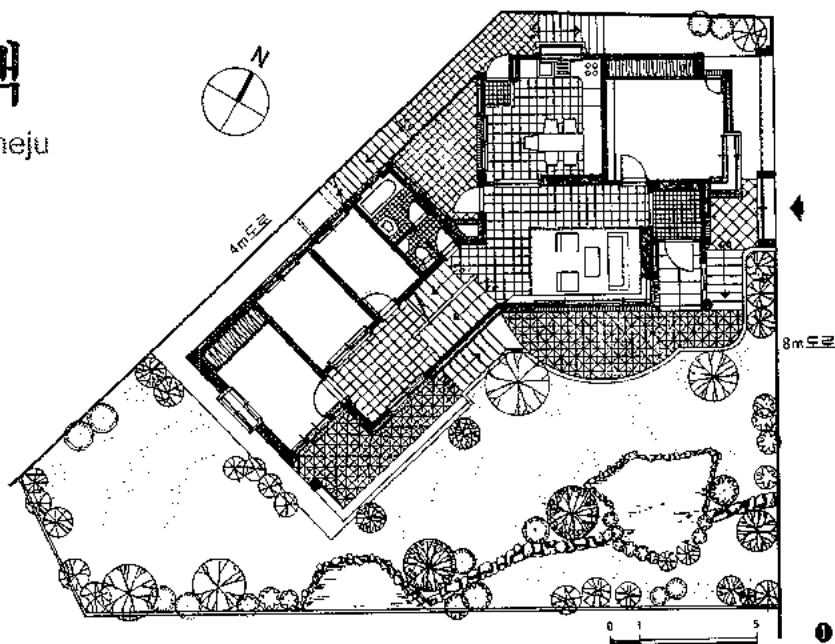
주의장재인 3.2t 알루미늄 패널의 불소수지코팅의 컬러는 인접의 공향터미널, 호텔, 무역센터 등의 컬러 팔레트와 관련 지으면서 정하였다. 한창 공사가 마무리져 가던 작년 여름 어느날 비제와 장막이 철거되면서 드러난 8층 동서측면부는 도면과는 달리 이미 시공되어져 홍물로 나타났고, 몇차례에 걸친 수정요구는 건축주의 임대권 확보 문제와 시공자의 공기내 완료에 계를 빼앗겼고 설계자 경비부담으로 재시공 하겠다는 마지막 카드로도 양측의 관심사항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제주 신산동 주택

Shinsandong Residence at Cheju

金守賢/금강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oo-Hyun



대지위치/제주시 신산동 339

대지면적/391.6㎡

건축면적/130.81㎡

연면적/167.06㎡

건폐율/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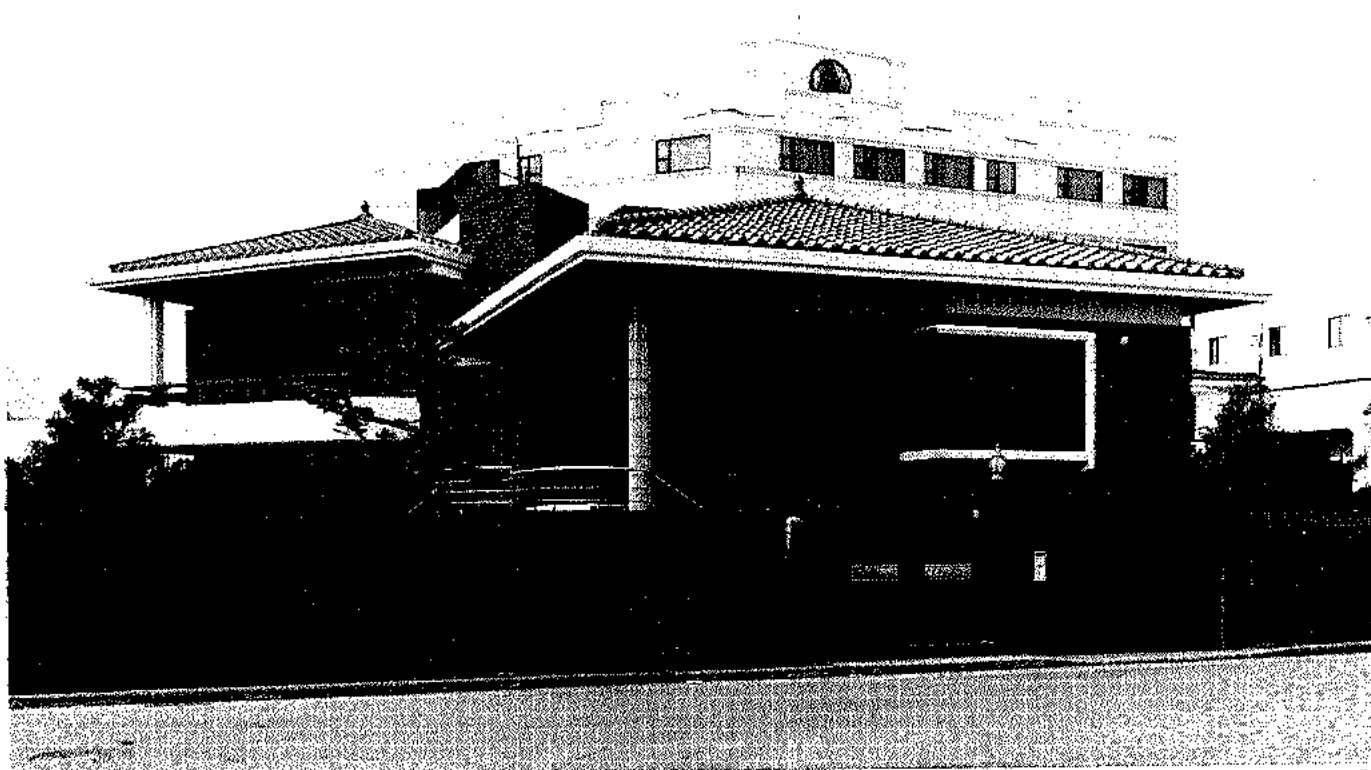
용적율/3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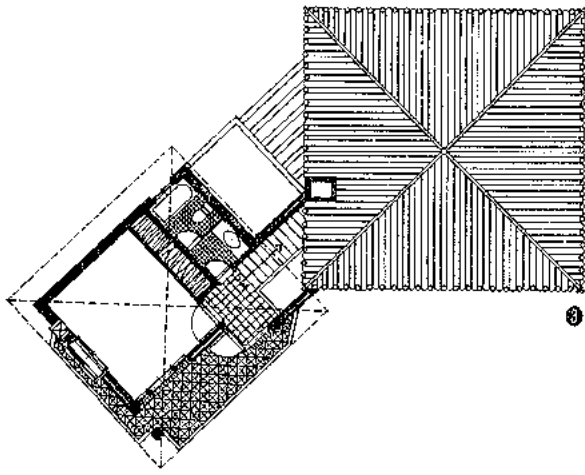
규모/지하1층, 지상2층

구조/벽돌조

외무마감/적밀돌 치장쌍기, 오지기와잇기

- ①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② 전경
- ③ 2층 평면도
- ④ 외부 상세 I
- ⑤ 외부 상세 II
- ⑥ 외부 상세 III





도심속의 주택은 휴식공간으로서 외부의 각종공해로부터 가능한한 보호되고 가족만의 생활공간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대지가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건물배치는 도로면의 대지형태에 따라 두개의 블록으로 구성하고 135°의 축으로 연결시키므로써 평면상의 변화를 주었다.

공동생활권인 거실과 식당은 1층과 2층 중간층에 있어 각층과의 동선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계단을 중심으로 각방의 배치는 구조, 기능면에서 3개의 각기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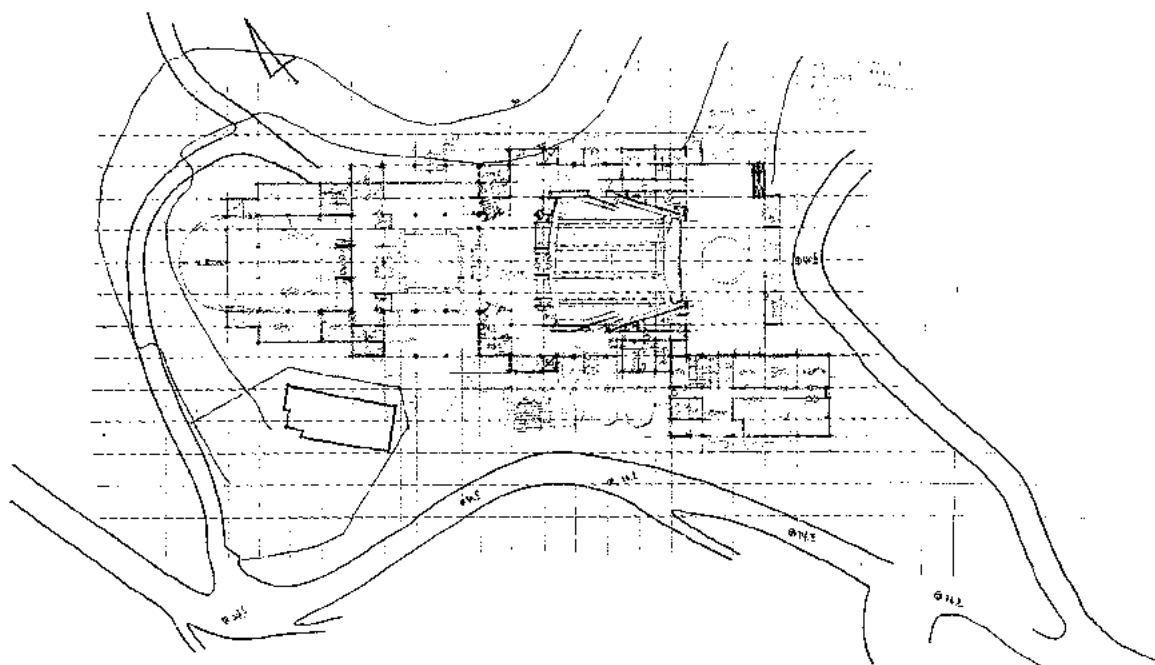
1층 학생방은 정원속에 묻혀 정원과 내부공간이 개방되고 있으며 거실, 테라스에서는 정원의 폭포와 연못의 잉어가 노니는 것을 내려다 볼 수 있고 2층 안방에서는 한라산 정상이 눈속에 파고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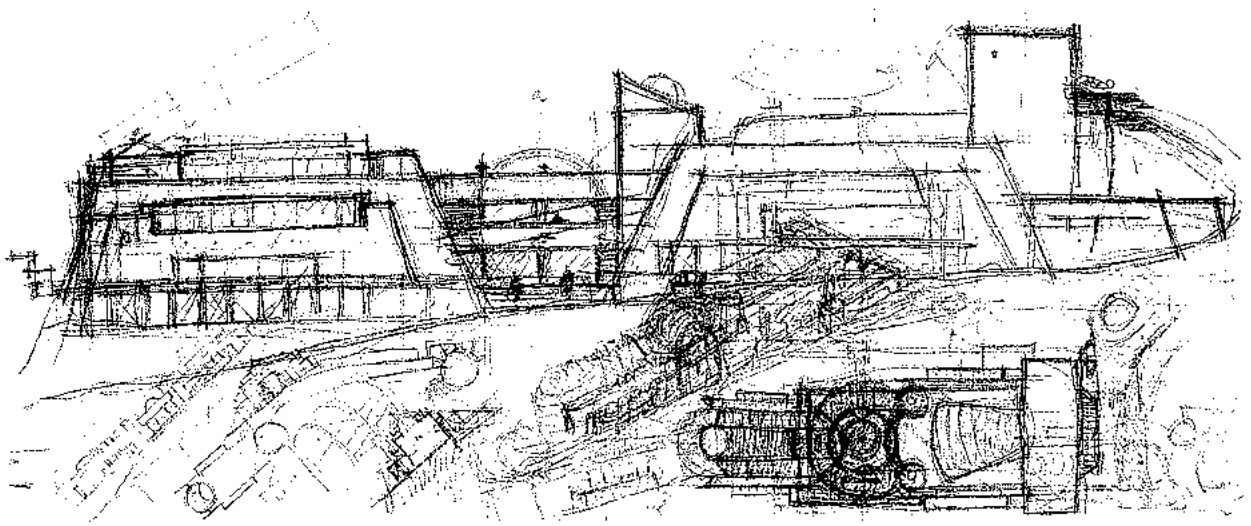
정사각형의 2개의 크고 작은 붉은 오시기와 지붕은 변색벽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동양적인 단정함과 소박한 도심속의 전원주택의 멋을 기대해본다.



Chungmu City Residency Hall

Designed by Song, Yi-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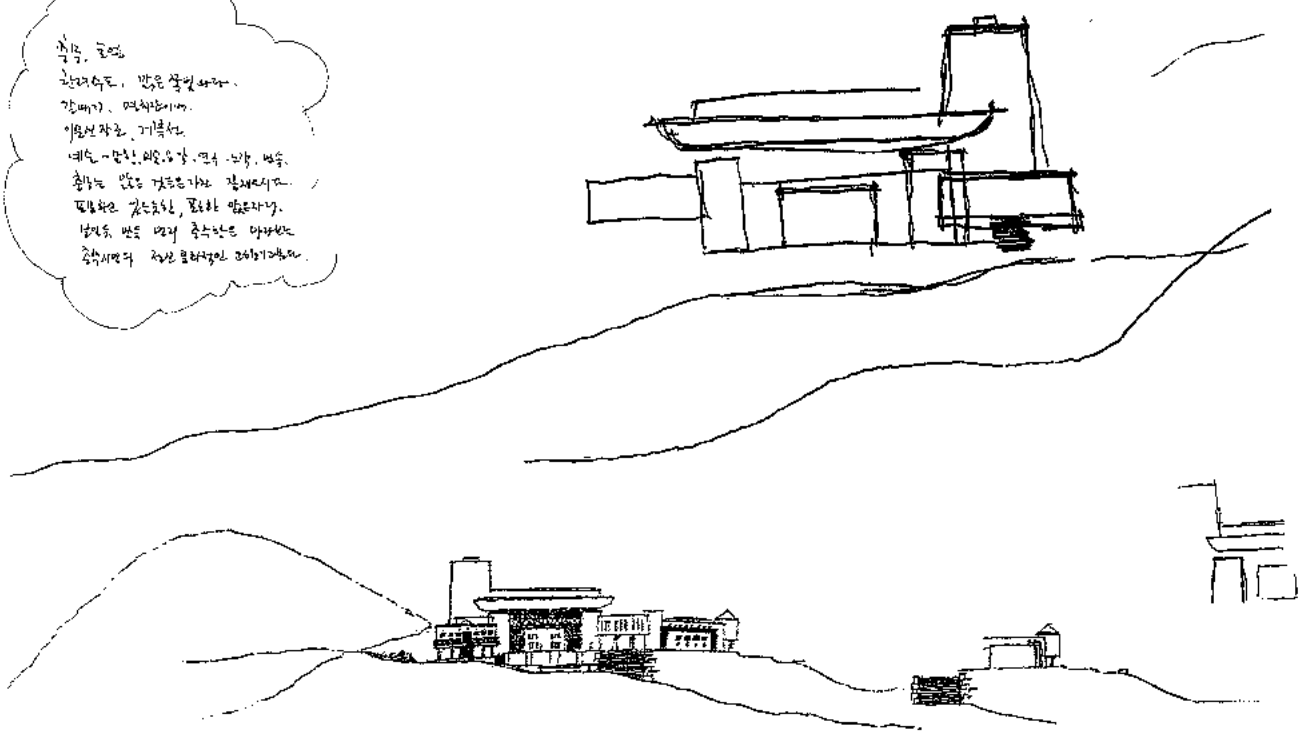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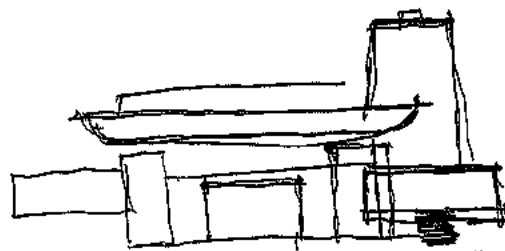




충무, 통영
 한려수도, 맑은 쪽빛바다
 갈매기, 멸치잡이배.
 이순신장군, 거북선.
 예술-문학, 미술, 음악, 연극, 조각, 민속.

충무는 많은 것들을 가진 잠재도시다.
 포용하고 있는 듯한, 포근한 앓은 자리.
 보일듯 말듯 멀리 충무항을 바라보는
 충무시민의 정신 문화적인 고향이고 싶다.

충무, 통영
 한려수도, 맑은 쪽빛바다.
 갈매기, 멸치잡이배.
 이순신장군, 거북선.
 예술-문학, 미술, 음악, 연극, 조각, 민속.
 충무는 많은 것들을 가진 잠재도시.
 포용하고 있는 듯한, 포근한 앓은 자리.
 보일듯 말듯 멀리 충무항을 바라보는
 충무시민의 정신 문화적인 고향이고 싶다.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李永熙 / (주)희람 종합건축사 사무소

by Lee, Young-Hee

최근 몇 년간 건설부문에서의 과잉투자가 국가 경제구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급기야 과열 건설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전면적 가까운 건축허가 제한을 수단으로 한 응급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고뇌를 같이 읽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내려진 조치라면 이해하지 못할 국민은 없겠지만, 최소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성있는 사업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장·단기 건설 부문의 정책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금의 혼미한 상황을 유발케 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설명이 부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단순하게 물량 증축의 가시적인 전시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좁은 국토가 무질서하게 그 잠재력이 낭비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지, 도시, 주택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보완이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땅을 조금이라도 가진 국민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고, 사용목적과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아무렇게나 적당히 집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6대 도시내에 2백평 이상 택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한 채의 주택은 헐어버리고 허술한 상업용 건물이라도 건축하여야 한다. 또한 비업무용 증과세를 면세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목적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용면에 있어서 토지를 토지 지역별, 규모별, 소유실태별로 구분하여 신축성있게 시행했다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는 몰고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같은 미완성적 제도로 인해 도시는 황폐화되고 토지의 잠재력을 난도질 당하고 있다. 그리고 졸속 건축계획에 따른 소비성 용도의 건축물만 혼재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이클>이 단축되어, 엄청난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축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백년대계의 치밀한 계획하에 도시적 위상과 환경적 조율이 전제되어야 함은 지극히 보편적 논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휴지화될 설계도,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반려받기 위한 설계를 의뢰받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이 얼마나 불편한 허구이며 고급 두뇌의 낭비인가!

국가 경제 운용상 통제기능을 발휘함은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이긴 하겠으나 보다 국민편적 측면에서 다각적 분석과 종합적 검토를 거친 뒤 슬기로운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최근 정부는 주택건설 물량 계획이 초과달성 하였다고 해서 평형의 크기는 불문에 부치고 세대수라는 지극히 단순한 통계 숫자만을 기준으로 지자체 별로 주택건설 물량을 할당하였다. 사실상 한시적 주택건설의 전면 동결이다.

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주택구구식 발상인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실질 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마련 계획이 일시라도 정부시책에 의하여 강제로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선별적 통제의 방법, 예를 들어 공공부문과 규모별, 자연 발생적인 소단위 민간부문 등을 구분하여 제한하도록 보완되어야 함이 시급하다.

또한 몇 차례에 걸쳐 거듭되는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도 그 기술적 방법을 다시한번 모색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있는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적정 규모의 건설부문 투자 비중을 년차적으로 예측함은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건축행정이 중단되지 않고, 건축 규제 조치가 해제될 시의 대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축 수요의 보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도출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건축허가서 반려조치는 하루빨리 보완·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착공 시기를 조정하여 허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이것이 법논리에 모순이 된다면 반려가 아니라 허가 절차는 이행하고 허가 통지서만 유보하는 방법이 국민적 편의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건설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규제 만능시대”

李甲俊 /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by Lee, Kap-Joon

등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안락한 주거 마련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산업의 발전과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주'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용기인 주거의 개념뿐 아니라 자기의 생활의 개척과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그릇으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의 '주'의식에 소유의 개념이 더욱 강해지고 사회전반에 걸친 배금주의적 사고가 팽배됨에 따라 건축물을 재산증식의 방편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본위의 시설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보니 인간 본연의 삶과 생활 양태를 벗어난 소유욕으로 얼룩진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고유한 건축예술을 창조한다는 의식은 희미하고 그저 재산적 가치로서만 저울질되어가고 있다.

국가 경제직차원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비경제적인 원리로만 흐르고 있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까지 경제정책을 좌충우돌하여 삶의 터전까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기막힌 현실에 봉착되었다. 즉,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까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또한, 왜곡된 경제구조는 사회의 흐름뿐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팽배되어 가고 있으며, 자신의 올바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건축허가제는 민주사회의 고유의 권한인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허가까지 규제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인지?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다보면 대권마저도 규제하는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염려된다.

90년대에 들어서 2년여에 걸쳐 8차례나 건축허가를 통결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아직도 중앙집중적 관료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가 매년초에 경제지표를 설정하면서 얼마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탁상공론 행정이었던가! 건축허가제한조치는 건설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원활한 건축자재 및 건설인력 활용을 도모한다는 정책이지만 과연 얼마나 국민을 위한 행정시책이란 말인가? 얼마전 정부는 전국 시도 부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주택물량을 배정하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졸렬한 행정인가!

건축허가규제조치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금년도 주택건설규모를 60만가구로 억제, 신축허가를 내주지말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 때문에 배정물량을 초과한 대부분 지역에서 연말까지 신축허가를 묶어버린 것이란다.

건설경기 과열이 국제수지 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제조업체 인력난을 가중시키는등 부작용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인 건축규제가 마치 정부의 분별력 없고 졸속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일관성 없이 건축규제와 완화조치를 남발하여, 그로 인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건설경기가 좀 과열됐듯 하면 규제를 가해 위축시켰고, 이는 곧 공급부족을 초래 부동산가격을 인상시켰고, 그러면 또다시 완화조치를 시켜 그동안 억제되었던 공급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또다시 과열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의 실현을 위한 건설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부터 취한 규제조치는 그야말로 규제만능시대를 창출시켰다.

이 얼마나 편리하고 손쉬운 무차별적인 행정력의 남용인가.

이로인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건설관련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운영과 건설경기과열에 따른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 규제와 완화일변도의 단순행정의 행사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관료사회의 소신없는 정책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건설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아울러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겠다.

音樂속의 斷想

ESSAY

安秉義 / (주)김중업건축연구소 대표
by Ahn, Byoung-Eyw

생활이란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되고 이 습관이 한달 두달 그리고 한해로 이어지는 것 같다. 최근의 내 습관은 이렇다. 아침 아홉시 십분쯤 제도관에 마주 앉는다. 이어서 여직원이 내 구미에 맞는 커피를 갖다놓는다. 기계적으로 담배 한대를 꼬나문다. 그리고 또한 기계적으로 제도관위 한쪽에 놓인 라디오의 스위치를 틀어놓으면 역시 기계적으로 미리집어 넣은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Albinoni의 Adagio.

나는 이곡을 매우 좋아한다. 잠깐, Adagio인가 Adagio인가? 자신이 없다. 요새에 와서 무척 기억력이 회미해졌다. 나이들면 첫째로 회미해지는 것이 고유명사이다. 생각날듯, 날듯하면서 가물가물하다. 그 다음이 보통명사이다. 특히 영어단어등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Adagio란 매우 느린곡이란 뜻이다.

Albinoni는, Bach와 거의 같은 시대의 작곡가로, Bach가 유명하데 비해, 불행하게도, 수세기동안 파묻혀 있었다가, 약 30수년전에 그의 악보가 발견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는 돌아가신 김중업전생의 주석이다. 김전생이 파리의 코르뷔제연구소에서 돌아오면서, 소중히 간직해온 「레코르드」판을 내놓으셨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접한 Albinoni의 「아다지오」이다.

어언 30년전으로 그후 무척 이 멜로디에 이끌렸다. 은은하고 차분하며 적당히 감상적이고 로맨틱하며 더러 달콤하다하여 흘러간 옛날의 소중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기분에 젖어들게 한다. 제도관을 향하면 아무래도 차분한 곡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

Adamo의 「눈이 내리네」라는 곡 또한 이런때 내 기분에 와 닿는 곡이다. 역시 차분하고, 서글프고, 마음을 가라앉게 한다. 「슈베르트」의 「미완성」도 왔다쫓은 된다.

이런 차분하고 가냘픈 스타일의 음악과는 사뭇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건축은 다이내믹한 조형이다. 힘차고 우렁차며 말하자면 중세기의 「고딕」 성당같은 땅에서 솟아나는 듯한 존재감이 물신나는 건물이다.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 같은것. 김수근씨의 마산성당 같은것. 음악으로 치면 베토벤의 제9교향곡 같은 것 말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요새 판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딱 짚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제즈」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 마음을, 가슴 밑바닥까지 흔들어놓는 그런 감동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故 김중업전생이다. 그는 언제나 건축은 시(詩)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평면을 보면 시가 물신 풍겨진다. 다이내믹한 조형과 섬세한 서정시 같은 것이 한데 어울려진다. 말하자면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제1, 2악장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우렁차면서도 가냘프고 로맨틱하고 적당히 서글프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바하나 쇼팽을 더 좋아하셨다.

지난 9월 조선일보에 「건축계는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타이틀로 미국의 어느 공대의 교수의 논평이 크게 실렸다. 그가 「공간」지에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 건축계의 비리를 낱알이 고발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가들이 정부관료나 대기업에게 급실거릴 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한 글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 건축사 시험의 특혜를 주며 실력보다 기득권층의 이득을 보존하기 위해 숫자를 통제하고 설계현상과정에서 로비를 하는 건축가와 로비를 기대하는 심사위원의 자세 등을 꼬집고 건축가는 모름지기 명성과 치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성과 도덕성을 갖춰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매년 가장 추하고 비도덕적인 건물 10개씩을 선정, 공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다.

신문을 읽지 않더라도 건축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온 부조리이며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저마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어떻게 해야할지 손 못쓰고 있는 일들이다. 그가 지적한 열두가지의 부조리 중에 내가 강력히 꼬집고 싶은 것은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이다.

이렇게 치열하고 비인간적인 시험제도 및 관습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건축사시험이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이란 건축사로서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십대 일의 경쟁률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축사시험의 경쟁률은 약 5대1 정도이다.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건축사의 자질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합격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 시험이 건축사의 자질을 가름할 만한 적절한 시험인가?

건축사 시험 수험자의 말로는 한 3~4개월 집중적으로 암기만하면 충분히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 건축사 자격이나 품위 운운하는 것은 한낱 가소로울 따름이다.

건축사시험의 내용, 방향을 진정한 건축사의 자질을 판가름

건축사시험이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이란 건축사로서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십대 일의
 경쟁률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축사시험의
 경쟁률은 약 5대1정도이다.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건축사의 자질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합격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 시험이 건축사의
 자질을 가름할 만한 적절한 시험인가?

할 수 있는 전형방법으로 바꾸고 될수록 많이 자격을 주도록
 고쳐나가야 하겠다.

지금의 제도는 기득권자의 독단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자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지금의 전형방법 그 자체가 아닐까.

기회균등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지금의 건축사시험
 전형방법은 엄연한 헌법위배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 전형의 최고책임자는 아마도 건설부장관일 것 같은데
 만일 내가 건설부장관이 된다면 멋지게 바꿔보겠지만 나는
 건설부장관 따위의 벼슬은 시킨다고 해도 할 생각이 없으니
 전국의 수험자들은 이 억울한 제도가 바뀌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고생을 해야 할 것 같다.

옛날 대학1학년때 건축의장이라는 강의에서 건축은 예술의
 한 「장르」이며, 건축을 포함하여 예술이란 아름다운 것, 감동을
 주는 것, 뚜렷한 개성이 있는 것, 창조적인 것 등등의 아름다운
 말로 규정되었다.

세월은 흘러 흘러 정신못차릴 정도로 모든 사조(思潮)가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 오늘날 예술 및 건축은 무엇인가, 그
 본질은? 하고 되물어보고 싶어진다. 대학에서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옛날 내가 배웠던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소박한 정의는
 이제는 너무도 낯설지 않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멋있게 디자인된 「자국어」라는 스포츠카는 그 둥글둥글한
 모양이 과연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그러면 「자국어」는
 예술인가? 아름답고 창조적이며 개성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대량생산되므로 너무나도 많다. 그것들이 모두
 예술품인가?

「모나리자」는 그 신비스러운 미소로 하여 과연 예술의
 최고봉이지만 기막히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작품 또한
 예술인가? 예술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여
 이번에는 예술의 정의를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오리지널한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건물과 비슷하게 설계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지방에 여행갔을 때 크기는 달랐지만 서울의
 교보빌딩과 흡사한 건물을 보았을 때의 당혹감이 생각난다.
 교보빌딩은 「시사 페리」가 설계한 것으로 역시 그의 작품인
 동경의 미대사관을 본딴 것인데 그는 자기작품을 베껴먹었다
 하여 미국 건축계에서 욕을 먹었다. 그러나 그도 건축주가 동경
 미대사관과 비슷한 것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자 이럴때 양심있는 건축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물론, 건축의 본질이란 그 개성에 있으며, 그 주위환경과
 조화되어야 하며... 운운하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지만, 그
 클라이언트에게는 예술다위는 옛 먹어라 하며 자기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집한다 하여 「To be or not to be」의 곤경에
 빠지게 된다.

하기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살려 전국 어디에 가던 교보빌딩이라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므로 굉장한 선전가치가 있다.

비단 교보빌딩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공사나 모은행도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고집한다.

좀 이야기는 벗어나지만 「하얏트」 호텔의 경우는 포트맨
 스타일의 시원하게 트인 1층 로비의 이미지를 고집하고
 프론트오피스도 고식적(姑息的)이고 권위주의적인, 손님을
 압도하는 듯한 길다란 프론트카운터를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의 위치 등, 시시콜콜히 자기네 호텔의 스타일을
 고집한다. 기업주들에게는 영업스타일이 건축가의 예술관에
 선행한다. 세계 어느나라를 여행해도, 「하얏트」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 손님들은 당황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건축가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왜 나는 미술가나, 음악가가 되지 않았는가!

결국은 내멋대로 살아보려는 내 오만한 자유정신을 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는 비굴함에 익숙하게 된다.

펜을 든 기회에 설계하면서 생각난 것 한 토막. 내가 학업을
 마치고 설계를 시작한 30여년전, 설계도면의 치수단위는
 cm였다. 그것이 어느새인가 mm로 바뀌었다. 이것은 일본의
 영향이다. mm가 필요한 것은 설비도면뿐이다. 설비도면보다
 건축도면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설비는 건축가를 돕는
 입장인데, 이것은 바로 하극상이며,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

지난번 어떤 프로젝트를 내 소신대로 cm단위로 치수를
 바꾸었더니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었다.

모든 도면에 필요없이 0을 하나더 써야하는 번거로움이
 덜게되니 매우 능률적이다.

20수 년전 네덜란드의 설계사무소에서 잠깐 일했는데 그
 사무소에서도 물론 cm단위였다.

내 의견에 찬성하는 건축가 제형들! 다같이 한번 이 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알바노니」의 아다지오도 끝났다. 또 한번 들을까. 또는 판
 곡으로...

Neighborhood Planning for Multi-Unit Housing Development

金昌碩 / 서울시립대학 교수
by Kim, Chang-Seok



저명한 도시사학자인 「루이스·머포드」에 의하면 근린주구의 존재는 일종의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인류의 모습살이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고 말하였다. 예컨대 로마시대에는 Vici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근린적 주거단위마다 자체의 근린중심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세도시에도 Quarter라고 하는 차치단위에 전용의 중심지와 시장은 물론 때로는 독자적인 급수시스템까지도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린주구개념이 현대도시계획기법으로 정착된 계기는 1929년 미국의 C. A. Perry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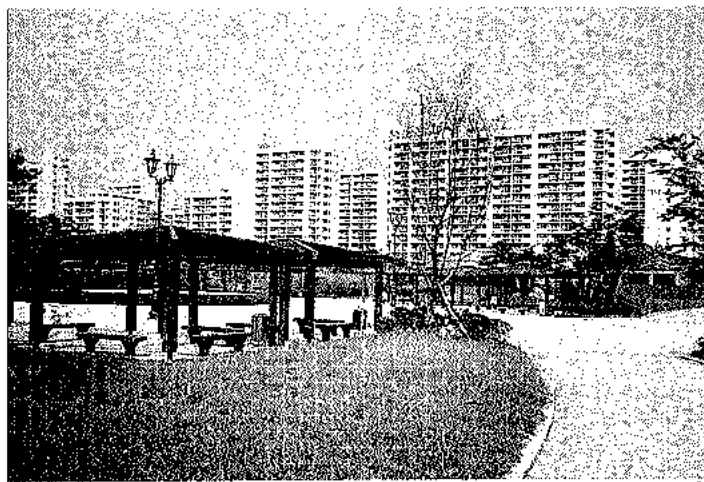


그러나 근린주구의 개념이나 역할, 또는 그 기능에 대한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계획 및 시설기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린주구이론을 둘러싼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집합주거단지개발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고의 저변에는 사회개량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였던 당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물리적 결정론에 대한 믿음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Perry의

근린주구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지적,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erry의 근린주구단위 개념속에 용해되어 있거나 적어도 근린주구개념의 출현을 고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는 대략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근린주구가 대두되게 된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이른바 배경적 가치(contextual values)이다. 금세기초 미국의 엘리트 지식인들은 가족, 근린, 커뮤니티가 점차 붕괴되고 산업화 이전에 존재하던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것에 크게 당황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근린-커뮤니티」간에 이루어지는 전통적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비인격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바로 이와같은 당시



지식인들의 상황인식과 시대정서를 토대로 근린주구단위개념이 태어나게 되었다.

둘째는, 근린주구의 설계원리 속에 이미 구체적으로 용해된 이른바 명시적 가치(manifest values)로써 주로 계획가, 건축가, 환경설계가 등 실무가들이 전통적으로 신봉해온 가치들이다. 대표적인 예는 근린주구내에서의 국민학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Cuttenberg의 조사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민학교는 저녁시간대에 주민들의 레크레이션과 사교 그리고 문화활동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민학교가 근린주구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의 공간적 범위나 인구규모 등 중요한 파라메타가 1개 국민학교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인구규모에 토대를 두고 설정된 점도 바로 이와 같은 미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묵시적 가치(tacit values)로서 이는 근린주구개발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실리의 측면 등 묵시적으로 진전되고 있거나 또는 개발업자, 투자자, 시당국 등의 사업승인 내지는 동의에 연연중 내포되어 있는 가치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린주구개념의 묵시적 가치는 항상 주거유형의 균일성을 가정함으로써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근린주구는 자녀를 둔

- ① C.A Perry의 근린주구 개념도
- ② 아파트 단지내 근린시설 상업, 업무 복합용도의 시설물이다.
- ③ 상계 근린 공원

가정이라는 동질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가족구성의 단계를 넘어 인종적, 경제적 동질성에까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를 근린주구의 경계로 삼는 기준은 근린주구의 영역적 보전과 이질적 사회집단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가 묵시적으로 강조된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보유자의 재산가치보전, 담보대출자의 안전성 확보, 커뮤니티의 조세기반 유지라고 하는 실용적 시장가치를 아울러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상과 같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고안된 근린주구개념이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먼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계획가들이 근린주구의 물적 측면에 지나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비판속에 깔린 의미는 주민들간에 이루어 지는 사교적 관계나 교류가 반드시 근린주구의 물리적 공간배치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며 그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 동질성의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은 계획가들로부터도 많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Reginald Isaacs는 근린주구개념은 농촌생활에 대한 낭만적 향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도시적 맥락에서의 근린주구단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근년에는 근린주구개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의 탈산업사회에 전개될 생활양식은 장소적 제약상에서 크게 탈피될 수밖에 없으므로 장소중심의 커뮤니티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리라는 설명이다.

또한 좀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Perry가 제시한 근린주구의 물리적 규모는 오늘날의 주거개발이나 재개발 규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 Gans는 주민들의 삶에 관한 Levittown의 연구에서 주거지역 설계에 큰 영향을 준 전통적인 근린주구 개념은 주민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원인에 대해 Gans는

첫째, 전통적 근린주구 규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긴밀히 유지하기에는 너무 크며,

둘째, 대부분의 근린주구가 너무 유사하여 지역적 개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점,

셋째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 결여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Stidell은 「콜롬비아」신도시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전통적인 근린주구 단위의 규모나 밀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와 근린시설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적정규모로는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였다. 다시말해서 1개 국민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Perry의 근린주구 인구규모는 사회적 단위(social unit)로는 너무 큰 규모인 반면 다양한 도시적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도시적 단위(urban unit)로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전통적인 근린주구개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개발 패라다임인 기본수요접근이론(Basic needs approach)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본수요전략은 기초적인 삶의 질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단위의 계획과 집행을 강조하는 「밑으로 부터의 접근」(bottom up approach)을 중시한다. 이와같은 기본수요전략적 시각에서 현대 도시에 필요한 주거지 계획모형을 모색해온 대표적인 연구자인 T. Banerjee와 W. Baer는 새로운 대안이 갖추어야 할 네가지의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주적인 도시형태의 구현”(democratization of urban form)으로서 이는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시형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단지, 근린주구, 또는 커뮤니티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대로 각종 계획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알맞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이른바 상황적 계획 및 설계 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만족을 보다 많이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공공시설이나 자원은 가급적 지역병리의 치유적 차원에서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족이 많은 어려운 달동네에는 무료 탁아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 파출소, 소방서, 체육 및 여가시설, 탁아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각종 서비스나 시설은 가급적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의 문제를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수요가 형평하게 충족되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공공적 선택원리에 입각한 주거구성개념”(ghettoization according to the public choice paradigm)으로서 이는 주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서비스의 적정공급수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거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근린주구 차원에서 최적수준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여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 구성이나 규모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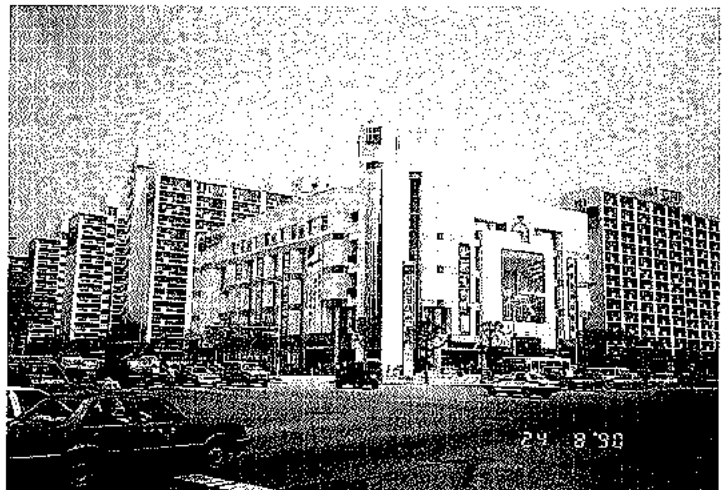
넷째로, 사회적 집단간의 지나친 공간적 격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유계층과 극빈계층, 노인계층과 젊은이계층 등 이질적인 사회적 집단을 공간적으로 지나치게 분리시키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의 형평한 배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사회적 집단간의 지나친 공간적 격리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네가지 기본방향은 확실적인 전통적 근린주구구성원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지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상황적 근린주구계획을 수립할 때 삶의 질의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근린주구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근린주구개념이나 그 규모는 1개 국민학교를 기준으로 삼는 전통적인 근린주구개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71년 5월 21일 건설부령 제225호로 공포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①항에서는 “국민학교는 근린주구단위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구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4

②항에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천5백 세대를 한개 근린주구 구역의 결정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1979년 10월31일에 공포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건설부 훈령 제464호) 제2조 ①항에서는 근린주구를 “당해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5조 ①항에서는 “근린주구는 반경에 4백m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는 1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규정 제6조 ②항에 “간선도로는 근린주구내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집합주거단지의 경우도 역시 Perry의 전통적인 근린주구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근린주구계획기준이 상기한 규칙이나 규정처럼 건설부령이나 건설부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하향적이며 획일적인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기준의 내용 또한 대부분 “○○세대당 ○㎡” 또는 “○○인당 ○개소”라는 획일적인 형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나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기준상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산술적으로 균일한

시설배치가 반드시 주민생활의 기회균등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설수요나 필요에 부응하는 개성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는 지역의 병리현상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배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집합주거단지의 경우는 설계도에 따라 일시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입주 또한 일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상황적 계획의 적용이 쉽지 않게 마련이다. 주거환경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의 깨어있는 의식, 계획가의 창의적 노력, 양질의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주택 공급자의 기업정신, 그리고 정부의 선도적 노력과 지원이



6

조화를 이루어야만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단지계획이나 설계가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의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 참여관찰 등 인간중심의 많은 현장연구를 추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진·사후평가연구자료가 축적되고 아울러 계획가나 설계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때 주민의 의사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의 소비자인 시민들의 주거선택의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소비자들은 주거선택기준이 지극히 단순하여 몇평형인지, 내부 마감재료가 어떠한지, 주택메이커가 어느 회사인지, 혹은 로얄층인지 아닌지 등등 주로 주택의 내부조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단지의 시설수준이나 사회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소비자의 관심부족에 편승하여 주택공급자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마지못해 충족시키면서 단지환경의 질적 수준은 도외시한 채 모델하우스의 과대치장에만 골몰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및백만호 달성이라는

- ④ 아파트 단지내의 위치한 한신코아 백화점
- ⑤ 아파트 단지내의 근린생활 시설

물량공급위주의 목표에 치우침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또 다른 목표에는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수도권에서만 90여만 호에 가까운 주택공급목표가 불과 3~4년내에 기록적으로 달성되어지는 속도전에만 만족할게 아니라 1950년대 말에 계획이 성안되어 2천년에야 완성된다는 영국의 「밀턴·케인즈」신도시나 1965년에 개발에 착수한 후 26년이 지난 지금의 공정이 70%에 불과하다는 일본 「다마」신도시의 사례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인간은 전생애의 절반 이상을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 특히 가정주부나 노인,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은 거의 모두 근린주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이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로 불과 20여년 남짓한 기간에 전통적인 단독주거중심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집합주거양식으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집합주거단지가 수없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 질적 수준의 면에서 아직은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관혼상제등 집안 대사를 치를 때마다 당사자 가족이나 이웃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근린주구계획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가령 파티문화가 생활화된 미국인들의 대형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목적 공용공간을 일정 층수마다 마련한다거나 혹은 단지내에 다목적용도의 회관이나 공간을 확보한다면 종합병원의 삭막한 영안실이용이나 장사속에 쫓기는 예식장 결혼식등 우리의 고유한 풍습이나 전통에도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근린의식부족과 계획전문가의 문제의식 결여, 주택공급자의 물이해, 당국의 무관심 등에 기인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계획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계획가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거환경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식을 계도해 나갈 때 주택공급자나 계획당국의 능동적인 이해와 제도적 뒷받침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오로 부터의 상황적 계획수법이 아무리 이 시대의 상황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한데 묶어 구체적인 주거환경으로 창조하는 열쇠는 결국 계획전문가의 앞서가는 의식과 창의적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집합주거단지의 옥외공간과 녹지시설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Open Space of Housing Complex

李周炯 / 한양대 환경대학원 교수
by Lee, Joo-Hyung

REPORT

1. 옥외공간이란

屋外空間이란 자연에의 한계설정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무한히 개발되는 자연 그 자체는 아니며, 어떤 질서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일정한 목적을 지닌 인위적인 외부환경이다.¹⁾ 이는 옥외공간의 범위를 자연적인 공간과는 구분하여 자연상태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建物群이 집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을 의미하여 외부공간과 상통된다. 따라서 옥외공간은 인간의 외부환경으로서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들간의 상호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창조적공간을 말한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공간영역은 크게 私的空間과 公的空間으로 분류된다. 즉, 개개의 주택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적공간의 핵이 되고 주택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공적공간의 중심을 이룬다. 이는 다시 다음(도표 1)과 같이 세분된다.

영역구분에 따르면, 옥외공간은 단지밖의 직장이나 학교 등의 공적공간(Public space)과 단위세대의 거실이나 침실 등 사적공간(Private space)²⁾을 연결시켜 주는 준공적공간 및 일부의 공적공간을 의미한다. 이들 공간은 단지 전체 주민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서 미약하나마 소유의식을 갖게 된다.

매개영역			
사적공간 private space	준사적공간 semi-private space	준공적공간 semi-public space	공적공간 public space
침실, 욕실 등	거실, 창원 주방, 현관 등	주차장, 휴게소 주변녹지, 골목 유아놀이터 등	직장, 학교 운동시설 놀이터 등

2. 집합주거와 옥외공간

집합주거의 공간구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으로 규정되어 거기에 매개영역으로서의 準私的空間과 準公的空間의 개념이 도입되어 유기적인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들 공간요소중에서 住居棟과 단지외의 공적공간을 제외한 공간에 의해 옥외공간이 규정된다. 즉, 주차장 등 교통부지 보도와 녹지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공간요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집합주거단지의 옥외공간구성도 달라진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單位住戶에 근접되어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밀착되는 물리적 측면, 주거생활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³⁾

1) 주차장 및 연결도로

집합주거단지내에 차도진입의 필요성은 단지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정해져야 하지만 가능한한 외곽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대규모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내부를 분할하여야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분할된 建物群간에 자유로운 보행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소규모단지에서는 주차장의 위치가 단지내 차도의 위치를 결정하므로 이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이 단지내부의 1차적 평면위에 위치하게 되면 주차장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에 차량의 통행을 유발한다. 단지내 차량통행은 보행이나 녹지공간의 활용에 제한을 주고, 소음발생과 어린이 안전문제가 제기되므로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주차장의 위치설정은 가능한한 보차분리원칙에 따라 단지외곽에 위치하던가 또는 지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단지내 보행자동선 및 녹지체계가 끊이지않고 흐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단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주차장이 모든 주거건물을 따라 단지 깊숙히까지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차량통행이 단지내부를 오가는 보행자에게 커다란 장애를 주고 있으며 학교나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는 옥외공간에서는 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물론 화재난 응급환자 발생시를 대비하고 이주 등 서비스를 위해 차량이 건물앞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나 서비스도로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주차장까지 꼭 건물앞에 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보도와 녹지공간

步行體系는 도로체계와는 분리되어 단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흔히 보는 단지내 보행로는 步行路가 보다는 人道이다. 즉 차도에 따라 건물과 연결되는 통로일 뿐이다. 도로체계가 안전하고 기능적이어야 하는데 반해 보행로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갖는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길, 각 단위건물에서 단지의 중심부로 나오는 길은 모두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보행로는 차도와 서로 평면적으로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보행로는 차도와 서로 평면적으로 만나서는 곤란하며 교차점은 가능한한 입체적으로는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는 자전거 도로로도 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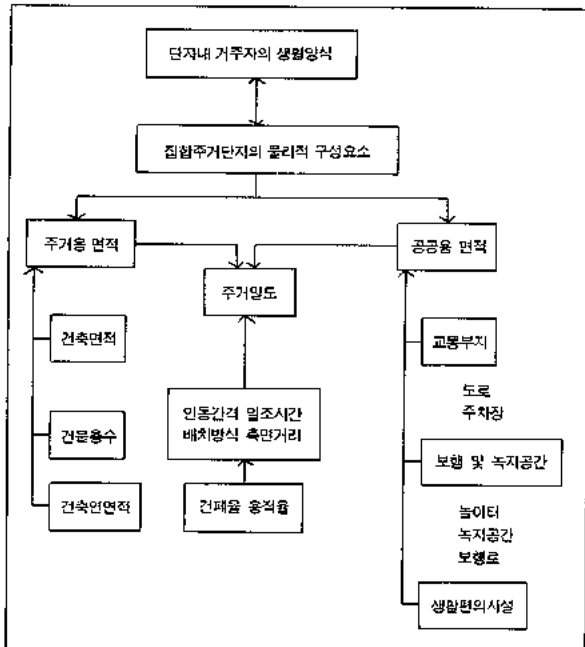
집합주거단지는 언뜻보면 住居棟과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주거단지내 옥외공간의 대부분은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보호 등의 보장을 위해 재정된 건축관련법규에 의해 확보된 인공공간으로서, 지금까지 주차장이나 출입이 통제된 녹지공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개방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몇그루의 수목과 잔디 조정처리되어 있을 뿐이고 취약한 잔디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마련이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주차면적과 조경면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좁은 녹지대에 몇그루의 나무를 심는등 마는등하고 나머지는 광활한

- ① 영역형성의 체계
- ② 옥외공간을 가득메운 주차장
- ③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②



③

아스팔트포장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위락과 쾌적을 위한 옥외공간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대부분의 집합주거단지에서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어린이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다. 200평 정도의 놀이터는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놀이기구가 어느 곳에서나 유사하여 성장속도가 빠른 유아 및 유년기의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놀이터의 효용은 어린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놀이와 부모의 휴식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크다. 따라서 연령별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를 옥외공간에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3) 생활편의시설

어느 주거지역에서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취사·육아·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활동이외에 여러가지 다른 활동이 포함되어 구성된다. 주민의 나이·성별·직업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통학·일상용품의 구매·각종 위락활동·종교활동 등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특히 집합주거가 단위주호들의 단순한 집합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쾌적한 환경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예를 들면 상점·학교·교회·휴게소 등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근린공공시설은 건축법규에 그리고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최소기준을 규정하여 주거환경의 악화를 막고 있다.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는 집합주거단지의 주거환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합주거단지는 개개 주거의 집합체이며 도시구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도시구성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집합주거단지의 환경향상은 도시전체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각 개별요소에 대한 개선이 집합주거단지의 옥외환경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킨다.

3. 옥외공간에서의 녹지역할

지금까지 건설된 대부분의 집합주거단지는 경제성 및 양적인 공급 측면을 우선으로하고 주거단지내에서의 외부생활공간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룸에 따라 주거환경이 황폐하게 되었다. 즉, 단지내 활동인 구매·휴식·위락·놀이 및 친교활동이 단순하고 무미건조하게 설계된 보행로·놀이터·녹지시설 등으로 거주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녹지시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옥외공간에서 녹지시설이 결여된 주거환경은 무의미한 건축물의 나열만을 의미한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생활환경의 악화와 생존경쟁의 가열화, 사회구조의 복잡화, 비인간화 등은 심신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기 마련이고, 이와같은 현대사회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애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단지의 住居棟 배치 및 형태라든가 토질, 단지내 특유의 微氣候,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 부지의 지형적 특성등이 녹지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밖에도 단지내 녹지공간의 종류, 규모, 특성, 공간상호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수목의 선정 및 배치를 하여야 주어진 조건하에서 주거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옥외공간에 사용되는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적합한 환경조성 전체하에 생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주거단지에서 수목은 단지내의 특성, 예컨대 건물높이나 인동간격, 배치형태 등에 따른 식재지의 局所地域別 일조량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光度差에 따라 식재를 선정·배치하여야 한다.

집합주거 단지에 따라서는 녹지시설이 단순히 시각적 효과와 녹음 효과만을 고려하여 녹지면적의 불균형을 높이기보다는 종의 다양성, 예를 들면 상록과 낙엽의 비율, 교목과 관목의 비율, 침엽과 활엽의 비율, 관상부위에 따른 선택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집합주거단지 옥외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는 거의 대부분 어떠한 계획적인 틀에 의해 조성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와같은 계획된 공간의 부재로 옥외공간에서 자연스런 행태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식재로 인한 유동성의 결여는 실제 녹지공간의 질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4. 사례지역분석

옥외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파천, 개포, 둔촌 그리고 목동의 대규모 집합주거단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단지내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옥외공간의 구성에 있어 크게 고려해야 될 계획착안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1) 주차장

주차장 면적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35%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의 보급율이 증가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건물배치, 유형별 주차면적에 대한 만족정도는 주차장이 주거동과 떨어져 있는 E형과 연립형의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다. 옥외공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은 시각적 거부감 및 비어있을 때의 황량감 등으로 주민의 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행공간

현재 휴식과 대화의 장소는 중정공간이 이용되고 있으나 만족정도는 낮은 상태이다. 단지내 주민의 산책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을 살펴보면, 도로가 35.8% 棟사이 녹지 33.8% 어린이놀이터 16.6% 휴게소 11.8% 주차장 1.6% 순으로 산책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지내에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가 시급하다.

3) 놀이터

놀이공간에 대한 양적부족보다는 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C형, D형, 계단식판통형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놀이터에 대한 놀이만족보다는 건물사이의 중정을 통한 자유놀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놀이터의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가 어린이의 다양한

욕구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차도나 주차장 등이 놀이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놀이소음이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진행차량 등과의 마찰로 인해 혼잡 및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4) 녹지

녹지면적에 대한 만족정도는 중정이 있는 C형과 D형에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반면 N형은 약 30%가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공간이주민들의 만남, 기다림, 산책, 휴식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마다 울타리 등으로 보행공간과 차단시켜



관상용으로 이용될 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옥외공간으로서 녹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한 경관조성을 위한 식재는 배치방법 및 수종의 선택이 미흡하며, 곳곳에 산만하게 심어져 있어 녹지공간내의 보행체계 형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

5. 바람직한 설계방안

1) 주차장 및 연결도로

주차장이 낮시간대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주간에는 주차장을 분리하여 주차 및 어린이 놀이를 구분하여 설계한다. 주차차량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분리대를 만들어 이 분리대는 식재를 하여 주차그늘의 부족을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옥외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집합주거단지에는 지하주차나 외곽주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옥외공간이 주차공간화 되고 있음을 기피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설치와 이에 따른 외부와의 연결도로와 보행자와의 연결도로와 보행자와의 연결점을 입체화시켜 보행자의 흐름을 끊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놀이터

놀이공간이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전혀 구분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옥외공간의

공간혼재를 가중시키고 있다. 놀이터는 먼저 유아 및 유년 등 놀이대상을 명확히 한 후에, 그 대상계층에 적합한 놀이시설을 다양하게 조합시켜야 한다. 전체적인 공간구성은 모래, 흙과 같이 부드러운 지면을 중심으로 한 놀이기구 공간과 지면이 포장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두 공간사이에는 파고라, 평상, 수목 등을 중심으로 완충시킨다.

놀이기구는 독립된 별개의 놀이기구보다는 복합놀이기구를 설치하여 흥미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와함께 어린이들의 창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놀이공간도 아울러 설치하며, 보행자 및 녹지체계의 흐름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치함



4



5



6

바람직하다.

3) 녹지

집합주거단지에서 특히 고층의 경우 가정마다 꾸밀 수 있는 화단을 저층의 경우 나무그늘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단지의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다. 보행로와 연계되는 지점에 다양한 식재계획과 더불어 개방적인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한다.

각 단지별 녹지공간은 보행로를 통해 전체 단지의 녹지체계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도록 설치하며, 綠地空間간의 보행공간은 포장재료 및 주변식재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즉, 자연과 조화되는 휴먼스케일의 공간체계를 이루면서 다음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 필요하다.

6. 맺는말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수많은 집합주거가 과연 살만한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택문제는 양적인 공급차원에서 주거수준의 질적인 향상의 차원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거주자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도록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롭게 건설된다 하여도 저절화된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집합주거단지의 옥외공간 및 녹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행자공간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이것이 실제 거주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합주거단지에서의 보행자공간주변의 시설이란 벤치정도뿐이다. 따라서 도로공원이라 할까 아니면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다양한 휴게시설의 구비로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및 친교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집합주거 단지에서 이웃간의 친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서로 접촉할 기회와 옥외공간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웃간의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반상회를 통한 물리적 방법과 어린이의 놀이동태 및 옥외공간을 이용하는 자녀를 통한 어른들간의 대화가 이웃간의 친밀한 認知關係를 갖게 한다고 할 때,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배려가 있어야겠다.

셋째, 집합주거단지내의 녹지시설은 위치 및 그

- ④ 놀이터 전경
- ⑤ 이용이 통제되는 녹지공간
- ⑥ 자연스럽게 형성된 보행로
- ⑦ 포장재료에 의해 친밀감을 주는 보행공간

규모가 단계계획시부터 주민의 의식조사 및 이용행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녹지에 접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원의 공간구성을 녹지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꾸며야 한다. 또한, 건축 및 토목설계후에 남은 찌투리땅에 녹지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건축초기에 住居棟・보행동선 및 차량과의 연관을 맺으면서 녹지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네째, 어린이는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놀이욕구는 연령층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집합주거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는 유아 및 국민학교 저학년층 일부에만 적합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어린이는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놀이를 행하게 되어 근린주민은 물론 어린이에게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란 주변학교시설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놀이시설계획에서도 각 연령층에 적합하도록 제공되어진 공간을 상호배치시킴으로서 공간상호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며 공간의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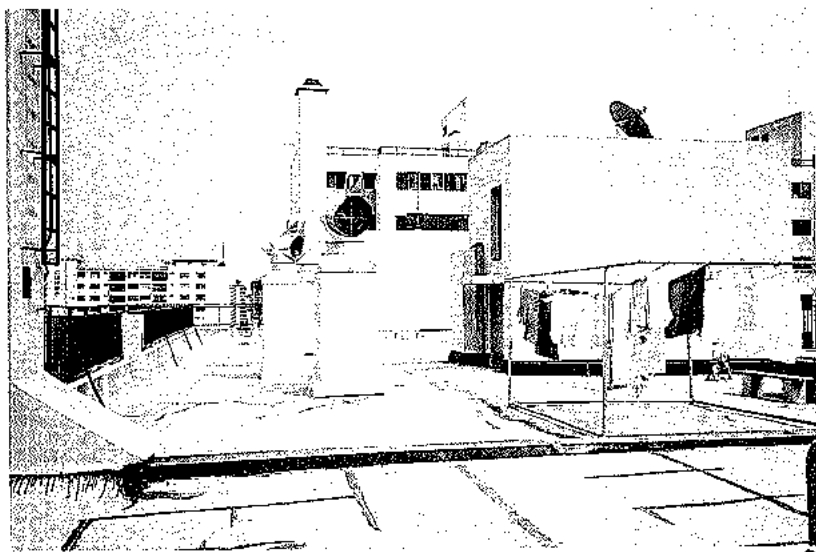
註)

- 1) Yoshinobu Ashihara,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 2) 여기에는 준사적공간(semi-private space)도 포함한다.
- 3) 건설부, 공동주택단지의 지하 및 옥외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1988.
- 4)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주형,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 및 녹지시설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설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집단주거의 노후화 영향 인자와 건축계획

Factors Influencing the Apartment
Deterioration and Architectural Design

任相敦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실
by Im, Sang-Don



1. 처음에

1960년대 초부터 도시형주택으로 건설되기 시작된 집합주거는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기간인 1977년 이후에 본격화 되어 1990년에는 총주택수 7백 37만 4천호 가운데 점유율이 31%로 증가하였다. 특히 5층 이상의 집합주거인 아파트의 경우 건설부의 건설 통계편람에 의하면 1975년에는 전체 주택수의 1.9%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1백67만호(22.7%)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건설량으로 보면 총주택건설량 대비 아파트건설량 비율이 1977년에는 26.5%이던 것이 1985년에는 58.1%, 1989년에는 67.2%인 31만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양(量)적 증가 추이는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토여건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거의 건설을 통한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2~2001년간의 신규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이용효율 극대화 추진계획을 감안하면 아파트 건설 비율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아파트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중 상당수가 조기 노후화 또는 불량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10~15년 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상당수가 내구성, 안전성, 기능성 등의 기본성능 저하와 주택 각 구성부위의 결함에 의하여 벌써 주택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지은 많은 아파트들이 자재 및 시공상의 문제점, 내부구조 및 계획의 미비외에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이며 국민복지 정책중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인적, 국가적으로 재산가치의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거환경의 불량화로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화를 억제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규정을 제정하면서 노후아파트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기능의 변화와 주택부족량을 보완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및 토지이용률제고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노후아파트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건축 방식이 노후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되지 못한다. 아파트의 노후화를 억제하려면 건축적으로는 설계기법과 시공법의 개발로서 설계 및 시공의 수준을 높이며, 정책적으로는 주택 개·보수시 금융지원, 행정지원과 같은 주택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설계기법은 아파트의 건설과 동시에 장기적인 수선계획을 유지관리체계에 연결시킴으로써 거주성능을 적절히 유지시켜 줄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은 개인적인 소유물이며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사회적 재화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파트의 노후화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파트 노후화의 개념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후화 영향인자들을 분석한 다음, 건축계획의 올바른 접근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노후화의 개념

물건에는 수명이 있으며 건축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물이나 설비기기류의 수명 즉 내용연수는 신축, 완성시부터 이용할 수 없을 때의 기간을 말한다. 보통 이것을 년수로 나타내고 있으나 설비기기에 대해서는 운전시간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40~80년의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인 수명은 보통 이 수명을 초과한다. 그러나 보수비용의 상승 또는 기타 외부조건 때문에 수명이 끝나기 전에 철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연속적인 보수와 교체로서 주택의 수명연장을 거의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주택은 유한한 수명을 갖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부재 및 부품은 다른 비율로 성능이 저하되고, 유사재료에 대한 성능저하율도 건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내구년한이 다른 각종 부재와 설비가 조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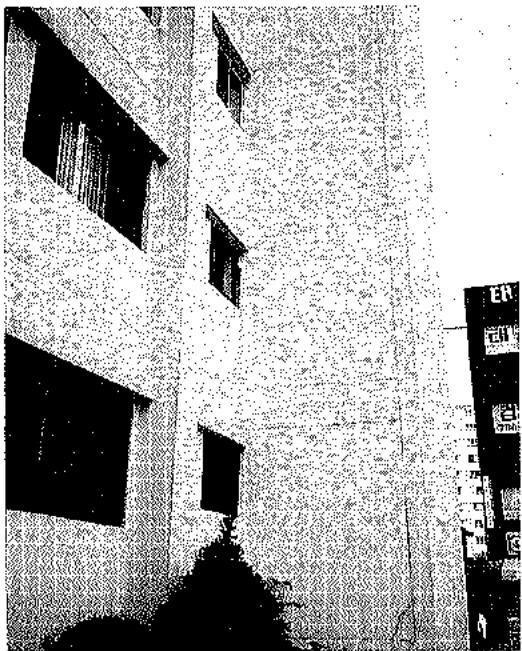
田村茶(1981)은 건물의 수명을 신축완성시부터 이용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판단근거는 減耗의 정도에 의하였다. 그리고 白山和久(1985)는 건물의 내용년수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법정 내용년수로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물의 내구성이나 내용년수의 판단은 한두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특성, 거주자 조건,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까지 내구성이나 내용년수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주택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아파트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건축 방식이 노후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되지 못한다. 아파트의 노후화를 억제하려면 건축적으로는 설계기법과 시공법의 개발로서 설계 및 시공의 수준을 높이며, 정책적으로는 주택 개·보수시 금융지원, 행정지원과 같은 주택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설계기법은 아파트의 건설과 동시에 장기적인 수선계획을 유지관리체계에 연결시킴으로써 거주성능을 적절히 유지시켜 줄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① 옥상 방수층 및 부속 시설물
- ② 세대 내부 벽체 및 천장
- ③ 외벽의 균열 및 도장상태

파손, 자연풍화, 화학적 부식, 지진, 화재, 화재 풍수해에 의한 손상, 설계 및 시공부실로 인한 손상의 축진 등의 정도로서 판단하고 있다. (마더모드, 일본건축학회 등) 이를 주택의 물리적 내구년한이라고 말한다. 물리적 내구년한의 판단기준은 마모율, 풍화상태, 부식정도 등으로 나타내는데, 콘크리트의 중성화나 배관재의 부식과 같이 정량적(定量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건물내외부의 페인트의 퇴색 혹은 박락과 같이 정성적(定性的)인 판단에 의한 것도 많다.

따라서 노후화한 건물의 물리적 내구년한을 판단할 수 있는 마모율이나 부식정도가 건물의 신축시부터 해체시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마모나 부식비율 외에 방의 협소화 또는 설비의 현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기능적인 문제도 노후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의 내구년한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의 구성부재나 설비기기류의 물리적 노후화에 의한 인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노후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물리적 노후화 해결 방법 사례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요 노후화 영향인자들의 관리문제를 건축계획시 고려해야 한다. 유지관리를 고려한 건축계획은 관리비용의 문제, 유지관리의 용이성, 장래의

집합체인 주택은 건설된 직후부터 각 부분이 부식, 풍화, 손상 등의 마모와 기능저하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준공후 7~8년이후부터 마모, 기능저하현상이 발생하며 10년이 지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블랙(BLACK)내구성과 성능의 개념에서 기존 주택의 사용조건과 관련된 주택의 주요성능저하를 내구성에 대한 조건의 상태로 보려고 하였다.

주거성능향상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관리비용의 문제는 노후화된 부분의 수선 및 보수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지 관리의 용이성은 설비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각 설비부분의 일상적인 점검, 청소, 보수 등이 용이하고, 부품의 교체도 간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래의 주거성능향상은 건설당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르는 성능을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실의 변경 등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건축계획 방법은 일본의 백년주택시스템(Century Housing System)과 미국의 존 하브라켄 교수가 제시한 구조체/내장의 설계접근방법에서 볼 수 있다.

백년주택시스템은 건설성이 실시한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개년(1980~1982)동안에 걸쳐서 주택을 양질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된 계획, 설계, 생산 및 유지관리를 체계화한 주택시스템이다.

이 방식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내용년수를 늘리기 위하여 내용년수가 짧은 부품군의 수선이나 교체시에 내용년수가 그 보다 긴 부품군을 파손시키지 않는 구조와 설치방식 등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내장과 설비부품 등의 교환과 방의 배치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일 부위의 여러가지 공종을 하나의 부품군으로 통합화하고 그 부품군별의 내용년수를 4, 8, 15, 30년 및 60년으로 배수계열화한 부품별 내용년수 기준을 정립하였다.

존 하브라켄 교수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환경의 물리적 체계에 대한 5단계의 모델을 설정하고 입주자의 관리부분을 기존의 가구(Furniture)부분에서 가구와 내장(Infill)부분까지로 확대시켜 구조체(Support)/내장(Infill)이라는 새로운 설계방식기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내장은 내부간막이벽, 부엌 및 욕실의 설비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기, 난방, 급배수, 가스 등의 배관, 배선을 말한다.

이 설계 방식의 기본 개념은 주택 관리자는 구조체(Support)단계까지를 관리하여 내장부분은 입주자의 관리부분에 두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설계방식 기법은 집단주거의 노후화를 막기위해 공용부분의 관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입주자의 관리부분을 확대시킨 것이다. 따라서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수선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주택의 노후화진전을 막으며 거주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실태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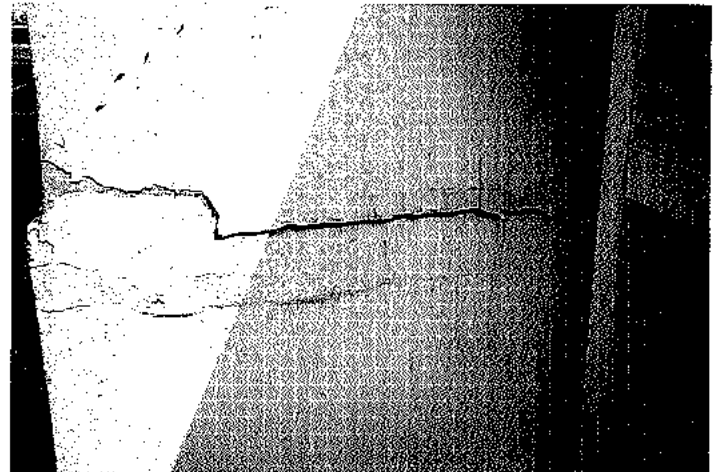
아파트의 물리적 노후화의 영향인자를 파악하려면 주택구성 부위의 손상비율이 경과년수와 함께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손상 비율의 평가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데는 정량적인 방법이 정확하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면 노후도라는 척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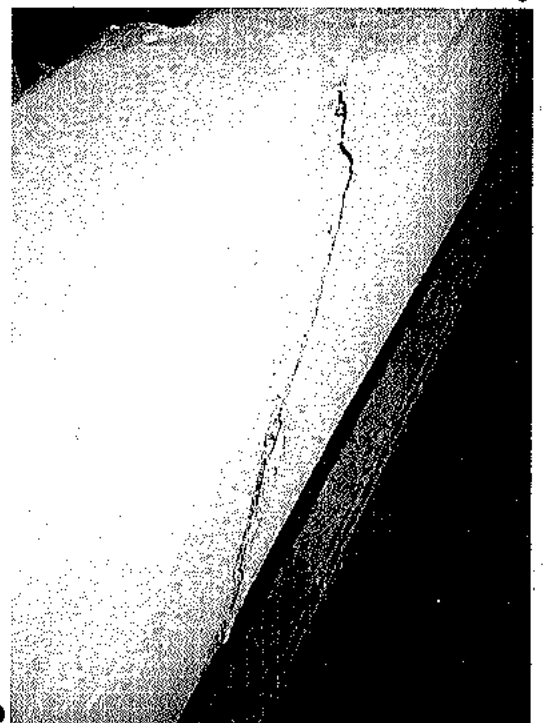
노후도는 학자들에 따라 시각적, 물리적, 화학적, 경제적 척도 등의 여러가지 측정방법들이 있으나 각각의 개념들이 건물자체의 노후도와 1:1로 대응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구성부위의 평가와 건물노후도의 평가를 별도로 평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실태조사의 분석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의 분석결과, 김선중(1987)의 분석결과, 주택공사(1988)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건물부위의 물리적 노후화 영향인자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파트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의 중요 영향인자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코아(Core)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단실형은 복도천장, 복도부속시설, 외벽, 비상계단 난간, 옥상방수층, 외벽창호, 소화기구 등이 중요 노후화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계단실형은 계단실 천장, 외벽 외벽창호, 옥상방수층, 엘리베이터가 중요노후화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코아형식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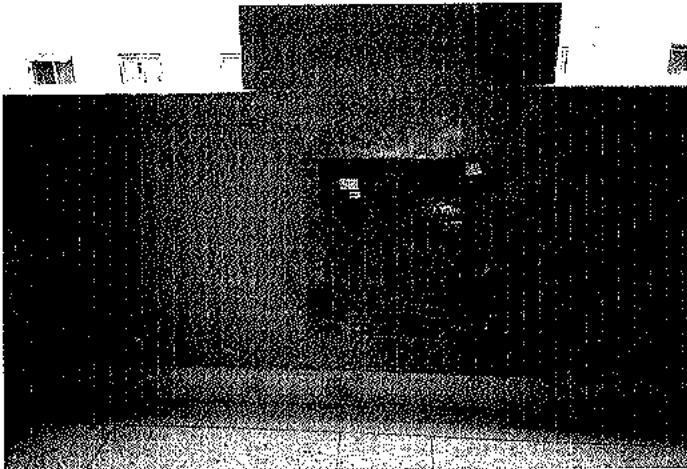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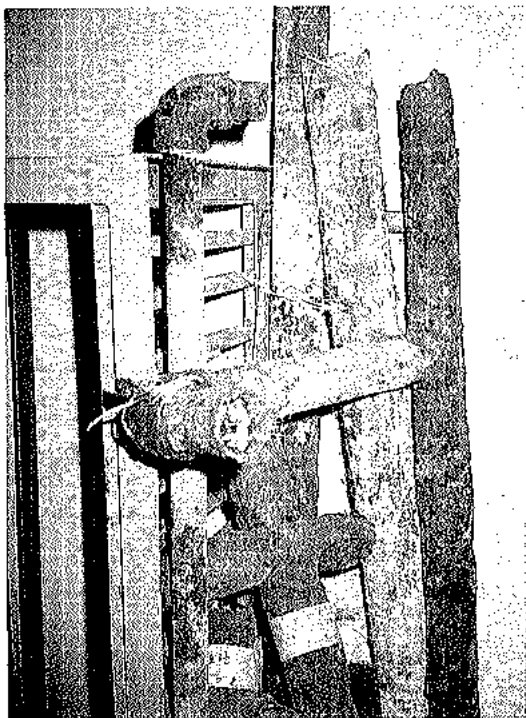
따라 노후화 영향인자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도형은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가 복도부분과 비상계단부분이 관련도가 높았으며 계단실형은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이 관련도가 높았다. 그리고 공동적인 부위는 외벽, 외벽창호, 옥상방수층 등으로 볼 수 있다.

김선중(1987)의 분석결과를 보면 창호, 외벽, 승강기, 소화기구, 계단손잡이 등이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와 관련있는 영향인자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주택공사(1988)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옥상방수, 외벽철재창호, 옥상의 철재난간, 계단손잡이 등이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실제 아파트의 물리적 노후화 영향인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지관리기록을 조사하였다. 유지관리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외인 아파트의 건물보수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벽단열보수, 내·외벽도장, 옥상방수, 창호공사, 쓰레기투입구, 계단인조석감기, 흡통공사 등이 가장 빈번하게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결과와 보수실태자료를 통해서 건물의



①



- ④ 벽책가 균열된 모습
- ⑤ 복도 난간
- ⑥ 복도의 쓰레기 투입구
- ⑦ 배관재의 부식 상태
- ⑧ 전선의 노출배선

물리적 노후화 영향인자는 코아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옥상방수, 외벽,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흡통 등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자주 쓰는 부위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 등이 물리적 노후화와 관련 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공용공간설계시에는 위와 같은 부위의 계획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대의 물리적 노후화의 영향인자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스위치, 거실벽, 싱크대, 화장실 바닥, 화장실문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선중의 분석에 의하면 부엌의 쓰레기철문, 급수·배수관 누수, 위생도기, 바닥재 파손 등이 세대의 물리적 노후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의 분석 결과는 철재쓰레기 투입구, 내부벽지, 바닥타일, 마루, 알마늬새시 등이 노후화 영향인자로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외인아파트의 세대 보수실태자료에 의하면 주방가구 및 싱크대 교체, 위생설비 교체, 창호 교체, 바닥마루널, 조명설비 교체, 욕내 배선 콘센트, 바닥타일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실태는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대의 노후화는 설비와 관련된 부분과 부엌 및 거실마감부위 등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설비관련부위와 부엌 및 거실마감부위 등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부위의 결함이 많을 수록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세대 매부의 설계시에는 위와 같은 부위를 우선,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비의 교체시기는 건설부 기준이나 주택공사의 기준에 의하면 15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부엌 및 거실의 마감부위는 7~10년부터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실태조사가 건설경년이 20년 정도에 이른 아파트들의 실태조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결과에서처럼 내부 장식장이나 출입문 등에 대한 항목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시계열분석에 의하여 노후화 영향인자의 파악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건축계획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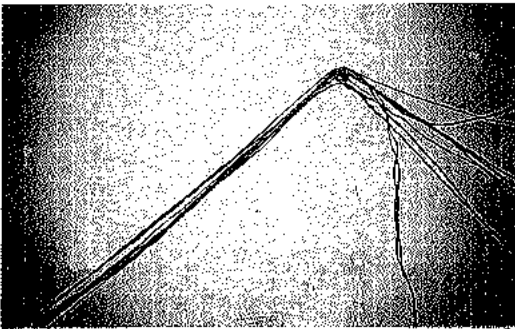
바더모드연구에 의하면 주택의 노후화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결합은 설계 및 시공의 미비와 기능공의 숙련도 부족에 의한 것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태조사에 나타난 건물 및 세대의 물리적 노후화 영향인자를 건축계획에 반영한다면 공동주택의 물리적 노후화 지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구성능은 방수부위,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외장부품의 내구성, 설비배관의 내구성 및 수선계획의 용이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물리적 노후화 영향인자를 건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건설부 수선시기 기준보다 조기에 수선을 요하는 부위의 파악
 - 노후화되면 사용불가능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의 파악
 - 노후화로서 수선을 할 때 수선비의 과다 지출, 복잡한 공종이 필요한 부위 파악
- 그리고 물리적인 노후화는 아니지만 계획상의 미비로서 발생하는 주택의 개조사유에 대한 점도 건축계획상에 배려해야 한다. 주택공사에서 분석한 개조사유를 보면 부엌의 확장, 거실과 부엌간의 칸막이벽 제거, 화장실 확장 등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개조사유를 보면 주거의



성능향상이 주요 요인이었다.

따라서 건축계획상에도 가장 빈번한 개조부위에 대하여 거주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개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물리적인 노후화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의 분석자료와 외국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서 건축계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기본 설비 및 구조체 외는 입주자가 생활 방식의 변화 또는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내부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함.
- 설비부품과 구조체는 분리하도록 계획함.
- 세대 내부공간 또는 세대 전용설비, 배관, 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획하여 점점이 용이도록 하여 소유자의 유지관리하에 두도록 함.
- 공용 배관설비는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현관 등과 인접해서 설계토록 함(노출배관이나 교환공사가 가능한 파이프사프트등의 계획)
- 비상계단 및 복도 등은 될수 있으면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토록 함. 특히 비상계단 부분은 유지관리가 소홀히 되기 쉬운 곳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특히 중요하다고 봄.
- 옥상부분의 방수 문제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계획적인 접근으로 옥상정원이나 체력장 또는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함.
- 개조부위가 빈번한 부위 등은 가변칸막이의 설치 등을 계획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실공간의 변경을 가능토록 함.
- 설비 배관덕트에는 점검부를 설치토록 함.

특히 공동주택의 수명은 유지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유지관리비용의 증감은 건축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유지관리의 방법, 문제점 등에 대한 점들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건축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공동주택의 노후화란 경과년수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으로서 제반성능의 저하와 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성부위의 결합상태에 의하여 초기의 주거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의 수명을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의 노후아파트의 재건축률으로 50년이라는 수명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주택공급의 관점에서나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도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가 30년 정도만에 재건축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택수명을 높은 100년 주택을 개발, 건설하고 있다. 주택부족이 심각하고 사회가용 자원이 적은 우리의 현실에서 주택이 갖는 사회적 재화로서의 의의는 수명의 장기화로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시한 건축계획상의 고려사항들은 체계적인 설계방법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물리적 노후화 영향인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수명은 유지관리 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유지관리비용의 증감은 건축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유지관리의 방법, 문제점 등에 대한 점들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도록 건축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선중(1988), 「공동주택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한 결합현황과 수선시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 주택공사(1986), 「공동주택의 노후화 실태 조사연구」
3. 주택공사(1988), 「수선개조가 용이한 주택설계기법 연구」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9), 「노후아파트 개보수를 위한 평가 기법」 개발
5. 주택공사(1990), 「공동주택단지의 장기수선계획 및 내구성용 고려한 설계」
6. 飯藏裕(1978), 「계획수선을 위한 적정 수선시기」, 「건축학회 논문보고집」 제147호.
7. 橋本正五(1982),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건물의 life-cycle」, 鹿島出版會.
8. 田村恭外(1983), 「신건축학대제 49, 유지관리」, 형국사.
9. 石塚義高(1983), 「건물의 정기검단·보수」, 定常書院.
10. Erik Brandt(1983), 「How to make Durability Manageble」, 「CIB 83」 Vol. 1ap 54-60.
11. Ingemar Holmstrom (1983), 「Bukiling to use or to demolish」, 「CIB 83」. Vol. 1b P 555-562.
12. John A. Kromkowski(1977), 「An Evaluation of Housing Rehabilitation Programs in South Bend」.
13. K. Black(1983), 「Durability and the performance concept」, 「CIB 83」 Vol. 1a P 33-40.

전문건설회관 현상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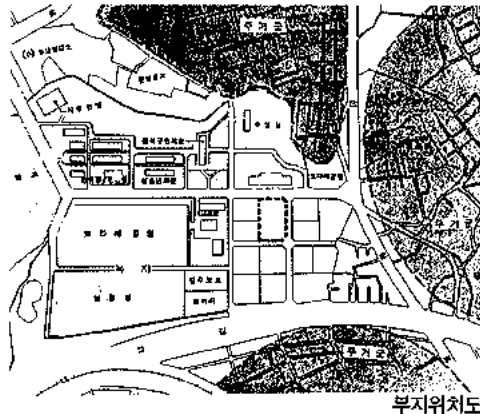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9월 현상공모한 전문건설회관 설계경기에서 희림건축(대표 李永熙) 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주어졌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2만5천평 규모로 계획된 전문건설회관의 현상설계경기는 실적제한공개방식을 택해 총 7개사의 작품이 최종 출품되었으며, 이광노(서울대), 이경희(연세대), 이정덕(고려대), 이명호(중앙대), 윤도근(홍익대), 김광문(한양대) 교수등 건축전문교수 6인과 조합측 대표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에 희림건축(대표 李永熙)案, 우수작에 천일건축(대표 韓奎奉)案, 가작에 서한건축(대표 慎國範)案과 원도시건축(대표 尹承重)案이 각각 선정되었다.

설계공모시 제시된 주요공모지침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1. 명칭 : 전문건설회관
2.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71번지 2필지
3. 대지면적 : 7,210㎡(2,181평)
4. 연면적 : 25,000평(중감可)
- 지상 : 17,500평
- 지하 : 7,500평
5. 규모 : 지하 5층, 지상 25~30층



■ 공모지침

1. 일반사항

1) 창의적인 공간구성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미지와 성장하는 조합으로서의 품위와 위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독창적인 외모와 마감처리, 창의적인 공간 구성

2) 시설물의 집중화, 체계화

전문건설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물의 집중화 및 체계화 구축

3) IBS기능 건축설계

다가오는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IBS기능을 갖춘 건축설계 개념 적용

4) 조합 일면 부각

건물 안팎으로 충분한 녹지와 공공공간을 마련 개방하여 조합원 및 입주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물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조합의 일면부각

5) 융통성 및 신축성 고려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의 융통성과 신축성 고려

2. 주요시설 배치

1) 건물 및 제 시설물의 배치, 정문 및 대지내 도로망 구성, 도로구배, 기준지반고 설정, 녹지대 배치, 건물간의 결정등은 자연지형, 주변도로와 건물등을 최대한 고려

2) 대지내 차도와 보도는 분리

3. 설비계획등 기타사항

1) 주차장 : 법정주차대수이상의 규모로 하되, 가급적 지하주차장화

2) 승강기 : 시스템, 대수, 규모, 속도, 제어방식은 교통수요의 상황을 예측하여 최적의 것을 채택하고, 승객용과 화물용 승강기 별도 설치

3) 옥외환경

○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물과 조화되게 하되, 한 국적인 조경미를 구현

4) 자연채광 및 통풍, 주요실은 자연채광 및 통풍을 가능한 한 고려

5) 실내온향

○ 통신케이블을 수용할수 있는 충분한 수직등도 확보

○ 현기능과 미래가능한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설비기기실은 충분한 Space 및 천정고 확보

○ 건물 옥상은 철탑 및 위성통신 안테나 설치를 위한 하중 및 기초시설 고려

당선작

히림건축案

대표 李永熙

대지위치/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기번지 2필지

대지면적/7,210㎡(2,181평)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면적/2,835㎡(876.7평)

연면적/90,168.69㎡(27,276.0평)

건폐율/39.3%(법정:70%)

용적률/792%(법정:1,000%)

층수/지상 30층, 지하5층

최고높이/126.2m

조경면적/1,860.4㎡(법정:1,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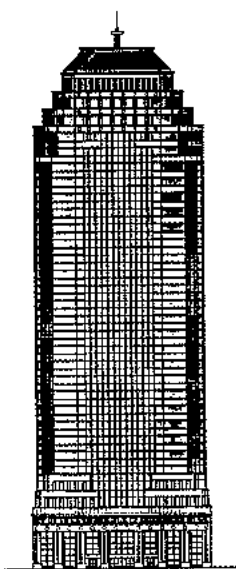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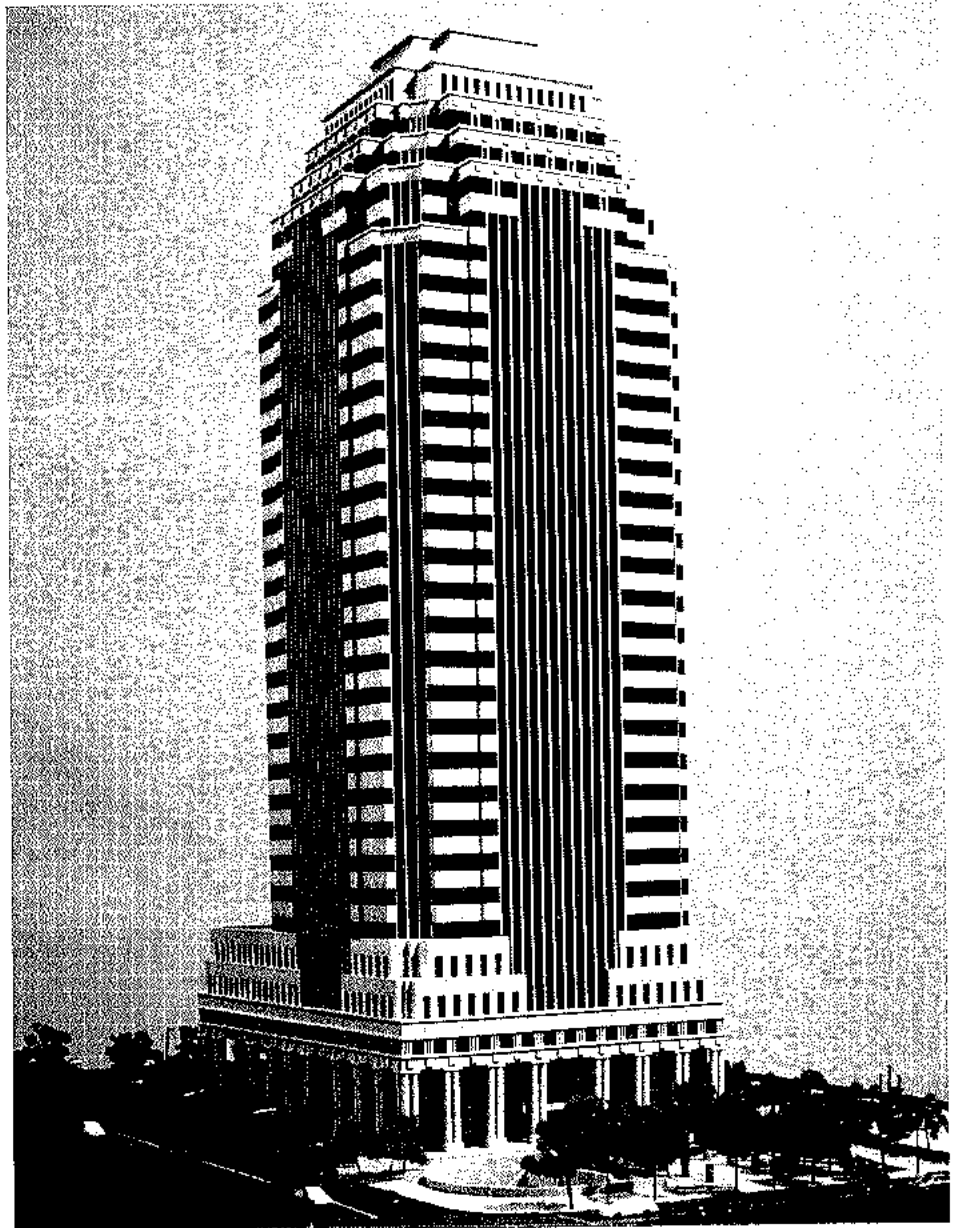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790대(법정:66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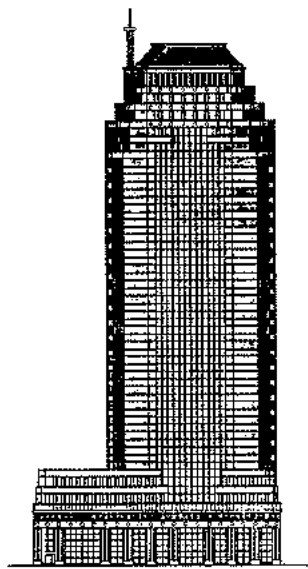
자주식:554대

기계식:23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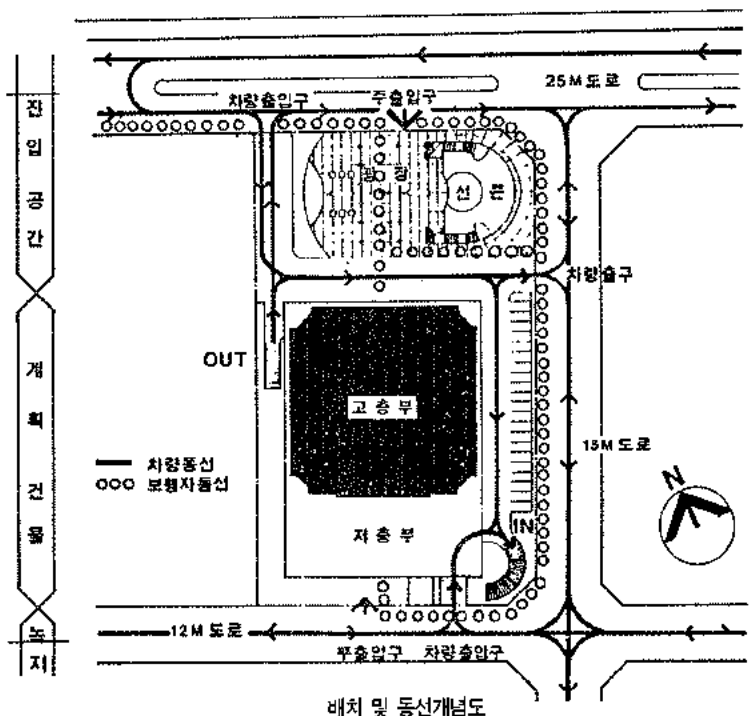
승강기/24인승 16대, 비상용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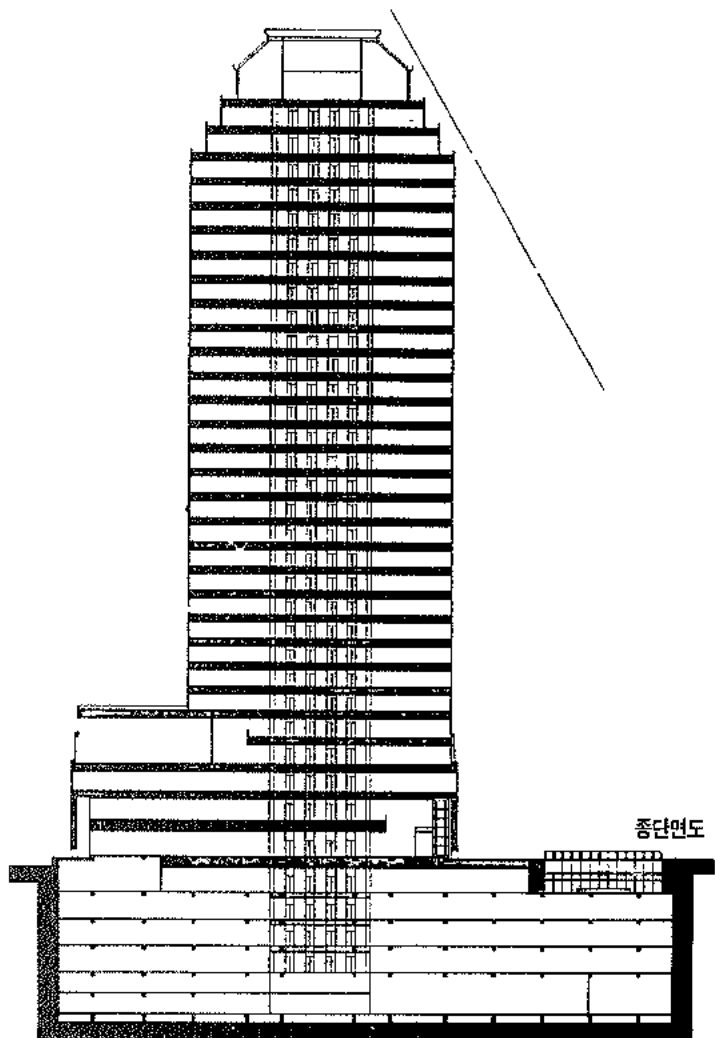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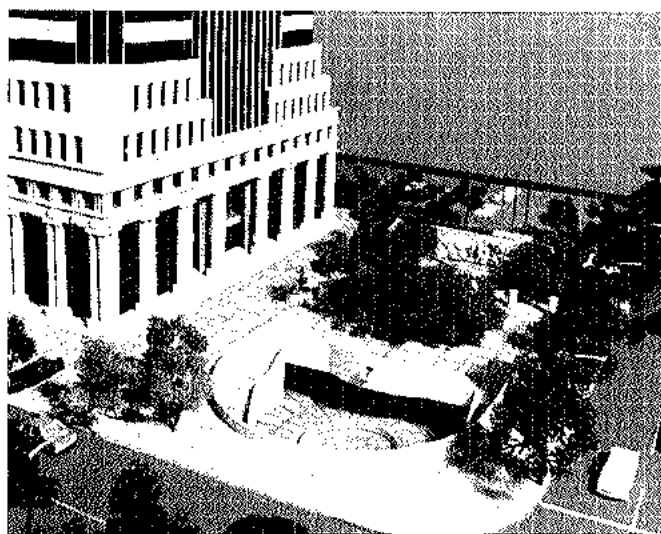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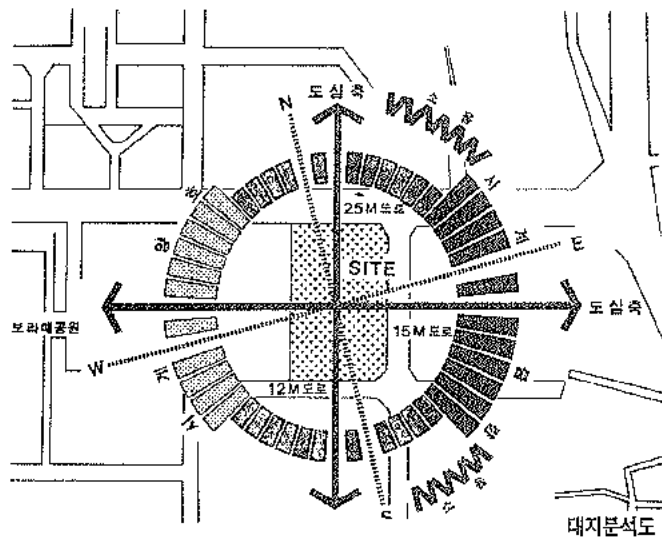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 계획개요

1. 계획목표

- 전문 건설인의 지위향상 및 조합원 대외 공신력 제고
-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공간 제공
- 인텔리전트화 빌딩으로 쾌적한 업무환경조성 및 업무 능력 향상
-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의 이미지와 상징적 공간 창출

2. 계획 지침

- 성장하는 조합의 이미지 표현으로 창의적 공간 구성
- 전문 건설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시설물의 집중화, 체계화
-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IBS설계 개념 적용
- 충분한 녹지와 공용공간 확보로 입주자 및 시민의 편리성 도모

-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응할 공간의 융통성 고려

■ 배치계획

1. 토지 이용 계획

- 고층부와 저층부를 분리하여 공간기능의 이질감을 해소
- 고층부는 대지 중앙에 위치, 토지이용 극대화
- 대지 북측에 대규모 진입광장 및 선근도입, 보행자 및 이용자의 휴식공간 적극 제공

2.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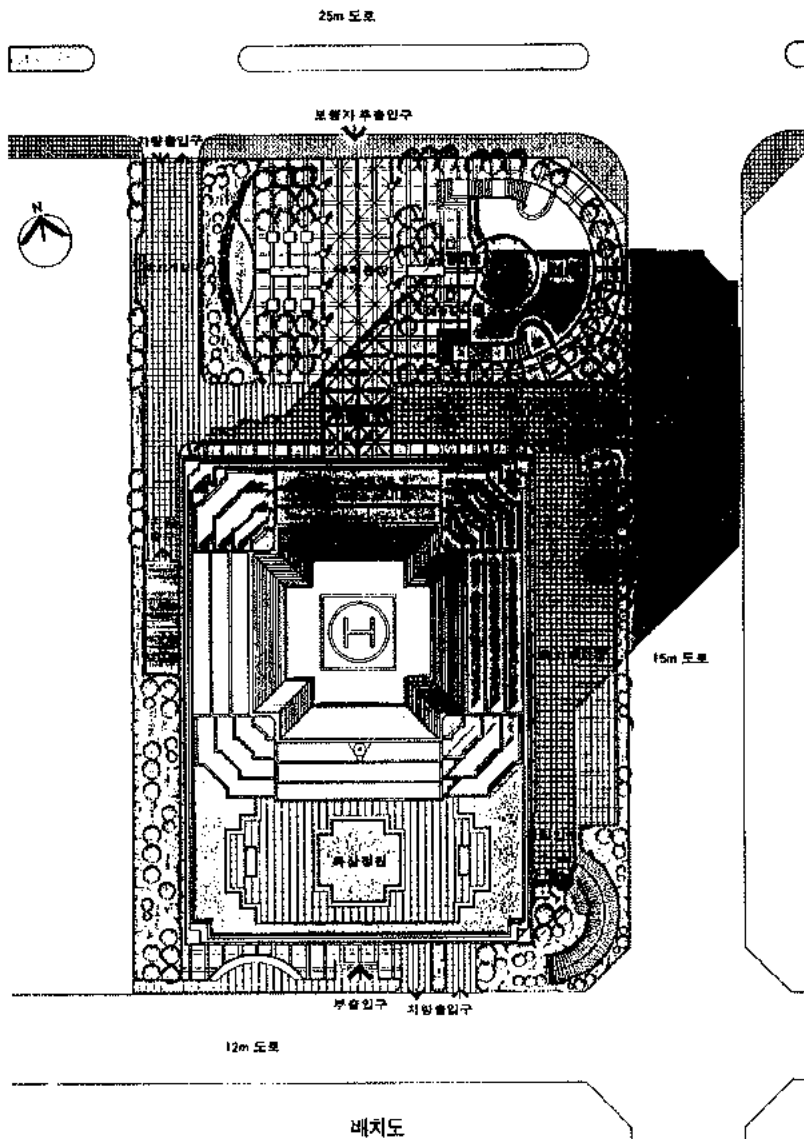
- 명확한 보차 분리, 이용자 편리성 도모
- 대지내 통과도로 설치로 원활한 차량소통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분리, 이용객과 입주차 동선 분리
- 일방통행 램프설치 및 지하주차 건·출입구의 분리로 차량교차 억제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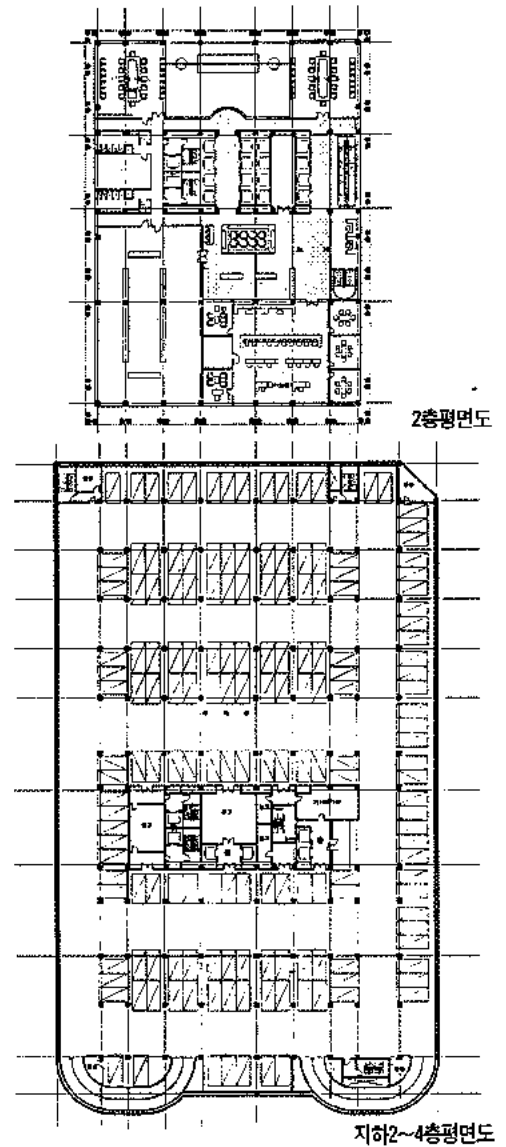
- 고층건물로서 넓은로비 및 홀의 확보로 쾌적한 공간 창출
- 자연 채광 최대이용 쾌적한 업무공간
- 옥내선근 및 옥외선근 도입으로 과감한 녹지공간 실내 고입
- 업무공간은 기동없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
- 공용면적 최소화로 전용 업무공간 극대화
- 공간 기능의 수직적분리, 기능상 상충 해소
- 저층부: 은행, 금융권, 영업부, 회의실, 강당
- 중·고층부: 협회조합사무실, 임대사무실, 스카이라운지
- 인텔리전트 빌딩 System운용 가능한 평면계획으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통신기능, 오피스 오토메이션(OA), 빌딩 오토메이션(BA) 수용)
- 다목적 홀 등 가변성 집회시설

설 설치(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연회장, 예식장)

- 효율적인 승강기 계획
-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3Zone으로 분리 운용하여 동선의 혼재방지(1~5층 Zone, 1~15층 Zone, 1~30층 Zone)
- 지하 승강기는 1층에서 연계 운영(피크시 혼잡 예방 및 건물 관리 측면고려)
- 화물겸용 비상용 승강기 2대 운영



배치도



■ MASS 계획

- 수직상승의 고층 Mass의 창출로 성장하는 조합의 이미지 부여
- 고층부의 정방형 Mass의 넓은 저층부 Mass를 조화있게 조합하여 중후한 건물 Mass로 처리
- 대지복측(전면)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남측면의 개방감을 확보위해 저층부를 남측에 위치함
- 머리, 몸통, 기단의 3단 Mass 구성으로 인간적 건축미 표현
- 지붕 및 상층부의 Mass변화로 사선제한을 피하여 최대의 건물 높이와 면적을 확보하고 기존의 단순한 건축물 이미지를 탈피

■ 단면 및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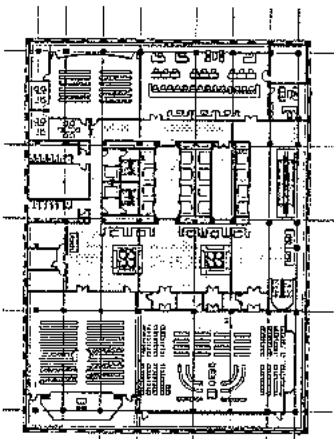
- 전문 건설회관 사옥으로서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
- 미래 지향적이며 성장하는 조합의 위상을 외형적으로 표출
- 수평창의 안정감과 수직창의 성장 이미지를 입면에 조화
- 화강암, 유리, 알루미늄바의 조화로 건물의 현대미와 고전미의 조화
- 입면의 3단 구성으로 안정감과 수직적 효과를 극대화
- 기능의 수직적 분리로 편리한 공간감 창출

■ 옥외시설 및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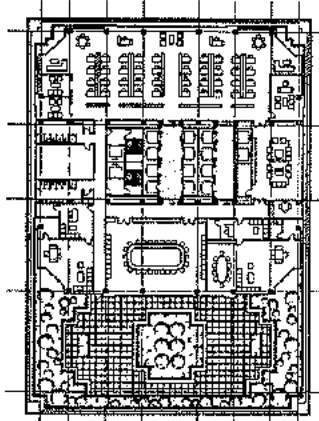
- 보라매 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옥외광장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이용자에 휴식공간 제공
- 과감한 선근을 도입하여 옥외광장과 지하 1층 공간의 활성화 도모
- 대지 주변에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옥외 공간 조성
- 조경요소로서 물의 적극적 도입
- 광장 및 선근 공간의 활성화
- 주진입구의 극적 효과 연출
- 옥외공간에 예술장식품 및 열주를 설치하여 진입유도 및 휴식공간에 활력제공
- 저층부에 옥상 정원 설치로 이용자 휴식공간 제공

■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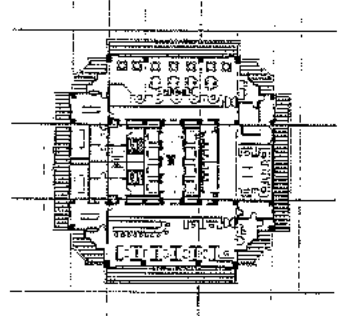
- 기본개요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의 안정성 및 가변성 고려, 넓은 공간 확보(6×15m Module)
 - 경제성, 내진성, 시공성, 공기단축의 구조 Module 적용
 - 내부 Core를 중심으로 Framed Tube방식 적용
- 세부 계획
 - 기둥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획 800×800(H: 500×500)
 - 지상층 Deck Plate Slab 방식 채택
 - 지하층 경제성 및 충고 고려 Buttress Colum설치
 - 기초는 이중 Slab내 독립 및 연속 기초방식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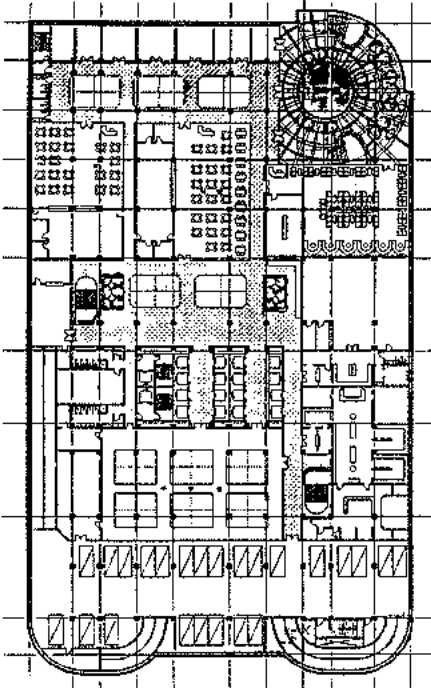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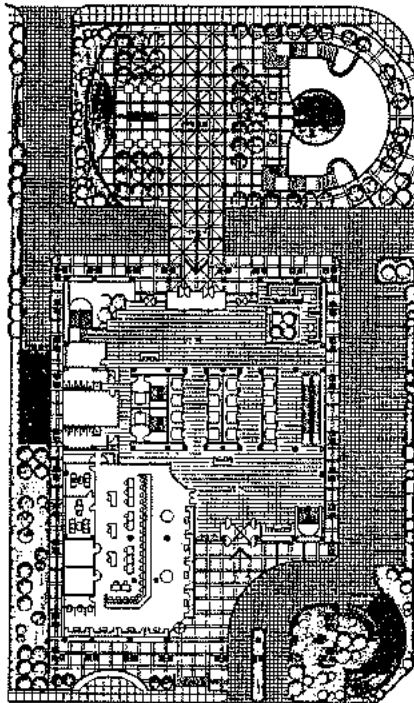
6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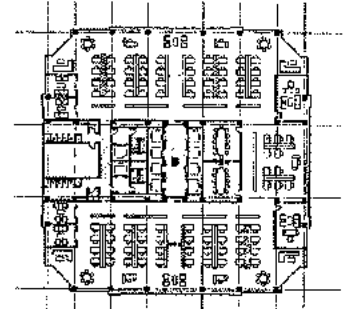
30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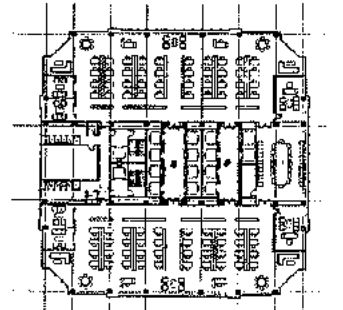
지하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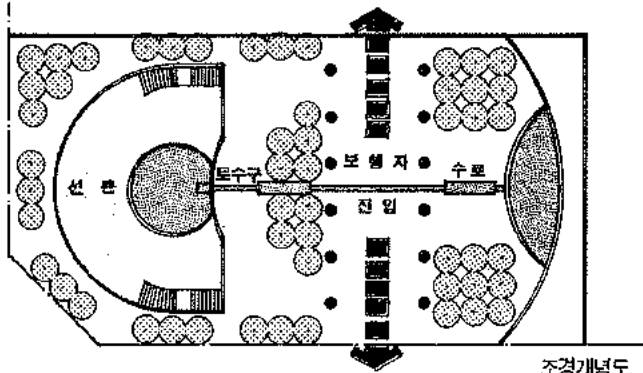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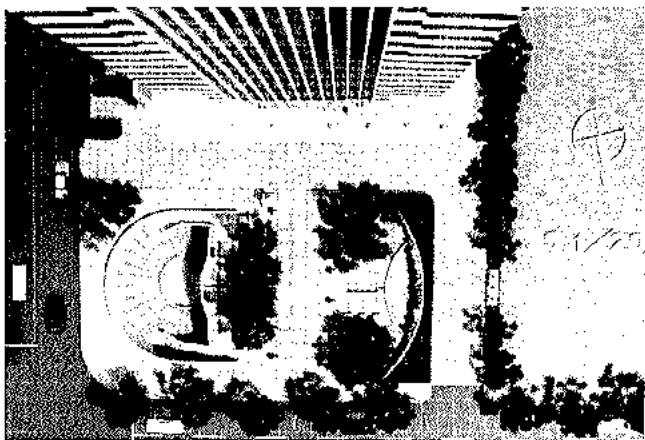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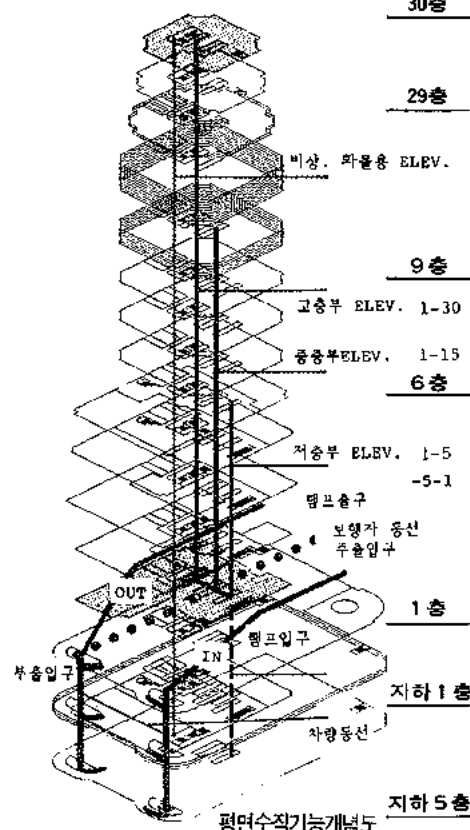
기준층 (16~2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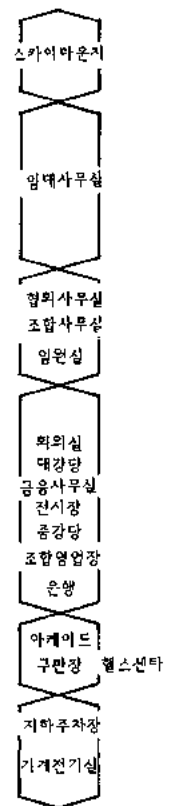
기준층 (9~15층) 평면도



조경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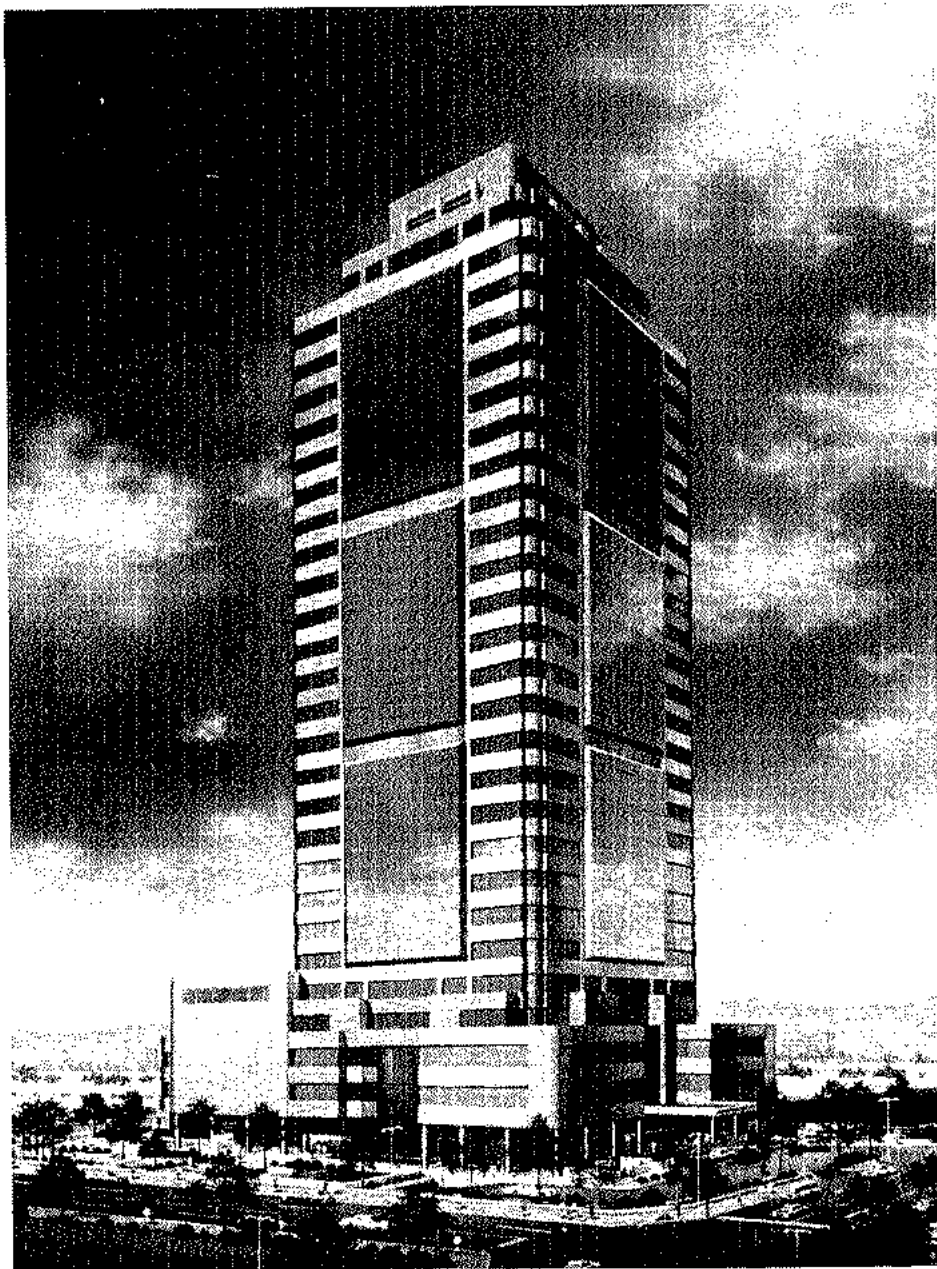
평면수직기능개념도



천일건축案

대표 韓奎峯

■
 대지면적/7,210.00㎡(2,181.00평)
 건축면적/3,589.50㎡(1,085.80평)
 연면적/82,194.57㎡(24,863.88평)
 건폐율/49.78%
 용적률/706.90%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731대(옥내 720대, 옥외 11대)
 조경면적/25%
 층수/지하 5층, 지상 30층



■ 계획개요

전문건설회관 현상설계는 25,000평 상당의 대규모 사무 공간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건물의 하드웨어로서 고층화와 공간의 패턴화가 필연적이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인텔리гент화된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었다. 또한 이에따른 도시환경에 대한 고려, 쾌적성과 다기능적 공간 계획이 삽입 되어야만 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안정성 있는 중심 코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준층은 효율적인 레이아웃이 가능한 구성이며, 인텔리гент 시스템의 단계별 확대 적

용이 가능한 메카니즘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이루어졌다.

주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5층으로 계획(현상설계지침)하였으나 지하 6층으로 계획하여 차량동선의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성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외부공간은 거대한 광장보다는 한국적 조경미를 최대한 수용,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으며, 통속적 장식주의 보다는 거대한 매스를 순화시키는 삼등분화된 유리면의 투명성으로 현대도시의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계획 개념

1. 도시적 Contest 고려
 대지형태와 도로의 맥락 분석
 • 친근감
 • 개방적 환경
 • 도시 조직과의 조화

2. 조합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정방형 Mass의 비례적 상승효과로 상징성 부여
 • 조합의 상징성
 • 지역업무공간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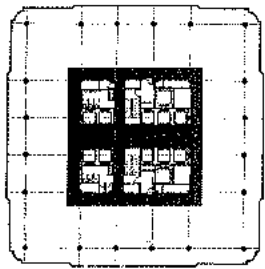
3. 수직적 기능 배분의 명확성
 중심 Core를 최대한 이용한 층간 Zonning의 명확성→OA, BA제어시설의 집중화, 체계화

• 효율성
 •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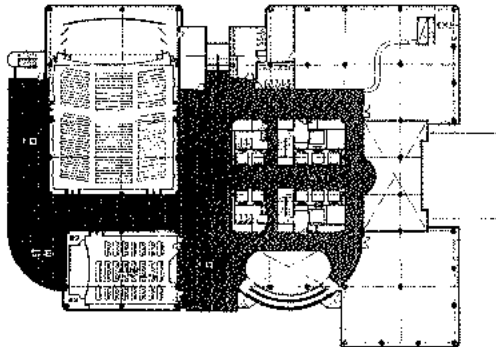
4. Amenity Planning System
 Void, Sunken, Sky Lobby, Sky Deck등의 변화있는 공간 연출로 쾌적한 환경조성

5. 공간형태의 합리적 구성
 • 구조적안전성을 부여한 Core 형태
 • 효율적 동선체계
 • 자유로운 구획이 가능한 업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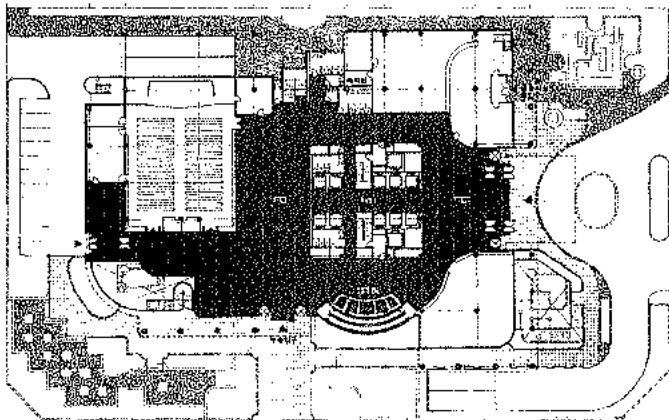
6. 공공성—선택적 Activity
 • 개방성과 폐쇄성의 조화
 • 저층부의 개방적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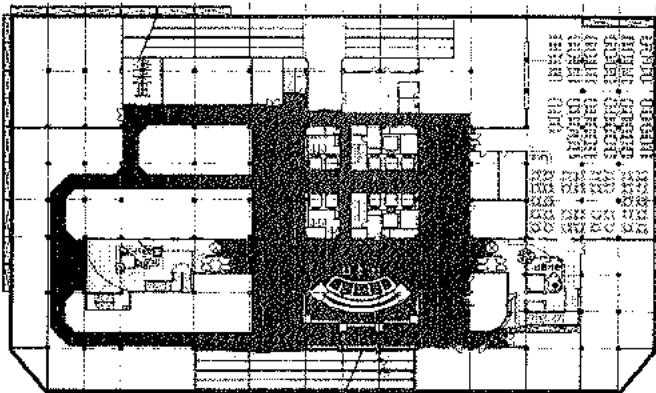
기준층(5~2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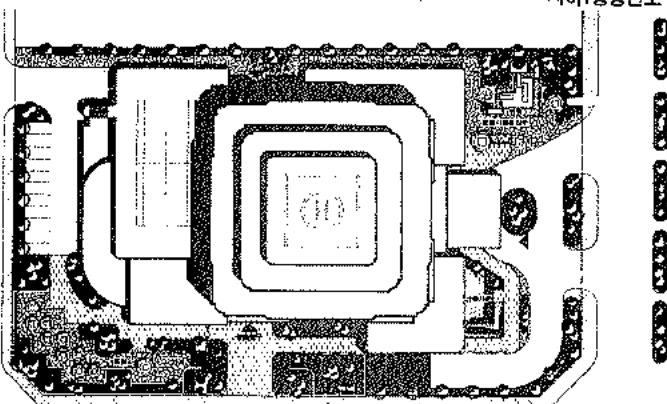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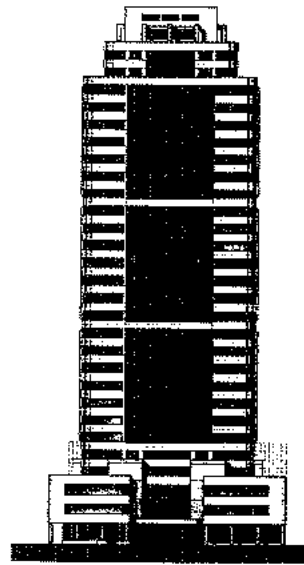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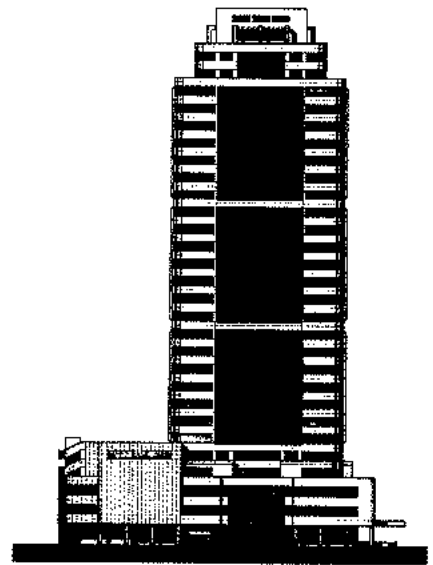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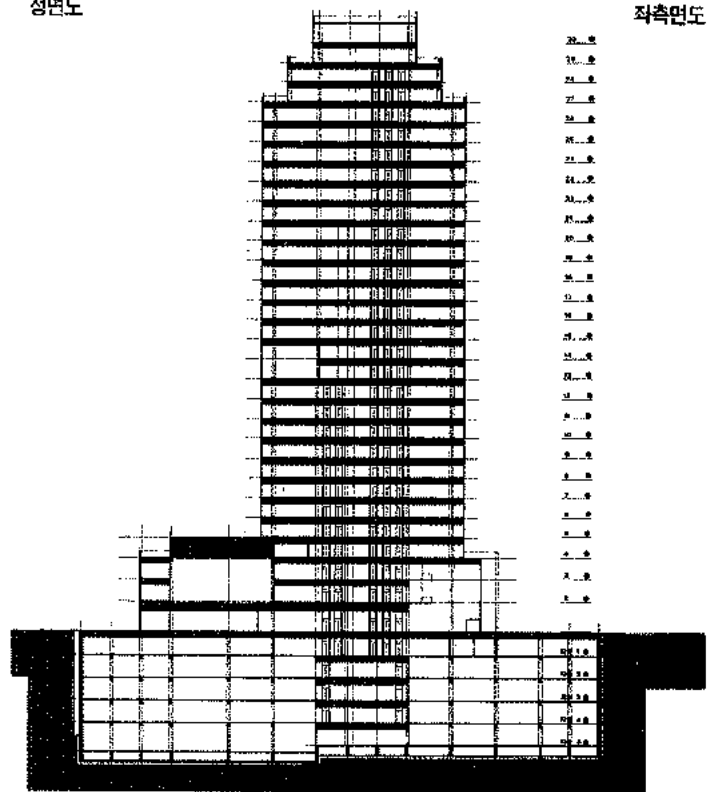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 배치 계획

- 30m 전면도로의 주출입구와 15m 도로(동측) 부출입구를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에는 조형성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외부공간 형성
- 차량은 건물의 전면과 후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소통을 꾀하였다.
- 지하출입은 외부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동선의 분리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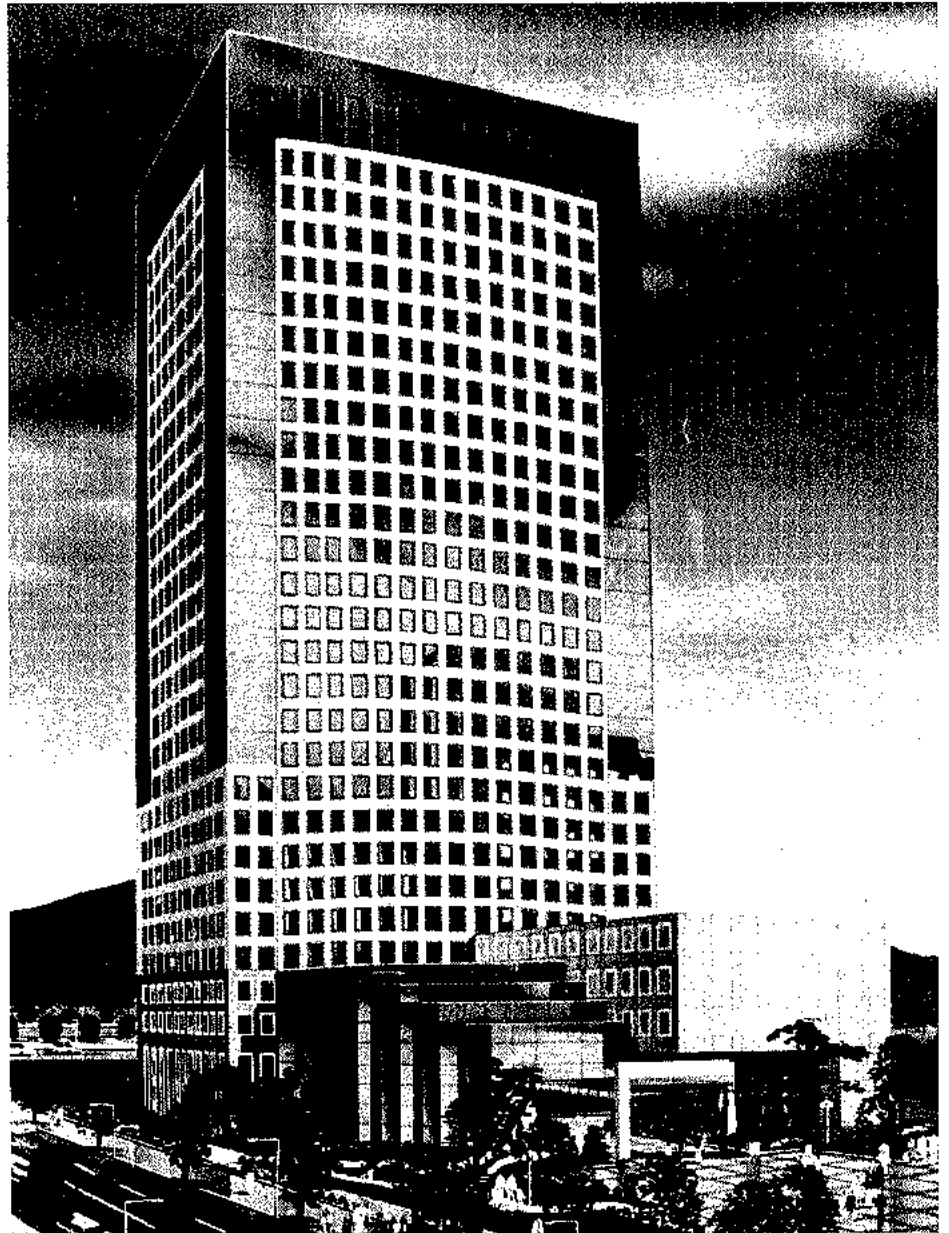
■ 단면계획

- 층고 : IBS에 대응→4m(기준층)계획, Cellular Duct바닥 배선 방식 채택→Flexibility부여
- 수직공급체계→IBS 대응 전용 Duct Space확보→3단계 전체통합체계에 대비
- 수직이동체계→저층부 및 지하층 : Sunken, Void, Escalator, Lobby의 적절한 배치로 공용시설의 인구 밀도에 대응→고층부 : Conventional Zoning 방식 Elevator계획, 합리적인 Core 형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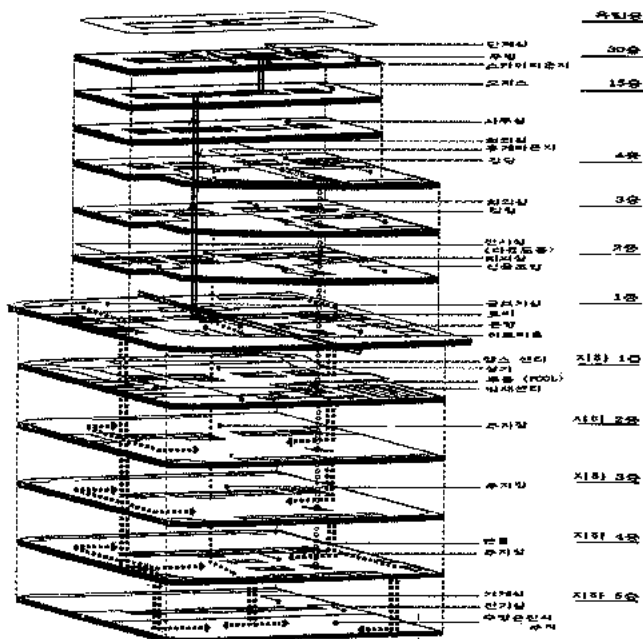
서한건축案

대표 愼國範

■
대지면적/7,210㎡(2,181坪)
건축면적/3,423.59㎡(1,035.63평)
연면적/92,496.7㎡(27,980.12평)
건폐율/47.48%
용적률/868.04%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 5층 지상 30층
주차대수/총 776대(자주식-434대
기계식-342대)



■ 층별 면적



내부동선 및 시설계획개념도

■ 계획의 목표

- 상징적인 전문건설회관 건설
- 최대의 사업성 고려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건물의 우수성 입증
- 예술적 가치의 부가
- 인텔리гент화 대비
- 조합원의 요람 및 시민 편의 시설

■ 배치계획의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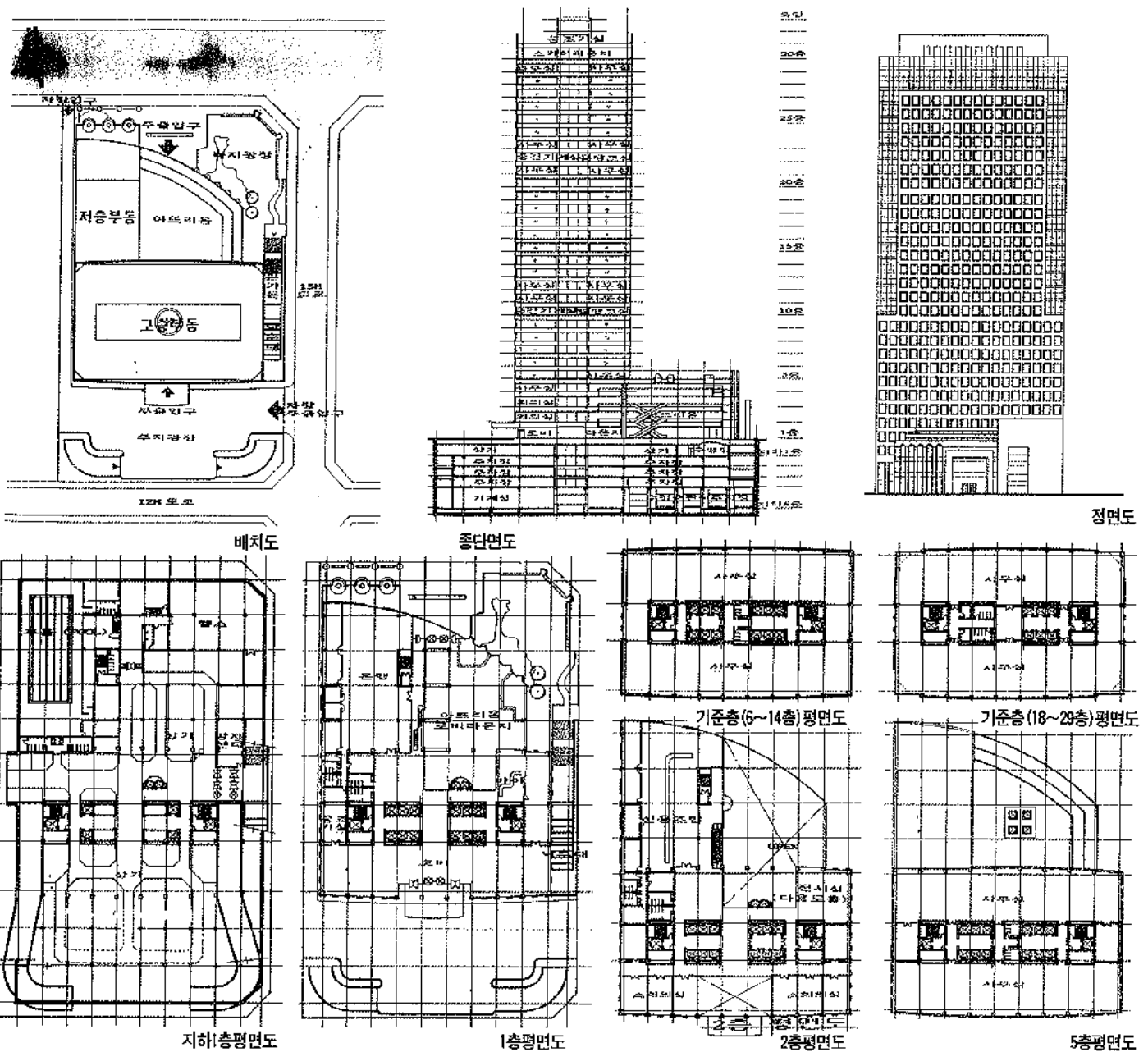
- 회관의 이미지 창출 및 조합 업무 활성화
- 사업성의 극대화와 장래 시설 확충대비
-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축의 설정과 평면 기능의 입체화
- 사회 기여 차원의 시민 할애

녹지 공원

- 기능 상호간의 Privacy 확보와 Open, Space의 확보
- 내외부 공간의 자연스러운 Sequence와 보행 및 차량동선의 분리
- 정면성 및 상징성 부여
- 주변환경 및 시설과의 조화와 연계
- 장래 빌딩 인텔리гент 시스템을 대비한 계획

■ 배치계획

1. 토지 이용 계획
 - 주어진 대지조건과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환경의 조화와 토지이용 극대화를 충족시킨다.
 - 전면에 시민 할애 도시공원



조성 및 선전가든 조성

- 측면과 후면에서 차량을 유도 주차 동선 확보
- 공간의 적정배분으로 외부에서 내부공간의 접근성을 확보

2. 동선계획

- 보행동선 : 도로에서 정면과 후면으로 진입, 전면 선전가든을 통한 자연스런 지하유도
- 차량동선 : 측면, 후면 도로에서 차량을 본 건물로 유도하고 양측 Ramp로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 한다.

3. 녹지계획

- 전면에 휴게 및 녹지 공간을 형성하여 실내외 풍요로운 분위기 창출
- 전면에 선전가든을 조성하여

지하공간의 쾌적성 확보

- 측면 및 후면에 차폐 식수를 조성하여 소음 및 매연을 방지
- 전면에 아트리움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

■ 평면계획

1. 평면 구성의 주안점

- 쾌적한 사무공간의 구성
- 동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합리적 공간의 구성(승강기 및 기계 주차 방식의 합리적 계획)
- 적정 모듈을 통한 Office Landscape 적용.
- 인텔리전트화를 적극 유도대 비하며 에너지 절약을 체계화
- 진입동선의 체계적 분리와 수직동선 체계의 기능적 분할
- 외부 공간의 개방성과 내외부

풍요로운 유도

- 장래 회원 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 공간의 융통성 확보와 업무시설 및 집회, 정보, 금융, 스포츠 기능등의 편의시설을 이용 편리하게 계획
- 지역주민에게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인근 건물과 연계 개발 고려

■ 입면계획

1. 기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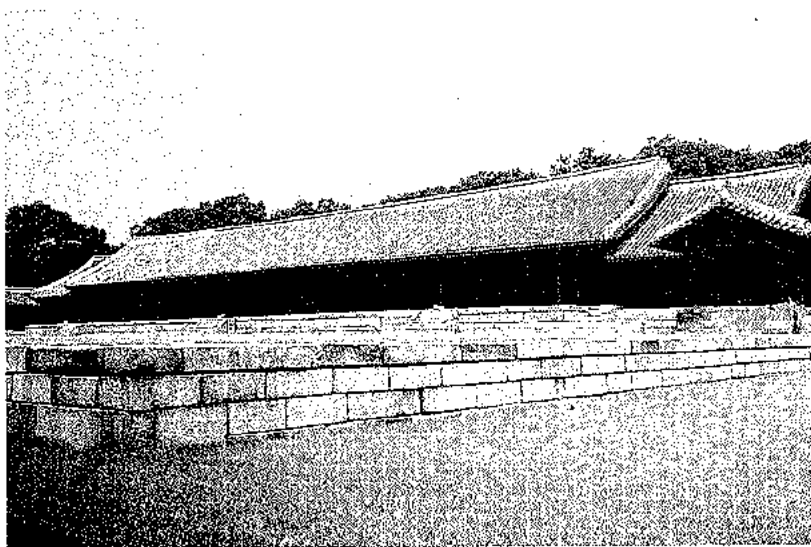
- 조합의 안정된 이미지 구성
- 저층부의 Human Face를 고려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외부 공간의 명확한 성격부여
- 중후하면서도 진취적인 현대 감각의 조형미

- 내부 기능의 외적 표출과 전체 Mass의 조화
- 시각 환경의 친밀성과 절제미
- Mass의 중압감을 인간적 스케일로 해소
- 고층 건물의 거대함을 Mass의 변화와 적절한 재료의 사용으로 완화

傳統建築의 脈絡과 그 繼承

A Thead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onnection and It's Succession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 소장
by Chang, Kyung-Ho



1. 序

전혀까지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전통건축에 대하여 시대별로 나열을 하여 끝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자료만을 선택하여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못한 피상적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하여 둔다.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 보면서도 그 마루가 어떻게 짜여지는 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처마 및 추녀곡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선자서까래의 짜임새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구조분야에 한한 예이지만 이보다도 더 큰 안타까움은 건물의 배치와 기능적 활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전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사람들이 훼손시켰다는 조선시대 궁궐을 복원하고 우리의 궁지로서 회복시키는데 창경궁에서 보듯이 주요건물만을 복원하여 그곳에서 무엇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건물내부에 놓인 시설(가구 등)이 무엇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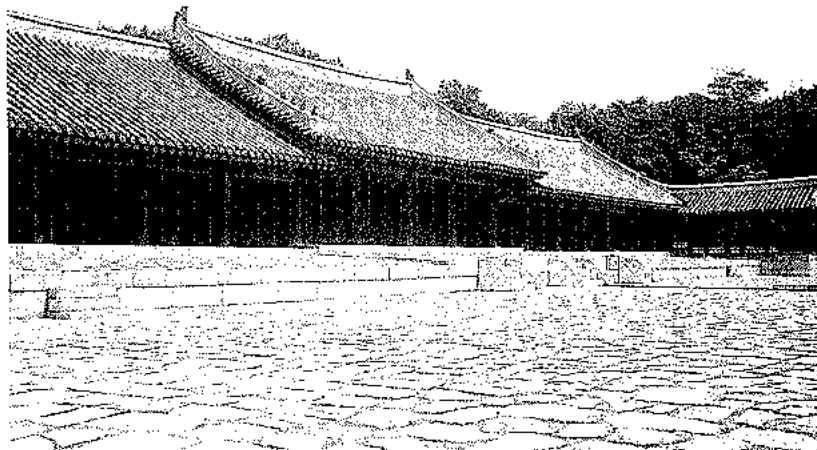
어떻게 배치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모든 생활의 기능이 전통적으로 단절되어 있기때문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문헌을 통한 건축의 기능적 연구를 하여야 살아기는 建築史를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 宗廟의 건축과 그 기능은 해마다 거행되는 祭禮儀式이 전통적으로 이어오기 때문에 그 연구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종묘 正殿의 개방된 列柱와 넓은 月臺가 왜 필요한 것인가는 이 의식을 참여해 본 사람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즉 열주 안에는 檀床이 열을 쳐 배열되고 집준관이 祭酒를 따르고 준비하는 등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또 그 앞의 높고 넓은 上·下月臺는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 祭禮樂團이 진을 치고 앉아 연주를 하거나 제관들이 도열하는 등의 기능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종묘의 正殿이나 永寧殿은 서양의 神殿에 못지 않은 Symmetry와 Rhythm, Texture 등을 충분히 표현함은 물론 아름다운 건축공간을 보여준다. 필자의 견해로는 서양의 Parthenon이나 로마의 신전들은 대리석을 주材로 꾸며진 것이나 종묘의 경우 화강석으로 쌓인 돌기단 위에 목재기둥과 架構 그리고 구운기와 지붕의 재질적 조화, 그 앞에 펼쳐지는 塹과 거친 면의 薄石바닥 등의 전체적 분위기 등은 서양을 능가하는 건축계획임을 자부하고 싶은 것이다. 이와 같이 종묘의 건축은 순수한 우리나라 전통건축이지만 그곳에 내포하는 건축적 특성은 현대적 표현의 요소들을 담고있는 것이다.

2. 전통건축의 현대적 표현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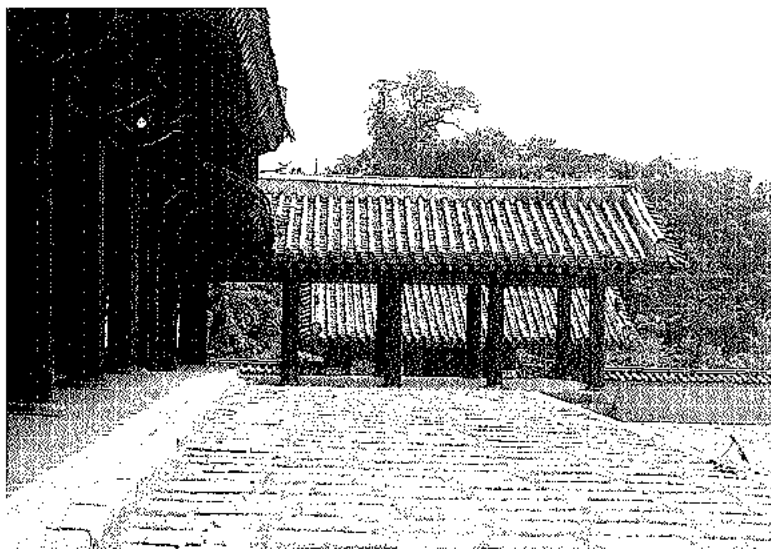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해방후 얼마 안되어 동족상쟁의 6.25를 뚫하지 않게 만나 한동안 전쟁과 제정의 어려움으로 건축활동이 거의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경제적 혁신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건축행위가 차차 붐을 일으키고 80년대에서 지금까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현대건축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건축들은 거의가 서양식의 모더니즘에 집착된 건축들이고 우리의 뿌리를 바탕으로 한 건축은 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외래적 사조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육군사관학교의 화랑대(1966. 3)와 국립묘지의 정문인 현충문(1968) 등이 강봉진씨에 의하여 전통한식의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세워졌고 1966에는 창경궁 연못가에 水晶이란 휴게실 건물이 팔각의 3층(내부는 지붕 밑 한 층을 포함 4층임)과 장방형건물의 조합형으로 김중업씨에 의하여 설계되어 건축되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전자와는 달리 공포와 지붕의 부분적 Detail에서 전통기법의 그대로가 아닌 변형 간소화시킨 형식을 사용하였다. 그 후 1968년에 광화문에 콘크리트조로 복원되었고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舊廳舍가 역시 강봉진씨에 의하여 설계되어 건립되었는데 그 기단은 불국사의 靑雲·白雲橋와 석축단을 모방하여 만들고 그 基壇

위에 法住寺捌相殿, 金山寺彌勒殿, 그리고 華嚴寺覺皇殿 등의 건물을 실물크기로 모조하여 역시 콘크리트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이 건물은 당시 건축계에서 많은 批判과 論難이 있었지만 당시 건축주인 정부가 이러한 전통형식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된 것이다. 대부분의 외형이 전통건축을 모방한 것이어서 Monumental한 외형위주의 건물이 되고 말았고 투자된 돈에 비하여 그 속의 기능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5층의 팔상전이나 3층의 미륵전은 그 내부기능은 거의 무시되다시피한 상징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접목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란 점에서 뜻있는 건물고 생각된다.

1975년에도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많은 건축가들의 중지를 모아 건립되었는데 이때 설계 기본구상의 하나로 '外裝材'는 주로 화강석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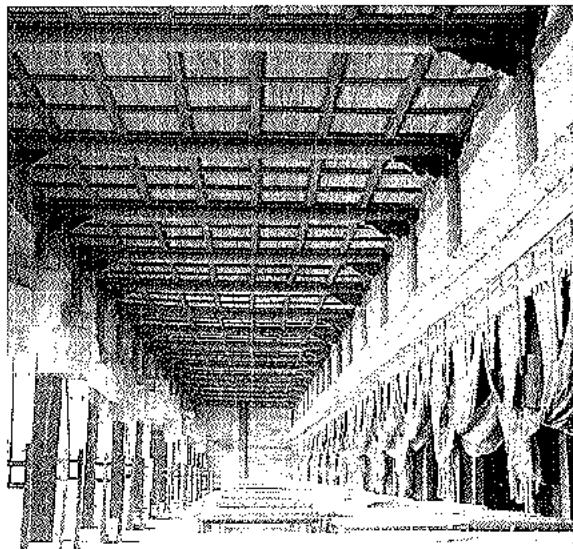


3

사용하며 장엄하고 현대적 감각을 갖도록 하되 한국적 기풍을 가미한다"」로 규정하여 한국의 전통기풍을 살리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에서 한국 전통적인 Motif를 부각시키지는 못하였다. 다만 대칭적 평면에다 기단과 민흘림을 둔 모접은 네모기둥, 그리고 입구에 해태상 등 억지로 설명하자면 약간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궁색하고 미미한 것이다. 이 국회의사당이야말로 우리건축의 맥이 조화되게 표현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라면 우리의 전통건축의 맥락을 이어보려는 노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 같다. 먼저 1971년 개관을 보게 된 김수근씨의 扶餘博物館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콘크리트의 Rib를 韓屋지붕형으로 배열하여 이들을 지붕 용마루로 연결하고 그 사이 사이를 기와로 덮어 건물 양측에 박공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自然採光을 위한 Toplight가 설치되었다. 내부에는 높은 천장을 이용하여 특 트인 공간의 전시실과 한 쪽에 층을 두어 2층과 전시실을 꾸미고 또 관리 사무실도 있어 전체적으로는 연건평이

- ① 종묘 正殿 전경
- ② 영녕전 전경
- ③ 정전 동익랑
- ④ 정전 내부전경
- ⑤ 정전 전퇴내부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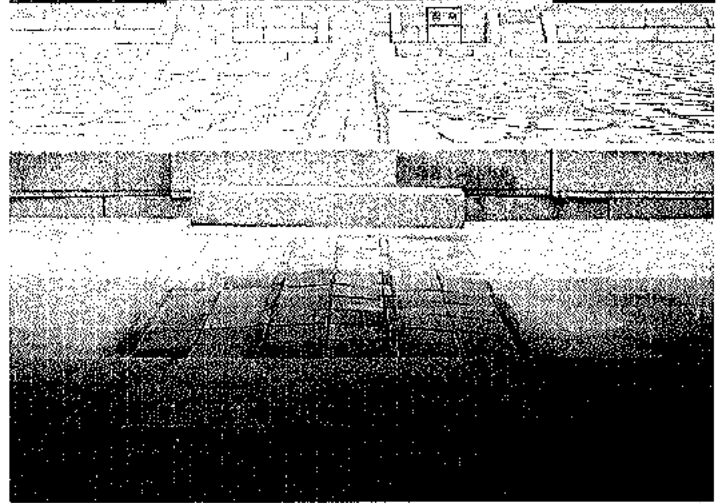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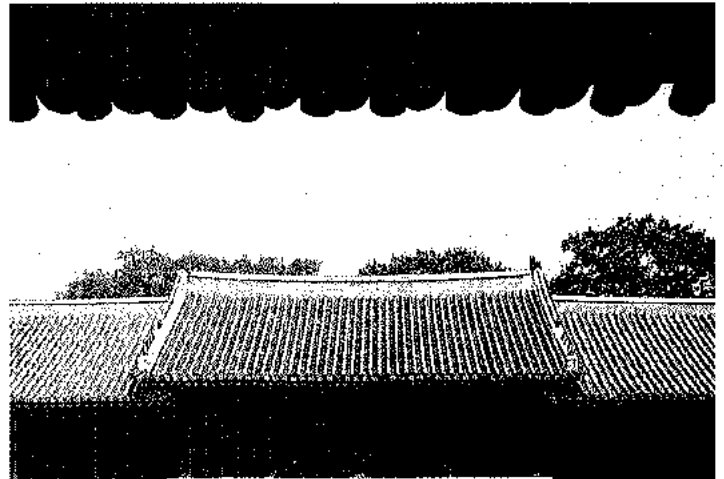
300여평 밖에 안되는 규모가 작은 기능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시공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많은 곳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고 내부의 전시공간 지나치게 높은 공간이 조화되지 않아 전시기능 보다는 건물위주의 설계계획으로 생각된다. 또 이 건물에 대하여 일본 전통건축의 지붕모양과 線을 따른 것이라 하여 倭風の 건축이라고 하는 평론과 또 일본 고대 신사 앞에 놓이는 鳥居(도리이)식을 본뜬건물이라고 하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대건축에 전통형식의 맥을 부여해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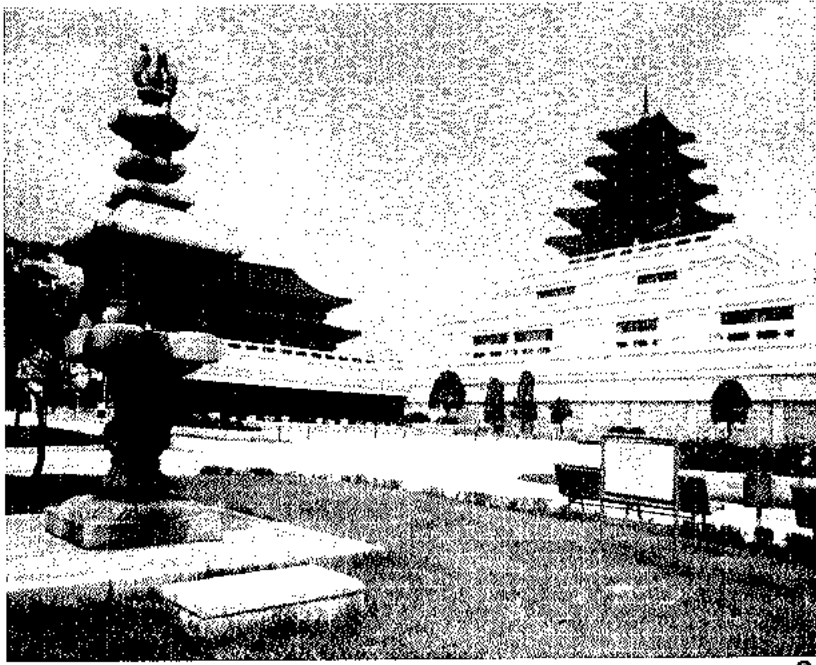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공주의 武寧王陵이 발견되어 발굴된 유물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박물관이 이회태씨 설계로 세워졌다. 이 건물은 백제의 塼築古墳의 조형적 Motif를 본따서 벽돌과 아치형 창호, 그리고 누각형 출입측면과 석탑의 옥개형 지붕 등을 표현하였다.

1974년에 착공하여 1978년에 준공된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당시 엄덕문 건축연구소의 설계로 건축된 것인데 여기서는 좀더 전통적인 요소를 충격적으로 부각시킨 현대건축이라고 평하고 싶다. 우선 외부 Facade에서 화강암으로 된 높고 낮은 기단과 계단의 조화, 뚜렷하게 한국적 배흘림을 갖는 8각기둥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주두와 첨차형식, 처마를 상징하는 지붕과 탑의 옥개를 모방한 지붕면, 그리고 화강석으로 처리된 대형의 벽면 위에 부조된 한국형의 조각들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적 형식의 Motif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기능은 완전한 현대기능을 살린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건물은 현대건축에다 전통적 표현을 적절하게 한 건물로 평가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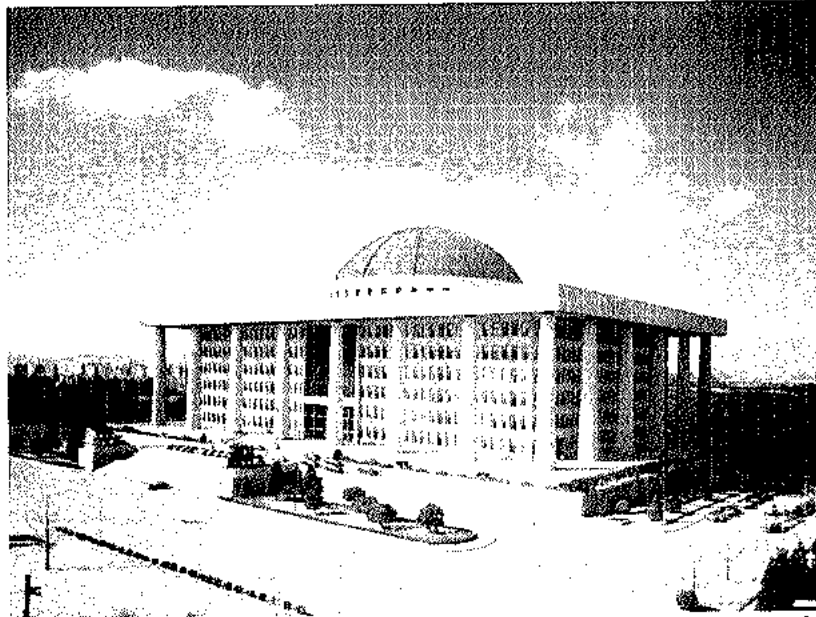
같은 시기인 1978년에 국립공주박물관이 박춘명씨에 의하여 설계되어 시공·개관되었다. 이 건물은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宋·元대의 도자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건물의 전체규모는 약 1천8백평에 달하는 지하4층 지상2층의 한옥형의 콘크리트조 건물인데 외형으로는 기단과 창호의 정자살부터 2층 처자각난간, 공포와 부연을 갖는 처마, 그리고 한식 기와지붕 등 모든 외형이 전통건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좌우 양끝을 누각형으로 돌출시키고 중앙에 현관부분을 역시 돌출시켜 아래·위 통층으로 고주를 받쳐 지붕을 별도로 내민 형식은 약간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내부에 들어서자 마자 중앙의 넓고 높은 홀에 접하게 되어 그 양쪽으로 사무실과 1층 전시실로 통하는 문이 있고 가운데에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넓게 펼쳐지고 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좌·우 양측으로 꼬부라져 2층이 添廊으로 오르고 여기서 각 전시실을 들어갈 수 있게 침랑을 돌려 한쪽으로는 난간을 달았다. 이 건물은 전통건축의 Motif를 너무 충실히 따르고 있고 평면계획도 안이한 것이어서 금방 실증을 느끼게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스케일이 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충남목천에 세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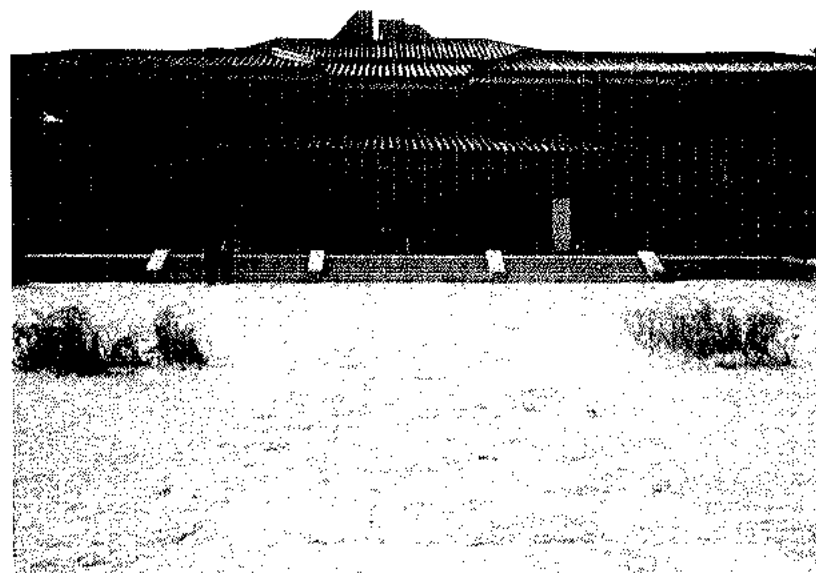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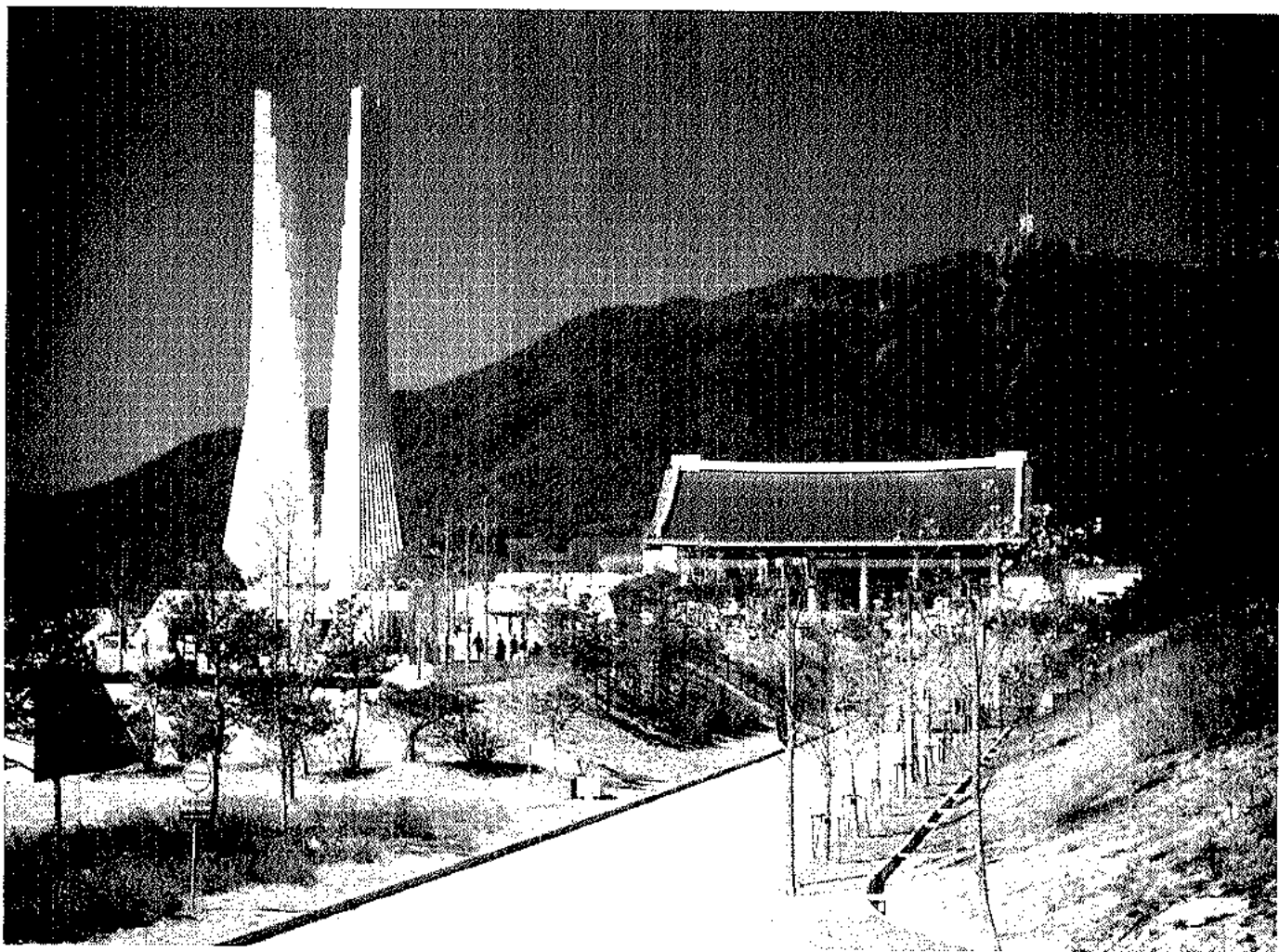
독립기념관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대규모의 민족문화와 관련된 건축들이 발주되어 세워진다. 80년대 초에 제주도에 세워져서 개관을 하게 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김홍식씨에 의하여 설계·계획된 것이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특산재료인 화산암을 사용하여 벽체를 싸고 지붕을 제주도 초가지붕 곡선을 표현하여 처마쪽을 굴러 내리고 처마밑을 벽체에서 떨어뜨려 돌락담을 돌린 이 지방의 전통민가를 연상시키는 건물이다. 설계자는 오래전부터 전통건축을 연구하는 학자로 민족적 리얼리즘 건축이란 이념을 역설하여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건축을 창조할 것을 주장한다.

1987년 광복절 기념일에 개관을 보게 된 충남 목천에 세워진 독립기념관은 뒤에 우뚝 솟은 黑城山을 背山으로 대체적인 남북의 축을 맞추어 축을 강조하는 Symmetrical한 배치계획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마치 경복궁이 白岳山을 鎮山으로 남북으로

- ⑥ 중요 영녕전 신도
- ⑦ 영녕전 전면기구
- ⑧ 국립중앙 박물관
- ⑨ 여의도 국회의사당
- ⑩ 진주 박물관

축을 맞추어 正殿과 寢殿, 그리고 3大門이 배치되는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가장 Climax적인 조형물은 전체 배치에서 제일 중심부에 놓이는 기념관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은 거대한 맞배의 전통건축형식으로 그 스케일은 보통의 전통건축을 數倍로 확대해 놓은 것 같다. 화강석으로 쌓인 기단 위에 정면7칸의 돌기둥을 세우고 기단 위에는 주두와 공포를 간단히 Modify하여 표현하고 그 위를 철골로 된 지붕을 덮었는데 규모가 워낙 커서 한식기와형으로 된 동판기와를 사용하였다. 또 양박공쪽에는 성곽형의 조형물로 건축된 관리실 기능을 두었다. 이 기념관에는 내부 중앙부에 우리 민족의 투쟁사를 상징하는 조각물이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다. 이 외에 전시실과 상징탑 추념의 장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념관과 조화를 꾀한 현대적인 표현의 조형물이다. 이 건축을 계획·설계한 김기웅씨는 진주시청사의 설계에서도 전통적 조형의 Motif를 포함시키려 노력한 듯하나 여기서는 우선 외형적으로 평이한 조화를 느끼지 못하고 이례적인 느낌을 주어 소위 Post-modern적인 인상을 준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의 투쟁사를 장식하고 있는 진주성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건물은 김수근씨가 문화재위원으로 있으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성곽과 석탑 등에서 조형적 착상을 발휘한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이 설계 이전 익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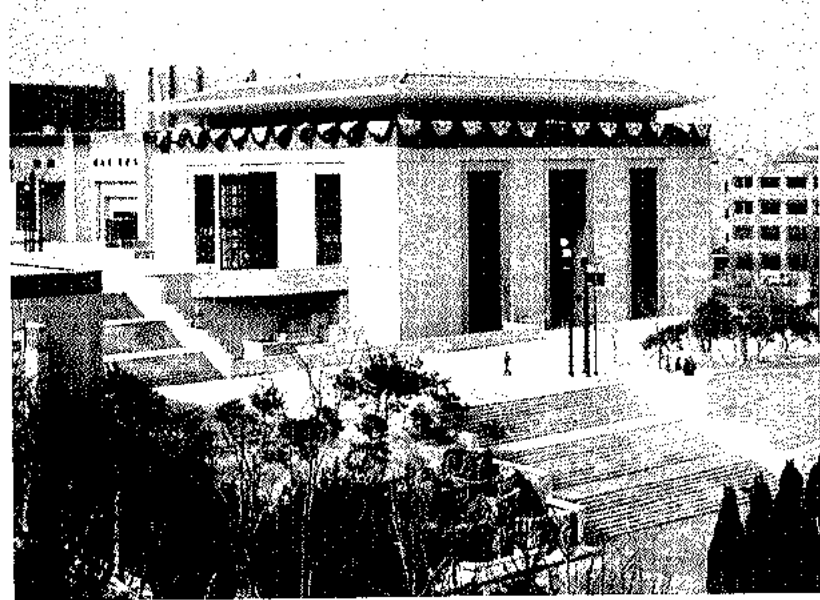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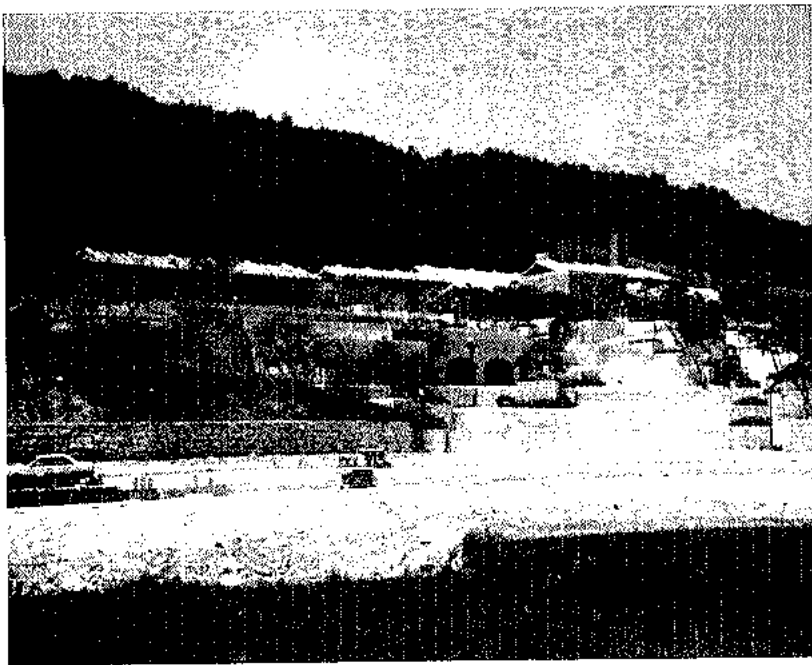
미륵사터의 半破된 西塔을 답사할 때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을 목격한 일이 있어 설계반영에 이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외형으로 보아 성곽과 탑의 옥개석을 연상시키는 조형과, 지붕에 전통기와를 얹은 직설적 표현을 하면서 낮게 段처리를 하여 조화와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전통건축에 대한 애착은 이보다 3년 뒤 1987년에 개관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표현되어 여기서는 더 많은 전통건축의 요소들을 조형계획에 응용하여 경사진 자연대지를 이용하여 맞배지붕의 건물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마치 산간의 절이나 수도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여하간 김수근씨는 80년대 들어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것을 활용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6년 김태수씨와 김인석씨의 합작으로 설계되어 건립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자형에 따른 段差의 이용과 분절로 외부공간을 구성하면서 화강석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 성곽을 연상시키는 접근감을 준다. 그러면서도 내부적 기능은 충실히 구사된 건물이다. 다만 외부에서 느끼는 질감과, 원형 및 네모형 평면이 주는 기초적 도형의 투박성 때문인지 지나치게 무거운 중압감을 준다.

이상의 예시한 건축 외에도 김원씨 설계의 국립국악원, 김석천씨의 예술의 전당 등 수많은 예들이 전통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 ① 독립기념관
- ② 국립 광주 박물관
- ③ 국립 청주 박물관
- ④ 국립 국악원
- ⑤ 국립 현대미술관





생략하기로 한다.

3. 結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풍토에 조화를 이루고 한국전통건축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을 담은 현대건축들에 대한 예를 들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예에서 설명한 것은 필자의 조사능력 한계와 지식의 한계성 때문에 피상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았음을 솔직히 언급하고 싶다. 한국전통 건축을 공부하는 필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옛날 우리의 학창시절과 같이 우리 것이 아닌 서양건축으로 일관된 건축활동을 펴 나가지 말고 우리의 것을 기반으로 현대건축을 구현하는 연구도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대학에 건축과가 있지만 그 어디서나 이러한 연구과제를 갖고 연구시키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위에서 들은 예의

한국전통 건축을 공부하는 필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옛날 우리의 학창시절과 같이 우리 것이 아닌 서양건축으로 일관된 건축활동을 펴 나가지 말고 우리의 것을 기반으로 현대건축을 구현하는 연구도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대학에 건축과가 있지만 그 어디서나 이러한 연구과제를 갖고 연구시키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건축들도 건축주의 주문에 의한 그때 그때의 限時的연구설계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면 더 이상의 연구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필자의 김인철씨의 적절한 표현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건축과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가 이질적인 문화와 맞닥뜨릴 경우에 기존의 문화가 외래의 문화를 융해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 낸다면 그것은 문화의 발전이라고 말해지겠고 외래의 문화가 기존의 문화를 삼키어 압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문화의 퇴보라고 말해져야 한다」^①

필자는 외국의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잘 표현한 현대 건물들을 많이 접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게 됨을 느꼈다. 그들은 반드시 외모가 아니더라도 그 속의 내부 의장재료, 색채 비례감등으로 그 나라의 고유한 냄새를 물씬 풍기는 건축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의 현대건축도 단순한 외형의 모방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려면 이 분야의 연구가 학교 또는 연구실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註

① 國會議事堂建立誌, 大韓民國國會議務處, 1976.

② 김인철, <오늘을 다시본다>, 건축과 환경, 198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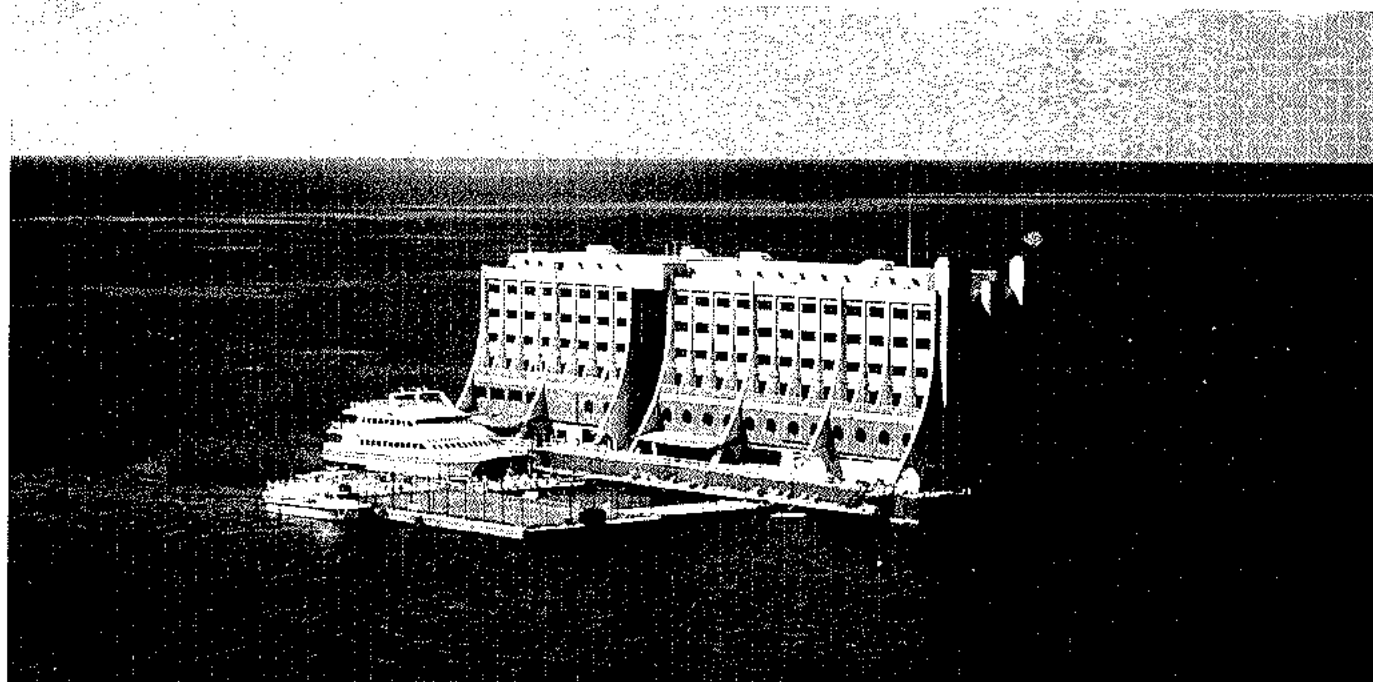
해양건축을 향하여 (2)

Composition of Oceanic Architecture

이용재譯

by Lee, Yong-Jae

1. 마리나 시티
2. 리버시티
3. 캐나다 플레이스
4. 포드컴플렉스
5. 온타리오 파빌리온
6. 마리존
7. 베리어 리프 플로팅 호텔
8. 플로팅 아일랜드
9. 테아트르 델 몬도
10. 베로나
11. 아쿠아 폴리스
12. 도쿄 해양공원
13. 링 오브 파이어 아쿠아리움
14. 시애틀 아쿠아리움
15. 발티모어 아쿠아리움
16. 아시즈리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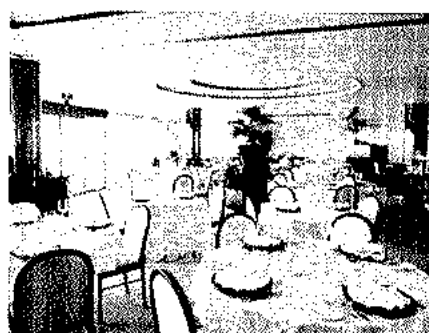
베리어 리프 수상호텔 전경

7. 베리어 리프 수상호텔

존 브로이어 리프는 퀘벡 해협의 타운스빌로부터 북동쪽으로 72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떠오른 이 암초들은 자연의 기적에 의해 탄생되었다.

이 유람선은 1986년 싱가포르에서 건조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운반은 거대한 견인선인 "마이티 서번트 2"호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견인선의 데크 상부에 호텔이 자리잡고 있다. 긴 항해 끝에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 도착한 것은 1987년 12월이었고 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88년 3월이었다.

전체구조는 89.2×26.6×6m의 철제 거룻배를 떠받치는 슈퍼스트럭처의 메인데크를 다시 5개의 보조데크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200개의 객실은 각기 독립된 욕실과 에어컨디셔닝을 갖추고 있다.



식당

• 베리어 리프 수상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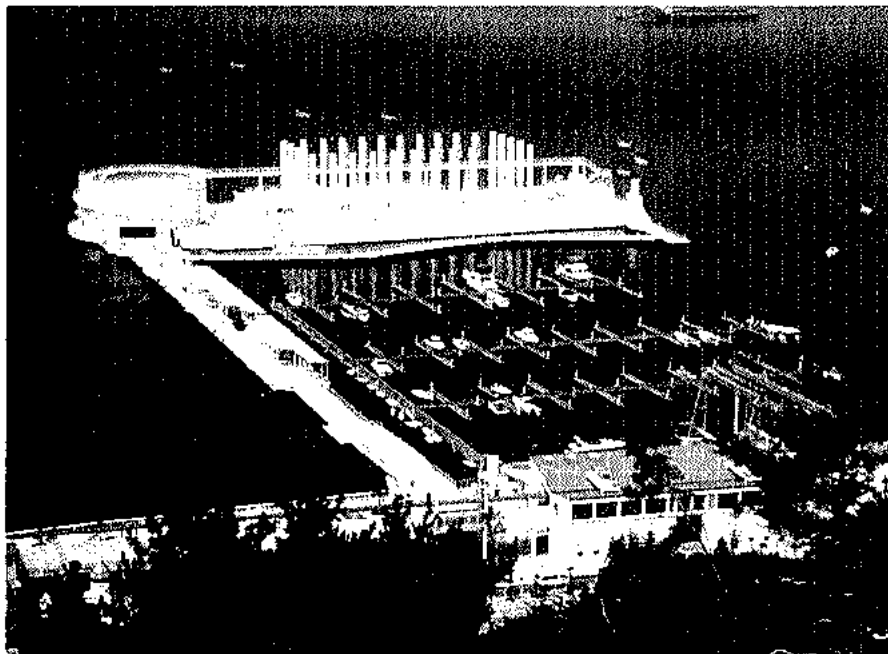
위치/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호텔설계/콘세이프 중공업
계류선 설계/이모코, 안카 인터내셔널
완공/1988년

특히 이 호텔은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대규모 실내 오픈 스페이스가 특징이다.

8. 수상섬의 극장과 수족관

수상섬은 바다위에 떠있는 공원이다. 이 수상공원은 후쿠야마역으로부터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사카이가하마 해상공원의 숙박시설중의 하나이다. 그 시설중에는 130×40m규모의 수족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공섬 자체의 높이 5m중 1m는 물속에 잠겨있다.

사카이가하마 해상공원에는 항해객들의 숙박시설뿐 아니라 각종 레스토랑과 선창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다 중요한 시설로는 파도를 분산시키는 구조체 자체가 방파제의 역할을 하여 요트가 정박하기에 적당한 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는 점이다. 디자인상의 최대의 특징은 선체의 내부공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상섬의 극장과 수족관 전경

• 수상섬의 극장과 수족관

위치/일본 히로시마
설계/에이치 야나기타, 츠네이치 건축회사
완공/1989년
면적/대지면적/12,000㎡
건축면적/5,200㎡
연면적/10,400㎡

배려한 점이다. 그 내부공간에는 대형 수족관과 작은 극장, 갤러리 등이 수용되어 있다. 데크 위에는 300석 규모의 옥외극장과 수영장, 오픈 플라자등이 배려되어 있다.

수상구조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30개의 철제기둥과 계단실등이 곡면으로 처리되어 방문자들에게 추상적이면서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전해준다.

9. 수상극장 테아트로 델 몬도

테아트로 델 몬도나 극장이라는 명칭으로 유명한 프로젝트는 세가지 독특한 특징을 자랑한다. 첫번째는 목적기능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공간이며, 두번째는 베니스의 건축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점이며, 마지막 특징은 베니스의 문맥에 어울리는 옛목같은 이미지의 수상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베니스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추리히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리마도강변에 늘어선 톨니형 지붕의 주거군과 몰래바퀴용도의 타워들은 물과 대지를 신비하게 연결시킨다. 이 도시의 동부지역쪽으로는 아직도 옛 보트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물의 도시인 베니스는 독특한 동양풍과 안개로 이루어지는 고딕의 도시경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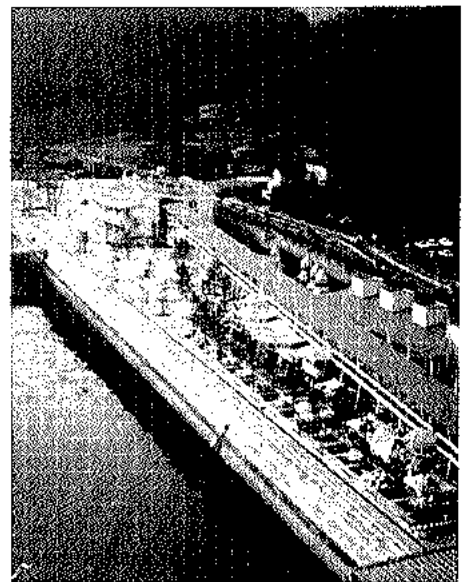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베니스는 물리적, 지형학적으로 동서양의 접합점이기도 하다. 한편 리알도 브리지는 통과교통로이자 시장이며 극장이기도 하다. 이같은 공간의 유추는 테아트로 델 몬도의 가장 중요한 설계테마였다.

극장자체는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객석으로의 청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외장은 목재구조에 금속과 스테코를 절제하여 사용하였다. 바다와 직접 연결된 극장의 속성상 색채와 계료를 이용하여 물과 하늘의 이미지가 잘 반영되도록 하였다. 외관상 이 건물은 다각형과 장방형을 연결시킨 형상을 하고

• 수상극장 테아트로 델 몬도

위치/이탈리아 베네치아
설계자/알도 로시
완공/1979년
건축/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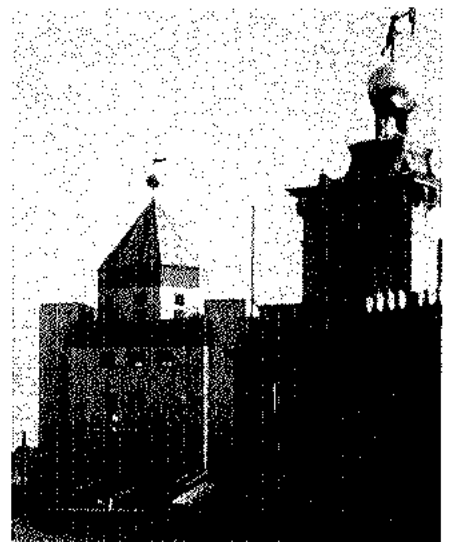
테아트로 델몬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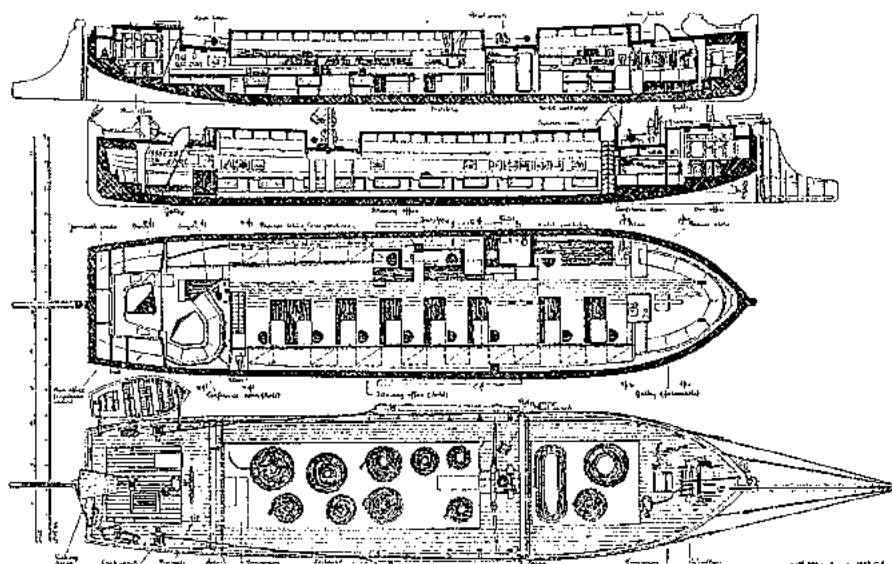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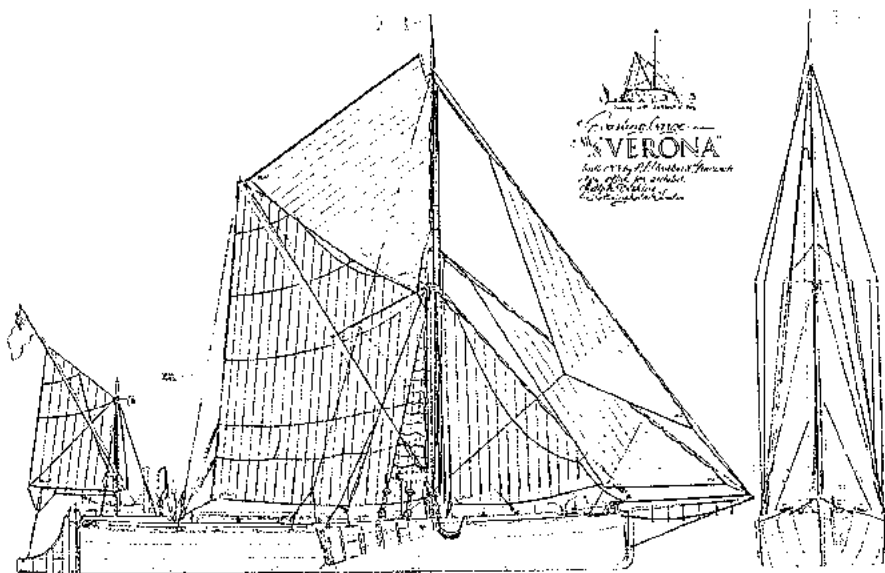
유개공간

있다. 장방형 형상은 거트배 위에 자리하여 무대공연시 파도소리도 들리고 약간의 미동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 극적인 효과를 의도하였다. 베니스의 특성은 이 극장에 담겨진 채 고유의 베니스 양식을 자랑한다. 이 극장의 돔이나 뿔족탑은 베니스 스카이라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알도 로시)



외벽 상세



10. 수상도시 베로나

1950년 초반에 어스킨은 세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10명의 설계소원과 함께 드로트닝홀름의 주택에서 생활했는데 몹시 비좁은 상태였다. 스톡홀름은 물론이고 드로트닝홀름에서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사무실을 얻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어스킨은 옛 나룻배를 구입하여 그곳에 사무공간을 꾸몄다.

이 거룻배 베로나는 1905년 이래 영국과의 무역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배는 온통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스웨덴 해변에 맞도록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 채 1m도 되지 않는다. 베로나의 규모는 전장 25m에 폭 6m로 테크 상부의 주실에는 10개의 제도판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앞갑판에는 커피를 마실수 있는 공간이 보충되었고 갑판 승강구 계단 뒷쪽으로 회의실과 어스킨의 사무실, 선장실이 연속 설치됐다. 이같은 하이아라키는 각 소원의 책임감과 자유, 협동심의 배양에 도움을

•수상도시 베로나
프로젝트명/베로나 사무소
건축주및 디자이너/랄프 어스킨
완공/1955년

준다. 그래서 각 소원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다만 미학적인 결정만이 지속적인 토론과 신선한 재충전에 따라 중앙통제 되도록 사무실이 기능화되었다.

권위적인 위계의 배제로 이 사무실은 팔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경쟁사무실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 사무실의 전성기였던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에는 전스텝과 가족이 함께 몇 달동안 항해를 하면서 작업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보통 작은 어촌인 라고에 정착하였다. 그 결과 이곳 건축가들과 그들의 가족은 항상 자연과 함께 목가적인 생활을 만끽할 수 있었다.

11. 아쿠아폴리스(수상 파빌리온)

시범 해양도시인 "아쿠아폴리스"는 오키나와 국제 해양박람회의 정부관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1975년 7월부터 1976년 1월 사이에 건축되었다. 이 아쿠아폴리스는 본 박람회의 상징건물로 대부분의 박람회 관람인원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실제로 아쿠아폴리스는 바다 위에 떠있다. 전체 슈퍼스트럭처는 4개의 수평부력 기초 위의 16개의 기둥들이 떠받친다. 반쯤 물에 잠긴 트러스 라멘 구조의 16개의 기둥과 4개의 부력기초는 석유시추선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부력은 펌프로 물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유지한다. 더구나 아쿠아폴리스는 해저에 단단히 박힌채 바람에 따라 200m 정도의 수평이동이 가능하다.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태풍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배수로등을 배려하여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패쇄적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시즈오 하라다)

12. 도쿄해양 수족관

카사이 해양공원 지역내에 위치한 도쿄 해양 수족관은 아라카와강과 에도가와강이 만나는 어귀의 간만지역을 개간하여 건설되었다. 2층 규모의 원형건물은 직경 100m에 연면적 1만2천㎡에 달하며 구조공법은 SRC를 채택하였다. 지붕 중앙에는 직경 23m에 높이 21m의 8각형 유리 파빌리온이 설치됐다. 입구홀에 설치된 전망대에서는 멀리 도쿄만이 조망된다. 이 8각형은 이 공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3층규모의 구조체는 일종의 연못모양을 이미지화하여 도쿄만과의 연속성을

배려하였다. 이같은 설계개념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랜드스케이프에 어울리는 건축디자인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방문객들은 도쿄만에 잠수한채 44개의 수족관을 즐길수 있게 됐다. 이같은 수족관 개념은 1톤에서 2천톤에 이르는 다양한 수량을 버틸수 있도록 발전된 기술적인 배경과 우아한 디자인에 의해 가능하였다.

여기서 방문객들은 2천톤 규모의 도너츠모양의 수족관 안밖으로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는 수천마리의 참치를 볼 수 있다. 이 대규모 수족관과 대조적으로 Seven Seas의 수족관은 알코우브 모양의 공간을 형성한다. 환상적인 어두운 지하 세계로부터 지상공간으로 올라간 방문객들은 갑자기 바닷가의 따가운 햇빛이 내려 쏘이는 밝은 느낌의 수영장을 만나게 된다.

건물의 꼭의 초승달 모양의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상의 수족관들은 도쿄 주변의 바다를 이미지와 한다. 방문객들은 이 전시수족관 뿐아니라 메자닌층의 양육장도 투시되도록 배려한 다층적인 전시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신즈케 타카마야)

13. 오사카 수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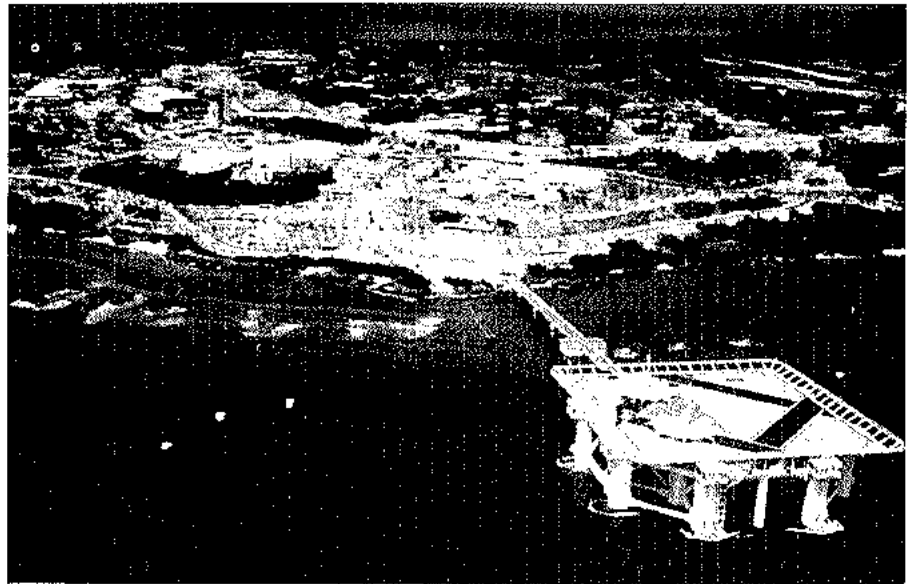
오사카항구가 조망되는 오사카수족관은 하역창고로 이용되던 선착장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사카 해안개발 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이 드라마틱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10억정도이며 광장과 지하 차고뿐아니라 캠브리지 세븐 어소시에이츠에서 설계한 시장도 포함되어 있다.

전시계획은 환태평양 유역의 지각과 화산활동을 강력한 직선으로 이미지화한다. 방문객들은 시계방향으로 나선형 계단을 따라내려가면서 다양한 기후대를 경험하게 된다. 건물 북서측모서리의 일본관에서 시계방향의 유보로를 따라가면 8개의 상이한 환태평양 지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들 전시관에서는 일본의 녹색 섬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새나 수달뿐 아니라 에쿠아도르의 우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람쥐나 남미산 구렁이,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 등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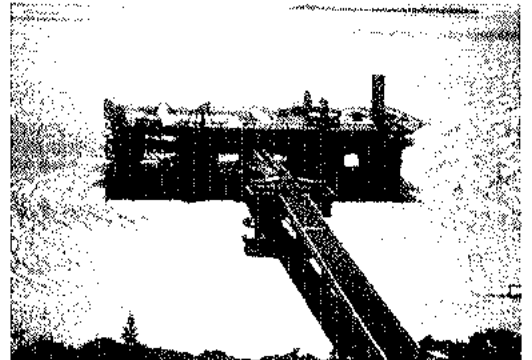
이 전시관을 본 후에 다시 시계방향의 램프를 따라 내려가면 마치 태평양바다를 옮겨온 듯한 140만 갤론 규모의 중앙 물탱크를 만나게 된다. 관람객들은 투명한 아크릴 벽을 통해 수많은 조류와 환태평양 해양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

남측 남극대륙관의 푸른색 외벽과 적색 유리지붕과 그곳으로 쏟아져 내리는 천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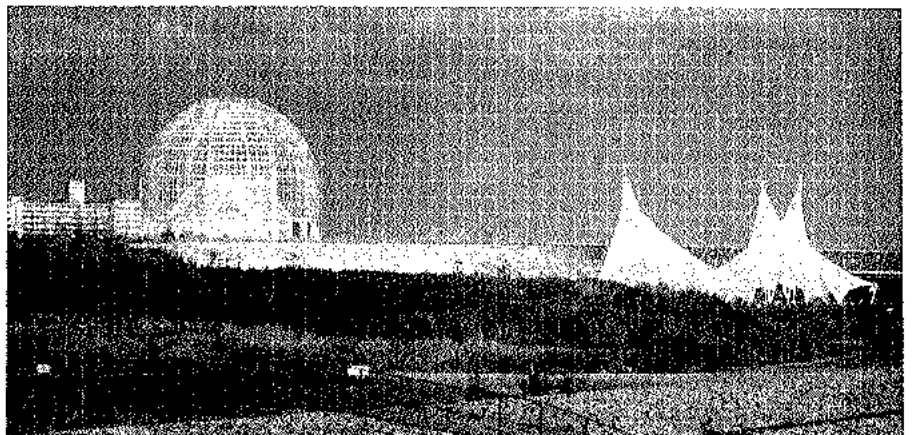


아쿠아폴리스 원경

• 아쿠아폴리스
위치/일본 오키나와
건축주/일본정부
디자이너/키쿠타케 건축연구소
시공/미쓰비시 산업
완공/1975년
건축면적/11,000㎡
연면적/15,700㎡
구조/반점수식 트러스라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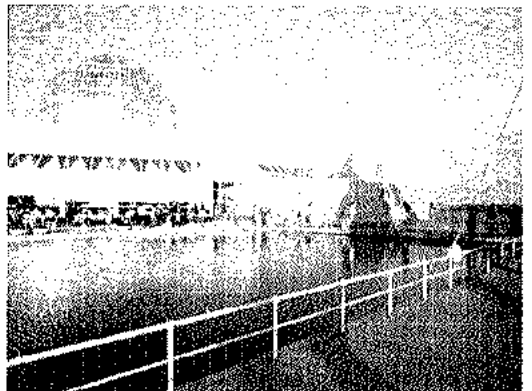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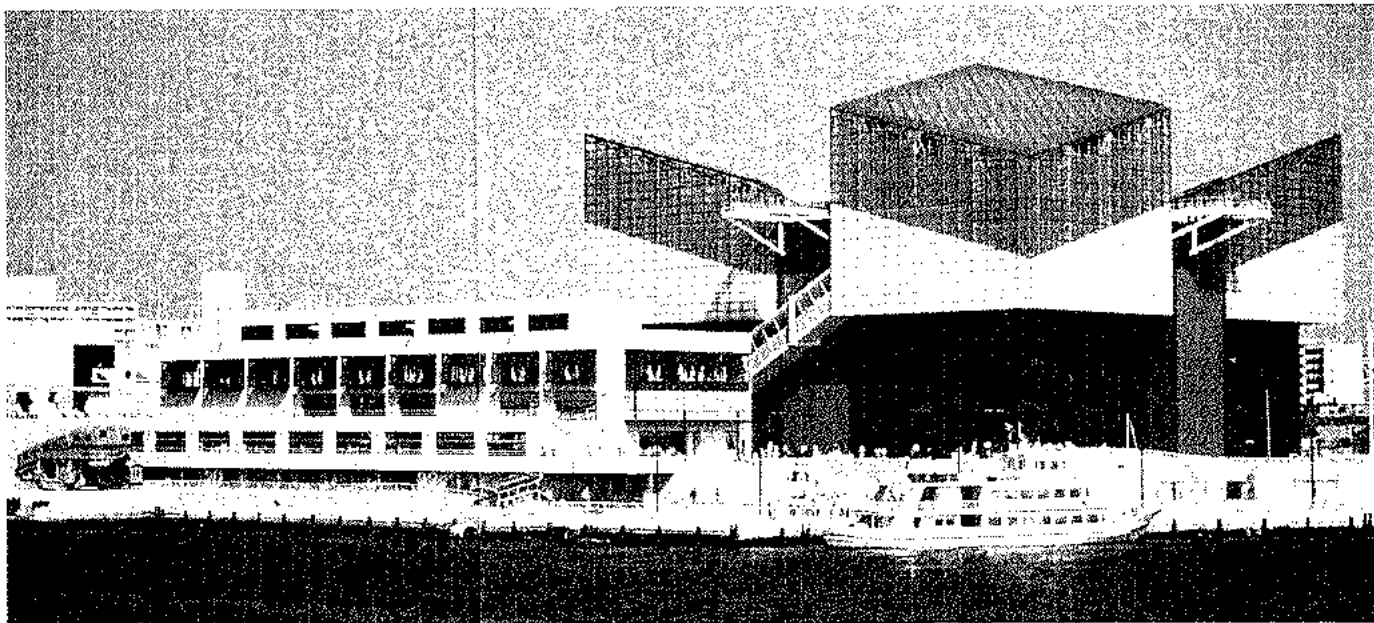


도쿄해양수족관 전경

• 도쿄해양 수족관
위치/일본 도쿄 에도가와구
건축주/토쿄시 정부
디자이너/타니구치사무소
(요시오 타니구치, 신즈케 타카마야)
구조/하자마, 토아, 코루네, 나카자토
완공/1989년
대지면적/80,379㎡
건축면적/11,129㎡
연면적/14,772㎡
구조/지상3층, SRC구조



주출입구측 상세



오사카수족관 전경

외관은 이 작품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시켜 준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강력한 환경적 메시지를 발산한다. 오사카수족관의 모든 유기적 개념과 물리적 레이아웃은 삶의 상호의존성을 극대화 한다.

14. 시애틀수족관

건축주의 요구는 “기존의 정적인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을 이용한 최적의” 편익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여러가지 예산상(38억), 구조적 제약들을 극복하여 대중에게 사랑받는 혁신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리 팀의 과제였다. 시애틀 해변가에 위치한 이 수족관은 자연적인 바다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이 편익시설은 기존 도시문맥에 교육적, 휴양적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전시계획

전시계획은 유기적인 층고를 이용해 연계적인 흐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바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건축은 다만 이 바다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막에 불과하게 된다. 이 수족관은 그래서 바다와 직접 만나는 선착장에 자리잡았다. 전시장의 입구도 바다를 향해 열려있다. 전시장 유니트들은 그래픽 효과를 이용해 생명감과 정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표현한다.

—산란기의 연어를 방축위로 올라가게 하는 사닥다리

공공 수족관에서는 처음으로 바다 물고기를 위한 사닥다리를 설치했다. 산란기의 연어가 매년 이곳으로 돌아와 이 사닥다리에 알을 까는 모습을 관람객들은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매년 10만마리의

• 오사카 수족관

위치/일본 오사카

건축및 전시 설계/캠브리지 세븐 연구소와 환경 개발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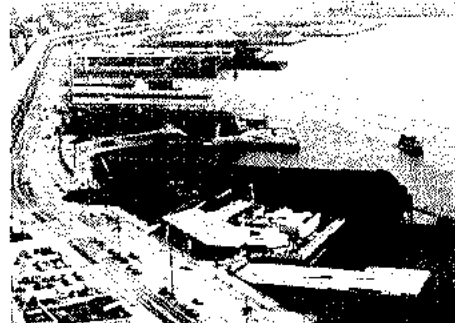
구조/타케나카, 오바야시, 코노이케

완공/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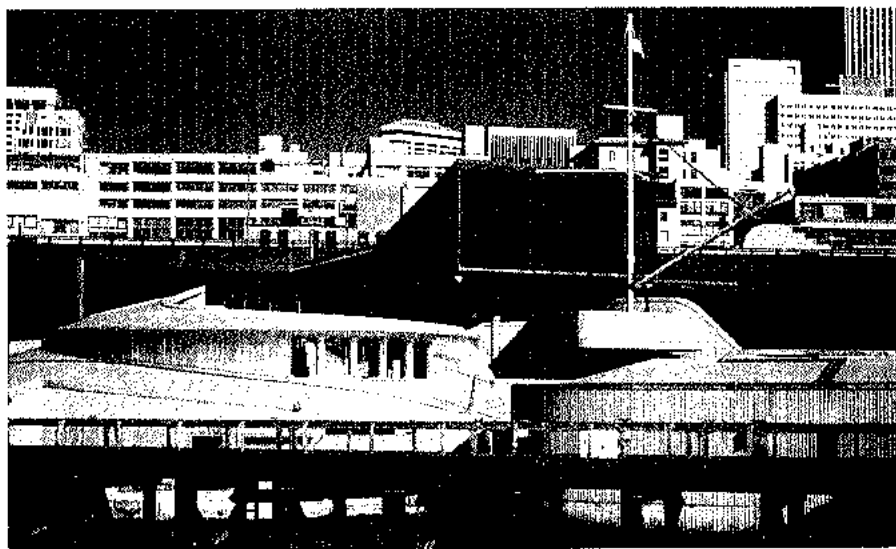
공사기간/2년

대지면적/38,400㎡, 연면적/28,600㎡

규모/8층, RC조 및 철골, 유리지붕시스템



시애틀 수족관 원경



시애틀 수족관 전경

• 시애틀 수족관

위치/미국 시애틀

건축가/바세티, 노튼, 메틀러, 레케릭스

전시설계/짐 피터슨, 기디온 크래머

시공/센츄리 구조사무소

완공/1977년

대지면적/6,400㎡

연면적/5,200㎡

연어를 방류한다.

—Ruhet Sound Habitats

전체건물은 다층구조의 콘크리트와 유리복합건물로 다양한 곡선과 우아한 각도등을 자랑한다. 세계의 조수를 반영한 건물군은 기존의 자연상황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 거대한 건물아래로는 바다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반영한 유보로가 배려돼 있다.

—해저 탱크/수중관망동

이 관망동에서 관람자들은 자유로운

물고기들에 비해 오히려 자신들이 잠혀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지금 20m에 1천5톤 규모에 이르는 유리 돔은 4번에 걸쳐 새로운 바닷물을 교체하여 신선함을 유지시킨다.

—해양 동물

관람돔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해양동물 전시관에서는 바다수달이나 바다사자들의 실제 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서 관람객들은 램프를 따라 다시 지상으로 나가게 된다.

(필립 C. 노튼)

15. 발티모어 수족관

이 수족관은 특히 유명한 발티모어 “내항”의 회생을 위한 랜드마크로서 계획되었다. 그래서 이 해변건축은 항해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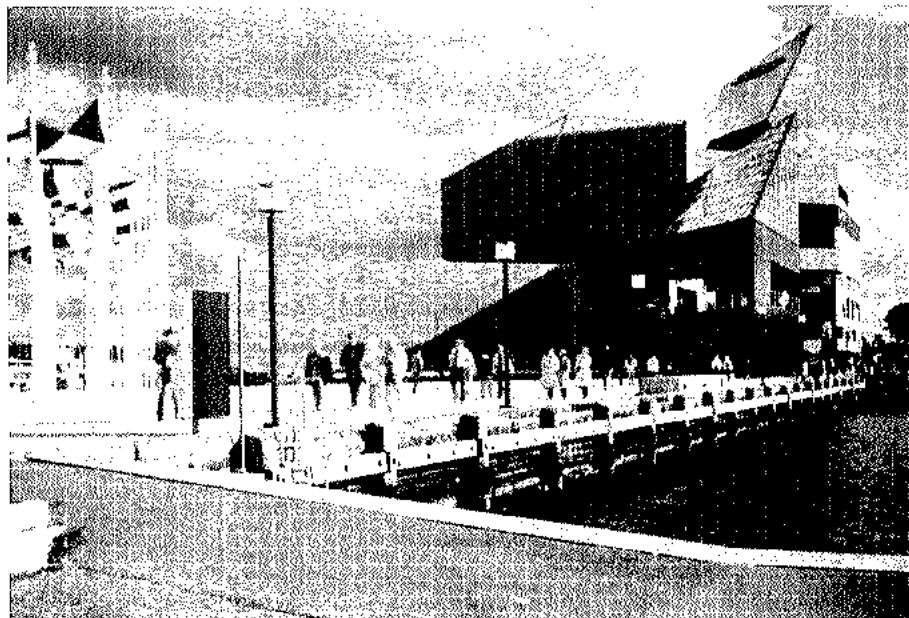
캠브리지 세븐은 이 건물설계의 출발점을 관람객의 경험에 두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방문한 관람객은 우선 푸른색 바닷물을 연상시키는 거품을 일으키는 가동들에 내로된다. 벨루가고래가 들어 있는 풀에서 내려다 보면 바닥에 물이 흐르는 중앙 전시공간이 나타난다. 고래가 들어있는 풀과 전시실에만 조명이 비치며 녹음된 바다소리들이 해양세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수상 세계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온 관람객들은 다시 피라미드형상의 폭포를 만나게 된다. 로비에서 전체 동선을 올려다 보면 시작과 끝이 명료히 시야에 들어온다.

돌기같은 피어위에 차분하게 올라앉은 이 구조물은 사면이 모두 조망된다. 특히 삼각형 유리 피라미드로 솟아오른 5층 규모의 아트트리움 갤러리는 중요한 시각적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만 해양만을 디자인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나 강, 호수 등도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수족관은 매년 1천4백만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갈 정도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해변가 재개발 프로젝트로서도 가장 성공을 거둔 작품에 속한다.

16. 아시즈리 수중 전망대

이 수중 전망 타워는 아시즈리 국립공원내의 타츠쿠시 만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전망대는 일본 최초의 수중공원시설이기도 하다. 해저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수중구조물을 휴양시설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바다를 관람토록하는 것이 계획의



발티모어 수족관 전경

• 발티모어 수족관

위치/미국 발티모어

건축및 전시디자인/캠브리지 세븐 어소시에이츠
사공/화이팅-터너 구조사무소

완공/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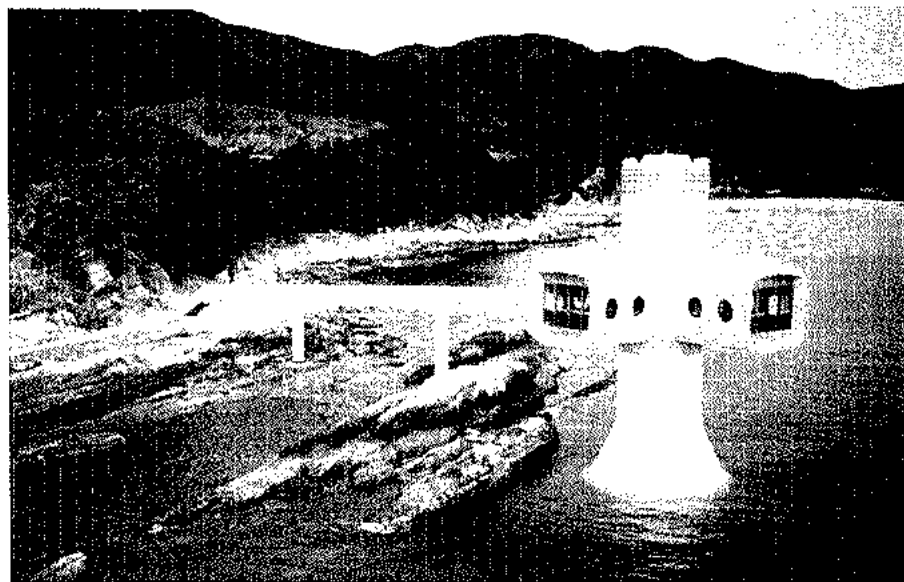
대지면적/14,864㎡

연면적/14,213㎡

규모/7층



발티모어 수족관 원경



아시즈리 수중 전망대 전경

• 아시즈리 수중 전망대

위치/일본 코우치

설계및 사공/카와사키 중공업

규모/2층

주안점이었다. 전체 24m의 높이중 7m는 물속에 잠기며 수중, 수상 두곳에 모두 전망대가 설치되었다. 동시 수용인원은 60~100명쯤 가능하다.

지름 10m의 수중전망대에서는 16개의 창을 통해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90%의 내외장을 조립식 부재로 처리했다. 외부마감은 적색과 백색톤으로 마감했다.

(료 이시다)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10)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AGHDAD

아라비안 나이트의 도시-바그다드

裴元泰 / 구미건축구조연구소장

by Bae, Won-Tae



「아라비안 나이트」 혹은 「千一夜話」의 이야기로 유명한 도시 바그다드(Baghdad).

「천일야화」도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렇지만 「바그다드」라는 말도 듣는 이로 하여금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메소포타미아 중앙에 위치하여 옛부터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이슬람 세계의 중심으로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꽃을 피운 곳 바그다드.

Baghdad의 「Bagh」는 페르시아어로 庭園을 뜻했고 「Dad」는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隱者 Tabianus를 뜻했으므로 원래 그 의미는 「평화의 도시」임을 뜻한다.

1. 千一夜話

아라비안 나이트로 낯익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은 압바스조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하룬 알 타시드와 그의 아들 엘 마무의 시대였다.

엘 마무은 그 자신이 시인이었고 학자였으므로

외국책을 아라비아어로 번역하는 것을 장려하여 번역한 책과 같은 무게의 황금을 역자에게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 원본은 없어졌지만 이 시대의 번역본에 의하여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도 적지 않다. 의학과 천문학도 이 시대에 급속하게 진보했다. 이 시대의 바그다드의 변영은 18세기에 앙트완 가란이 번역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프랑스어판을 통하여 유럽인들에게 전해졌다.

「千一夜話」(The thousand and one nights) 혹은 「Arabian Nights」라는 이야기는 저자 불명으로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룩된 것으로서 여성 불산의 페르시아 왕에게 賢女 세헤라자데가 千一夜 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設定이다.

그 내용은 이슬람 각지의 연애·범죄·여행담·동화·역사적 일화 등으로 다채롭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6세기경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모체가 된 것으로 8세기 말까지 아라비아어로 번역,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18세기에 이르러 세계각국으로 유럽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바그다드의 문화(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표현 되듯이 낭만과 모험 기풍과 외리 예술과 학문, 호사와 영화가 컸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 속에는 「신밧드의 모험」이나 「아라바바와 40인의 도적」등 바그다드를 중심 삼고 흥미진진하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千一夜가 되도록 이어진다고 해서 이른바 「千一夜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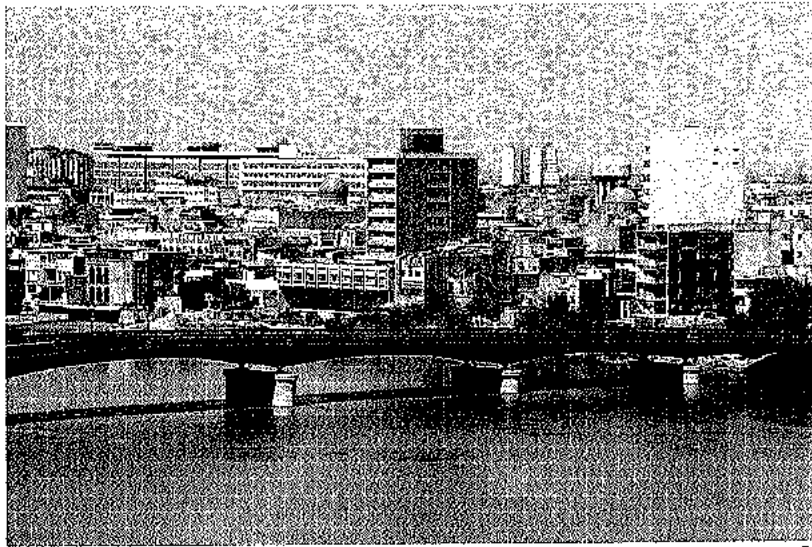
메소포타미아 땅 전체는 인류문명의 산 증인이다. 오랜 인간문명의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유적지가 전국에 걸쳐 1만개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과거와 현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지구상의 인류가 가진 가장 값진 도시들중의 하나이다.

사라센건축 초창기에 이어지는 발전기의 건축 양식은 압바스朝의 수도로 바그다드가 건설(AD 758年) 되면서 시작되어 향후 500년 동안 순수 사라센 건축기로서 발전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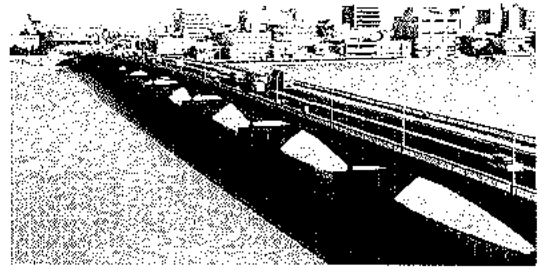
이 바그다드의 도시계획은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메멧사 그리고 정복지의 알렉산드리아 등지에서 초청되어 온 건축가들에게 위촉했고 매일 10만명의 노무자를 동원하여 준공(758~762)시켰다. 도시의 규모는 직경 275m의 同心3重円에 그 周城壁을 27m의 2층으로 구축했었다. 이 방법은 먼저, 기름에 절인 새끼줄을 설계도대로 배열하여 태운 재의 자국에다 Sundried Brick(흙벽돌)으로 쌓으면서 바스라(Basra)로 통하는 동남쪽의 「바스라門」 다마스쿠스(Damascus)로 통하는 西北쪽의 「쿠파」 그리고 호라산(Khorasan)으로 통하는 동북쪽의 「호라산門」 등의 4개 성문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이 4개 성문을 十자형으로 맺어 이루게 한 간선도로의

교차점에는 Mosque와 궁전을 비롯해서 귀족·宮臣들만의 저택·공원·경기장·경마장·호수·동물원 등을 건설했었다. 이 원형의 성벽안쪽이 지배계급의 요람지인데 반하여 성벽 바깥쪽에는 기존되어 왔던 Al-Rusafah, Al-Slanmasiyah, Al-Muharrim의 3촌락이 서민의 주거지를 이루고 있다. 이 바그다드의 인구가 8세기에는 100만명이던 것이 9세기에는 200만명이었다는 史記는 바로 이 세 위성 촌락의 인구가 급증하였음을 가리킨 것이다. 축제일에는 80만명의 지방 하객이 더 운집할 정도이었다.

바그다드의 城內에 있어서, 그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다 벽의 길이가 182m이고 높이가 7m인 方形기단을 구축하여 이 위에나 건설한 금색 Manarah와 녹색 Dome의 궁전은 그 높이가 36m였고 외부치장은 石材와 Ceramic tile이었으나 벽채는 기원전 50세기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2



3



4



5

지방에서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 건재의 Sundried Bried(햇볕에 말린 흙벽돌)이었고 그 내부치장은 통차자의 交代가 이루어질수록 호화함을 더해 갔었다.

바그다드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항상 財政과 민심의 향방에 유의했고 또한 문학을 애호했으며 검소함을 主旨로 삼다가 맥카순레 도중에 他界(775年)하였다. 그의 아들이자 관용의 治者였던 제3대 할리파 Al-Mahdi(775-785)는 도로의 건설 산업진흥·학예장려로 名君이 되었다. 그의 女奴 Khaiguran에게서 태어난 장남 Harunur Al-Rashid가 또한 Al-Mansur의 손녀 Zubaida와 결혼(781)함으로써 제5대 할리파로 즉위하게 되어 名君이 된다. 페르시아인의 부호이던 배르마크家の 장남 Yahya를 제상으로 등용하여 치세의 전권을 위임했으므로 17年동안은 Yahya가 사실상의 지배자였을뿐 아니라 페르시아인의 세력이 아라비아인의 사회에 크게 잠식해 있었다. 학예를 애호했던 이 Harun의 치세때에, 수학·물리·화학·야금·천문·철학·문학이

- ① ② ③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바그다드市の 전경
- ④ ⑤ 바그다드의 전통적인 Al-Rasid 거리

대발견한 것도 학자와 문인을 보호했던 Yahya의 善治때문이었다.

당시 바그다드의 위성촌 알-루사화 알-슬람마시야 알-무하림에는 잡화점·도매점·여인숙·공중탕·미장원·포목점·창녀屋·등이 즐비했고 시장에는 리비아인·베르베르인·이집트인·에티오피아인·유다인·시리아인·로마인·그리스인·아르메니아인·페르시아인 그리고 그리스도敎人·유다敎人 등이 웅성대었고, 카라반들이 낙타 떼를 몰고 들어와 법석대었다. 골목길로 들어서면 周壁을 끼고 맞대인 中庭式 주택이 迷路를 이루는데 Dome지붕이 웅기충기 솟구쳐 있었다. 바그다드의 이러한 밀집촌락은 옛부터 꽃기는 春가 미로로 스며들면서 다급하여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다가 어느 中庭에 숨어 버리면 꽃는 사람인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초생달처럼 흰 名劍 삼사마(Samsamah)의 검사를 저 멀리 따라오게 한 할리파 Harun이 상민으로 변장하여 앞거리와 뒷골목에 나들이하며 民情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또한 당대의 분위기를 암시해 주기도 한다.

압바스朝의 500年 동안에 문화의 절정기는 제7대 할리파의 Al-Mamun(813-833) 때였다. 異腹兄인 할리파 Al-Aamin을 페르시아인 장군이던 Al-Tahir의 협조로 바그다드의 포위전에서 敗死시키고 在位한 할리파 Al-Mamun은 바그다드에 천문대를 창설했고 문화인의 사교장이 될 「지혜의집」을 설립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 에페소스, 매덱사, 알렉산드리아에 주재한 대사와 太守에게 고대 그리시아의 철학·천문학·수학·詩文學·의학에 관한 명저를 수집해 오게 하고 이것을 아라비아語로 번역시킨 바 있었다.

그 번역한 그리시아의 고전적 명저들은 다음과 같다.

히포크라테스,
프라톤(427-347B. C) — 「소크라테스의 변명」,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 — 「형이상학」, 「자연학」
Eukleites(BC 3세기) — 「지구천문학」,
Klaudius(B. C 2세기) — 「天動說」 등 할리파 Al-Mamun은 이러한 번역물의 발표회와 연구회에 꼭 참석하여 경청했으므로 각 분야의 진작을 크게 자극했었다. 이리하여 바그다드에서 860명의 內科醫가 개업했고 지구의 둘레 396960km를 산출했으며 또한 零「0」을 발명하여 실용화할만큼 의학과 수학의 발달이 컸었다.

이렇게 아라비아의 種族 압바스朝人들이 계승한 헬레니즘(Hellenism)의 유산은 에스파니아의 同族 우마이야朝人에게도 전달되었고 이 전달된 유산은 또한 가까운 북쪽의 프랑스人에게 전달됨으로써 중세암흑기에 즈음한 아리안족의 유럽사회에 각성적 공헌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할리파 Al-Mamun은 낭비도 많았으나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군사費의 가중이 되는 뷰잔틴제국과의 교전이 계속중인데, 우마이야朝의 할리파 Abdur Al-Raman(822-852)이 함대로 항진해와 이집트를 공략(819年)했으므로 이를 親征하여 격퇴했었다. 그 무렵 허술해진 國庫를 보충하기 위한 보물탐색이 곧 제1피라미드의 개반공사였다. 즉 그것은 A. D. 820年 사라센 제국의 할리파 Al-Mamun이 財政타개를 위한 보물탐색 침입으로서 당시 침입해 이미 미이라와 보물은 없었고 石棺만 방치되어져 있었다고 한다. 침입때 북쪽중앙의 장식으로 숨겨진 主門을 찾지 못해 이 밑의 외곽에서 도굴해 들어 갔다고 하며, 그의 이窟을 「The Hole of al-Mamun」 알마문의 구멍이라고 한다.

2. 千一夜話의 도시 오늘의 바그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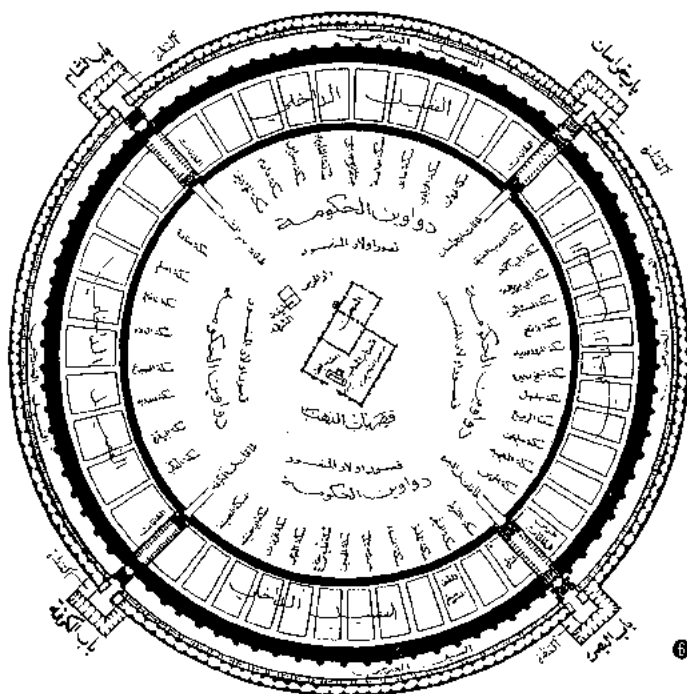
오늘날의 바그다드는 환상적인 물건들로 흥청거리는 고기물(古器物)을 파는 시장위로 고층건물이 불쑥 솟아 있는가 하면, 다양한 인종·피부색, 화려한 민속의상, 독특한 생활방식

등이 한데 어우러져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유럽풍의 옷과 아랍 민속의상이 서로 어깨를 스치며 지나고, 불루진과 화려한 쿠르드人의 옷이 함께 거리에서 어울리린다.

바그다드에는 이라크 박물관을 포함하여 여러개의 박물관이 곳곳에 있다. 그중에도 자연사 박물관은 방문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멈추게 하는, 풍부한 역사의 유물들로 가득 차있고, 특히 2만6천권 이상의 고서(古書)와 다량의 수집품들로 인해 박물관에서 연구소로 발전했다.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진열품들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신비한 역사의 증거 앞에서 호감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다.

바그다드市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원과 성당들은 청색타일이나 관유리로 장식되어 있거나, 금박으로 덮인 둥근 지붕과 첨탑으로 그 위용을



자랑한다. 최근에 건립된 성당들도 여럿 있는데, 이들은 이슬람 건축의 특징인 아라베스크 무늬에다 반짝이는 타일·벽 그리고 달궐의 글씨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바그다드에는 역사의 위인들을 기리는 사건, 특히 이라크 혁명과 관계된 것들이 많지만, 알 무타나비의 동상처럼 위대했던 한 개인을 기억하고자 세워진 것들도 있다. 알 무타나비는 AD 915년에서 965년까지 살았던 아랍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의 동상으로는 석상과 청동상이 각각 마스바 공원과 국립 도서관 뜰에 세워져 있다. 이외에도 철학자였던 알 파라비나, 화가였던 알 와시티와 같은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이라크人들의 사상과 예술에 대한 존경심을 읽을 수 있다.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라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벽화가 있어 흥미를 끈다. 높이 14m에, 폭이 12.6m나 되는 아랍권에서는 가장 큰 벽화라고 일컬어 지는 이 벽화는 주로 원유 국유화 결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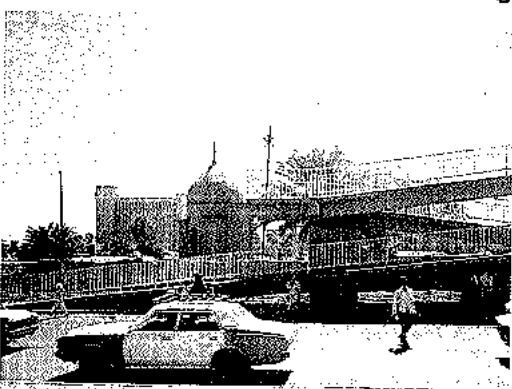
아시아와 아카드족의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 古都 바그다드의 재개발

바그다드의 변화가에는

은행·식당·상점·사무실건물, 관청등 현대식 건물이 늘어서 있으며 한편의 뒷길에는 흙벽돌로 만든 주거가 다닥다닥 맞붙여 있고, 큰 길에는 2층버스가 다니고 그 옆으로는 마차가 달리는 현대와 고대가 뒤섞여 있는 도시이다.

특유의 원형도시에 그 기원을 갖는 바그다는 압바스朝의 역사적 유산들이 그후의 혼란시대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바그다드에 많은 유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비단 유명한



- ⑥ 원형의 바그다드 도시계획도
 - ⑦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바그다드의 모습
 - ⑧ 바그다드 Al-Rasid 거리
 - ⑨ 최근에 건립된 사당
- 이슬람 건축의 특징은 이라베스크 무늬에다 반짝이는 타일·벽 그리고 달필의 글씨로 장식되어 있다.

건축물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거주와 그들의 생활중에 숨쉬고 있는 것이다.

기하학적으로 밀집된 주거 중정·담·전통적인 시장·미로의 협소한 골목들·모스크와 첨탑.

전통적인 古都 바그다드에는 네개의 도시 역사의 핵이 있다. 카드미야(Kadhimiya), 아다미야(Aadhimiya), 루사파(Rusafa), 카아르(Karkh)가 그것으로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는 이들 지역은 옛부터 바그다드의 중심핵으로 변형하여 지금도

종교·상업·업무·행정의 중심이 되어 있다.

종래의 바그다드의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이 네개의 역사의 핵의 환경개선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좋다. 그리고 그를 위한 개발·재개발은 바그다드의 성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도심부의 개발은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것은 또 도시환경의 악화와 수많은 역사적 건조물의 파괴 전통적인 거리의 분단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적 유산을 계승해 가기 위한 특별한 조치·종합적인 보전계획의 책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가구의 재개발 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제안에서 흥미롭고 관심이 깊은 것은 재개발에 임하여 아랍사회 특유의 도시구조 거리자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층의 주택이 밀집하고 그 주택사이를 수많은 나뭇가지와 같은 골목이 뻗어있는 바그다드의 거리는 뜨겁고 매서운 풍토에 대하여 대단히 잘 적응하고 있는 반면, 현대도시로서 자동차에 대한 액세스(Access)에는 전혀 부적당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취락에서 차량의 액세스가 가장 큰 문제로 공존하고 있다.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과제와 전통적인 환경 파괴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규제가 강구되고 있으며, 바그다드에 있어서의 재개발은 중심업무 지구의 기능을 정비·강화하는 일 구가구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긴급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구가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대로의 커뮤니티 라이프(Community Life)를 계승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 라이프와 이를 만드는 전통적인 도시구조가 바그다드에 독자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주고 있는 최대의 요소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보전에 애써온 것으로 도시 재생계획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바그다드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를 향한 건설이 진행되는 바그다드에 있어서 그 변화의 과정에서 바그다드 역사의 핵의 하나인 루사파의 개발과 보전의 밸런스를 다면적인 수단으로 컨트롤해 나가려는 것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개발이 보전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주거(住區)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1991년도 9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9월분 1천4백79만3천5백61mm²보다 40.73%(6백2만5천7백22mm² 감소한 8백76만7천8백39m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1~9월분 합계 1억9백25만6천6백67mm²보다 4.09%(4백46만6천2백69mm²) 감소한 1억4백79만3천5백98m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전월 8월분 1천93만7천9백77mm²보다 19.84%(2백17만1백38mm² 감소한 8백76만7천8백39m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 분	1990년도	1991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대전	271,109	907,221	636,102	234.63%
충북	325,831	338,853	13,022	4.00%
충남	388,672	416,754	28,082	7.23%
경북	548,146	565,954	17,808	3.25%
감소지역				
서울	1,604,724	1,188,443	(416,281)	-25.94%
부산	860,899	725,061	(135,838)	-15.78%
대구	457,611	236,861	(220,750)	-48.24%
인천	533,359	333,267	(200,092)	-37.52%
광주	654,455	202,189	(452,266)	-69.11%
경기	6,069,461	1,923,491	(4,145,970)	-68.31%
강원	444,368	183,192	(261,176)	-58.77%
전북	524,441	354,512	(169,929)	-32.40%
전남	726,330	297,661	(428,669)	-59.02%
경남	1,290,440	1,009,127	(281,313)	-21.80%
제주	93,715	85,263	(8,452)	-9.02%
합 계	14,793,561	8,767,839	(6,025,722)	-40.73%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 m²)

종 별	8 월 분	9 월 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751,070	705,441	(45,629)	-6.08%
다 세 대 주 택	481,247	468,697	(12,550)	-2.61%
연 립 주 택	160,020	206,652	46,632	29.14%
아 파 트	6,002,558	3,652,634	(2,349,924)	-39.15%
근린생활시설	1,343,713	1,001,003	(342,710)	-25.50%
종 교 시 설	63,231	64,013	782	1.24%
의 료 시 설	86,661	42,471	(44,190)	-50.99%
교육연구시설	314,670	368,783	54,113	17.20%
업 무 시 설	350,439	396,790	46,351	13.23%
숙 박 시 설	93,429	31,612	(61,817)	-66.16%
공 장	820,055	1,161,900	341,845	41.69%
기 타	470,884	667,843	196,959	41.83%
계	10,937,977	8,767,839	(2,170,138)	-19.84%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9월분)

구분 시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377	1,510	1,151,704	94	97	36,739	0	0	0	1,471	1,607	1,188,443
부산	1,116	1,295	653,327	182	206	50,307	40	47	21,427	1,338	1,548	725,061
대구	363	406	171,058	381	413	53,657	34	34	12,146	778	853	236,861
인천	248	287	293,697	28	31	26,244	19	20	13,326	295	338	333,267
광주	281	316	192,816	78	80	6,364	13	13	3,009	372	409	202,189
대전	245	381	885,602	30	30	9,596	94	99	12,013	369	510	907,211
경기	1,346	1,764	1,796,007	157	182	68,523	74	74	58,961	1,577	2,020	1,923,491
강원	424	495	139,368	101	138	37,451	25	25	6,373	550	658	183,192
충북	533	631	273,981	83	115	55,820	57	57	9,052	673	803	338,853
충남	429	501	334,190	121	126	66,072	46	49	16,492	596	676	416,754
전북	286	381	295,770	76	84	53,477	13	13	5,265	375	478	354,512
전남	455	532	264,236	123	148	27,878	23	26	5,547	601	706	297,661
경북	571	660	325,181	135	168	227,589	23	26	13,184	729	854	565,954
경남	978	1,185	941,062	167	213	51,010	31	37	17,055	1,176	1,435	1,009,127
제주	205	235	79,121	90	90	6,142	0	0	0	295	325	85,263
합 계	8,857	10,579	7,797,120	1,846	2,121	776,869	492	520	193,850	11,195	13,220	8,767,839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9月 合計分)

구분 시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32,981	34,233	19,236,131	762	809	481,399	0	0	0	33,743	35,042	19,717,530
부산	13,108	16,251	7,714,270	1,765	2,253	422,617	341	383	185,576	15,214	18,887	7,782,463
대구	6,361	7,083	4,131,798	3,734	3,931	370,473	296	300	150,758	10,391	11,314	4,653,029
인천	3,657	4,588	5,168,176	226	266	151,258	173	178	83,890	4,056	5,032	5,403,324
광주	3,774	4,097	2,124,651	709	749	233,329	85	85	20,207	4,568	4,931	2,378,187
대전	3,208	4,025	4,850,650	357	386	179,340	793	849	125,716	4,358	5,260	5,155,706
경기	19,746	23,970	22,295,090	1,560	1,786	871,070	652	652	570,060	21,958	26,408	23,736,220
강원	4,331	4,967	1,823,706	1,034	1,239	312,306	158	159	47,756	5,523	6,365	2,183,768
충북	5,389	6,475	3,557,626	909	1,131	467,850	458	458	75,960	6,756	8,064	4,101,436
충남	4,671	5,024	3,208,987	1,075	1,081	380,233	294	298	101,601	6,040	6,403	3,690,821
전북	3,095	3,744	2,759,621	701	797	518,743	169	171	43,274	3,965	4,712	3,321,638
전남	4,959	5,840	2,610,875	1,115	1,509	441,722	232	260	59,890	6,306	7,609	3,112,487
경북	7,103	8,441	4,810,410	1,532	1,899	1,138,449	183	190	126,386	8,818	10,530	6,075,245
경남	11,596	14,092	11,511,997	1,892	2,234	724,474	319	337	132,313	13,807	16,663	12,368,784
제주	2,159	2,491	1,024,826	904	916	84,934	0	0	0	3,063	3,407	1,109,760
합 계	126,138	145,321	96,288,814	18,275	20,986	6,778,197	4,153	4,320	1,723,387	148,566	170,627	104,790,398

用途別 全國圖書申告概況(9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813	3,968	654,572	759	786	46,952	61	62	3,917	4,633	4,816	705,441
다세대주택	805	897	464,302	23	24	2,459	24	30	1,936	852	951	468,697
연립주택	82	113	205,415	3	3	1,237	0	0	0	85	116	206,652
아파트	160	873	3,560,250	10	27	87,292	6	8	5,092	176	908	3,652,634
근린생활시설	2,537	2,639	841,077	425	438	68,733	249	254	91,193	3,211	3,331	1,001,003
종교시설	75	88	44,772	48	55	18,169	4	4	1,072	127	147	64,013
의료시설	9	9	15,948	12	14	26,523	0	0	0	21	23	42,471
교육연구시설	57	76	286,775	55	64	72,584	22	23	9,424	134	163	368,783
업무시설	87	95	366,739	38	40	20,787	10	10	9,264	135	145	396,790
숙박시설	10	33	24,620	3	3	134	12	12	6,858	25	48	31,612
공장	404	704	810,162	191	356	316,582	49	61	35,156	644	1,121	1,161,900
기타	818	1,084	522,488	279	311	115,417	55	56	29,938	1,152	1,451	667,843
합 계	8,857	10,579	7,797,120	1,846	2,121	776,869	492	520	193,850	11,195	13,220	8,767,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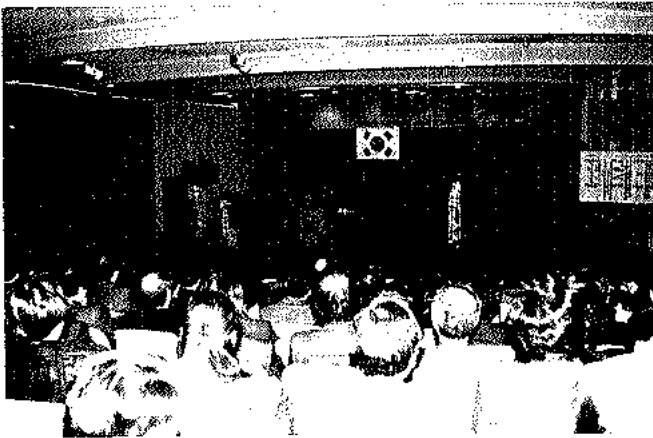
用途別 全國圖書申告概況(1~9월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60,997	62,705	10,255,009	7,973	8,361	526,902	516	520	37,983	69,486	71,586	10,819,894
다세대주택	13,031	14,693	6,754,311	275	294	28,843	157	190	13,904	13,463	15,177	6,797,058
연립주택	1,087	1,497	2,002,701	31	34	12,339	6	6	1,116	1,124	1,537	2,016,156
아파트	2,115	9,967	42,453,753	109	184	298,062	44	63	65,452	2,268	10,214	42,817,267
근린생활시설	34,633	36,422	15,732,810	4,037	4,211	850,818	2,205	2,240	650,644	40,875	42,873	17,234,272
종교시설	786	932	504,518	385	442	159,605	54	57	18,792	1,225	1,431	682,915
의료시설	71	92	425,903	70	82	108,800	22	25	10,089	163	199	544,792
교육연구시설	418	598	1,542,147	528	674	672,593	195	206	93,178	1,141	1,478	2,307,918
업무시설	1,201	1,308	4,680,716	423	448	284,031	96	97	121,019	1,720	1,853	5,085,766
숙박시설	186	250	541,456	71	100	61,149	77	80	77,168	334	430	679,773
공장	4,396	7,600	6,946,091	2,024	3,309	2,648,547	397	429	278,843	6,817	11,338	9,873,481
기타	7,217	9,257	4,449,399	2,349	2,847	1,126,508	384	407	355,199	9,950	12,511	5,931,106
합 계	126,138	145,321	96,288,814	18,275	20,986	6,778,197	4,153	4,320	1,723,387	148,566	170,627	104,790,398

市·道建築士會 定期總會 開催

본 협회 15개 市·道建築士會는 10월중 제26회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92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 승인, 신임 임원 선출등 주요 會務를 의결, 처리하였다.

각 建築士會別 총회 부의사항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건축사회 정기총회

서울特別市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29(화)
- *개최장소 : 본협회 강당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천7백 63명중 4백71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정보비 향을 삭재하고 정보비 예산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판공비로, 1천만원은 홍보선전비로 편성키로 하는 조건으로 원안승인.
 - 1992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

- (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개선 및 선출의 건
- 간사 : 김광욱(유임), 김인하, 박재환, 오원근, 윤희선, 이준구, 임형재, 장준평, 조태웅(신임)
- 감사 : 김 린(유임)
-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 지역대의원 개선 및 선출인원 중 50%는 해당분회에서 선출하고 50%는 집행부에서 선출토록 위임.

釜山直轄市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29(화)
- *개최장소 : 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 *참석인원 : 재직회원 4백3명 중 2백5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부회장 : 변경열(유임)
- 간사 : 허 태, 홍재동, 김지탁, 심재호
- 감사 : 남진관
- 대의원 선출의 건
- 집행부에 위임

大邱直轄市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30(수)
- *개최장소 : 대구파크호텔
- *참석인원 : 재직회원 2백49명 중 2백33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 장 : 오인준
- 부회장 : 이재운
- 간 사 : 조해식, 김팔섭, 권창렬
- 감 사 : 이 성
- 대의원 : 당연직 오인준회장을 포함한 16인

仁川直轄市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25(금)
- *개최장소 : 올림포스호텔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백6명 중 93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회 장 : 허 집
- 부회장 : 고종욱
- 간 사 : 김상욱, 변중석, 오창환
- 감 사 : 이현구
- 대의원 선출의 건
- 집행부에 선출권 위임

光州直轄市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30(수)
- *개최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백23명 중 98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 사 : 박남술, 양동협, 주형신
- 감 사 : 박무길
- 대의원 : 김성현회원등 6인

大田直轄市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23(수)
- *개최장소 : 설악산 설악파크 호텔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백12명 중 69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 : 김종민(유임, 임기1년)

京畿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2. 10. 29(화)
- *개최장소 : 수원 부라운관광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백21명 중 1백55명
- *의결내용 :
 - 19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 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특별회계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사 : 최재남, 조병순, 손원태, 윤영재
- 감사 : 박효남

江原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25(금)
- *개최장소 : 강릉 동해관광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0명중 31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승인의 건
- 부회장 : 이찬호
- 간 사 : 조진원, 안문호
- 감 사 : 이병일
- 대의원 : 김길창, 김화영, 박용인, 이국남

忠淸北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30(수)
- *개최장소 : 충청북도 건축사회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6명중 60명
- *의결내용 :
 -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1년도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부회장 : 이기동
- 간 사 : 신영동, 연제성
- 감 사 : 송인택
- 대의원 : 홍록표, 박오균, 류대현, 김중기

忠淸南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17(목)
- *개최장소 : 설악산 설악파크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5명중 38명
- *의결내용 :
 - 19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개선 및 선출의 건
- 간사 : 안광찬(유임)
- 감사 : 이원희(유임)



충남 건축사회 정기총회

全羅北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29(화)
- *개최장소 : 온양 그랜드 파크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8명중 70명
- *의결내용 :
 - 1992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특별회계사업규정 개정(안)
-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특별회계사업 회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개선 및 선출의 건
- 감 사 : 신생길
- 대의원 : 이상돈, 최락윤, 문준영, 김사육, 전형직, 하정규

全羅南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 1991. 10. 30(수)
- *개최장소 : 추진회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48명중 36명
- *의결내용 :
 - 1991년도 제2회 경정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
- 총 예산 227,267,000원 규모 내에서 일부 항목간 금액조정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부회장 : 김용정(연임)
- 간 사 : 정락구(연임)
- 감 사 : 노상익(연임)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 : 이덕로(연임), 조도인(연임)



慶尙北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1991. 10. 30(수)
- *개최장소: 경주 힐튼호텔
- *참석인원: 재직인원 93명중 79명
- *의결내용:
 - 19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 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 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회 장: 김태웅(보선)
- 부회장: 이상만
- 간 사: 임병욱, 전재기, 장학선
- 감 사: 김준식, 김용관

慶尙南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1991. 10. 23(수)
- *개최장소: 마산 롯데크리스탈호텔
- *참석인원: 재직회원 2백명중 1백34명
- *의결내용:
 - 1992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거규정 개정 시행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 및 추가 선임의 건
- 간사: 이정근, 배준기
- 감사: 허필도



경남 건축사회 정기총회

濟州道建築士會

- *개최일시: 1991. 10. 25(금)
- *개최장소: 제주시 그란관광호텔
- *참석인원: 재직회원 39명중 33명
- *의결내용:
 -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1992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간사 사임서 수리에 관한 건
- 김석운간사의 사임서 수리하기로 결정

서울건축사회 전산실 개소

서울건축사회(회장李文雨)는 회원관리 및 회비관리와 도서신고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각 분회별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고 지난달 10일 전산실 개소식을 실시하였다.

지난 8월 마이크로컴퓨터

SSM-3000을 도입하여 1992년 1월부터 업무의 전산화를 실시하고자 현재 프로그램 개발 및 각 분회와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모델설치 작업과 시험가동이 진행중이다.



서울 건축사회 전산실 개소식

시·구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李文雨)는 지난 18일 롯데호텔 피코크홀에서 시·구의회 의원과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문우회장을 비롯하여 박창호부회장, 시의원 최상혁, 구의원 손정호, 전우대, 최창영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대한 대처방안과 서울건축사회의 당면문제에 대한 사항을 설명듣고 시·구의회 회회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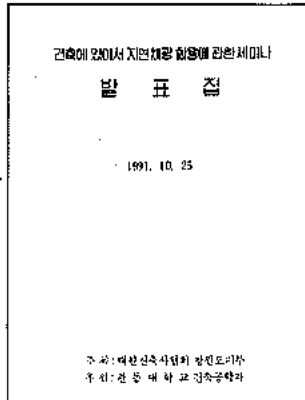
근로자 5~9인 사업장의 당연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일 공포되었다. 영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시 10인 이상의”를 “상시5인 이상의”로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 '9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9인미만의 사업장도 당연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당연적용 일제신고 기간에 사업장 가입자가 될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재직기간등 관련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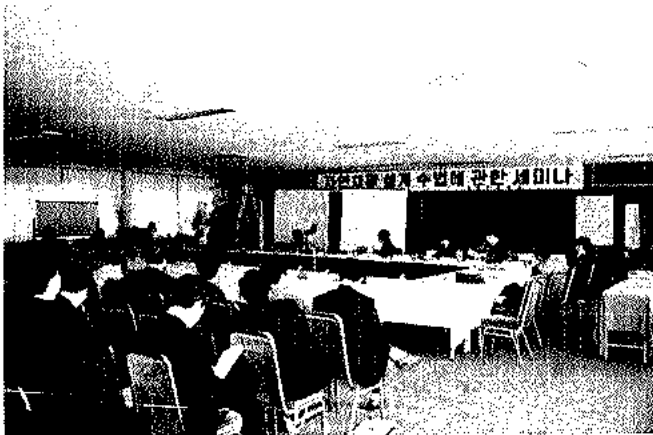
자연채광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강원도건축사회(회장 洪永培)에서는 제26회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지난 25일 “자연채광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도시환경 개선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창작의지의 발현과 공현도의 증대 및 건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적 이용 가치를 넓히는 물론, 자연채광을 이용한 효율적인 생활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는 회원 및 유관단체,



학계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원도 건축사회 세미나

경남 학생건축대전 개최

경남건축사회(회장 崔鳳亨)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경남 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경남학생건축대전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장래를 이끌어갈 후진양성과 새로운 건축풍토 조성을 위하여 개최된 이

번 건축대전에는 경남도내 대학생 85명의 작품 35점이 출품되어 울산대의 김대영외 2명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경남대 이영우외 1명, 장려상에는 경상대 박현숙의 2명등 6개작품이 수상하였다.

남도 한마음축제 행사 참가



남도 한마음 축제 행사 참가

전남 건축사회(회장 金洗鎬)는 경남건축사 회원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경남도민과 전남도민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남도한마음 축제에 경남건축사 회원을 초청하였다.

지난 24일~25일 1박2일에 걸친 이 행사에서 양도 건축사 회원들을 남도 한마음 축제 참관 및 여수시내 고적지 등을 관광하며 서로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회원 단합 대회 개최



전남 회원 단합대회

전남건축사회(회장 金洗鎬)는 '9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0일과 31일 1박2일 동안 회원 친목 단합 대회를 실시하였다.

회원 및 사무직원 29명이 참

석한 이번 단합 대회는 유성운 천 및 화에 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내장산 등을 순회하며 소속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92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 1992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개최
- 1992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2년 1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전문대학 졸업후 2년이내인 자도 응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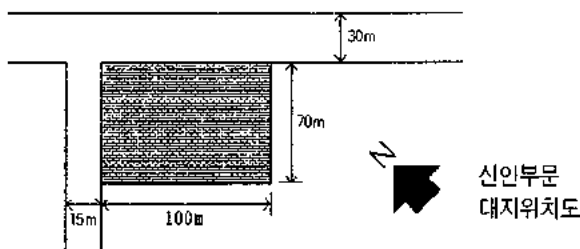
■ 출품내용

◆ 건축사부문

- '89년~'92년 2월 중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

◇ 신인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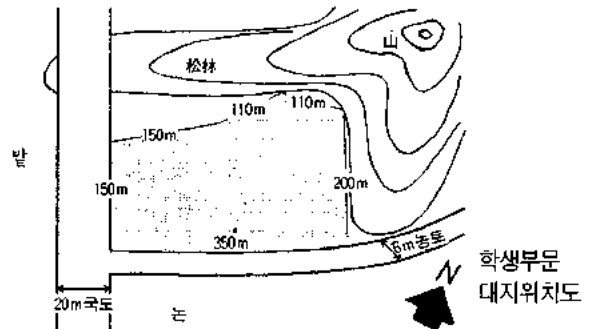
- 1) 주제 : 지역문화회관(Community Center)
- 2) 대지조건 : 주거지역 7,000m²
- 3) 개요 : 인구 20만 단위의 지역문화공간 및 교육복지시설을 주 기능으로 하는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제 활성 대비한 지역주민들 생활의 중심지로 계획함 화에(구민회관 or 군민회관 성격)
 - ① 연면적 7,000m²내외
 - ② 4층 이내
 - ③ 700석 규모의 강당 및 기타시설
 - ④ 주차장은 옥외로 계획할 것
- 4) 주요기능 : 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습실, 체육실, 독서실, 식당 등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作家의 의지에 따라 특성에 맞추어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5) 특기사항 : 현행 건축관계 법규에 맞추어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1) 주제 : 청소년 수련회관(Youth Center)
- 2) 대지조건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 약 60,000m²
- 3) 개요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시설로서 MT또는 복합수련용
 - ① 연면적 5,000m² 내외
 - ② 4층이내
 - ③ 500명 수용 규모의 숙박시설 및 부대 수련시설

- 4) 주요기능 : 강당(500석 수용능력의 다목적 홀), 숙소(4~16인용 침실), 식당 공동 세면장 및 욕탕, 교실(분임토의실), 회의실 등을 기본으로 하되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응모신청 및 작품접수 기간

- 1982년 3월중(상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90cm이내의 규격 패널 2~4매
- ◇ 신인·학생부문 : 120cm×120cm 규격 패널 1매 및 80cm×80cm 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외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신인·학생부문)
-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지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신인·학생부문)

■ 시상

◆ 건축사부문

- *'92한국건축대상⑦ : 상장 및 트로피

◇ 신인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우수상(1)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우수상(1)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장려상(10)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캠버리 파견특전 부여

■ 문의

大韓建築士協會 出版事業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581-5711~4